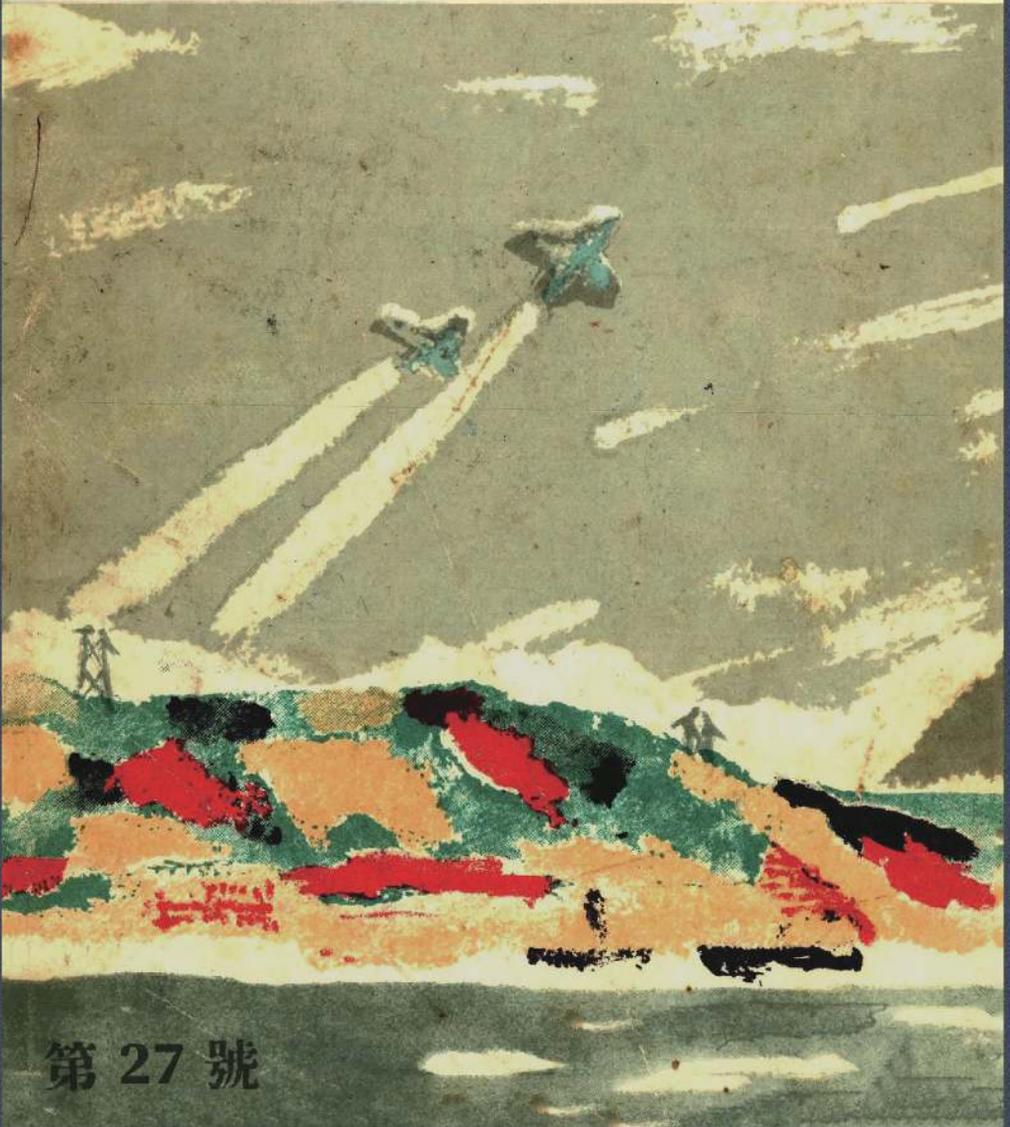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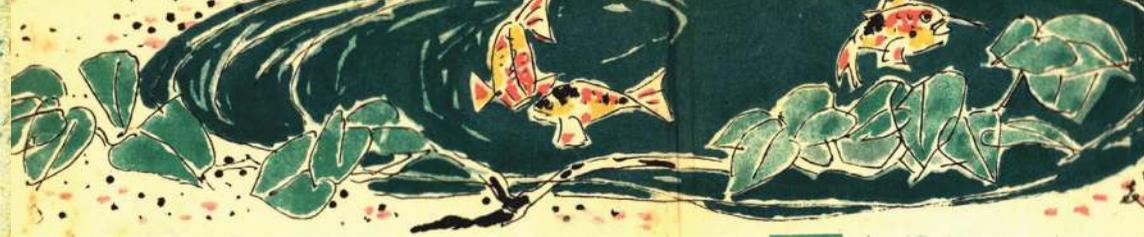


THE COMET

# 코메트



第 27 號



##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항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동(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横須賀 → 요코스카(横須賀)  
 久里濱 → 구라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黒 → 메구로(目黒)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피에테 → 괴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크바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란드 → 핀란드  
 헝가리아 → 헝가리  
 불가리아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짚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별서 → 별씨  
 을 꺼야 → 을 거야  
 씨운 → 씩운

오랭개 → 오랑개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한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거이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손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카바레 → 카바레  
 샴펜 → 샴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댄스파아티어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줄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 코메트 제27호 목차(目次)

- 테이블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써어클 → 써클  
 에피쏘프트 → 에피소드  
 뉴양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내용”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 『 』가 책, 논문일 경우 →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표지(表紙)〉	임창(林創)	
〈목차(目次) 컷, 비(扉) 컷〉	이희세(李喜世)	
☆ 요정(妖精)의 여인(女人)〈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말크 샤갈	
화보(畫報)		
◇ 장(張) 참모총장 미 극동공군 시찰 귀국 시 큐터 대장(大將)과 동도(同途) 내한(來韓)		
◇ 6월 24일 미 공군교향악단 대연주회(大演奏會) 성거(盛舉)		
◇ 이(李) 대통령 각하께서 타드 소장(少將)과 허드넬 소장에게 태극무공훈장 수여		
◇ 장(張) 참모총장 각 예하 단대(團隊)를 순시(瞬視)		
◇ 연합참모부 총장 유재흥(劉載興) 중장 공군 각 기지를 순시		
〈권두언(卷頭言)〉 하늘의 섭리(攝理)	이종승(李鍾勝)	2
전쟁(戰爭)과 평화(平和)의 거리(距離)	김창순(金昌順)	4
동남아(東南亞)의 인상(印象)〈아주반공대회(亞洲反共大會)를 다녀와서〉	공진항(孔鎭恒)	16
하늘의 만리장성(萬里長城)	제임스 윈체스터	26
소련 공군력(空軍力)의 건설자(建設者)	M 글라딕치	34
공군(空軍)의 신무기(新武器)란?〈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의〉	윤응렬(尹應烈)	52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장래(將來)	외지(外誌)에서	67
시원(詩苑)		
고별(告別)〈전사자(戰死者)가 부르는 노래〉	조지훈(趙芝薰)	46
고도(高度) 7천(千)피트의 여심(旅心)	조병화(趙炳華)	48
풀잎을 따서	박성룡(朴成龍)	50
장병시(將兵詩)		
6.25	손효준(孫孝俊)	135



6.25와 한국경제(韓國經濟)·광업관계(鑛業關係) 재건상(再建相)을 중심(中心)으로  
 변희용(卞熙鎔) 72

일상생활(日常生活)과 치아(齒牙) 구철회(具喆會) 105  
 정비사(整備士)와 가정(家庭) 황옥자(黃玉子) 132  
 군인(軍人)과 연애관(戀愛觀) 광하신(郭夏信) 136

☆ 격언(格言)·금언(金言)·명언(名言) 이곳저곳  
 ☆ 만화(漫畫) 핏차 제로 군(君) 입장(林創) 108  
 ☆ 해외만화선(海外漫畫選) 중간중간  
 ☆ 가위와 풀 여기저기

한일관계(韓日關係)의 현재(現在)와 장래(將來) 고제경(高濟經) 10

〈수필(隨筆)〉  
 6.25를 맞으면서 태운기(太倫基) 78  
 이날이 올 때마다 박성환(朴聖煥) 81  
 6.25에 겪은 일 유주현(柳周鉉) 84  
 소위(所謂) 문화인(文化人) 오소백(吳蘇白) 86  
 사랑의 세계(世界) 전영택(田榮澤) 89  
 걸모양과 속 차림 이해복(李蕙馥) 93  
 성하단상(盛夏斷想) 신태민 97  
 글 만들기 조풍연(趙豐衍) 98  
 하늘의 전장심리(戰場心理) 권성근(權成根) 101

교양(教養)  
 한국병제(韓國兵制)의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 이홍직(李弘植) 110  
 국제경찰(國際警察)이란? 한태수(韓太壽) 116  
 노래하는 시(詩)와 생각하는 시(詩) 김규동(金奎東) 120  
 원자물리학(原子物理學)의 역사(歷史)와 방법(方法) 지창렬(池章烈)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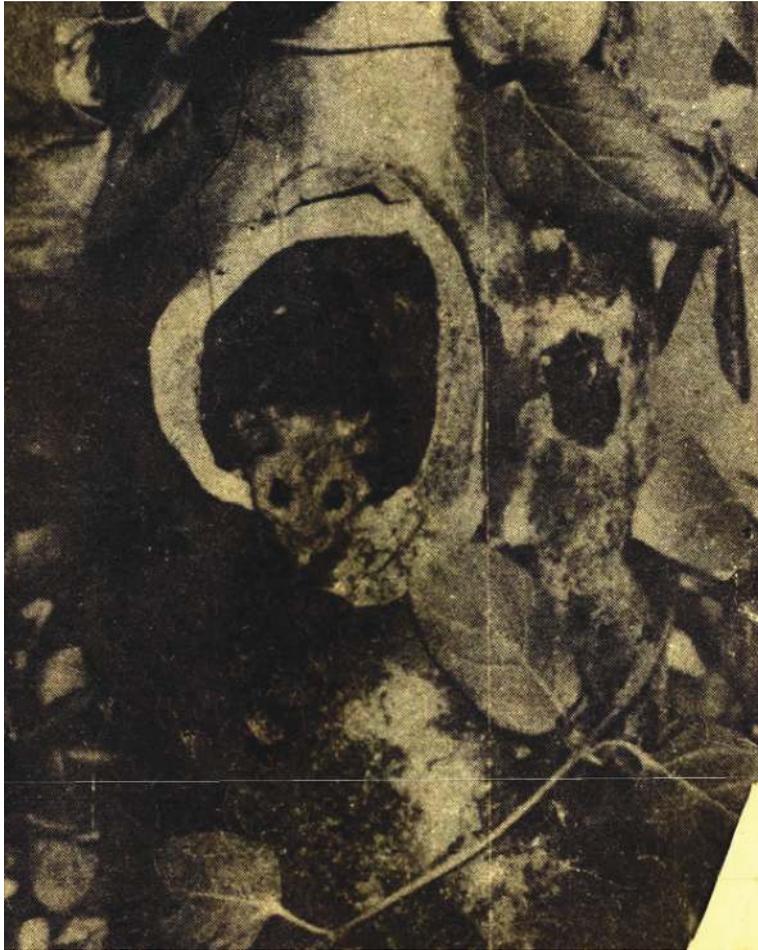
현대무기(現代武器)의 사용(使用)〈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D A 켈스 20  
 평화(平和)를 위한 미군사력(美軍事力) 외지(外誌)에서 157

불멸(不滅)의 명우(名優)〈클라크 게이블〉 박병화(朴秉和) 역(譯) 146  
 〈명작소개(名作紹介)〉 백주(白晝)의 암흑(暗黑) 167  
 〈영화소개(映畫紹介)〉 강(江)의 여인(女人) 170

자유세계(自由世界)의 방위(防衛)와 미국(美國)의 부담(負擔) 외지(外誌)에서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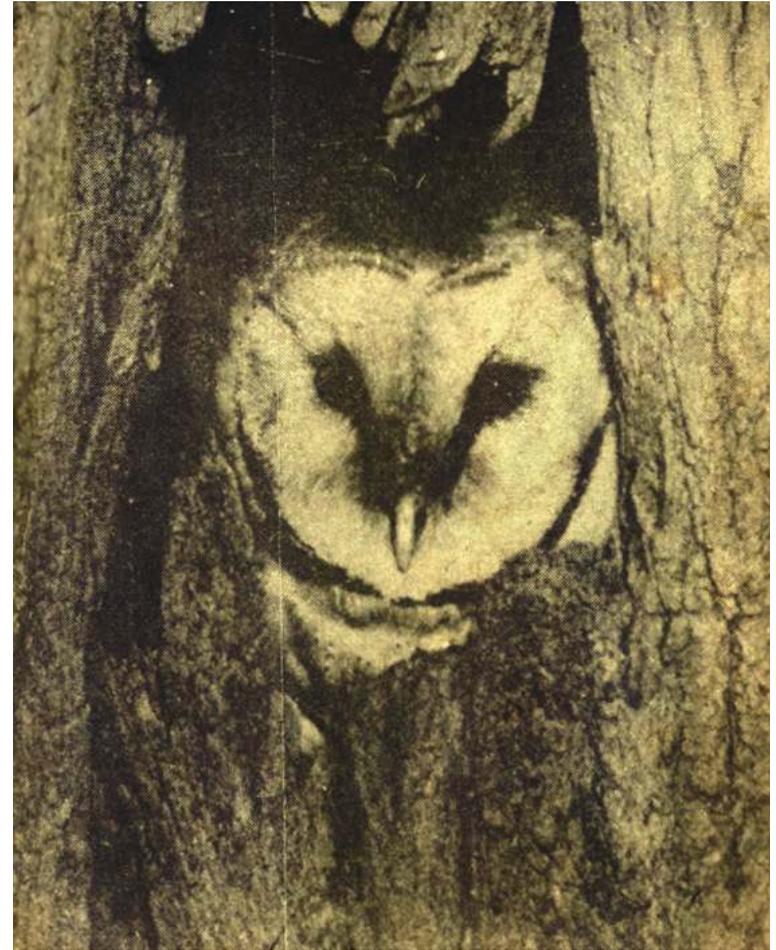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 광재우(郭再祐)〈역사소설(歷史小說)〉 박종화(朴鍾和) 173  
 이식(李植)과 도승(道僧)〈역사소설(歷史小說)〉 고(故) 윤백남(尹白南) 181  
 정복(征服)되지 않는 인민(人民)들〈소설(小說)〉 W 서머릿 몸, 이기석(李基錫) 역(譯) 194

명작사진(名作寫眞)



**White-footed Mouse**

명작사진(名作寫眞)



**Barn owl**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 요정(妖精)의 여인(女人)

말크 샤갈 작(作)  
(Marc Chagall, 1889~)

말크 샤갈은 환상의 화가이다. 현실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꿈과 같은 세계를 현실에 대조하여 설정하려고 한다.

누구나 고요히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의 추억과 상상과 희망이 거품처럼 안저(眼底)에 떠오를 것이다. 샤갈의 그림을 보면 마치 이렇게 추억과 상상과 희망을 거꾸로 비친 비눗물 방울이 떠돌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의 시골에서 나서 유데아와 슬라브의 피를 받고 가난하고 고뇌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그의 예술은 온전히 그의 태어남과 어린 시절의 추억에 의하여 생명을 이루고 있다. 고향 뷔테브스크<sup>1)</sup>의 추억은 잊어지지 않은 것 같으며 현재에도 그 그림의 어디인가에는 옛날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요정의 여인) 그림은 아메리카에서 제작된 것이며, 제2차 대전의 전회(戰禍)를 피하여 그는 뉴욕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수회(數回)의 개전(個展)을 열만큼의 작품을 만들고 있었으나, 멕시코를 여행하여 얻은 제재(題材) 외에는 파리(巴里)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역시 옛날을 회상한 제재이며, 이 그림에 나오는 피에로도, 그네도, 서커스의 악대(樂隊)도, 말의 가면도, 부채도, 모두 낯익은 것들이다. 물론 요정의 여인은 애처(愛妻) 베라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의 슬픈 회상의 그림이 되고 만다. 이 작(作)의 전년(前年)에 부인 베라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베라를 주제로 하여 많은 가작을 냈다. 뮤즈의 신(神)을 잃고, 이 그림은 그의 상심의 작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함인지 지금까지의 그림보다 무엇인지 우수(憂愁)를 느끼게 된다. 피에로의 모습은 그 자신 같기도 하고 둥근 태양은 상시(常時)의 빛을 잃고 죽은 태양처럼 검은 선뿐이며 다만 푸르기만 하다.

1) Viteb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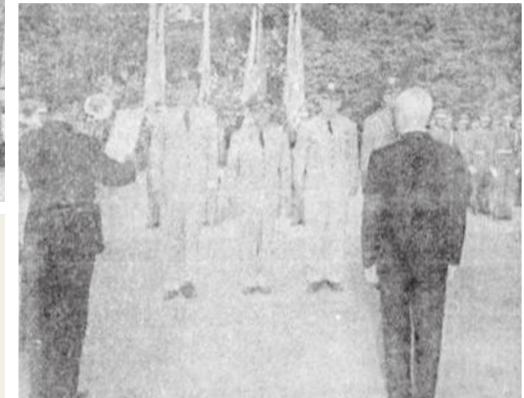


## 장(張) 참모총장 미 극동공군 시찰

총장 귀국 시 큐터 대장(大將)과 동도(同途) 내한(來韓)



이(李)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난 5월 9일 코터 대장과  
그 일행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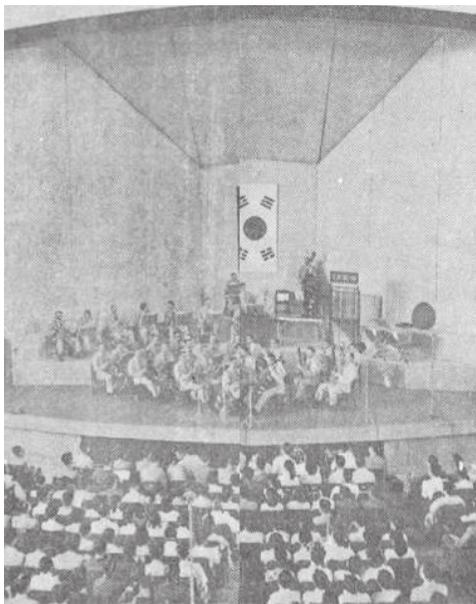


# 미 공군교향악단 대연주회(大演奏會) 성거(盛舉)

6월 24일



소프라니 중사의 아코디언 독주 광경  
노래하는 하사관들의 합창 광경  
트럼펫 독주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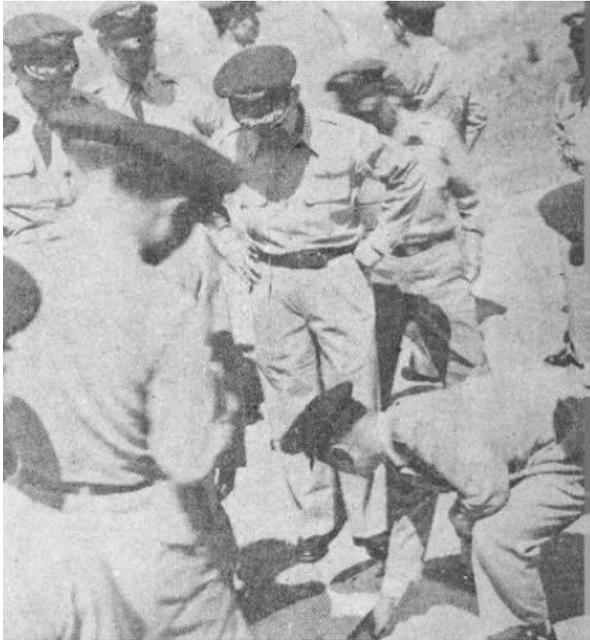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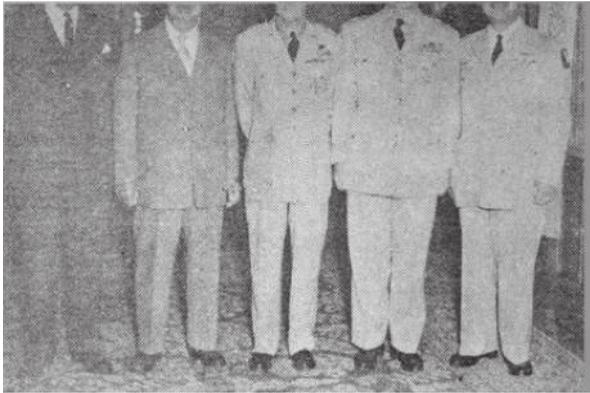


상(上)  
이날 각계의 화환을 받은  
지휘자 하워드 대령

하(下)  
트럼펫 취주(吹奏) 광경



이날 하오(下午) 이한(離韓)에 앞서 화환을 받은 하워드 대령



상(上)

지난 5월 20일 이(李) 대통령께서는 전(前) 미국동공군 부사령관 타드 소장과 태평양 지구 군 수 사령관 허드널 소장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셨다

중(中)

지난 5월 29일부터 각 예하 단대(團隊)를 순시(瞬視)한 장(張) 참모총장께서 제5비행단을 시찰하는 광경

하(下)

연합참모부 총장 유재흥(劉載興) 중장이 공군 각 기지를 순시하였다. 사진은 제10비행단에서

# 코메트

THE COMET



제27호

## 하늘의 섭리(攝理)

정훈감(政訓監) 이종승(李鍾勝)

비 안 오는 여름은 재미가 없다.  
무성하려고 잔뜩 비를 기다리는데 무덥고 흐리멍덩한 날씨만 계속될 뿐 한줄기 소낙비가 없으니 재미가 없다.  
여름의 구실은 무성이다. 젊음의 구실이 의기(意氣)인 것처럼 여름은 천하(天下), 지상 온갖 것이 무성하는 계절인 까닭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가을, 겨울, 봄을 준비해서 여름에 자라나는 것이다. 비가 와야 잘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 공군이 새긴지 10개 성상(星霜), 이제 자라나기 위한 준비는 다 된 셈이다. 초여름을 만난 셈이라 하겠다. 짝이 터서 햇빛에 단련했으니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만이 순리(順理)다.  
비 안 오는 여름은 재미가 없다. 무성해야 할 것이 먼지만 들쓰고 있는 여름이라면 차라리 사람의 힘으로 시원한 물을 퍼 주어야 된다. 불로(不老) 혜택(惠澤)을 바라기 힘들거든 관개공사에 힘을 기우려 인위(人爲)로라도 자라날 것은 자라도록 해야 하겠다.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해서는 무능하다는 말을 면치 못한다. 노력하는 동안에 하늘은 비를 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인정한다면 우리 공군은 이 하늘의 섭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체득해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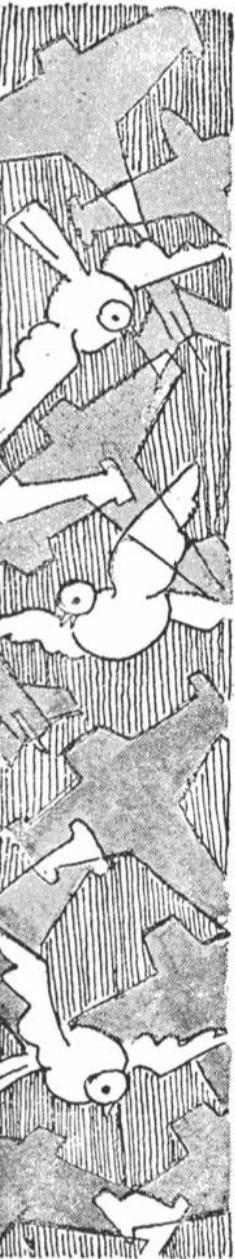
천하가 가무는데 조그마한 붓돌 창에 물을 대는 것은 보기에 우습다. 그러나 누구나 합심해서 물을 대면 한재(旱災)도 무색(無色)하여 비를 주는 법이다.

가물어 초조하다. 구름은 오락가락하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가무는 것은 아니니 이 여름의 포부(抱負)가 다.

미구(未久)에 내릴 시원한 감우(甘雨)에 춤추며 무성하는 우리 공군.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면 전도(前途)의 번성을 미리 볼 수가 있다. 축연(祝宴)의 날이 기다려진다.





# 전쟁(戰爭)과 평화(平和)의 거리(距離)

김창순(金昌順)

## 1. 무장(武裝), 균형(均衡), 평화문제(平和問題)

지금은 '평화공존'이 아니라 '무장공존'의 시기라고 하겠다.

무장공존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참을 수 없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세계문제의 축소(縮圖)라고 본다. 병기발달(兵器發達)의 경쟁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손을 뗄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장의 균형을 상실했을 때 전쟁 유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리라는 바로 그 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가 두 개의 적대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전쟁의 공황이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병기발달의 경쟁을 어느 일방이 먼저 포기할 수 없게 되었고 또 그 한(限)에 있어서 원자력발달을 인류애(人類愛)의 원칙에 결부시키려 하는 것은 피차일반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세태(世態)를 말하여 '무장공존'의 시기라고 불러보았다.

이러한 시기는 전쟁과 평화의 중간이정(中間里程)이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록 이 시기가 전쟁상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쟁의 위험성을 그대로 내포한 상태이며 그리하여 그것은 또 평화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나 그러한 평화 상태는 전쟁위협 앞에서 전율(戰慄)하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불안전(不안전) 평화'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의 명제를 동반한 근대병기의 발달은 다음에서 다음으로 일진일보(日進一步)하고 있는 것만도 사실인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 없이도 세계문제의 신진대사를 족히 이룩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예컨대 미국의 병기발달이 압도적으로 소련의 그것을 제압했을 때 공산권의 붕괴를 자초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전쟁 없이도 세계문제의 신진대사를 가(可)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반대로 소련의 그것이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일이 있다고 가상했을 때 그로 말미암은 세계문제의 변혁이 그 얼마나 가공(可)할 것

이겠는가? 를 상(想)도(想到)한다만 우리는 새삼스러이 병기발달의 경쟁문제에 대해서 목전의 경졸(輕卒)을 광(狂)할 수가 없는 것이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미국과 소련이 병기발달의 경쟁을 지속함에 있어서 이 두 개의 평행선이 현재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으며 또 장차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이나 소련이 자국의 열핵무기 우세를 연장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서로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리하여 미소(美蘇) 양국 간에 열핵무기 생산경쟁이 음(陰)으로 음(陽)으로 치열해졌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비밀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에 누가 이 경쟁에서 먼저 손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초점(焦點)이리라.

오늘날 반공동맹의 제(諸)군사기구와 자유진영 제국가의 군비강화가 미국의 군수산업을 더욱 변영(變映)케 할 공산이 많다면 이것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소련에 대한 군사적 공격력을 세계적 규모에서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변영은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자본주의체계를 강화시키고야 말 것이며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는 능동력(能動力)으로 될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되면 미국의 독점세력이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자본주의체계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리란 소련의 자위적(自衛的) 전망은 현실적 의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못된다.

소련은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제도 그 자체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세계정책일 것이고 또한 소련에 대한 군사적 포위와 그 공격을 와해시키자는 것이 역사상으로 일관한 노력인데 이제 그것이 병기발달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목표가 모두 붕괴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타격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세계자본주의의 멸망에 관한 공산주의의 신조(信條)는 신화(神話)와도 같이 맹랑해 질 것이며 자본주의 포위망의 해체에 관한 그들의 '승산'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런 경우에 한하여 공산주의가 골라잡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냉전해소의 호소'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병기발달의 경쟁을 쌍방이 모두 포기하자는 집요한 군비축소의 제청(提請)으로 크게 표시되었다.

## 2. 군축냉전(軍縮冷戰)의 우회전술(迂迴戰術)

소련이 무엇 때문에 '냉전해소의 호소'를 입 밖에 하게 되었는가? 를 근대병기

발달의 경쟁에 국한시켜서 이상과 여(如)히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그렇지만 소련의 '냉전해소'는 객관정세 - 외부적 조건만에 좌우되는 것만도 아니다.

소련의 내정 - 즉 군수산업의 계속적인 치증이 일정한 단계서 이르러 더 지탱하기가 곤란해진 경우를 지적하여 '소련 평화판(平和版)'의 현실성을 운위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만일 그런 것이 소련으로 하여금 '냉전해소의 평화판'을 꾸미게 한 주인으로 될 수 있다면 소련 국내정책의 중점 구성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수정을 면치 못하거나 부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겠다.

그렇지만 소련의 제6차 5개년계획과 소공당(蘇共黨)의 경제정책 지령은 아직껏 중공업 우선주의를 버리지 않았으며 군수산업의 감축을 의도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군수산업의 계속적인 치증이 불가능해져서 소련은 드디어 '군축'을 제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문제의 전 국면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라곤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 데는 찬성이다.

우리가 알기에 소련은 아직껏 그 세계정책에 있어서나 국내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대결주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더불어 '평화흥정'을 걸고 있는 것이 현금(現今)의 소련의 '냉전해소 호소'이다. 그러면 소련의 의도는 뭐냐?

1. 냉전이 지속되면 원자병기의 분야에서 압도적 우월을 다투는 경쟁이 지속된다.

※ 원자병기의 경쟁시기에 있어서 세론(世論)은 반드시 미국만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련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만이 휴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미국을 호전(好戰)국가라고 비난하여 세계 여론 앞에서 고립시키고 소위 평화진영을 강화한다고 하던 소련 자신이 더욱 추악한 구두선(口頭禪)으로 되어 질 것이다.

2. 냉전의 지속은 불가피적으로 반공진영의 제국(諸國)을 결속시킬 것이겠고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재군비를 촉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수생산을 더욱 증강시키게 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경제의 공황 도래는 더욱 잠꼬대와도 같은 신화로 화(化)하고 말 것이다. 이어서 전후(戰後) 10년 내외에 미국경제가 공황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고 규정했던 스탈린의 경제학설이 오늘에 이르러 크렘린 당국자들의 부정을 받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흥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3. 냉전의 지속은 미국의 '군원(軍援) 및 경원(經援)정책'을 합리화시킬 것이겠

고 각국 내의 공산당불법화를 촉구시킬지도 모를 일이다.

※ 작금년(昨今年)에 있는 서독, 요르단, 필리핀의 공산당불법화 조치는 호개(好個)의 예이다.

4. 냉전의 지속은 각국의 군비정책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저개발지역과 정치적 후진지역까지도 미국의 군사경제권 내에 포괄될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 책임은 소련이 져야 한다.

5. 냉전의 지속은 소련위성국가의 동요를 조장시킬 것이겠고 그것은 그들 국가의 내부적 해방운동까지를 야기할는지 모른다.

6. 이와 같은 제(諸)형세의 경화(硬化)는 소련의 안전보장까지를 협위하게 될는지 모르며 소련의 군사적 점령지역을 '제2의 쏘베트'화하려던 시기의 안전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중공을 비롯한 공산권제국의 '사회주의건설단계'를 보장하자는 의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대저(大抵) 이상과 같은 것들이 병기발달의 경쟁을 지양하자는 소련 호소의 이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상으로 소련이 항상 허위적인 군축 제청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1922년 제노아 회의 시에 아닌 밤중에 흥두깨 내밀듯 군축제안을 한 것도 바로 그 소련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제안에 한 번도 생활상으로 충실한 적이 없었다.

또 1928년 케록 부전조약(不戰條約)에 관하여 맨 먼저 '평화 의정서(議定書)'<sup>2)</sup>에 도장을 찍은 것도 소련이었지만 그들은 이것으로 타국을 안심시키고 그 시기를 이용차여 소련의 중무장계획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2차 대전 종결 이래 세계 군비축소문제가 오늘날까지

현안(懸案)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소련의 언약을 믿을 수 없다는 바로 그 점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본다. 이것은 당위적(當爲的)인 회의(懷疑)였으며 이 회의의 해소를 보장하는 소련의 행동이 입증되지 않는 한 좀처럼 군축협정이란 달성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런던에서 개최 중인 유엔 5개국 군축분과위원회가 미소 양국의 이견 축소를 얻어 어떤 협정을 성립시킬 수 있는 가망성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빈번히 전제되고 있지만 가사(假使) 그런 부분적인 협정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발전된 형태의 냉전양상 일지언정 결코 세계평화의 전면적 안전을 보장

2) 원문에는 의정당(議定當)로 되어 있으나 의정서(議定書)의 오기임.

하는 것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그런 협정은 소련의 우회전술이 더 많이 작용한 냉전의 산물일 수밖에 없으므로 서방측이 그런 줄을 뻗히 알면서도 또 한 번 응전해 모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3. 중동정정(中東政情)의 축소(縮圖)

수에즈전쟁 사태에 뒤이어 폭발한 요르단의 변혁은 어느 모로 보든지 중동정정<sup>3)</sup>의 축소일 수밖에 없었다. 또 그것은 중동의 전쟁, 평화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여 수에즈전쟁 사태 이후의 중동문제란 것은 영(英), 불군(佛軍)의 철수로 인한 공백상태를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메우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현상타파를 원하는 아랍민족주의운동과 어떻게 결부되는가 하는 문제기도 했다.

소련의 중동정책은 재빠르게 아랍민족주의의 이 현상타파 염원에 편승하려 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상타파란 것은 여러 말할 것도 없이 식민주의 반대와 아랍민족국가의 독립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불(英佛)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아랍민족의 투쟁일 수밖에 없었다.

중동에 대한 영불의 고전(古典)정책이 거의 퇴색할 무렵에 아랍민족주의운동에는 자가 변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랍민족주의운동의 대상이 주로 영불이었다. 영불 세력을 구축(驅逐)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소련이 아랍의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방편적(方便的)으로라도 그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한때 아랍권 내에 용공(容共)정책이란 것이 일정한 매력을 보여준 것만도 사실이겠으나 영불 세력이 구체적으로 퇴색하고 난 뒤에 있어서는 반드시 용공정책만이 유효하다는 논리는 서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아랍권의 국가적 독립을 보장하는 데는 무엇 무엇해도 용공정책이어야 한다던 왕년의 방편주의는 그만 무색해지고 말았다.

사실에 있어서 미국이 영불과 다름없는 식민주의국가인지의 여부는 아랍 지도자들에 의하여 새삼스러운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크게 제시되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의 정책상 정신이 아랍민족의 국가적 독립을 옹호하는 것

3) 원문의 한자는 情情으로 되어 있으나 政情의 오기로 보임.

으로 되어있는 한 그것은 아랍민족주의운동을 옹호하는 것이 되며 아랍민(民) 민족주의운동을 옹호한다는 사실은 아랍권(圈)에 대한 그 어떤 식민정책도 반대한다는 것으로 될 터이니까 이렇게 되면 기왕의 영불 정책만이 아니라 소련의 촉수(觸手)도 해당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소련을 영불보다도 더 무서운 근대판 식민국가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영불과 다름없는 식민주의국가로 볼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아랍민족주의운동의 신(新)노선은 측정<sup>4)</sup>될 것이며 중동사태도 귀결을 짓고야 말 일이다.

요르단의 국내변혁은 옹공방편주의를 구축해버렸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 현실적 가치는 컸다고 본다.

이로 말미암아 아랍권의 친서방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강되고 있는 것만도 사실이며 미국의 대(對)중동정책을 성공시키고 있는 것만도 또한 사실인 것 같다.

원칙적으로 보아 아랍민족주의의 고동으로 말미암아 확대된 중동사태란 것은 아(亞), 아(阿) 지역의 신생민족주의운동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동에서 미국이 큰 위협과 시련에 부딪침이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장차 미국이 아, 아 지역에서 소련이 미국에 뒤집어씌우려는 제국적(帝國) 전쟁을 맡지 않고 공산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는 전조(前兆)를 보여준 것으로서 크게 호평을 받게 될 것이다.

(필자(筆者) 시사평론인(時事評論人))

(114페이지에서 계속)

일반 민정(民丁)을 무제한으로 징집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어 평시에는 귀농케 하고 비상시에만 소집케 하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신제(新制)였던 것이다. 또한 이 밖에 고려 말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왜구가 심하여 지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코자 국도(國都) 개경(開京)의 민정을 모집하여 5부방(五部坊)을 만들고 지방에서는 연호군(煙戶軍)을 조직케 하였다.

그러나 권신(權臣) 간에 정권쟁탈이 벌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계속되고 경제사회가 극도로 문란하여지게 되자 국초(國初)부터 내려오던 부병제(府兵制)는 점점 무너지게 되었으니, 국가의 간성(干城)인 공병(公兵)이 무력하여질 뿐더러 권문세가(權門勢家)는 다시금 많은 사병(私兵)을 영유(領有)하게 되었으니 여기에 공병제(公兵制)에 입각한 고려왕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차호(次號) 계속(繼續))

(필자 연세대(延世大) 교수(教授))

4) 원문의 한자 測定은 測定의 오기임.

# 한일관계(韓日關係)의 현재(現在)와 장래(將來)

고제경(高濟經)

## 1. 서언(序言)

패전국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한 뒤인 1951년 10월 한일 양국 간의 국교 조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후 3차에 걸쳐 진행된 한일 교섭이 일본 측의 당돌한 주장과 고집으로 인하여 결렬됨으로써 한일 양국의 관계는 더욱 소원하여졌고 사실상 바다 하나 건너의 인접국가인 양국은 가까우면서도 먼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숨김 없는 사실이다.

가장 가까워야 하고 또 가장 빈번한 접촉이 있어야만 할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유리(遊離)된 직접적인 원인을 더듬어 볼 때 그것은 물론 1953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한일회담에서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久保田)에 의하여 도발된 소위 '구보타 망언'과 우리 한국재산의 85퍼센트를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대한재산청구권(對韓財產請求權)에 기인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황당무계(荒唐無稽)한 태도로 인하여 이후 3년여(餘)를 두고 두 나라의 관계는 완전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상항(桑港)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전후하여 한일 양국의 조속한 국교 회복을 의도하는 스캔(SCAP 미 극동군사령부)의 주선에 대하여 본심에 없는 회담에 응하였던 당시의 일본 정부인 요시다(吉田) 내각 - 그 뒤를 이은 하토야마(鳩山) 내각이 물러가고 금년 초 이시바시(石橋) 수상의 대를 이은 기시(岸) 내각이 성립됨으로써 양국 간에 걸쳐 있는 한일 교섭은 재차 이면(裏面) 교섭을 통하여 활기를 띠우며 표면화하기 시작하였고 과거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던 성명전(聲明戰)은 부산(釜山)에 수용되어 있는 형기를 마친 일본인 어부와 일본 오무라(大村)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의 상호 석방이라는 한일관계로 보아서는 극히 지엽적(枝葉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억류자 상호 석방문제로 말미암아 암초에 부딪쳐 있는 한일회담 자체를 재개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요인을 조성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찰할 때 물론 일본 정부 수뇌가 대한(對韓) 수교를 지향하고 있고 과거 어느 일본 내각보다도 현 기시 내각이 한일 관계에 관심을 표시(抱持)하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그 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일회담 결렬 이후 대일(對日) 강경책을 주창하던 우리 정부가 지난 1월 대일 3개 항목의 본 회담 재개제안을 한 이래 꾸준히 이면 예비교섭에 임해 왔다는 것과 주일(駐日) 대표부 진용을 '공사급'에서 '대사급'으로 강화하여 재계(財界)의 거물인 김유택(金裕澤) 대사를 임명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두 나라의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접근과 회담에 대비하는 신중하고도 착실한 정치적 포석은 한일 양국이 현재까지 끌어온 양국 간에 가로놓인 딜레마를 해소시키고 머지않아 본 회담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관측을 더욱 농후하게 하고 있다.



## 2. 현재(現在)까지의 경위(經緯)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3차에 걸친 회담이 어떠한 경로를 밟아왔으며 또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결렬됨으로써 한일교섭이 3년여라는 시일을 백지로 환원하였는가 하는 점은 한일관계의 앞날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대일(對日) 강화조약 체결 전 우리 정부는 근 60만이나 되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를 확립시키고 나아가서는 양국 간의 조속한 수교를 목적으로 누차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그들은 스캔 측 관리 입회하의 회담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며 '회담 개최 준비의 미비'를 이유로 차일피일(此日彼日) 회담을 천연(遷延)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스캔 측의 권유로 동년 10월 도쿄에서 제1차 회담을 개최하고

1. 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
2. 선박 반환문제
3. 기본조약문제
4. 재산 및 청구권문제
5. 어업협정문제.
6. 기타 문제 등을 토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는 불성실 한 것으로 특히 교포의 국적 문제에 있어서는 재일한국인을 일본 정부는 마땅히 외국인 대우를 하여야 함은 물론 8.15전부터 일본에 영주권을 가지는 그들에게 '내국민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적문제에 있어 당연히 한국국적을 가져야 할 재일교포의 국적문제와 그들의 처우문제에 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서명으로 주권이 회복된 것을 미끼로 회담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 하려고 획책함으로써 제1차 회담이 중단된 것이다.

일본 측의 이와 같은 의식적인 회담 기피로 인하여 제1차 회담이 중단되었으나 다음해 2월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크라크 대장의 알선(斡旋)으로 제2차 회담을 가졌으나 이것 역시 실패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으며 다음 해인 1953년 10월에 다시 속개(續開)된 제3차 회담도 바로 '구보타 망언'과 한국재산의 85퍼센트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의 당돌한 태도로 말미암아 회담은 부서지고 만 것이다.

한일관계를 극도로 자극하여 양국의 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은 구보타 망언의 골자란,

첫째, 일본의 36년간에 걸친 한국 통치는 한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상 이득을 가져왔다.

둘째, 대일(對日) 강화조약 전(前)에 한국이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셋째, 카이로,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의 전시(戰時) 히스테리아 등으로 이는 국제 외교협상에 있어 일국(一國)을 대표하는 수석대표에 의하여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폭언이요 망언인 것이다.

구보타의 이와 같은 폭언과 함께 제3차 회담 결렬의 접적 요인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이 한국재산의 85퍼센트를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해온 사실이다.

일본 측은 일본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한국 정부의 대일 재산청구권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확실한 언질(言質)을 주지 않고 다만 그네들의 대한 재산청구권만을 강경히 주장하고 우리 정부 수립 전 미 군정청(軍政廳)이 대한민국 내의 일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에 대한 명백한 국제법상의 위반행위라고 말하며 불합리한 주장만 되풀이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 조약 제2, 4, 9, 12조 규정을 부인하는 태도로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일본 측의 적반하장(賊反荷杖)적인 주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첫째, 그들은 한국 측이 취득(積得)한 소유권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영미(英美)법의 유리한 조항 중 신탁양도의 법 이론을 채용하고 있는데 일인(日人) 재산의 처분을 규정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33호는 귀속 소유라는 간단한 명문만이 있을 뿐 하등 균형(均衡) 법 이론과 신탁이론에 관련되는 명문이나 암시 규정이 없고

둘째, 군정법령 제33호는 한국에 있는 일본공유재산과 일본인 사유재산의 구별이 있다고 일본 측은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무리한 억설이며

셋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은 연합국 내의 일본 공, 사유재산의 구별이 없으며 연합국 내의 일인(日人) 사유재산 처분과 그 정신을 같이한다는 것으로 일본이 회담에서 얼마나 전후(前後) 모순되는 억설을 가지고 임했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3. 예비교섭(豫備交涉)의 개황(概況)

일본 측의 전술(前術)한 바와 같은 구보타 망언과 재한 재산청구권으로 말미암아 한일교섭이 1953년 10월 결렬된 이후 한일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 제3차 회담의 결렬책임을 져야만 할 일본 요시다 내각이 물러가고 하토야마 내각이 성립되었지만 하토야마 내각 역시 요시다와 다름없이 한일관계는 별다른 성의를 표시하지 않을 뿐더러 회담결렬로부터 2년 후인 바로 작년 4월에는 '쌍방 억류자 석방'에 있어 김용식(金溶植) 공사(公使)와 시게미쓰(重光) 외상(外相) 간에 완전한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의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겨우 마련된 '김(金) 시게미쓰 약정(約定)'도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하토야마 내각의 이와 같은 한일 외교에 대한 부조화(不調和)는 자연 시일을 천연(遷延)케 하였는데 솔직하게 평가할 때 하토야마 역시 한일문제에 대하여는 요시다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성의가 없었다.

결국한 한일문제는 양국에 의하여 교섭의 문호가 영구히 닫힌 듯한 느낌을 주게 하던 차에 급차의 기시 내각이 성립되고 또 그들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열의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됨으로써 다시 구체화된 것이다.

기시 일본 수상이 한일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물론 양국의 정상적인 국교회복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더 절실한 요인은 부산(釜山)에 수용되어 있는 일본 어부를 데려가자는데 있는 것 같다. 한국과 바

다 건너로 접하고 있는 일본 아마구치 현(山口縣) 출신인 그로서는 자기 출신구(出身區) 어민들의 생계와 앞날을 위하여서라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싶은 충격을 받게 된 듯하며 사실 억류자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의 개선은 기시 내각으로서 가장 큰 미결의 외교문제가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한일교섭은 금년 정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던 암운이 차츰 벗겨지기 시작하였고 1월 중순 조(曹) 외무부장관에 의하여 3개 항목의 최종 제안이 공표되었던 것이다. 이 3개 항목의 제안이란 (1) 구보타 망언의 취소와 재한 재산청구권의 포기 (2) 쌍방 억류자의 조속한 석방문제 (3) 기타 본 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교섭의 마련 등으로 우리정부의 능동적인 외교조처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향을 초래하여 쌍방 대표 간에 비공식 예비교섭이 진척된 것이다. 이 예비교섭의 특징은 과거 3차에 걸친 한일회담 결렬의 요인을 신중히 검토하여 제4차 회담은 예비교섭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형식을 밟게 하자는 것이고 모든 것을 문서화하여 본 회담 전에 구상서(口上書), 각서(覺書), 의사록(議事錄)을 작성 회부케 함으로써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 점(點) 쌍방이 모두 신중하고 착실하게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김용식 공사 그리고 김 공사의 뒤를 이은 김유택 대사의 교섭 경위를 볼 때 일본 측은 우리 재개 조건대로 응하여 구보타 망언, 재한 재산청구권의 포기 등을 비공식으로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15전 한국선적(韓國船籍)을 가지고 있던 약 9만 5천 톤의 선박 국보미술품의 반환 등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그 반면 우리 측에 대하여 평화선(平和線)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의 양보를 얻으려는 심산인 것만 같다. 그 단적인 일례(一例)로 예비교섭에 있어 일본 측은 부산에서 형기를 마친 약 8백 명의 일본인 어부와 일본 오후라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약 1천 2백 명의 한국인 상호 석방문제에 대하여 형기를 마친 어부에 국한 지을 것이 아니라 전체 일본인 어부와 억류 한국인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 측이 이와 같이 '형기 만료 어부'의 석방이란 문제에 조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형기 자체를 긍정하게 된다면 그들 일본 어부가 전부 우리나라가 설정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4285년 1월 18일 선언, 일명 '평화선')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측의 이와 같은 관점은 여기까지 우리의 해양주권선인 평화선을 부인해 보려던 태도에서 나왔다고 보아도 무방한 일이지만 우리 한국 측으로 보아서는 이와 같은 평화선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예비교섭에서 형기 표현문제와 함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일본 측이 대한 재산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문제 밖의 일이나 다만 우리가 일본에 청구할 현물 및 현금 반환문제이다. 일본 측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이 대일 재산청구권 속에는 국보, 미술품, 선박 반환 이외에 구(舊) 조선은행 지금(地金) 8.15 전(前) 한국인이 일본공공기관에 예치한 각종 예치금, 구 일본군에 복무한 군인, 군속 징용노무자의 미불금, 조위금(弔慰金), 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본 회담을 앞둔 현 예비교섭의 핵심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건이 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은 어느 정도 현물 반환에 응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협만 순조로이 된다면 일괄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3개 문서의 사전(事前) 교환이 실현될 수 있는 단계에 놓인 것이다.

#### 4. 한일교섭(韓日交涉)의 금후(今後)

허다한 난관과 우여곡절을 거쳐 온 한일교섭이 김유택 대사를 수반으로 하는 주일 대표부의 강화와 기시 내각의 적극성 있는 태도로 호전되었고 과거의 이번 교섭은 정식으로 표면화하게 되어 현재 다만 양국 수뇌의 '정치적 타협'만을 기다리는 최종 국면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예비교섭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던 외교 '옵서버'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일관계는 회담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현물 반환'과 '형기 표현'에 대하여 기시 수상이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에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순조로이 풀려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며 그와 같은 '성의 있는 결단성'은 그가 6월 18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해결하리라고 장담하던 그의 결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하간 현재의 한일 예비교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접근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단정적으로 한일 제4차 본 회담을 7월 중에 개최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만일 이번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는 날이면 한일 교섭은 1953년 이전으로 환원하여 금후 수년간은 재교섭의 실마리가 다시 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치 양보할 수 있는 최종의 선을 획정(劃定)하고 교섭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우리 한국 측 태도에 대하여 기시 내각의 표시할 수 있는 성의의 척도, 그것은 회담 재개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筆者) 서울신문사편집국장(新聞社編輯局長))

## 동남아(東南亞)의 인상(印象)

아주반공대회(亞洲反共大會)를 다녀와서

공진항(孔鎭恒)

아세아민족 반공연맹은 1954년 6월에 처음으로 진해(鎭海)에서 창설되었고 얼마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생하여 작년 3월에 마닐라에서 제2차 대회를 열었으며 금년 3월 27일에 사이공에서 제3차 대회를 열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공산세력은 세계적인 고민인 동시에 이 세력을 쳐부수는 일은 단독으로 할 바가 아니요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위선(爲先) 인근(隣近)되는 동남아 반공국가들이 뭉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조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동남아에 있는 반공국가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북위 10도선 이내의 열대 또는 아열대에 드는 지역으로서 모든 것이 우리나라와는 판이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공산침해를 받은 또는 경험한 점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은 심각한 맛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먼저 동남아의 지리환경에서 받은 인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자신은 해방 전에 만주리(滿洲里) 가까이 있는 흥안령(興安嶺) 산록(山麓)에서 개척 사업을 한 경험이, 다시 말하면 엄한을 극복하는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하여온 만큼 언제나 긴장하여 짧은 여름철에 어떻게 분투하여야 과동(過冬)할 식량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의식 가운데 살아온 만큼 영원한 여름 가운데 자연의 위력(威嚇)이 비교적 적은 이 지역에서 움직이는 인민들의 생활철학을 알기에는 상당한 공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온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찰나에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데 마음이 끌리게 된다. 따라서 철학적이며 의식적인 사고보다도 육감적이요 현실적인 감각에 마음이 기울어지기 쉽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동남아의 인상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總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역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논할밖에 없다고 보는 만큼 월남(越南)[베트남], 비올빈(比律) 5) 원문의 총괄을 총괄로 함.

賓[필리핀], 향항(香港)[홍콩], 대만(臺灣)[타이완] 등으로 나누워서 말하려 한다.

베트남은 불란서 세력 아래 거의 백년간이나 살아온 만큼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지마는 이 나라라는 언어와 생활방식에 있어 근본적으로 중국문화에 뿌리박고 있다. 따라서 한 민족단위로서 고유한 창조적 문화의 자취는 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농촌경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원시농업에 가깝다고 본다. 주식은 미곡(米穀)이며, 기후관계로 연 2모작을 할 수 있으나 수리사업(水利事業)은 그다지 발달되지 못했다.

1954년 9월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북위 17도선 이북은 호志明(胡志明) 공산정권이 용인되고 이남은 오(吳)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베트남국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불란서 세력은 완전히 물러가고 말았다.

반공사상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대단히 열렬한 티로 국가의 예산 가운데에서 막대한 비용을 반공선전계몽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나라의 정보청년장관(情報靑年長官)이 직접 반공연맹 이사장으로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번 3월 27일부터의 제3차 대회는 그 조직과 범위에 있어서 가장 컸던 것이다.

필리핀은 4백여 년간 서반아(西班牙)[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한 근 40년간 미국의 세력 하에 있어온 만큼 두 문명이 교류되어 있고, 농촌경제는 원시상태를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다. 수리사업도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민족고유의 문화나 전통은 찾을 길이 없고 수입(收入) 실력보다도 생활수준은 대단 높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 제국(諸國)의 모든 지도계급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된 세기적인 비애(悲哀)로서 다만 일본만이 서양의 과학과 생산기술을 완전히 소화하여 국민경제를 현대적인 기반위에 올려놓고 있을 따름이다.

이 나라는 연전(年前)에 국내적인 공산주의세력으로 말미암아 일시 혼란하였으나 고(故) 막사이사이 대통령의 혜지(慧智)와 용단(勇斷)에 의해서 그 세력을 부수고 말았다. 외적으로의 위협이 없어서 그런지 반공운동은 그다지 보잘 것이 없고 그 조직과 운동에 있어서 한국만 못하다고 본다.

홍콩은 반공운동에 있어서는 보잘 것이 없고 용공(容共)정책으로 나가는 영국 식민지인만큼 다만 무역중심지로서 존립할따름 일체의 사상운동을 금하고 있



<사진은 필자>



<아주(亞洲) 반공대회 회장(會場)>

다. 중공은 여기를 기점으로 대륙의 생산물을 보대며 그 대가로 군수 기타의 물자를 구입하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의회는 잉여농산물을 공산진영과 바터 제(制)로 교역할 것을 용인하였다 한다. 반

공을 국시(國是)로 하여 모든 자유국가들의 대표적 지위에 서 있는 미국으로서도 자기나라에 편익한 때에는 이런 처리를 하고 있거늘 우리나라만이 아직도 반쪽나라가 되어 북방대륙은 이미 막힌 지 오래며 아무리 동남아가 열려있을 지라도 경제제후도 못하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자유중국이 반공국가들인데도 서로 군사동맹도 못하고 이래저래 고립상태에 놓여있다는 감이 새로워진다.

우주의 모든 힘은 유동과 교류에서 나오고, 동물이나 생물의 생명도 오로지 순환에서 우러나오는 법이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서양문화가 태평양을 거쳐서 동으로 흘러왔을 때에도 너무 지나치게 대륙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먼저 받지 못했고 오늘날 공간을 초월한 항공교통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국제항로의 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홍콩의 환전(換錢)시장에서는 동남아 제국의 화폐가 국제적 가치로서 매매되고 있으나 우리의 원화만은 일본(一分)의 존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유중국은 대륙을 잃어버리고 3만 2천 평방 리밖에 안 되는 이 섬으로 옮겨와서 인구는 비록 1천만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체제는 대륙을 회복하는 원대한 준비에 바쁘며 정치의 모든 면에 있어서 본받을 점이 허다하다.

자유중국을 지배하는 여당인 국민당은 40여년의 역사를 가졌고 그 지도자들은 일찍이 청조(淸朝)를 부수고 한민족의 주권을 수립하는 찬란한 투쟁을 하여 온 만큼 정당정치로서의 미덕을 많이 가졌다. 행정부는 당에서 세우는 정강정책을 오로지 실행할 따름이며 조석(朝夕)의 기온(氣溫)에 따라서 변해마지않는 우

리네와는 다르다. 이 나라의 반공연맹은 당에서 재정을 공급하고 있으며 반공운동은 동남아에 있어서 가장 혁혁(赫赫)하다. 그들은 모든 운동의 중심점을 대륙탈환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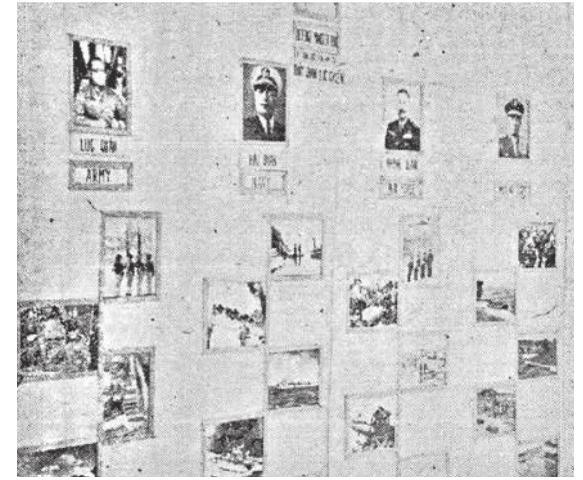
아세아민족 반공연맹의 창익은 이(李) 대통령께서 먼저 발안(發案)하셨고 제1차 대회를 진해(鎭海)에서 열었다 함은 이 글의 초두(初頭)에 이미 말한바 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 상반기 사이의 그 활동성과는 결코 적지않다고 본다.

더구나 지난번에 동남아에 친선예술단을 파견하여 연맹국가 간에 친선을 깊이 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수준의 높음을 선전한데 있어서라

동남아는 기온적으로 보아 우리에게 너무 덥다. 정신을 차릴 수 없고 계획을 세울 사이 없이 순간순간을 넘었으면……하는 기본주의에 흐르기 쉽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기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곳이다. 맑은 정신으로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인종(忍從)해 가면서 일보일보 전진할 수 있는 침착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오늘날이 이 나라의 백성들은 마치 동남아의 인민들을 주어 모아놓은 것 같아서 조금도 굳건한 이상과 노력은 없이 기본주의에 흐르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이 너무 우려할 일인가 한다.

(필자(筆者) 아세아민족반공연맹이사장(亞細亞民族反共聯盟理事長))



<동(同) 대회 회장(會場)에서 우리 군군을 소개>

# 현대무기(現代武器)의 사용(使用)

##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미 국방차관 전(前) 미 공군장관  
도널드 A 켈스



오늘날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는 긴장상태는 과거에 전쟁을 유발시킨 그러한 상태와 흡사하다.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우리 자신이 택하여야 할 전쟁의 위기를 향해서 전진하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우리는 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공산세계와 군사력과 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자칫하면 전면전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 아슬아슬한 좁은 길을 따라 조

심스럽게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양대 진영 사이에 아직 전면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자무기를 보유하는 국가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특색으로 하는 제한된 분쟁도 없었다.

원자무기를 보유하는 강대국이 전면전쟁은 곧 원자전쟁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인류는 이상(異常)한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곧 그것이 전쟁을 반대하는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과 그 정부는 신중해지는 것이며 신중하다는 것은 확실히 긴장된 세계에서 하나의 미덕인 것이다.

국제적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이 새로운 특질(特質)은 인류를 위한 현대 무기의 최초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적대하는 진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전쟁에 대한 구실이 될 수는 없게 되었다. 원자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는 무모한 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심사숙고하는데서 생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대무기의 소산인 것이다.

20세기의 무기는 참전하는 여하한 국가에게도 전면전쟁을 거의 믿을 수 없으리만치 무서운 파멸로 이 끌어 갈 것이다. 그와 같은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난은 교전국의 쌍방에 똑같이 찾아 올 것이다. 현대무기는 전면전쟁에서 침략자가 된다는 것은 광적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미국에 대하여 전면전쟁을 도발하는 국가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큰 충격을 주는 기습을 감행하고, 아무리 돌연하고 강력한 공격을 가해올지라도 도저히 그 자신의 파멸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전면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전쟁을 도발하는 국가에게 파멸을 가져오기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한 현대무기의 강제적인 결과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우리의 현대무기의 질과 양을 진보적으로 충분히 유지하고 있을 동안에만 지속될 수 있는 사태인 것이다.

우리는 오직 오늘날의 무기를 진정한 현대적인 무기로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지할 때 비로소 오늘날의 무기가 전면전쟁에 대한 안정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면전쟁을 방지하는 오늘날 우리 자위세계와 우리의 현대무기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러한 방패의 지주(支柱)를 밑으로 잡아 빠터라도 그것이 그대로 서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쟁을 회피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여야 할 과업이다. 오직 우리가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전쟁이 발발하면 사용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무기를 충분히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방패가 전면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흡사한 예를 한 가지 들기로 한다. 불공대천의 원수인 두 사람이 조그마한 방안에 갇혀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은 제각기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가 마개를 뺀다. 여기에서 만약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수류탄을 내던진다면 폭발되어 두 사람이 다 죽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바로 이것이 쌍방에 대한 제지력(制止力)이 충분한 상태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우리가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또 하나의 수류탄으로 주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두 개의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한 개의 수류탄이 가지고 있는 제지력을 거세할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굉장한 원자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상대방의 능력에 의하여 각기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억제되어 있는 양대 국가를 그러한 두 사람과 비유해서 말한다는

것은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다. 만약 양대 국가의 한쪽이 적 폭격기를 무력화하는 그 능력을 크게 증가시킨다면 상대방의 이전의 충분한 능력수준은 효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성 있게 주시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충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는 것은 여하한 상대방의 군대보다도 더 큰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서는 이와 같은 견해가 반드시 타당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하다는 것은 부여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충분한 힘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모든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능력에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변화가 생기려고 할 때에는 충분한 능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자신의 능력에도 그것을 상쇄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병기창(兵器廠)에 변화가 있었을 때에 우리 자신의 병기창에도 반드시 그와 똑같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충분한 제지력은 공산진영의 무기가 증가되거나 감소된다고 해서 반드시 무력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공산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침략자를 분명히 파멸로 돌아 넣을 수 있는 원자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효과적인 제지력은 우리의 것이고 전면전쟁은 방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정세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에는 “그러면 최선의 공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나는 “최선의 공군이란 국가전략이 그에 부여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공군”이라고 답변하고 싶다. 우리의 미 공군은 그것이 부여된 사명을 확실히 완수할 수 있는 한 세계최선의 공군이라는 그 지위를 견지할 것이다. 상대방의 능력이 미 공군의 그 전시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맹방(盟邦)의 능력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올바르게 평가한 후에 만약 결론이 우리의 공군은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최선의 공군을 즉 충분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세계의 제지력을 진정으로 충분한 수준에 유지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가

지고 있는 우리는 공산세계의 군사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경각해서 주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와 같은 변화를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그것이 우리의 제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을 부단히 현대화하고 그 전체적 효과를 부단히 현대화시킴으로써 공산세계의 군사적 위치에 있어서의 돌연한 변화가 우리의 충분한 제지력을 한시라도 무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군사력을 감축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도 이 제지력 이하로 우리의 군사력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나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할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제한된’ 혹은 ‘국부적인’ 전쟁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나는 흔히 듣는 일부의 논의를 예(例)한 다음 그에 논평을 가할까 한다. 제한된 침략에 관하여 현대무기에 의존하는데 반대하는 논의에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제한된 전쟁에서 우리의 현대무기를 사용하면 전면전쟁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이 논의를 신중히 고려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물론 한국전쟁에서 우리의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한지 5개월 만에 그 분쟁은 중공군과 UN군 간의 대규모의 충돌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전쟁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국부적인 전쟁이 전면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국부적인 전쟁을 신속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다.

제한된 전쟁은 교전국 쌍방의 소원과 의도와는 반대로 여하튼 전면전쟁으로 점차로 변해간다는 의견을 간혹 듣는다. 그러나 전면전쟁에는 우연한 일로 행동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피한 기술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컨대, 적의 원자폭격기가 우연한 일로 뉴욕에 날라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사전에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행동은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가장 낙관적인 것은, 국부적인 공산침략에 대처하여 즉시 우리의 가장 우수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도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명백히 알려져 있거니와 그와

같은 침략을 방지하게 되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리석게도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들 자신의 계획표에 의거하여 그들이 택하는 지역에서 오직 그들이 택하는 무기의 동일한 종류의 무기에만 조우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침략을 감행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면 우리는 도처에서 국부적인 공산침략을 조장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강도가 강도질을 하려고 들어왔을 때 흥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집안사람도 그에 대하여 흥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주었다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강도 일을 좌절시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장시키는 것인가?

둘째로 제한된 전쟁에서 우리의 우수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군대나 민간을 막론하고 과도한 사상자를 내게 된다는 말을 우리는 듣는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에서의 사상자 수는 수백만에 달하였다. 이 사상자의 대부분은 전쟁의 마지막 2년 동안에 생긴 것이다. 만약 그 전쟁이 신속하게 종식되었다면 여하한 무기가 사용되었던 간에 사상자의 총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원자무기가 제한된 전쟁의 군사적 문제에는 부적당하다는 말을 듣는다. 이에 대하여는 각종의 원자무기가 있다고 답변할 수 있다. 우리는 침략군의 전차대를 분쇄하는데, 함선을 침몰시키는데, 철교를 파괴하는데, 적 비행기의 항공기를 분쇄하는데 메가톤급의 폭탄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작은 원자폭탄이 이와 같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원자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군사적 일을 하였을 때는 수백회의 공격을 필요로 하였고 우리에게 수천의 사상자를 가져왔던 것이다. 원자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위는 효과적인 것이 못되고 그 점은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사상자수를 더욱 증가시키기 쉬우며, 침략자가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공산침략을 제지하는데 근본적으로 현대무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적당한 규모의 재래식군대를 유지하는 것과 결코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가장 현대적인 군대라 할지라도 최대한의 효과와 시기에 알맞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당장의 군사적 문제에 더욱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현대무기에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전략이 재래식 무기에 의존한다는 것과 흑백으로 명백한 대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제각기 가장 훌륭하게 행할 수 있는 임무의 분야와 중대성에 따라서 적당한 규모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현대무기의 용도에 대하여 주로 말하였다. 그러나 현대무기의 가장 유익한 용도는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또한 그것을 사용한다는 의도를 명백히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면전쟁은 물론 제한된 전쟁도 역시 제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상(假想) 침략자에 대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침략에 항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원자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충분치 못한 제지력은 침략을 초래하는 것이며 전쟁을 방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무력화하고 마는 것이다.

끝으로 만약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행동한다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경쟁은 자유인민의 소중한 이념과 실질적인 성공에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될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물론 우리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 간의 심각한 차이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세월을 요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휴전 하에서 이와 같은 차이는 핵무기의 자살적인 충돌에 호소하는 일 없이 꾸준히 점진적으로 일소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대무기가 인류에게 베푸는 위대한 은혜인 것이다. 즉 우리는 무적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침략하지 않는 우리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전쟁에 대하여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Flying 지(誌)에서 운암(雲巖) 역(譯))

###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 ☆ 노하고 있으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의하라. (이언(俚諺))
- ☆ 노여움은 어리석은 데서 비롯하여 후회에서 그친다. (이언)
- ☆ 노여움이 진정될 때 후회가 닦쳐온다. (희랍(希臘)의 비극(悲劇) 작가 소포클레스<sup>6)</sup>)
- ☆ 노여움은 광증(狂症)이 내리는 소낙비이다. (호라티우스)
- ☆ 노여움과 당황은 건전한 사색의 방해자다. (이언)

6) Sophocles

# 하늘의 만리장성(萬里長城)

## 북극(北極)의 레이더 경보망(警報網) 이야기

제임스 윈체스터

기온이 하룻밤 사이에 백도나 변하고 바람에 살을 내놓으면 1분 내에 얼어붙고 마는 그러한 땅에 사상(史上) 최대의 건설공사의 하나가 또 하나의 굉장한 공수작전(空輸作戰)의 덕택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금년 한 여름까지는 거의 백%로 운영될 예정인 '원거리조기경보망(遠距離早期警報網)' 즉 DEW Line은 북쪽으로부터의 적의 공격을 조기에 경보하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건설 중에 있는 레이더 장벽으로서 그 총공사비는 4억 불에 달하고 있다. 이 DEW 라인은 황량한 설빙위에 3천리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그 일부의 전초기지는 소련 영토에서 비행기로 불과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DEW 라인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반자동식 레이더감시소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역사상 가장 눈부신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계(哨戒)시설인 것이다.

이 비밀 레이더, 전자(電子), 통신장비 조직은 즉각적으로 적기의 내습을 경보할 수 있을 만큼 신속히 광범위하게 유용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 DEW 라인은

대부분이 자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인력을 절약하고 있는 것이다.

'제572계획'이라는 암호로 불리고 있는 이 DEW 라인 건설계획은 1952년 12월에 착수된 것이다. 동년(同年) 초에 매사츄세츠 공과대학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하계(夏季) 연구단은 북미의 북극지대에 그러한 경보망을 건설할 것을 제의한바 있었다. 당시에는 이미 두 개의 경보망이 완성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과 캐나



<알래스카의 DEW 라인 시설을 시찰하고 있는 미 공군 참모총장 네이던 F 트와이닝 대장(大將)(좌)과 미 공군항공재료사령부 전자방위시설국장 스탠리 T 우레이 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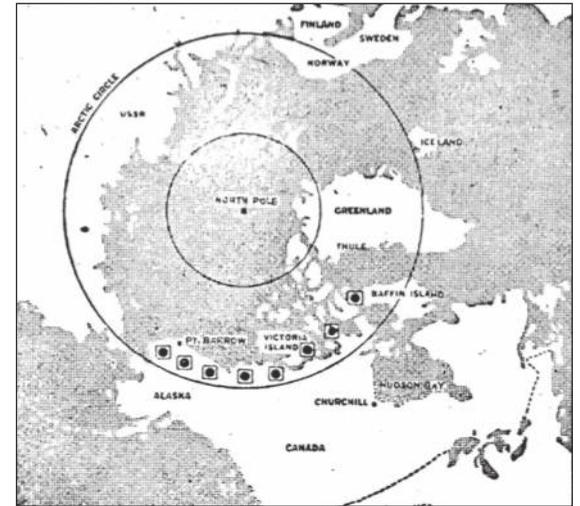
다의 국경상을 통과하는 파인 추리 라인이었고 또 하나는 그보다 북쪽인 북위 55선상에 전개되고 있는 미드 캐나다 라인이었다. 그런데 전략가들은 그보다 훨씬 북쪽에 경보망을 건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극권 너머의 동결지(凍結地)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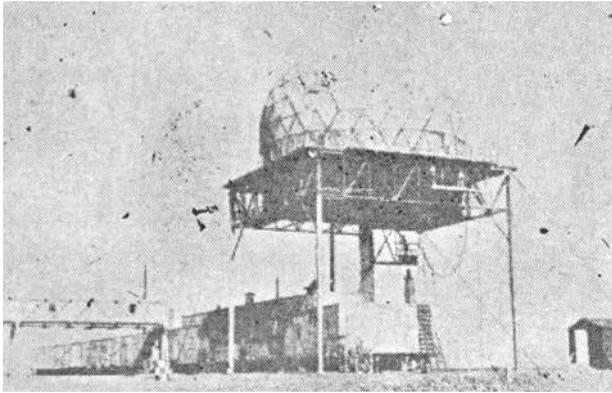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그곳에 대규모의 건설공사를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북극지대의 연안에서 미국 중서부와 동부의 공업중심지까지는 목격기로 불과 4시간 내지 6시간 밖에 요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게는 요격기를 출격시키고, 방공태세에 돌입하고,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이니 단 1분의 여유라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미 국방성은 처음 착수로서 포인트 바로우 넘어 북극 연안을 따라 알래스카의 바터 도(島)에 시험적으로 건설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일 이것이 성공하면 나머지를 계속할 예정이었다.

미 국방성은 미 공군연구발전사령부(ARDC)를 통하여 이 계획을 취급할 회사로서 벨 회사를 선정하였는데 이 벨 회사는 그 통신장비의 종합적인 연구, 발전, 제조 및 운영 등의 점에서 유일한 유자격회사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벨 회사의 종속회사인 웨스턴 엘렉트릭 회사가 실지의 건설공사를 담당하였다. 1952년 12월까지 예비 공중촬영조사가 진행되었고 바퀴 대신에 스키를 장치한 비행기가 건설대(建設隊)를 싣고 바터 도에 착륙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1월 중순까지에 최초의 활주로가 설빙(雪氷)위에 개척되었다. 대부분이 C-124인 미 공군수송기들은 트랙터, 기계, 건축자재 및 보급품을 만재하고 브룩스산맥의 뾰족한 산봉우리를 넘어 왔다. 미 해군의 전초기지가 있는 포인트 바로우가 이 공



<DEW 라인 레이더 감시소의 배치도. 군 기밀 보지상 북극권 내의 정확한 위치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



<레이더 감사>

수확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북극까지 불과 천 2백리밖에 안 되는 얼어붙은 해상과 동토대(凍土帶)에서는 거대한 트랙터가 끄는 스키를 장치한 큰 화차

(貨車)들이 미리 공중관측으로 선정된 비밀건설지를 향하여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5월 초순까지는 얼어붙은 황연지(荒燕地)에 새 부락이 생겼다. 엔진의 폭음과 작업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적막을 깨뜨리고 눈과 흙은 트랙터에 의하여 누런 진창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여름의 얼음이 녹자 공중수송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해군의 함선들이 물자를 싣고 베링 해협을 지나 포인트 바로우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는 수송기와 무한궤도 견인화차가 물자를 그곳에서 건설지로 수송하였다. 일군들 가운데는 기후가 더운 곳에서 급히 모집되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는 북극지대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 이상한 생활양식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꾼 사람은 마치 포경선(捕鯨船)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침구(寢具)는 슬리핑백이고 베개로서는 공군복 바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휘발유 드럼을 반으로 쪼갠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빨을 닦는 데는 통조림 깡통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답기도 하고 다소 무섭기도 합니다. 기온은 4시간에 25도나 변합니다. 즉 영하 10도에서 35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완전히 장님이 되어 버리고 비행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걷는 것조차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마치 유령 같은 어둠이 만물을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흑한과 보급원(補給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이외에도 이 시험계획은 북극지대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 중에 하나는 '영구동결'이라는 상태이다. 여름이 되면 지면 2, 3척(呎)까지는 녹아서 조그마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그 밑은 수백 척까지 영원히 동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원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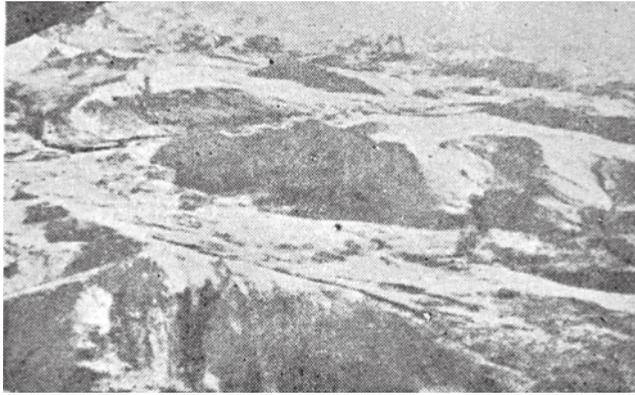
<DEW 라인 건설공사를 돕고 있는 에스키모인(人)들의 어린이>

지 위에 집을 지으면 특히 난방장치가 있는 집을 지으면 땅이 녹아서 곧 가라앉고 만다. 따라서 집이나 도로나 활주로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연체의 역할을 하는 자갈을 두텁게 깔아 놓고 그 위에 건설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 영구동결상태로 말미암

아 재래식방법으로는 땅에 구멍을 팔수가 없다. 맹렬한 스팀을 분사하여야만 땅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와 같은 계획은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前途)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다허(多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예정대로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북극양이 다시 얼음으로 봉쇄된 1953년 늦가을까지는 나지막한 건물과 집단이 아물거리는 북극광에 비치어 서 있었다. 그러한 건물 위에는, 추운 하늘을 응시하는 레이더 안테나가 들어있는 둥근 고무지붕이 돌출해 있었다. 1954년 말까지에 이 알라스카의 시험적 경보망은 완성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성공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경보망을 다시 대륙의 폭(幅)을 따라 2천리 연장시킨다는 큰 사업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1954년 12월 미 국방성은 이 DEW 라인을 동쪽으로 연장시키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웨스턴 엘렉트릭 회사에 통고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웨스턴 엘렉트릭 회사가 동(同) 공사의 주요한 청부회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 하청부회사의 수는 약 2천 7백 개에 달하였다. 1955년 2월까지에는 공사가 착수되었는데 이 공사는 규모에 있어서나 창의에 있어서나 혹은 기획의 대담성에 있어서나 중국의 만리장성에 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첫째로 DEW 라인의 루트를 선정한 다음 레이더 감시소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경보망이 될 수 있는 대로 북쪽으로, 북극에 더욱 가깝게 전개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더욱 신속히 경보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전에 모든 미국의 북극지방 지도를 연구하고 수천 매에 달하는 공중사진을 촬영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루트를 비행기로 정찰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점에서 가장 유망한 루트가 선정된 다음에는 감시소의 사실상의 건설지를 선정하는 일이 시작되



<레이더 감시소가 건설되는 북부 알래스카의 대표적 지형>

었다. 아직도 겨울의 추위와 어둠이 심할 때 선정팀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무한궤도권 인화차로 여행하기도 하고 흔히

경비행기로 비행하면서 그들은 오직 약간의 에스키모인밖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지역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찾아 들어갔다. 흔히 그들은 새로운 지도를 작성하고 그들이 새로 발견하는 갭(峯) 만(灣) 섬들을 명명하면서 전진하였다. 퇴설(堆雪)과 산마루의 틈에 착륙하고는 사정없이 불어오는 강풍에 견디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그들은 필요한 전기(電氣) 실험을 하고 활주로와 건물의 건설지를 모색하고 자갈이나 혹은 부셔서 자갈로 만들 수 있는 바위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이 영구동결지에서는 자갈이 하나의 필요품인 것이다.

이 건설지 선정의 일은 대부분 겨울과 초봄에 이루어졌는데 북극지방에서는 이 계절이 가장 좋은 때인 것이다. 왜냐하면 얼음을 도로와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절은 눈이 아직도 땅위에 덮여 있어서 시도(視度)가 빈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여하튼 건설지 선정팀의 불후의 공적으로 그들이 선정

한 건설지는 별로 변경된 것이 없었다. 각 건설지가 선정되면 얼음 위에 활주로를 개척하여 중(重)비행기가 일꾼과 건설장비와 보급물자를 싣고 착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대표적인 건설공사는 1955년 2월 11일에 북극권 너머의 모지점에서 감행된 공사이다. 토목기사 밋첼 배싯취와 다른 네 사람이 경비행기로 날라 왔다. 물자와 장비는 수송기로 투하되었다. 낙하산으로 투하된 기계 중에는 14톤이나 되는 트랙터도 있었다. 이것을 투하하는 데는 거대한 낙하산 여섯 개가 필요하였다. 다섯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C-124 수송기에 적당한 5천 척(口)의 활주로를 개척하였다. 이 4발 수송기가 처음으로 그곳에 착륙하였을 때의 기온은 영하 52도였다. 어떤 곳에서는 공사의 초기에 이 글로우브마스터 기(機)가 무려

84톤이나 되는 물자를 만재하고 얼어붙은 호상(湖上)에 착륙하고 있었다.

이 대규모의 공수작전에는 문자 그대로 수십개의 항로가 사용되고 공세계(空世界)에서 모여든 수백명의 조종사가 참가하였다. 이것

은 영국으로부터 온 요크기, 글로우브마스터 2개 대대, DC-4 및 C-47 수십 대, 각종 단발기 수백 대로 구성된 공중 혼성함대였다. 이 공수작전의 선두에 선 부대는 전술공군 산하의 제18공군, 라이슨 공군기지에서 온 제62부대수송비행단, 알래스카 공군사령부산하의 수송기대, 캐나다 공군의 수송기대 등이었다. 가장 기상이 나쁠 때는 백일간의 맹렬한 작전에서 이 공중함대는 2만 1천 5백 톤의 물자와 천 5백 명의 인원을 수송하였다. 첫해의 10월 말까지에 약 5만 톤의 물자가 DEW 라인으로 공수되었다. 이 힘들고 위험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동안 그날그날의 공중명령은 창의와 임기응변하는 두뇌를 살리라는 것이었다. 이 DEW 라인의 건설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군인과 민간인은 20명 이상에 달한다.

고정의 항공기가 착륙할 수 없는 건설지에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테네시 주의 스쿠와아트 공군기지에서 많은 벤틀 H-21B 헬리콥터가 C-124기로 수송되었다. 이 헬리콥터들은 북극지방에서 다시 조립되어 몇 달 동안 거의 1일 24시간 비행하였다. 어떤 비행에서는 3천 파운드나 되는 전자장비(電子裝備)를 밑에 쇠사슬로 매어 수송한 일도 있다. 바람이 강할 때에는 80리를 2시간 반이나 걸려서 비행하고 한편 돌아올 때는 20분밖에 걸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쳐어칠(지명(地名))과 포인트 바로우는 이 공수 마라톤의 요소(要素)였다. 그리고 조종사는 비행기의 종류만큼 가지각색이었다. 그들 중에는 베를린 봉쇄, 한국전쟁 및 제2차 대전의 도양(渡洋) 폭격기 수송 등에 종사하였던 역전의 용사들이 있었다. 그 가장 빛나는 경력을 가진 조종사의 한 사람은 'DEW 라인 제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독일인 조종사였다. 그는 제2차 대전 중 구(舊) 독일 공군조



<건설지에 3천 파운드까지의 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미 공군 제516부대 수송전대의 벤틀 H-21 헬리콥터>

종사로서 활약하였으며 현재는 캐나다의 한 항공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시이보오드 엔드 웨스턴 항공회사에 어느 기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베를린봉쇄 시의 공수작전과 한국전쟁 등 여러 곳에서 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지역에서의 집중된 활동을 위한 그 요구는 내가 현재까지 경험한 그 모든 공수활동보다도 큰 것입니다.” DEW 라인의 지상근무자들이 끊임없이 당면하는 공포감은 임시편통(臨時便通)으로 개척해 놓은 활주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겨우 활주로를 개척해 놓으면 시속 백리라는 강풍이 눈을 다시 그 위에 쌓아올리는 수가 많았으며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DEW 라인 건설을 위한 공수작전에서 가장 눈부신 사실의 하나는 그 호수의 대부분이 가장 기상이 나쁠 때에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한 추위와 바람과 안개와 눈과 얼음이라는 ‘불가능한’ 비행조건하에서 많은 비행이 감행되었다. 직접 열대지방으로부터 오는 수송기들은 겨울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 정보도 물론 곤란하였다. DEW 라인의 건설지에는 정비시설이 전혀 없었고 바로우와 쳐어칠과 같은 요소에만 빈약한 시설이 있었다. 모든 수리와 정비는 옥외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영하 몇 도라는 기온에서 엔진을 교환하여야 했을 때 에스키모인들이 그 비행기의 주위에 이글루(에스키모의 집)를 짓기까지 한일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상과 북극지대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난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봄의 해설기(解雪期)가 찾아올 때까지는 DEW 라인 전역의 퇴설(堆雪) 사이에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수송기에 실려 북쪽으로 온

거대한 건설기계의 폭음은 무시무시한 북극지대의 적막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DEW 라인의 건설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공중수송의 공적(功績)이었다.

이 공중수송과 또한 포인트 바로우를 비롯한 그 밖의 지점에 막대한 물자를 수송하는 해상수송은 값비싼 것이었고 현재에도 또한 그러하다. 예컨대 이 DEW 라인 건설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간에 18척의 공로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양의 자갈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DEW 라인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아깝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 DEW 라인 건설계획의 작전참모부장인 제임스 E 부릭스 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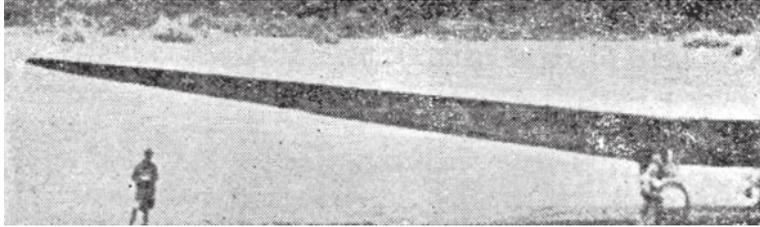
“만일 이 DEW 라인이 수백만에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아무리 그에 돈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DEW 라인을 건설하는 동안의 인간은 북극지방과 북극지방에서의 비행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비단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은 무엇이나 하는 것도 발견하였다. 예컨대 현재 공사는 겨울에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흔히 겨울의 추위와 어둠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름에 하는 것보다도 십 배나 더 힘이 든다. 그러나 투광(投光) 조명 밑에서 그리고 특별히 설계된 오두막집 안에서 일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기온이 영하 수십 도나 내려가고 있는데도 겨울에 콘크리트를 깔고 있다. 이것은 수년 전 만하더라도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전 세계의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에스키모인, 남아인(南阿人)[남아프리카], 호주인, 캐나다인, 미국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DEW 라인에서 이들은 제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합된 팀인 것이다. 임무의 긴급성을 느끼는데서 하나로 융합된…… 이 느낌은 DEW 라인의 어느 곳에서나 강력히 흐르고 있다. 이것은 완수하여야 할 중요하고 곤란하고 위험한 일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일은 바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생기는 단결심인 것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에는 또 하나가 있다. 동결지의 퇴설(堆雪)에 절반쯤 가리어진, 조그마한 얼어붙은 오막에서 이들은 새로운 변경(邊境)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옛날의 돛을 단 배나 포장마차 대신에 기선(汽船)과 비행기로 왔다. 그러나 그들은 숲과 대평원을 지나 신세계로 들어가면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한 옛날의 다른 역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척자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플라잉 지(誌)에서)



<익장(翼長) 100피트에 달하는 ANT-25형(型)>

## 소련 공군력(空軍力)의 건설자(建設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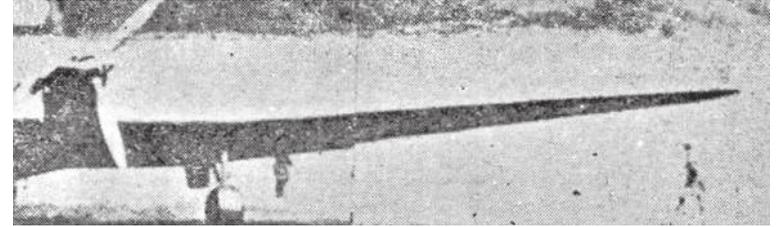
소련의 일류(一流) 항공기설계가(航空機設計家)인 그는  
수수께끼의 인물(人物)이다

밋첼 글라딕치

《편집자기(編輯者記)》 소련 공군력이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제정러시아시대의 항공과 그리고 아무도 칼 마르크스는 외국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훨씬 이전에 노력한 옛날 사람들의 꿈의 덕택인 것이다. 투폴레프, 일류신, 라포츠킨 등을 비롯하여 모든 항공계의 전문가들은 NE 주코프스키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주코프스키는 러시아 항공의 창시자이며 그의 시대에 세계 제1위의 공기역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러시아는 언제나 비행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에 대한 실험은 페트로 대제(大帝) 치세 하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 17세기에 로모노소프는 비행이론과 비행기를 수송 및 전쟁에 응용할 수 있다는데 관해서 광범위한 저술을 하였다. 해군사관학교의 과학 교수로 있던 A F 모자이스키는 라이르 형제보다 20년 앞서서 세계최초의 동력비행을 하였다고 소련은 주장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는 1882년에 사실상 스팀 동력의 항공기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그 기계가 과연 지상에서 떴느냐에 대해서는 역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투폴레프는 제정러시아시대에 좌익계통 단체와 접촉을 함으로써 초기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혁명 후에 다른 과학자, 설계가 및 기사들이 소위 '공산주의의 낙원'을 버리고 타국으로 망명을 하였을 때에도 그는 러시아에 그대로 남기로 결심한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공산주의자가 아닌 주코



프스키가 왜 그대로 남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수수께끼다. 그러한 높은 명성과 뛰어난 과학적 재능을 가진 그를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환영을 하고 그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노인이었으며 노인은 좀처럼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또한 혁명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 루폴레프가 설계한 흥미 있는 비행기의 하나는 TB-7인데 이것은 제2차 대전 중 소련이 제작한 유일한 4발 폭격기였다. 이 비행기는 1942년에 몰로토프가 워싱턴을 방문하였을 때 타고 왔던 것이다.

루폴레프가 스탈린의 총애를 상실하게 되자 TB-7은 개조를 위해서 페틀랴코프에게 이양되었다. 그 결과 이 비행기는 pe-8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현하였으나 당시 소련은 장거리 폭격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루폴레프와 페틀랴코프의 이름은 똑같이 유명하였다. 페틀랴코프는 TB-7을 이양받았을 당시에 쌍발 경폭격기 겸 대지상(對地上)공격기인 pe-2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때 루폴레프는 감옥에 가 있었다. 형벌을 면한 루폴레프는 전(前)의 비행기와 흡사하고도 성능이 좋아진 유명한 TU-2를 설계하였다. 페틀랴코프가 비행기 추락으로 죽음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경쟁은 종식을 고하였던 것이다.

최근 소련은 그 제트여객기 TU-104를 가지고 자유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수년 전에는 경쾌한 쌍발 제트 중형(中型)폭격기 뱃지가 출현하여 화제에 올랐었다. 그리고 제2차 대전 중에는 독일인들이 힘차고 만능인 TU-2기에 의해서 이송(7)되었다. 전쟁 전에도 항공전문가(8)들의 주목을 끈 그 밖의 소련 기(機)가 있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안드레이 니콜라이비치 루폴레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설

7) 원문의 家送은 移送의 오기임.

8) 원문의 專問移는 專門家의 오기임.

계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몸집이 뚱뚱하고 5피트 8인치의 키에다 안경을 쓰고 이마가 벗어진 투폴레프는 큰 수수께끼의 인물이다. 설계가로서 45년의 경력을 가진 그는 그 동안에 50종 이상에 달하는 우수한 항공기를 만들어냈으며 '소련의 영웅'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때 반역죄로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가 다시 최고의 명예로 복귀하였다. 투폴레프는 감히 스탈린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죽지 않고 스탈린의 사과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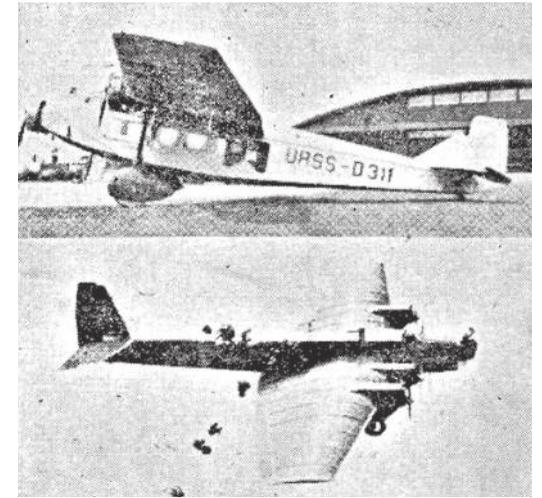
안드레이 투폴레프는 푸스토마쇼프라는 마을에서 소년시절을 보냈는데 그는 그때부터 기계학에 대한 소질을 나타내고 모형비행기를 제작하였다. 아버지에게서 용기를 얻은 청년 투폴레프는 모스크바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러시아 항공의 선구자인 N E 주코프스키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공기역학의 신비에 대한 주코프스키의 강의는 투폴레프의 창의에 불을 질렀다. 1910년에 그와 몇몇 학생들은 채뉴우트 형(型) 글라이더를 설계 제작하였는데 투폴레프의 친구들은 아무도 먼저 그것을 타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투폴레프는 그의 설계에 자신을 가지고... 이것은 그를 유명한 인물로 만들게 된 한 특성이다... 스스로 그 글라이더를 조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중하였으며 이 특성은 그 후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 최초의 설계와 비행에 성공한 투폴레프는 앞으로 항공이 발달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주코프스키의 총애를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 중만 하더라도 그는 아직 이론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서 그는 러시아 해군기용의 부주(浮舟)를 설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권위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투폴레프가 만든 부주는 견고하고도 가볍고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1918년의 볼셰비키 혁명 시에 왜 투폴레프가 러시아를 망명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고르 시코르스키를 비롯해서 그 밖의 우수한 러시아 기사(技師)들이 자유를 선택하였을 때 투폴레프와 주코프스키는 소련 공군력을 위한 기반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전쟁은 독일, 불란서 및 미국 항공기의 기술과 설계에 대한 지식을 남겨 주었다. 늙은 주코프스키와 젊은 투폴레프는 그러한 항공지식을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레닌에게 제출하였다. 이 집중계획은 레닌의 마음에 들어 마침내 1918년 레닌은 저 유명한 중앙항공기역학연구소인 ZAGI를 설치하는 특별명령을 공포하였다. 주코프스키의 지도하에 35명의 ZAGI 회원들은 그들의 최초의 계획에

착수하였는데 그것은 가벼운 합금 듀랄을 연구해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투폴레프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는 항공기의 제작을 열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제작한 비행기는 단좌(單座), 저익(低翼)의 단엽기(單葉機) ANT-1이었다. 그는 이 비행기를 조그마한 도구를 가지고 거의 전부를 자기 자신이 제작하였다.

그는 불과 18마력 엔진 1기(基)를 가지고 시속 62마일로 순항(巡航)하고 시속 32마일로 착륙하였으며 6,000피트 이상을 상승하였다. 1923년에는 그는 새로운 듀랄 KA를 사용해서 또 하나의 비행기를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에는 아직도 전쟁과 혁명의 피해를 입고 있어서 금속을 취급하는 기계가 없었다. 투폴레프는 손으로 절단할 수 있고 간단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금속재료를 가지고 좌석이 셋 있는 ANT-2를 제작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으니 그것은 당시의 주익(主翼) 설계의 지색(支索)인 피아노와이어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주익을 편지식(片持式)으로 재설계하였다. 이 비행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2년을 요(要)하였으나 그는 다시 성공하였다. 이 100마력 엔진 1기를 장비한 고익(高翼) 단엽기는 시속 100마일 이상의 최대속도로 비행하고 시속 45마일로 착륙하였으며 아름답게 조작되었던 것이다.

이 ANT-2가 아직도 비행시험 중에 있었을 때 투폴레프는 속도가 빠른 군용기를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소련 육군은 무장을 갖춘 복좌(複座)의 정찰기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비행기는 복엽기(複葉機)라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수년(數年)을 앞서 생각하고 있던 투폴레프에게 그것은 슬은 퇴보였다. 그러나 1년 안에 그의 전(全) 금속 ANT-3의 원형(原型)은 지상(地上)을 뚫다. 450마력 리버티의 소련판 엔진 1기를 장비한 이 ANT-3은 R-3이라고 개칭되었으며 2,000파운드의 하중(荷重)을 가지고 시속 145마일로 비행하고 시속 50마일로 착륙하



<상(上) 투폴레프의 최초의 여객기 ANT-9형>  
<하(下) 낙하산을 투하는 4발 대형기 ANT-6형>

였다. 이 R-3은 설계가 우수하여서 더욱 강력한 엔진을 장비하고 1930년대 중엽까지 취역하였다. 그 신뢰성은 투폴레프에게 명성과 영예를 가져왔으며 그를 소련 일류의 설계가의 지위로 올려놓았다. R-3을 유선형화(流線型化)한 비행기는 구라파의 각국 수도를 선전 비행하였다. 1년 후인 1927년에는 또 한 대의 그러한 비행기가 모스크바와 도쿄 간을 왕복하였는데 13,700마일을 153시간으로 비행하였던 것이다.

이제 투폴레프는 그의 최초의 대형기인 ANT-4를 제작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군부의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는 저익의 쌍발(雙發) 수송기였으나 폭격기는 4발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시 그 원형은 1년 이내에 완성되었다. 익장 92피트의 이 ANT-4는 600마력의 소련제 M-17 액체냉각 엔진 2기를 장비하고 있었다. 시속 103마일의 순항속도는 대단치 않았으나 2,000파운드의 폭탄 혹은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고 그 행동범위는 600마일 이상에 달하였다. 부주(浮舟), 스키 혹은 차륜 어느 것을 사용하든 그 시속 60마일의 최소 속도에서의 성능은 똑같이 훌륭하였으며 그것은 변하기 쉬운 기후로 말미암아 소련 비행사들이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천후(全天候) 비행에 이상적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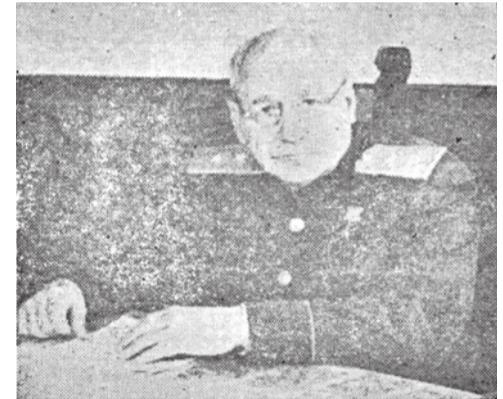
‘소비에트의 땅’이라고 불린 이 ANT-4는 세계에 큰 화제를 던진 최초의 투폴레프 설계의 비행기였다. 1929년에 이 비행기는 모스크바를 출발해서 하바롭스크와 시애틀을 경유 뉴욕에 도착하였는데 12,000마일을 140시간에 비행하였던 것이다.

이 성공의 소식을 들은 투폴레프는 단순히 “나는 그럴 줄 알았지.”하고 말하였을 뿐이었다. 다른 설계가들은 호언가로 알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투폴레프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자기 비행기에 대해서 확신을 기(期)하였다. 아직도 원형 단계에 있었을 때 이 ANT-4는 1,300마일을 12시간으로 무착륙 비행함으로써 소련 장거리기록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매년에 한 대’라는 평판을 받게 된 투폴레프의 그 다음 비행기는 ANT-5였다. 이것은 4발 중(重)폭격기의 원형이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시험비행 중에 한쪽의 엔진 둘이 동시에 고장이 나서 추락하고 말았다. 설계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투폴레프는 개량형인 ANT-4를 만들어 내었다. 이 신형폭격기는 익장이 129피트에 달하였으며 폭탄 5,000파운드를 적재하고 1,000마일의 행동범위를 시속 130마일로 순항하였다.

ANT-6 수대(數臺)는 1930년대 초엽에 소련의 북극탐험에 사용되었다. 1936년에 ANT-6은 800마력 엔진 4기를 가지고 동급(同級)의 세계고도기록을 수립하

였는데 폭탄 11,000 파운드를 적재하고 29,462피트까지 상승하였던 것이다.

이에 이어서 해군쌍발정찰기 ANT-7이 출현하였다. 다시 1년 후에는 이 비행기의 개량형인 ANT-8이 제작되었다. 1929년에 그는 스타우트 포워드 여객기의 소련제 모사(模寫)인 ANT-9를



<소련 공군중장 당시의 AN 투폴레프>

가지고 다시 지상기(地上機)로 전환하였다. 이 비행기는 속도는 느렸으나 소련 내 각 도시 간 운항에 필요한 1,000마일의 행동범위를 가지고 있다. 쌍발로 엔진 수를 줄인 ANT-9 여객기는 소(蘇), 독(獨) 항로에 취항하였다. 이 비행기 1개 대대는 흔히 초원에 이착륙을 하면서 소련의 벽지(僻地)를 선전 비행하였다.

소련 공군은 이번에는 단좌 전투기를 필요로 하였으며 투폴레프만이 기한 이전에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설계가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또다시 요청을 하였다. 기록적인 단시일 내에 그는 시속 200마일의 전 금속 복엽기인 ANT-10을 설계하였다. 이것은 투폴레프의 유일한 전투기였다. 그러나 그는 대형기의 설계를 꿈꾸고 있었으며 아직 ANT-10을 설계 중에 있었을 때 그는 이미 정말 대형기인 5발의 ANT-14에 착수하였다.

투폴레프는 더욱 일에 열중할수록 더욱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풍부한 아이디어의 배구(排口)를 찾기 위해서 투폴레프는 ‘대량 설계’라는 전례 없는 방법에 착수하였다. 피오토르 수코이, V 페틀라코프, 아르캉기엘스키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을 유능한 기사였다. 그는 자기의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하였다. 이들은 각각 그 배당된 비행기의 완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설계(設計團)’의 단장이 되었다. 아르캉 기엘스키 설계단은 스페인에서 널리 사용된 일련의 SB형 경폭격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는데, 당시 소위 내란에서 스탈린은 구라파와 그리고 후에는 핀란드를 포위하려고 히틀러와 경쟁을 하였던 것이다. 수코이 설계단은 ‘조국(祖國)’이라고 불린 ANT-40을 제작하였는데 이 비행기는 기록을 깨트렸다. 한편 볼로코리딘 설계단은 중(重)폭격기인 ANT-41 즉 TB-6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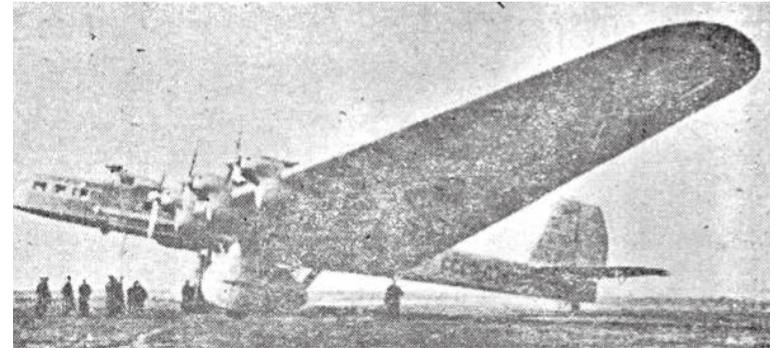
투폴레프의 이러한 설계단들은 긴밀한 협조 리에 일을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더욱 눈부신 설계에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1932년에 공산당에서는 막심 고르키의 문학 활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비행기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크렘린에 소환된 투폴레프는 그 선전을 위한 비행기는 세계 최대의 것이라야만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스탈린은 직접 이 비행기 제작을 위해서 600만 루블(약 150만 불)을 지출하고 투폴레프에게 자재와 노력(勞力)에 대한 무제한한 청구권을 부여하였다. 여기에서 투폴레프는 600명에 불과한 기술자를 선발하여 그들과 함께 흔히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일을 하였다. 8발의 '막심 고르키'가 공장에서 굴러나온 것은 1933년이었으며 이것은 투폴레프가 크렘린에 들어갔다 나온 지 꼭 13개월 만에 완성된 것이다. 이 비행기는 세계 최대의 것이었으며翼장은 206피트, 중량은 117,000파운드에 달하는 소련의 과학지식을 전시하는 '진열상자(陳列箱子)'였다. 이 거대한 비행기는 승무원 20명과 승객 43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안락의자, 테이블 및 책세(冊機)가 있는 도서실, 호화로운 상가(床架)가 있는 침실, 전기스토브와 냉장고 등 잘 장치된 주방, 세탁소, 오프셋인쇄소, 영화영사실 및 사진현상용 암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특별 방송실에서는 강력한 스피커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선전을 하였다.

12,000파운드에 달하는 이와 같은 장비를 적재하고 '막심 고르키'는 시속 140마일로 순항하였으며 행동범위는 1,800마일에 달하고 상승고도는 22,000피트에 달하였다. 8기의 900마력 엔진 가운데 6기는 비행 중에 사소한 수리와 조정을 할 수 있었다. 날개 위에는 각각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정비사가 그 곳에서 3기의 엔진을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투폴레프의 이 거인기(巨人機)는 불운하였다. 모스크바 상공을 선전 비행하고 있었을 때 한 호위전투기가 그에 충돌하여 '막심 고르키'는 추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투폴레프는 냉정한 태도로 이 홍보를 들었다. 그는 이미 또 하나의 아이디어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것은 '막심 고르키'보다 더 대형인 개량기 ANT-20 비스였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막심 고르키'와 같은 것이었으나 더욱 유선형화하고 8발 대신에 6발로 된 점이 달랐다. 이 비행기는 승객 64명과 승무원 8명을 수용하였으며 속도는 시속 130마일에 달하였다. 행동범위 1,800마일에 달하는 이 비행기는 1945년까지 소련 내 항로에서 취역하였다.

한편 스탈린은 '막심 고르키'의 비극은 즉시 눈부신 세계적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만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투폴레프는 다시 크렘린으로 불려가 스탈린



<막심 고르키를 개조한 ANT-20 비스>

의 사실(私室)에서 장거리기록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다고 말하였다. 투폴레프는 이미 한 설계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활주기처럼 날씬하고 아름다운 ANT-25였다.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아스펙트가 높은 그 주익은 111피트 6인치에 달하였다. 930마력 엔진 1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 비행기는 100시간이라는 놀라운 체공력(滯空力)을 가지고 있고 시속 140마일의 순항속도로 14,000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이 비행기를 가지고 일부 소련의 일류조종사들은 눈부신 공적을 남겼다. 1934년에 이 비행기는 7,713마일의 세계장거리 주회(周回)비행기록을 수립하였다. 수년 후에 데바네프스키는 모스크바로부터 미국까지 무착륙비행을 시도하였으나 엔진이 순조롭지 못하여 3,730마일을 비행한 후에 다시 돌아갔다.

1936년에는 발레리 츠칼로프, 바이도우코프 및 벨리아코프가 이 ANT-25를 가지고 56시간 20분 동안에 5,826마일에 달하는 북극비행을 하였다. 1년 후에 이 비행은 태평양횡단의 신기록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로 향하였으나 악천후로 말미암아 그들은 5,334마일을 63시간 19분으로 비행한 후 오리건 주 폴란드 부근에 있는 육군비행장에 불시착하고 말았다. 그 1개월 후에 다른 일행이 ANT-25로 북극비행을 하였는데 그들은 북극을 떠나오는 도중 캘리포니아 주 쉐인재인토 부근에 불시착함으로써 7,147마일을 비행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코도스와 룻시의 직선 장거리기록을 1,000마일 이상이나 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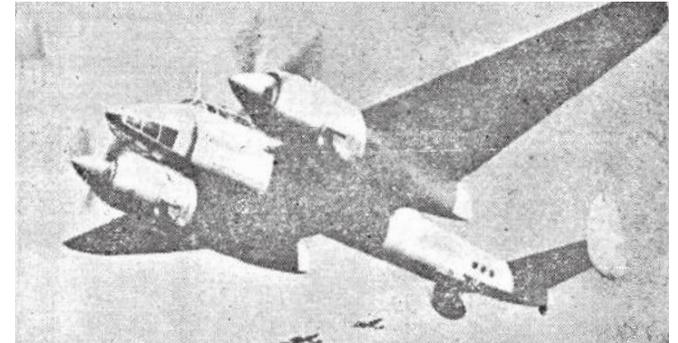
이와 같이 그의 가장 우수한 비행기가 소련에 영예를 가져왔을 때 투폴레프 자신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는 소련 계급조직의 최고위에 올라가 있었

다. 스탈린은 그를 소련 항공기공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이 기관은 소련이 어떠한 비행기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강권(強權)을 가지고 있었다. 스탈린은 직접 그에게 레닌 훈장, 적기(赤旗) 훈장 및 적성(赤星) 훈장을 달아 주었다. 투폴레프는 소련에서 불과 5명만이 누릴 수 있는 특전(特典)을 즐겼다. 그는 하등의 구속 없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권과 소련은행에 무제한한 당좌(當座)를 가지고 있었다.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아파트는 소련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것의 하나였고 촌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리무진승용차를 3대나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보다 더 나은 비행기를 꿈꾸고는 그것을 제작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투폴레프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주야로 설계대 위에 구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잊지도 않았다. 그는 카미에니에프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려다 자신의 전락(顛落)을 가져왔다. 모스크바가 악명 높은 1936년의 숙청을 가지고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을 때 투폴레프는 그의 친구 카미에니에프가 날조된 반역죄로 법정에서 끌려 나올 때까지는 떨치지 못했다. 투폴레프는 스탈린에게 카미에니에프의 결백함을 증명해 달라는 강경한 서한을 보냈다. 그에 대한 회답이 없자 투폴레프는 직접 크렘린을 찾았다. 투폴레프는 자기를 매수하려는 스탈린의 기도를 경멸하고 카미에니에프를 변호하는 증언을 하겠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만일 필요하다면 자기의 친구가 무죄라는 것과 재판은 소극(笑劇)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언할 작정이었다.

소련 비밀경찰 GPU는 카미에니에프를 변호하는 투폴레프의 서류를 가로채기에는 너무 늦었으나 증언에 대한 그의 요청은 거부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투폴레프 자신까지도 그의 한 친구가 모스크바 법정에서 자백을 하여 반역죄로 기소되고 말았다. 스탈린의 직접명령으로 투폴레프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반역죄상에는 특히 “현대식전투기의 설계도를 독일에 팔았다.”는 것이었다. 그 소위 물적 증거에는 투폴레프가 머리글자로 서명한 ME-109의 청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하나의 죄상은 “스탈린을 암살하고 폭력으로써 소련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그의 동료들 간의 조직적 비밀활동”이라는 것이었다.

투폴레프는 웃었다. GPU는 수십 명의 소위 증인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들은 모두가 그 기관에 소속하였다고 맹세하는 것이었다.



<TU-2 공격 중형(中型)폭격기>

그들은 “그 우수한 전투기의 설계에 대한 보수”로서의 지불금의 기록을 제출하였다. 투폴레프의 답변은 오직 “그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만 비행기를 설계하기를 원하였고 정치나 간첩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독일은 물론 어느 외국에 대해서도 단 한 개의 볼트라도 팔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죄판결에 이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소련신문들은 적의에 가득 찬 사실로써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비밀로 되어 있는 감옥으로 끌려가 총살대가 오기만 기다렸다.

투폴레프를 죽일 수 없던 스탈린은 사형집행을 명령하기 전에 두 번이나 생각하였다. 소련에는 이제 수십 명의 유능한 항공기설계가가 있었지만 투폴레프의 천재적인 재능이 없는 그의 일류설계들도 무익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투폴레프의 형을 ‘중노동(重勞動)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그는 삼엄한 경계 리에 모스크바로 다시 호송되어 자기의 설계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주야로 감시를 받으며 그는 그의 설계도들을 지시하였다. 그와 혼장은 박탈당하고 감방에서 살았다.

재판의 충격은 그의 풍부한 생산능력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는 그의 사무실에 하루 20시간 수용되기는 하였으나 옛날의 활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죄수의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설계를 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설계에서 ANT라는 글자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독일군의 침공으로부터 소련을 구하게 된 비행기를 설계하였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의 신형기 TU-2는 그의 종래의 설계방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 비행기는 정말 현대식의 고속 공격기였다. 순항속도 시속 275마일인 이 쌍발기는 당시 가장 속도가 빠른 비행기였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기 직전에 스탈린은 투폴레프에게 옛날의 권력을 다시 주기로 결정하였다. 소련은 대량생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독일 공군과 싸울 수 있는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5년 동안 징역생활을 한 투폴레프는 석방되고 그의 훈장은 반환되었으며 그는 소련 공군중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죄과(罪科)는 정식으로 철회되지는 않았지만 투폴레프는 다시 크렘린으로 소환되어 스탈린이 사과하는 악수를 그에게 청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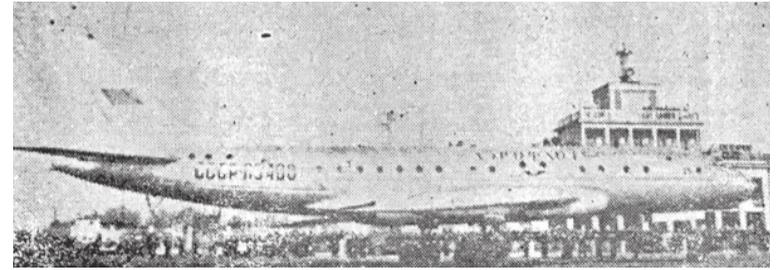
이제 ZAGI 소장이 된 투폴레프는 그의 TU-2에 대한 스탈린 상(賞)으로서 25,000불을 받았다. 그의 융통성 많은 설계는 경폭격기로서 야간전투기로서 그리고 대(對)지상공격기로서 사용되었다. 독일비행기보다 언제나 앞서도록 하는데 필요하였던 것은 오직 보다 더 강력한 모터뿐이었다.— 기본 설계는 우수하여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의기양양하게 죽지 않고 살았다.

1945년에 투폴레프는 소련의 영웅이 되었다. 소련은 세계정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는 장거리 폭격기가 절대 필요하였다. 투폴레프에게는 그러한 폭격기를 연구할 임무가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이때까지 당면해온 가장 큰 임무였다.

1945년 구라파전쟁이 종식되기 전에 미 공군의 B-29 한 대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滿洲) 상공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켜 소련에 불시착하였다. 이 슈우피포오트 기(機)에 타고 있던 하워드 자펠 대위는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당시 비밀로 되어 있던 노오든 폭격기 조준기를 파괴해 버렸으나 비행기 자체는 그대로 남겨졌다. 소련 공군고위층에서 이 B-29를 검사하였을 때 그들은 즉석에서 그것을 그대로 모사(模寫)하여 소련 기(機)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투폴레프는 그것을 원치 않았으나 그 일을 맡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투폴레프는 이미 제트 추진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의 첫 단계는 그의 TU-2에 액시알 제트 2기를 매다는 것이었다. TU-3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원형은 1936년에 출현하였으나 이번에는 투폴레프는 '매년에 한 대'라는 모토를 떠났다. 그것은 그의 노령의 탓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제트엔진과 음속기의 새로운 사실 때문이었을 지도 모르다. 그러나 투폴레프는 근 4년을 걸쳐 그의 최초의 원(原) 제트폭격기인 '뱃저'라고 하는 타입 39를 완성하였다.

이 뱃저는 그 64세의 노설계가가 아직도 마음은 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트 여객기 TU-104가 런던으로부터 모스크바의 프누코프 비행장에 돌아온 광경>

중형(中型)폭격기는 투폴레프의 선견지명 있는 천재적 재능을 말하는 또 하나의 실례였다. 이 제트기는 15,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2기의 엔진을 장비하고 1952년에 취역하였다. 2년 후에 이 비행기는 추력 20,000파운드급의 터보 2기를 장비하였다. 투폴레프의 다른 설계와 마찬가지로 이 비행기는 융통성이 많은 것이었다.

1956년 1월 17일, 소련은 모스크바시 라디오가(街) 17번지에 러시아 항공의 창시자인 NE 주코프스키를 기념하는 박물관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고(故) 주코프스키의 공적을 찬양하는 연설자들은 빈번히 투폴레프의 이름을 끄집어냈다. 왜냐하면 주코프스키는 공식역학적 법칙을 공식화하였으나 이 공식을 최초로 기록을 깨뜨리고—현재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KA—금속기로 출현시킨 것은 바로 안드레이 니콜라이비치 투폴레프이기 때문인 것이다. (끝)

시(詩)

## 고별(告別)

전몰자(戰歿者)가 부르는 노래

조지훈(趙芝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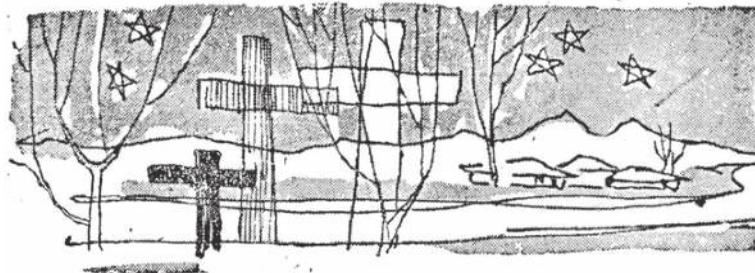
한 치의 국토(國土)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다.

그 피가 스며드는 메마른 황토(黃土),  
아 우리의 조국(祖國)이여!

그 흙에 뿌리박았으며  
그 피를 마시리니

초목(草木)인들 어찌 이 환난(患難)의 역사(歷史)를  
두고두고 얘기하지 않으리오.

연륜(年輪)은 오직 핏빛으로만 감기리라  
이는 덧없는 세월의 크나큰 맹세로다.  
아아 내 어머니 나라를 버리고  
어디에 우리 영혼이 쉴 곳이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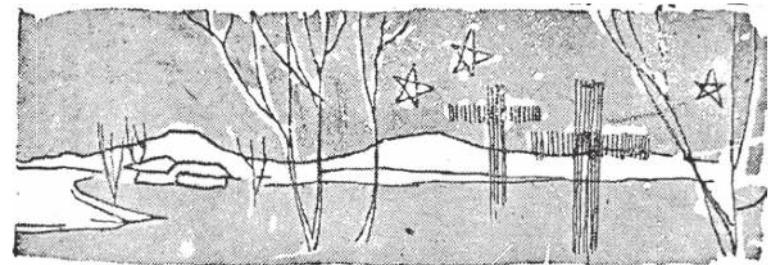


사랑하는 조국의 산하(山河)여  
우리는 젊은 영혼을 온전히 불태웠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의 품에  
영원(永遠)히 잠들기 위해서…….

초목(草木)도 비석(碑石)도  
차라리 써우지 말라, 우리 무덤엔  
철따라 들꽃이 피고  
이름 없는 새들이 우즈지리니

흙으로 돌아간 우리 뼈는  
그대로 조국의 거름이 되리라.

영광(榮光) 있거라 조국이여  
아 내 어머니 나라여  
아내와 아들딸의 나라여  
벚과 스승의 나라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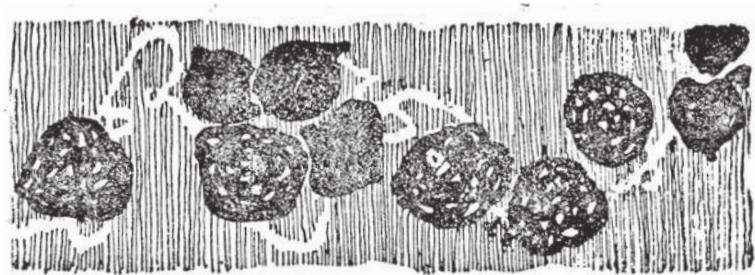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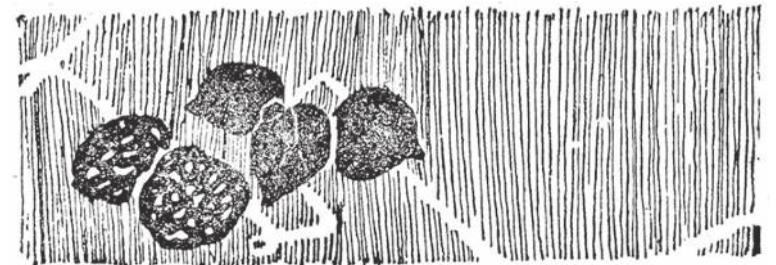
## 고도(高度) 7천(千)피트의 여심(旅心)

조병화(趙炳華)

동해(東海)로 향하는 비행기 위에 있는 것이다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맑은 물속에 가라앉은 그림엽서(葉書)들이다  
구름은 늘 아래 제 무게대로 끼리끼리  
하늘에 봉오리 지고  
봉오리들이 뚱뚱 떠 있는 하늘 사이로  
흡사 연(軟)한 물속에 가라앉은  
이야기처럼



산과 강과 밭과 논과 들과 길과 마을과  
가을이  
들리지 않는 그 거리에서 비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직선으로 대관령(大關嶺) 산정(山頂)을 넘고 있는 것이다  
고도(高度) 7천(千) 피트 그 높이에서  
커피를 따르는 여인이 있다  
여인은 지상(地上)에 사랑을 품어두고 날고 있는 것이다  
여신은 고도 7천 피트의 신화(神話)이다  
동해로 향하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다  
짙막한 나의 인생이  
희롱(戲弄)처럼 구름 위에 떠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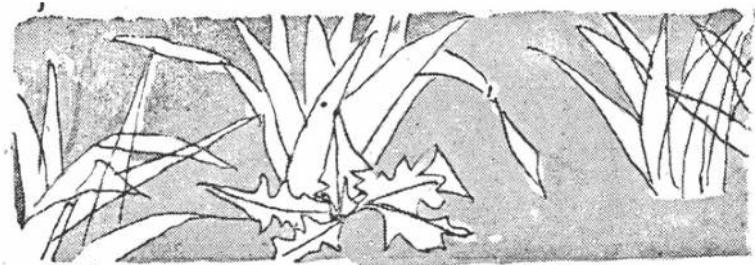


## 풀잎을 따서

박성룡(朴成龍)

풀잎을 따서  
가려 주어 볼까?  
그대로 다가서서  
넌지시  
보듬아 본들  
바람도 몰라 볼 비밀인 것을  
풀잎을 따서  
가려 주어 볼까?

신화(神話)와 같이  
부드러운  
황혼(黃昏)속의 이슬비는  
그대로 서서 맞으렴.  
신록(新綠)속 부드러운  
이 그늘들은  
그대로 서서  
걸치렴.



풀잎을 따서  
가려 주어 볼까?  
저드랑과  
가슴아래  
한없이 부끄러운  
부분 부분들을  
바람도 그대로 흘러나리는  
부분 부분들을  
풀잎을 따서  
가려 주어 볼까?



# 공군(空軍)의 신무기(新武器)란?

## 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의

공군 대령 윤응렬(尹應烈)

### 서론

노벨이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원시시대 이후 동물 에너지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기원 이래 그칠 줄 모르는 투쟁의 방식에 커다란 발전을 초래하였음은 재언할 바 없다. 1945년 8월 7일 히로시마(廣島)를 순식간에 회진(灰塵)화한 원자탄의 출현은 인류사회에 새로운 혁명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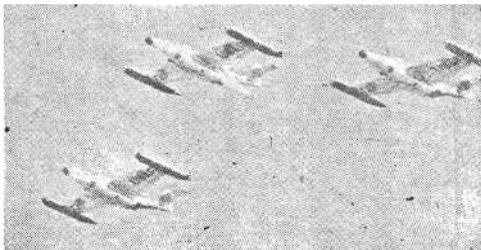
핵원자 이용의 발명은 20세기 중엽에 있어서 과학계의 개가이며 이 사실은 앞으로의 인류발전도(度)와 사회의 복지에 등비급수적인 진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에 비례하여 지금까지의 문명문화를 일순에 회진화할 수 있는 과학무기의 가공할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또한 인류기원 이래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 아니 할 수 없다.

히틀러나 동조 같은 위험인물이 아직도 우리들과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거나 태생된다면 공포나 위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멸을 가져온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더욱이나 2차 대전이나 한 국전에서 저 참혹한 피해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금일의 지도자들은 전쟁방지에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세계정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금일 우리는 언제 이 냉전이 맹렬한 열전으로 급전하고 핵무기의 세례를 받아 인류문화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 전쟁은 예방할 수 없는가? 문제

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 오로지 금일의 전쟁방지란 핵무기에 대하여 핵무기로 억제함에 있다. 환언하면 핵무기의 우월을 민주진영이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은 제거되며 따라서 3차전도 자연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핵무기를 적의 중



<F-89 H 전천후(全天候)전투기>

요목표에 명중시킬 수 있는 직접적 수단방법이 전쟁방지의 큰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많은 원자탄이나 수소탄을 보유하고 적지도자들로 하여금 전쟁을 단념하도록 핵무기를 적 심장부까지 능히 명중시킬 수 있는 기구와 방법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금일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공군은 소련의 침략 위협을 억제하고 있으며 전쟁 도발을 방지하고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내가 여기 논하려고 하는 근대전에 있어서의 공군의 신병기란? 모스크바를 위시하여 소련 중요 지구에 수소탄을 운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나 이와 똑같이 우리들을 노리는 소련의 전략폭격기가 우리 상공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공전투기 등 근 현대 항공기의 우월을 핵무기와 더불어 절대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 1. 핵무기(核武器)의 위협(威脅)

제3차 대전이 발생한다면? 이는 전쟁방식에 기본적으로 형태를 벗어난 우리의 상상외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모두 긍정할 수 있고 또한 상식화된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는 국제적 관련성으로부터 개인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무기에 대한 공포심에서부터 면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여하히 이 참화를 방어할 수 있느냐는 극히 현실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협은 역시 인류의 소치이었고 또한 20세기 전반에서 이루어진 과학계의 최대 소산(所産)일 뿐 아니라 모든 경제력, 산업력, 정치력을 집결시켜서 완성된 인간능력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 2. 근대전(近代戰)과 핵무기(核武器)

미국의 전략가들은 국제안전보장에 의한 전 세계의 각 지역별 방위계획을 기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인용한다면 우리의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미국의 극동방위계획이다. 한국동란 후 미 국방성은 극동에 있어서 종래의 전통적인 지상군주동역할을 공중방위 또는 공중공세로 주동역할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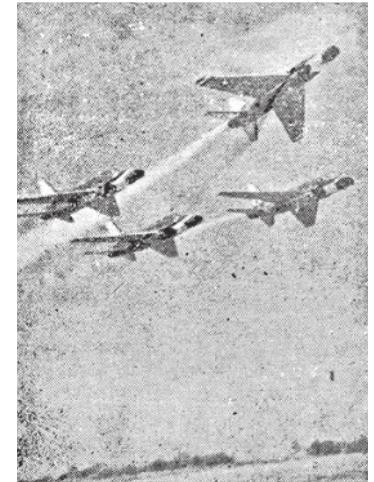
지상군으로서의 핵무기 사용 그 무기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지역적으로 방사선 오염과 시간적 잔류방사능으로부터의 방어문제에 생리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예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전술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보아 적지상군의 아군지역 점령을 불가능케 하는데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상 지상작전이라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인적자원으로서 제한된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그렇다면 핵무기의 사용에 특수한 점이라 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은 자연 붕괴하는 것으로 오염에 대한 위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병기와 달라서 시간적 기회를 얻을 때까지 원료의 저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단히 방사성물질의 생산은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붕괴하는 방사능을 보충기 위하여 수명이 긴 방사성동위원체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극히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질량의 방사성동위원체의 방사능을 CURIE(방사능량측정단위)로서 측정한다면 그 동위원체의 반감기는 원자량에 역비례하는 것이므로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다량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지면의 어떠한 장소에 강력한 방사능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수명이 긴 방사성동위원체를 사용하여 다량의 방사능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지역은 오랜 기간 오염되어 사용 불가능케 되는 것이다. 이것뿐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은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의 요인으로서 GAMMA 선 방사체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병기의 생산, 보관 및 수송 간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차폐하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폐물에 대한 고려는 그 병기의 중량에 영향할 뿐 아니라 목표물에 대한 산포조작을 대단히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교적 소량의 물질을 광대한 지역에 산포한다는 그 자체가 곤란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군에서 전술적사용에 관하여서는 점령하는 군이 장래에 예상되는 인적피해를 무릅쓰고 강행한다는 것은 인적자원의 문제로 보아 불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단시간 내에 주기적으로 교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작전에 불합리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시 체제하의 국가경제라는 것은 기본 경제 상태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가중성(加重性)을 노출케 함은 재언을 필요치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결함을 유리한 다른 조건으로 전환시켜서 목적을 달성한다는데 연구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가중한 경제력을 다른 방도로 이용하여 신속

한 기동력으로 적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그 핵무기의 원리에 따른 부작용을 다소나마 제거할 수 있다는 연관성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즉 전자와 후자를 비교하건데 시간적, 지역적, 타격적, 심리적 제 문제로 보아 그 효과는 후자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게 할 것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이다.



<E-100의 초저공(超低空)비행>

### 3. 핵무기(核武器)의 산포(散布) 매개체(媒介體)(AIR POWER)

현대의 신병기는 육해공군 공히 현저한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그 논점의 방향을 달리하여 장거리를 오랜 시간을 혹은 수중으로 잠항하여 목표물에 접근함으로써 용이하게 유도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최신의 고성능잠수함과 같은 가공한 무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침략의 이단자를 미연에 방어하는 방법을 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우수한 해상무기로서 방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컨대 조기발견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 단시간 내에 광대한 지역에 걸쳐 정확히 색출 발견하여야 할 기동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수한 기동력을 가진 무기라고 부르게 된다면 현재 미국 LOCKHEED 항공회사에서 24차에 걸쳐 양(量)생산에 경주되고 있는 LOCKHEED P2V형 대잠수함 공격용 항공기를 들 수 있다. 적 잠수함을 발견하는 방법에 육안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 전파탐지기(RADAR)에 의한 발견으로 전자자동조준장치에 의한 수중폭탄 투하로 훌륭한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이것은 핵무기공격에 대비한 방어라 할지라도 그만큼 AIR POWER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전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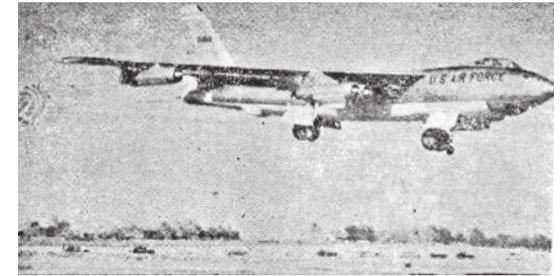
그러므로 AIR POWER에 의한 핵무기전쟁에는 공세방어 양자 공히 게을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AIR POWER가 어떻게 해서 핵무기전쟁에 유리하며, 또한 유리한 장점을 얻으려면 어떠한 장비와 성능을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전략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가를 구명(究明)할 필요가 있다.

즉 AIR POWER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면 매개체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고 능히 적의 중추부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구비시켜야 할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서 AIR POWER의 역사적인 고찰을 해보기로 하자. 원시시대 사람은 화살로서 외적에 대비하였고 거리와 시간을 다투어서 투쟁한 것이었다. 원시시대의 투쟁방법은 바로 이런 것으로 자신의 약점을 피하면서 공격의 효과를 노렸다. 이것은 1대 1로 행위를 감행한 것보다 훨씬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동작이 화살을 쏘고 또 적을 물리치게 했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의 능력으로 AIR POWER를 발전시켜 외적을 물리치게 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1903년 WRIGHT 형제가 항공기를 발명한 이래 재래식 전쟁방식은 획기적으로 변천했고 나아가서 항공기위 발전에 급진적인 TEMPO를 가하게된 금일에는 핵무기전쟁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좀 더 범위를 축소시켜서 논한다면 구식전쟁에 있어서 일부 병력이 적지 후방에 잠입하여 후방교란과 심리전에 영향하는 일종의 소규모적 전략전쟁이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형식의 작전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고 또한 작전에 유효성이 다대한 것이 되지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AIR POWER는 시간과 지역의 제한을 제거하고 하시라도 목표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물론 여기에 장애물이 전연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의 희생을 낸다 하더라도 막대한 효과를 획득했다는 데 전자 말한 바와 같이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고성능, 초음속항공기는 위에서 논한 결함을 90%까지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옛날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지상목표에 목측으로 폭탄을 사람의 손으로 투하한 사실을 연장시켜서 본다면 그 폭탄을 오늘날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대치한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전략가들은 그 사실만으로서 만족하지 못하였고 야심은 양양한 장래를 전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 고공비행에 관한 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더욱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점을 PLUS하여 초음속비행기를 제작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미 MACH NO. 1을 돌파한 사실은 자타가 주지하는바 다음은 MACH NO. 2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훌륭한 기동력으로 신속히 전투전개를 할 수 있는 기구와 기술을 보유해야만 되었다. 또 한편 그 항공기는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능력과 공세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기지의 안전성과 비

행의 안전계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중호위와 아울러 방어의 첨단을 차지하는 지상 또는 항공기탐재 RADAR(전파탐지기)망의 구성 또는 목표를 포착하



<B-47E 폭격기>

는데 10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RADAR 자동조준장치 등 기타 목표지점까지의 노정(路程)에 자연적인 기상인 요조건을 돌파할 수 있는 장비, 또는 항로는 북극이 되던 남극이 되던 전파통제에 의한 비행능력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한다면 사람은 기계를 조작하고 지상 또는 기타 유도체의 통제에 의거 목표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과학의 특산물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학의 소치에 인간의 정신력과 육체력이 인내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고공고속비행에서 대기의 기압의 변화에 따라 인체에 주는 영향을 최소한도로 제거하기 위하여 외계와 좌석 내의 한계에서, 완전 차단하여 소위 기밀실이라는 장치를 하게 되었고 급속도로 기동하는 항공기가 지구의 중력권내에서 일어나는 중력과의 반작용으로 말미암아 인체에 주는 영향을 대부분 면할 수 있다는 부산물로서 해결되는 것이며 따라서 근대 병기의 성능을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된 결과에서 우리는 항공기로서의 최신병기의 특성과 그 능력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 매개체에 의하여 작용할 핵무기의 문제에 논점을 전환하자. 즉 AIR POWER를 매개체로 한 핵무기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전제조건아래 예상되는 사실을 전개시킴이 좋을 것이다.

첫째, 전략적 핵무기의 사용은 적의 군사력, 경제력, 공업력, 기타 모든 전쟁의 핵심체가 되는 중추부를 파괴 마비시킨다는 것.

둘째, 전쟁 후에 다시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위에서 논한 장거리를 단시간 내에 초음속으로 비행하여 임무를 완료 후 기지에 귀환할 수 있는 항공기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

넷째, 비행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파통제망이 구성되어 지상에서 목표지점까지 그 항공기를 유도하여 핵무기를 목표 상공에 투하하는 조작까지 통제능력이 완

비되고 있다는 것. 물론 항정 중 적의 RADAR망의 경계와 요격부대의 항전을 제거할 방해 행동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전자 논한 바와 같이 지상군이 핵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해결키로 하여야 할 것이다.

지상이나 해상으로서 핵무기사용의 불리한 점에 대하여 단시간 내에 목표상공까지 수송 투하할 수 있다는 그 매개체가 즉 AIR POWER의 특성에 의존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만약에 방사성동위원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방사성의 지속이 오랜 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상군점령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중량이 가중하므로 탑재량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 또한 AIR POWER 자체가 그 무기를 탑재하는데 차폐기구를 구비하고 소량의 방사능을 신속히 소실하기 전까지 광대한 적의 중추부에 산포하여 소량으로서 막대한 전과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전술적으로 부분 면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전체 전쟁에 부분이 되므로 전체적 효과를 얻기는 힘 드는 것이다. 그러나 AIR POWER에 의한 중추핵심부의 파괴와 마비를 기도한다는 것은 적국의 전체적 전쟁능력을 마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핵무기에 의한 중추부공격은 AIR POWER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화제를 돌리어 핵무기를 탑재하는데 소요되는 요소를 검토한다면 우선 고속성 장거리비행을 단시간에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전파탐지기 등 중량의 장비를 적재할 수 있고 대적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장거리 항법을 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핵무기를 탑재함으로써 그 항공기의 탑승원이 받을 또는 항공기 기재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금일(今日)의 항공기(航空機)

전항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핵무기사용에 있어서의 AIR POWER가 절대적인 가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거니와 그렇다면 현대과학의 최선단을 걷는 항공기의 성능을 소개함으로써 전쟁예방책 구상에 기여하고, 일단 전쟁에 개입될 때 전쟁의 결정적 역할을 할 AIR POWER를 자세히 증명하게 되는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에도 큰 의의를 줄 것이다.

항공세력이란 것은 공군력, 항공 공업력 및 민간 기타 항공력을 종합하여 이루

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군의 항공에도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즉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든다면 전략공군, 전술공군, 방공공군인 것이며 이에 따라 각각 그 특수한 목적에 적응한 성능의 비행기가 설계되는 것이다.

#### 7. 전략폭격기

핵무기와 더불어 절대불가결의 관련이 있는 전략폭격기는 전항에 그 필요한 특성 및 성능에 관하여 세세히 논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로 하고 지금 미국 전략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년 전 미 공군은 B-36 BOEING 중폭기를 공중무대에 출현시킴으로써 세계 어느 곳이나 미국본토에서 폭격을 감행할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하였다. 그리고 이 위력은 B-47로부터 B-47B형, B-47E형 STRATO JET, B-52 STRATO FORTRESS까지의 진전을 보았다.

#### B-47

B-47E는 전 공군의 중심이 되어 있는 중폭격기이며 초기의 B-47형 이래 지금까지 이미 3,000대 이상을 생산하였으며 요구되는 대수의 초과를 본 금일에 있어서는 전술공군의 공중급유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모양이다.

B-47E는 기체 내 연료탱크만으로도 3,000 MILES 이상의 항속능력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날개 아래, 두 개와 1,890갤런이나 드는 큰 보조탱크를 장비함으로써 더 한층 항속거리를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중급유를 실시함으로써 미국본토에서 시속 600MILES 이상의 고속으로 중요목표 어느 곳이라도 폭격하고 다시 본토나 민주진영국가 기지로 귀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거대한 비행기가 단 3명(조종사 2명, 폭격수 1명)이라는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폭격 적재량은 보통 9TON이며 물론 원자나 수소탄을 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Y-4라는 전자자동폭격 조준기에도 장거리 항법장비 등을 장치하였으며 미부에는 20 ZOMM포 2문이 장비되어있고.



<F-100C Super Sabre>

원격자동 RADAR SCREEN에 나타나는 적전투기를 자동적으로 조준하여 사거리 내에 들어가면 자동 발사되어 맹취 같은 적방공전투기를 모조리 격추해버리게 된다. 이런 것은 소련에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술 분야의 하나이다.

### B-52 STRATO FOR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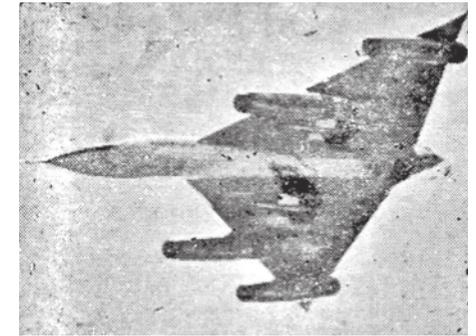
뭐니뭐니 하더라도 B-52는 금일에 있어서 전략폭격기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중폭기이다. 이 세계 제1의 B-52 중폭기는 1대에 무려 1억 불이라는 놀라운 생산가격이 필요하고 전 비중량이 약 160TON이나 되며 시속 600MILES에 달하는 고속과 50,000FEET 이상의 고도에서도 능히 작전할 수 있거나와 32TON 이상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1개 비행단(30대)의 1년간 운영비가 3,800만 불이나 소요된다. 탑승원은 6명이며 B-47과 같은 자동 RADAR 포가 4문 붙어있다. 얼마 전에 무착륙세계일주 비행에 성공하고 다시 기지에 돌아온 조종지휘관이 말하기를 “아직도 우리는 더 비행을 할 수 있었다.”고 신문에 보도하여 B-52의 위력을 과시하였거니와 공중급유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수소탄과 원자탄을 명중시킬 수 있다. 특히 B-52가 자랑하는 BRANE(BOMBING RADAR NAVIGATION EQUIPMENT)이라고 불리는 MA-2 폭격장치는 목표에 비행기를 정확히 유도하고 정확히 계산된 지점으로부터 정확한 순간에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모두가 RADAR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행하여진, 그리고 최극비로 되어 있는 BRANE 1대의 가격만하더라도 28만 불이며 F-86전투기 1대 이상의 고가라 한다.

### CONVAIR

항공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새로운 전략폭격기 B-58의 등장을 이미 신문보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 정식발표가 되지 않는 이 비행기는 불원한 장래에 B-47과 대체될 중폭격기이며 초음속전략폭격기 제1호로서 전 세계 항공계의 경악(驚愕)리에 출현한 것이다. 칼날과 같은 얇은 델타형 날개, 날카롭게 뻗은 가느다란 동체, 긴 LANDING GEAR(강착장치)에 달린 10개의 차륜, 날개 밑에 달려있는 4개의 JET ENGINE 등 처음으로 시도된 델타형(3각형) 폭격기이다. 이 초음속폭격기 제1호인 B-58은 항공계에 경이적인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F-102의 초음속 델타 비행기로 충분한 경험을 가진 CONVAIR 회사의 제작인 이 전략폭격기는 MACH NO. 1 이상 NO. 2에 가깝다는 고속으로 나를 수 있다고 하며 아직 성능에 대한 보도는 일체 관제(官制)되어 있다. 탑승원은 3명이

며 나날이 심해가는 소련의 방공망을 뚫고 적방공전투기의 맹격과 유도무기를 회피할 수 있는 초음속으로 중요 목표에 수소탄이나 원자탄을 투하 명중시킬 이 비행기에는 갖은 신식 폭격 조준기, 자동항공장치, 자동 RADAR포 등 신병기가 장치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B-58폭격기>

다. 발동기는 F-104A전투기에도 달려있는 화제의 J79 터보 JET이며 어떠한 속도에서라도 언제나 최량의 회전수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세계최초의 정속(定速) JET ENGINE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또한 고속에서는 RAM 압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TURBO RAM JET에 근사하다고 한다. B-58은 음속의 장벽을 돌파한지라 열처리를 위하여 기체표면의 15%는 스텐레스강을 사용하고 있다. 기타 수많은 새로운 장치가 되어있는 이 비행기는 필자가 미국공군대학에서 연구 중이던 지난 가을에 시험비행에 성공하여 정식으로 미 공군에 사용되었다고, 신에 비행기 강의시간에 간단히 소개되었다. 그 외에도 B-58에 따르는 초음속폭격기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며 더욱이 다음의 시대를 노리는 원자력을 이용한 비행기도 연구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자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BOEING 110 ROCKET 폭격기도 이미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략공군의 목적으로 F-84F나 F-100C 등의 전투폭격기가 적지 깊이까지 큰 폭격기에 달려가서 행동거리에 도달되었을 때 모기로부터 분리되어 초음속과 기민한 기동력으로 적의 방공전투기나 유도탄을 피하여 목표에 수소탄이나 원자탄을 투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연한다.

### 소련의 전략폭격기

지금까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철의 장막에 숨어있는 소련의 전략공군은 작년 항공 기념일에 그의 편모(片貌)가 발표 되었다. 물론 그에 대한 성능은 알 길이 없으며 고공에서 소련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음모 밑에 행하여진 이번 행사에는 미영의 공군 장성들도 많이 초빙되었으며 미국의 독무대처럼 되어있는 전략폭격기 경쟁에 대해서 자기들도 지지 않고 있다는 선전적, 정치적 의의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트와이닝(Twining)미 공군

참모총장) 장군이나 EVEREST 작전참모부장의 담(談)에 의하면 그 수에 있어서는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소수가 지금 전략공군에 배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성능에 있어서는 미국 전략폭격기들과 비견할 수 있는 바자즈(Badger)와 바이손이 대표적인 것이다. 바자즈는 B-47과 비교되는 중폭격기이며 현재 1,000대 가량 보유하고 있다하며 탑승원은 6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B-52라고 할 수 있는 바이손(Bison)은 그 내막을 전연 알 수 없으며 작년 항공일의 시위에도 불과 소수만이 참가되었다. 바이손은 B-52보다 훨씬 적기는 하지만 B-52에 떨어지지 않는 항속거리와 고공성능과 속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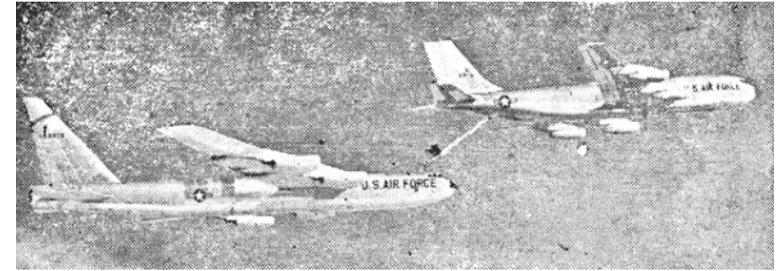
물론 상기한 소련폭격기의 성능은 미국에 비하여 과히 손색없다 할지라도 자동 RADAR포나 전자폭격자동조준기 등의 장치는 도저히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공군의 조직이나 작전능력 및 탑승원의 기술은 아직도 거리가 먼 감이 있다.

#### ㄴ. 전술공군에는 어떤 비행기가 필요한가

전체전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전 같은 지역적인 침략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지상군이나 해상의 활동이 민주진영의 결속에 따르는 공동전선에서 뿐이 아니라 지리적 우세를 확보키 위하여서도 절대로 필요하며 지상군과 해상을 지원하고 적의 후방차단 및 제공권을 확보키 위하여 전술공군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즉 전술공군의 임무는 1. 제공권 획득 2. 후방차단 3. 지상군지원이며 이 목적에 따라 비행기도 설계되어야 한다.

#### F-100 SUPER SABER

한국전에서 용명을 날린 F-86 SABER는 이미 옛날 이야기고 지금 대표적인 요격전투기며 동시에 전투폭격기인 F-100 SUPER SABER JET일 것이다. 이미 극동지구에는 일본에 1개 비행단이 배속되어있는 초음속전투기이며 실질적으로 F-86과 대치되는 전투기이다. 상승하면서 MACH 1 이상을 낼 수 있다는 F-100은 작전행동거리가 500MILES 이상이며 고공성능도 F-86의 40,000FEET에 비하여 훨씬 증가되어 50,000FEET 이상으로 되었다. 20 MMM-39포가 4문 장비되었으며 1분간에 6,00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점도 13MM을 가진 F-86의 화력에 비하여 많이 강화되었다. 자기 동체 크기만이나한 보조낙하탱크를 4개식이나 날개 밑에 장치할 수 있고 45발의 ROCKET탄도 달 수 있다. 또한 특수자동조종장치도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RADAR 장치의 강화로 전전



<공중급유를 받는 B-52 폭격기(좌)>

후전투기로도 등장되며 전략폭격의 목적으로도 능히 사용되는 등 매우 다각적인 용도에 충족되고 있는 이 비행기는 지금 F-86을 타고 있는 우리나라 PILOT들의 큰 선망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작년 미 공군대학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F-100으로 구성된 미 공군의 특수비행팀이 4기 편대로 갖은 재간을 다 피우는 것을 구경한 필자는 다만 경탄할 뿐 옛말에 나오는 선녀의 이야기 같이 비행운으로 그려지는 선의 미는 하나의 리어리듬적인 예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머지않아 태극기달린 F-100을 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바라는 바이다.

#### F-107

명일에 있어서 F-100과 대치될 F-107도 다만 미 공군대학에서 공군 일선기(一線機)로 사용되었다는 소개를 받았을 뿐 그 성능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F-100에 비하여 고공성능 및 기동력 화력이 많이 증가되었고 속도도 MACH 이상의 고속이 아닌가 생각된다.

#### 전술폭격기인 B-66

후방차단을 위한 전술공군작전용인 이 경폭격기는 전략폭격기의 위력과 전투기의 소형원자탄의 폭격임무도 가능한 금일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관심에서 그 존재가 멀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번 새로 채용된 B-66B는 시속 600~700MILES급이며 고고도 침공기라고 추측되며 3명의 승무원은 기수에 있는 기밀실에 위치하여 있고 고속에 적응하도록 가열방화장치가 되어있다. 또한 전방무장은 없으나 미부에 자동 RADAR포가 달려 있으며 원자탄이나 수소탄의 폭격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 ㉔. 방공전투기

“미국의 방공은 완벽하며 미본토를 노리는 적 전투폭격기를 100% 격추할 수 있다.” 이러한 성명은 오로지 방공전투기대의 전자 같은 우수한 조직력과 작전능력 및 승무원들의 일기당천(一機當千)의 전투력이 있음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적기의 성능을 제압할 수 있는 방공전투기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이러한 것은 기대되는 것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이 돌발하여 미국의 전략폭격기대가 소련을 향하였다 가정하자. 소련은 이 정보의 입수를 늦어도 수 시간 내에 하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소련의 전략공군도 미국에 향하여 살도(殺到)하게 되고 10시간 후에는 미국의 중추부에 수소탄의 세례를 가하게 되고 결국은 양 국가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맹취(猛鷲)독수리 같은 미국의 방공전투기대는 이것을 모조리 격추시킴으로써 이러한 참화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급일에 있어서 절대불가결의 요소가 방공공군이라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주야를 막론하고 가장 악천후만을 이용하여 비래할 적 전략폭격기대에 대하여 그러한 악조건에도 적기를 포착하고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이 방공전투기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병기와 공중 대공중 전파유도탄 등의 급속한 발달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며 이미 인력으로의 한도를 넘은 새로운 공중전투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 즉 이륙과 동시에 지상의 RADAR(GCI)에 의하여 비행기는 공격목표에 유도되며 비행기에 장치된 RADAR가 목표를 포착하여 전파유도탄을 자동적으로 발사 명중케 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조종사는 다만 이착륙 및 RADAR 조작만 하면 될 정도로 자동 기계화되고 있다.

F-86D형 F-89 쌍발전투기 및 F-94 등의 뒤를 이어 나타난 것이 F-102 델타형 전투기이며 이 전투기는 이미 여러 번 소개되었고 2월 호에도 자세히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약(略)생략하고 장차 방공전투기대의 핵심이 될 F-104를 대략 골자만 해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에그린(Eglin) AF BASE의 항공연구소에 있는 한기(寒氣)시험소에서 시험 중인 F-104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필자는 과연 이것이 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경이감을 아니 품을 수 없었다. 아나나 다를까 이 F-104가 발표되자 항공계의 큰 화제꺼리가 되었던 것이며 지금까지의 JET 비행기의 개념을 무시한 혁명적인 외관과 구조, 경량 초음속 등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전 기장 16.7M에 비하여 날개폭이 불과 6.67M이며 누구나 먼저 눈에 띄우는 것은 동체로부터 한뼘 날개 끝까지 겨우 2.4M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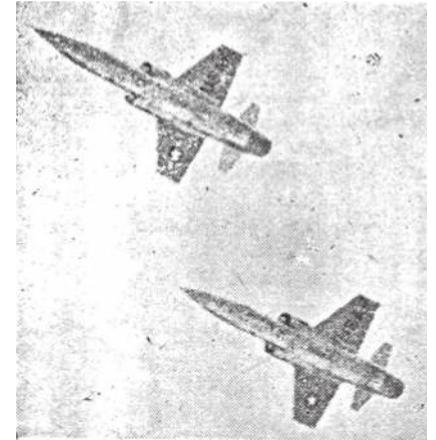
아니 되는 좁은 날개가 신기할 것이다. F-100이나 F-102 같은 후퇴각 또는 삼각형에 비하여 보통 날개를 사용한 이 비행기는 공기역학의 부작용으로 전대미문의 10°하반각 날개로 설계된 것이 더 한층 특이하다. 속력은 수평 또는 상승 20°까지 MACH 1.85 이상이며 작전고도가 세계최고의 60,000FEET에다가 작전행동거리가 약 500MILES라는 놀라운 고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속에 적응케 하기 위하여 이착륙장치도 새로운 양식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조종사 비상탈출 장치가 하방으로 투하되는 하방사출좌석이 장비되어 있다.

제공전투기(AIR SUPERIORITY FIGHTER)라고 명명된 이 비행기는 화력도 또한 증가되어서 공중 대 공중 유도탄과 1분간에 수천발의 포탄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고속사상격치도 구비되어 있다.

회고하건데 F-80이 생긴 후 불과 10년간에 F-104와 같은 놀라운 비행기가 전열(戰列)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지혜와 연구심이란 실로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며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한 과학무기나 비행기가 연구 완성되어 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공상의 역(域)영역을 넘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 소련의 항공기

전략폭격기편에서 간단히 소개하였지만 미국의 항공기에 못지않은 우수한 비행기들이 많이 전열(戰列)에 배치되고 있으며 MIG-15와 대치된 MIG-17 특히 MIG-19, MIG-21 등 미국과 비교하여 간단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정도이다. 그러나 확실히 뒤떨어지고 있는 분야는 자동전자조준기나 자동 RADAR포 등의 RADAR 무기이며 아직도 실용화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있다. 특히 작전을 위한 조직력과 기술능력은 미국에 비하여 소련은 먼 속제로 남아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F-104 스타 파이터 전투기>

## 5. 내일의 전망

우리가 내일의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년래 계속되는 냉전은 각 국가가 서로 비교도 대전도 못한 채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각종 병기의 연구를 거듭하여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상천외의 과학 무기나 비행기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종사도 없이 전파로 비행시키는 등은 그의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며 수년래 연구 중인 인공위성 등 머지않아 우주여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원자력을 이용한 항공기의 영역이라는 것은 지금의 항속력이나 항공의 기본적 조건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화성원정이란 동화에 지나지 않았고 음속돌파란 한 개의 꿈이었으나 드디어 인류의 동경은 이루어지고야만 것이다.

바라건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발명된 다이내마이트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노벨상의 제정으로 인류발전과 평화의 공헌을 갈망한 노벨의 뜻을 살려 비참한 역사의 되풀이를 하지 않도록 원자핵이 주는 막대한 에너지가 우리들의 생활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오고 고도화된 항공력이 우리에게 사랑과 문화의 교류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서 세계 구석구석에 행복과 평화의 복음을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더불어 기원하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정의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필자(筆者) 공군본부(空軍本部) 작전국(作戰局) 차장(次長))

##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장래(將來)

유도탄(誘導彈)에 의(依)하여 대치(代置)될

외지(外誌)에서

제2차 대전 중 영(英) 본토 공략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독일군의 침공으로부터 영국을 구한 영국 공군(RAF)은 소멸되려 하고 있다.

역사상 최대의 공중전에서 히틀러의 공군을 패배시킨 영국 전투기사령부는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해체될 예정이다. 영국의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대로 곧 지상(地上) 대(對) 공중(空中) 유도탄이 전투기를 대치시키게 될 것이다.

폭격기사령부도 역시 버뮤다에서 해롤드 맥밀란 수상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이에 체결된 협정 하에 미국이 공급하는 중거리유도탄이 도착하면 해체될 것이다. 이 유도탄은 런던으로부터 모스크바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초의 미국유도탄은 앞으로 1년 이내에 도착할 것이지만 인간이 조종하는 폭격기를 완전히 대치시킬 정도로 충분히 보유할 수 있기까지는 앞으로 5년 혹은 그 이상을 요할 것이다. 따라서 구(舊) 영국공군의 해체는 점진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실현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합한 유도탄을 보유하는 즉시로 현재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없애버린다는 결정은 현재 영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인 것이다.

새로운 영국 공군은 근본적으로 군용기가 아니라 유도탄에 인원을 배치하는 원격조종기대(遠隔操縱機隊)가 되는 것이다. 특징 있는 '영국 공군수염'을 기르고 있는 멋진 전투기 및 폭격기조종사들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다. 결국에는 현재 영국이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여 건설할 것을 계획 중에 있는 소규모의 기동성 있는 육군을 위한 일종의 전 세계적인 '택시 서비스'로서의 수송기와 정찰기를 위한 소수의 조종사만이 남게 될 것이다.

### 경비문제(經費問題)

구(舊) 영국 공군의 최후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결정은— 전후(戰後)의 영국 재정난과 비교적 급속한 유도탄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다. 덩컨 샌디스 국방장관



은 영국이 앞으로 2, 3년이면 구식화(舊式化)하고 말 전투기와 폭격기로 장비된 공군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인유도탄으로 장비된 새로운 공군을 택하든지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곤란한 영국에게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유지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렸고 재래식공군은 해체되게 되었다. 모든 가능한 자원은 끊임없이 영국에 대하여 핵전쟁을 기도하고 있는 소련을 저지하기 위한 유도탄부대의 가장 신속한 발달을 위하여 집중될 것이다.

이 결정에 의하여 소멸될 운명에 있는 영국 공군은 군 항공에 있어서의 선구자로 인정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레이더망은 영국에서 영국 공군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영국 공군은 또한 고고도 사진정찰을 발전시켰으며 군용기의 많은 분야에서 특히 속도가 빠르고 중무장을 갖춘 허리케인과 스피트파이어 기(機) 등에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쳤던 것이다.

### 1939년(年) 당시(當時)

영국 공군의 전성기는 아직도 항공사상 최대와 공중전으로 남아 있는 제2차 대전의 영 본토 공략전이었다. 영국은 공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때 대전에 참전하였다. 1939년까지 영국 공군은 영국 본토 내에 근 1,500대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전투기 중 불과 93대만이 최신행 기(機)였다. 전쟁 초기에 영국의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던 허리케인과 스피트파이어 기는 1개월에 백 대 미만이었다.

그러나 한편 독일은 3,600대의 군용기를 가지고 제2차 대전을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는 1,200대의 현대식폭격기와 1,000대 이상의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군이 당케르크를 철수할 때 불란서에서 전개된 공중전에서 영국 공군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2개월 동안에 477대의 전투기를 포함하는 949대의 군용기를 상실하였던 것이다. 영 본토 공략전이 개시된 1940년 8월 12일 당시에도 영국 공군은 전투기의 생산이 매일 500대로 증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적으로 열세하였다.

독일 공군사령관들은 1개월 이내에 영국 공군을 분쇄할 수 있다고 히틀러에게 호언장담하였던 것이다. 근 7주일 동안 매일같이 독일 공군은 영국의 비행장과 레이더망을 파괴하기 위하여 영국 해협을 넘어 주간(晝間)공습을 감행하였다. 8월 15일에 도합 1,790대에 달하는 독일 공군기가 영국에 대하여 5차에 걸쳐 대규모의 주간공습을 가하였으며 영국공군은 흔히 20 대 1의 비율로 열세하다. 그러나

그날 독일은 76대의 비행기를 상실하였고 영국은 34대를 상실하였다. 여기에서 영국 공군은 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영국 공군이 보유하는 조종사 수는 9월까지 1,438명에서 840으로 감소되었다. 만일 이와 같은 감소율이 3주일만 더 계속되었던들 영국의 전투기대는 위험할 정도로 아마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국 공군의 곤경을 알지 못하였던 히틀러는 그 자신의 손해만을 근심한 나머지 영국의 비행장을 파괴하기 위한 값비싼 작전을 포기하고 그 주의를 런던으로 돌릴 것을 독일 공군에게 명령하였던 것이다.

독재자 히틀러는 영국 국민의 사기를 죽이기 위하여 신중한 작전을 개시하였다. 3주일간에 걸친 대규모의 런던 주간폭격은 막대한 손해와 민간의 인명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독일 공군은 계속하여 심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 이상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리하여 9월 말까지에 본토 공략전은 종식되었던 것이다.

### ‘그렇게 적은 사람’이 한 일

영 본토에 대한 공습에서 독일 공군은 도합 1,733대의 비행기를 상실하였음에 반하여 영국공군은 915대를 상실하였다. 히틀러의 영국 공군 분쇄기도가 실패에 돌아가고 따라서 영국 해협상공의 제공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는 부득이 영 본토 침공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영국 공군의 결정적인 승리에 감격한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렇게 찬사를 말하였다.

“인류의 분쟁 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적은 사람의 은혜를 입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후에 영국 공군은 쇠퇴하였다. 전후에 대두한 사회주의 정부는 항공기의 연구를 제한하고 최초의 초음속전투기의 발전을 중지시켰다. 그 결과 영국은 군 항공에서 멀리 뒤떨어지게 되었다.

현대식 항공기를 발전시키려는 후일(後日)의 노력도 빈번히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실책에 대한 비난이 자자하였다. 예컨대 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실패라는 결론에 도달한지 이미 오래 되는데도 어떤 전투기의 연구를 고집한 일이 있는데 이 헛된 일에 근 7,500만 불이 낭비되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정부는 어떤 전투기에 대하여 막대한 양의 발주를 하고 보니 결국 구조상의 결함으로 그 기

관포가 발사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 공장(工場)에서 구식화(舊式化)

영국에서 군용기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하고 되는 대로인지 항공기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비행기는 대량생산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구식화하고 만다는 것이다.

예컨대 호커 헌터 기(機)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비행기는 영국 공군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이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세이버제트기보다 속도는 약간 빠르지만 상승속도와 상승고도는 낮다. 미국과 소련의 최신형 전투기에 비하면 최종 기(機)가 공장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1년 이상이나 구식화한 전투기로 인정되었다. 동기(同機)의 생산은 최근에 중지되었다.

영국 공군을 위하여 연구된 최초의 시속 1,500리 급(級) 초음속전투기 P-1은 최근에 그 최종시험을 끝마쳤으나 1958년 말이나 1959년 초가 아니고는 생산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이미 생산 중에 있는 미국의 초음속전투기보다 못한 것이라고 한다.

영국 공군은 폭격기에 있어서는 약간 진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 폭격기사령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소위 V형 폭격기 즉 벨리언트, 발칸 및 빅터인데 이들 중거리폭격기는 소련 영토 깊숙이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공군(SAC)에 해당하는 영국 폭격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V 폭격기인 벨리언트는 이미 구식화하였다. 그다음 형(型)인 발칸은 불과 수개월 전에 생산이 개시되었으며 현재 발주 중인 100대가 납품될 무렵에는 이 폭격기도 구식화하고 말 것이다.

## 뒤떨어진 전도탄(傳道彈)의 연구(研究)

유도탄의 분야에서도 영국은 미국보다 약 5년은 뒤떨어지고 있다. 군용기와 유도탄을 함께 연구하기에는 과학자와 기술자가 너무도 부족하다. 약 45억 불에 달하는 영국 국방예산의 근 절반이 영국 공군과 항공기 및 유도탄의 연구발전에 할당되고 있으나 영국에는 현재 그 본토를 방위할 수 있는 전투기도 없고 유도탄도 없다.

이 암담한 실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샌디스 국방장관은 낡은 영국 공군을 해체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순전한 전투용 유도탄으로 장비된 원격조종기 공군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샌디스 국방장관의 이와 같은 결정은 “현재 우리는 핵무기의 공격으로부터 영

국민을 방위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의 소신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투기대에 막대한 경비를 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이론이었다. 그 대신에 한정된 경비를 핵무기의 공격으로부터 영국을 방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유도탄의 발전에 경주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그는 결정하였던 것이다.

## 개념(概念)의 변화(變化)

핵무기공격의 위협에 비추어 샌디스 장관은 “모든 군사적 계획은 전쟁의 준비가 아니라 전쟁의 방지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침략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은 핵무기에 의한 보복능력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샌디스 장관은 주로 미국이 그 거대한 원폭 및 수폭의 저장량과 그 대륙횡단폭격기 - 결국에는 대륙횡단유도탄 - 를 가지고 소련을 제지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영국도 그 자신의 제지력(制止力)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소련의 방위용 유도탄의 발달은 앞으로 2, 3년 이내에 폭격기가 소련 영토 안에 핵무기를 운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완전 그 목적에는 유도탄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샌디스 장관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폭격기사령부의 해체를 결정하게 된 것은 영국에 대하여 중거리유도탄을 공급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의 V형 폭격기에 대한 발주가 종료되면 그 이상 폭격기를 연구하거나 생산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P-1 초음속전투기는 영국에서 생산되는 최후의 전투기가 될 것이다. 영국은 미국의 협력을 얻어 전투기를 완전히 대치하게 될 지상 대 공중용 유도탄의 초기 생산을 개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전기(前記)한 초음속기가 앞으로 5년 혹은 그 이상 존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유도탄의 발전이 얼마나 조속히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30개 대대에 달하는 영국 보조공군은 이미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정규공군의 병력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전투기와 폭격기가 유도탄에 의하여 대치됨과 더불어 230,000명에서 약 140,000명으로 삭감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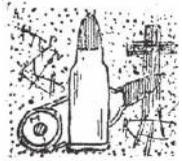
괴로웠던 영 본토공략전시대를 회상하는 감상가(感傷家)들은 영국 공군에게 이것은 “가장 불우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재정난과 유도탄의 발달이 낡은 영국 공군을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USN & R 지(誌)에서)

## 6.25와 한국경제(韓國經濟)

광업관계(鑛業關係) 재건상(再建相)을 중심(中心)으로

변화용(卞熙溶)



‘6.25와 한국경제’란 제목을 내걸고 부제로서 ‘그 피해와 재건상’에 관한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그 범위가 한국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있느니만큼 이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30장이란 지면에 국한시켜서 이에 관한

것을 써달라는 「코메트」지(誌)의 주문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문에 응하여 쓰겠노라고 쾌락은 하여놓고 몇 날 동안 자료를 모아보니 여간 두중(頭重)하지 않으며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동시에 진퇴양난의 궁경(窮境)에 빠져 있음을 부정치 못한다. 궁여(窮餘)의 일책(一策)[궁여지책]으로서 나는 범위를 축소하여 광업 부문(部面)에 관한 것만 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광업은 국민생산의 부문에 있어서 농업과 수산업에 다음 가는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이 빈곤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광산물이 수출 대상품으로서 외화획득 면에 주도적 공헌을 하는 것이니 수출산업으로서의 한국광업의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며 천혜의 지하자원을 보장(保藏)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에 으뜸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자원의 개발은 지연되어 그 후진성을 폭로하고 있는데 이 후진성의 타개와 한국광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6.25동란 중 광업부문에 나타나있는 ‘그 피해와 재건상’의 실태를 분석파악하고, 일보를 진(進)하여[한걸음 나아가기] 그 육성의 기본방면을 모색하여 보자는 의도에서 이 광업부문에 관한 자료를 주로 한 것이니 이로써 6.25동란이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의 편린(片鱗)을 규지(窺知)할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283년 6월 25일을 기하여 북한 공산도배가 불의에 납침한 것을 한국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서 미증유의 비참한 전화(戰禍)를 초래한 것이다. 특히 광산사업장의 대부분은 전지화(戰地化)하였으므로 해방 시에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비참하게 황폐화되었으며 그 피해상이란 심대(甚大)한 것이었다. 기획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84년 8월 말까지의 6.25동란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30억 5,200만 원이란 거대한 숫자를 제시한바 있

며, 이중에서 산업일반의 피해총액은 35,400만 불에 도달해 있고 동 산업관계피해총액 중에서 광업시설피해총액은 54,942.5만 불로 계상된다. 그런데 이는 산업관계피해총액 중 일반 공업시설 부문과 발전시설 부문에 다음가는 격심한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간산업부문의 광업부문이 전반적으로 파멸상태에 빠져 있으며 매우 영세한 민족자본이 근본적으로 파멸되어 이조말기의 원시적 경제구조로 환원된 바와 같은 경제양상과 경제소지를 노정(露呈)시킨 것이다.

이제 광산부문의 전반적인 피해양상을 주요광산별로 나누어 고찰해보면 우선 한국의 산업부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불가결적 요소인 탄광부문이 전체피해액 중에서 가장 심한 비율로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금광산으로서 역시 전체피해액 중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3위는 아연, 연광산으로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4위는 중석(重石)광산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제 광산도 불소(不少)한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광업기업체의 분포별 피해상황을 보면 역시 광업자원이 가장 많이 편재되어 있고 이에 수반되는 기업체도 다수존재하고 있는 강원도지방이 제1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방이 가장 격심한 전투지였고 더욱이나 교통이 불편하여 급속한 시일 내에 복구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임해 두었다는 데에 귀인하고 있는 것이다. 제2위는 전라남도로서 총 피해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제 도도 다소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광업기업체의 전반적 시설피해 상황을 4284년 3월 말의 조사에 의하여 개관하여 보면 채광시설에 있어서는 46억 9,200만 원에 달하며 선광 제련 시설에 있어서는 20억 5,500만 원에 해당되어 있다. 운반시설은 25억 6천만 원에 해당되고 동력시설도 21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것이다. 공작시설 기타 제 잡다부문의 시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중에 있어서도 탄광부문의 시설피해가 가장 심하여 249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 좀 더 세목별로 제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광종별로 피해상을 고찰해 보면 석탄광업은 해방 후 약 32억 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그 개발에 착수하여 상당한 호(好)성적을 내었으나 동란으로 인하여 재차 시설이 황폐화되었고 파괴상태는 해방직후의 진공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결과, 석탄생산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서 탄광의 피해상황

은 780억 원이나 되는 거대한 금액에 달한 것이다. 이 탄광피해상황을 시설부문으로 보면 기계, 차량, 전기 등의 시설에 있어서의 445억 원을 필두로 토건시설이 221억 원, 저장품피해액이 66억 원, 갱도시설이 48억 원의 순서로 되어 있다.

탄광별로 보면 영월탄광이 274억 원, 제2위로 삼척장성탄광이 146억 원, 제3위로 화순탄광이 116억 원, 제4위로 함백탄광이 87억 원, 제5위로 단양탄광이 49억 원, 삼척도계탄광이 34억 원, 은성탄광이 29억 원, 경주탄광이 25억 원, 문경탄광이 21억 원이라는 피해를 각각 받고 있으며 각 광의 갱도시설 피해율을 보면 단양탄광이 90%, 장성탄광이 86%라는 거의 파멸상태에 가까운 [비율]을 시현하고 있으며 기타의 탄광은 도계 65%, 영월 82%, 함백 58%, 화순 38%, 은성 78%, 문경 67%, 경천 9%를 시현하고 있다.

다음에 한국광업의 대종인 금광의 피해를 보면 주요 합금광산도 전란으로 인한 직접, 간접의 피해를 극심하게 받고 있는바 포격과 공습 등으로 인한 직접 파괴도 극심하였거니와 또한 피란으로 말미암아 관리 불충분과 자연방치로 야기된 피해 역시 심대한바 있다. 금광산은 광업부문 총 피해액 중에서 탄광에 다음가는 20%의 피해율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웅진광산은 가장 전투가 격심하였던 장소이었던 관계로 해서 3억 8,220만 원이라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함안광산이 2억 1,610만 원, 군북광산이 1억 6,860만 원, 순천광산이 1억 4,226만 원, 임천광산이 1억 3,726만 원, 해주광산이 1억 2천만 원, 구봉광산이 9,200만 원, 무극광산이 8,378만 원, 울포광산이 7,103만 원, 여수광산이 6,200만 원, 삼황학광산이 2,980만 원, 국근광산이 1,750만 원이라는 순서로 각각 피해를 받고 있다. 기타의 군산금광산도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는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까지는 조사가 미급해있다.

다음에 중석광의 피해는 기계시설부문에는 태무하였고 비교적 사택, 창고 등의 건물은 대부분 파괴된 것이다. 상동광산, 달성광산 및 제 중소광산을 포함한 중석광의 피해액은 광산부문 총 피해액의 10%를 점령하고 있으며 동시에 탄광, 금광, 아연, 연광산에 다음가는 제4위를 점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159억 2,3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흑연 광산피해액은 19억 7,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숫자가 표시되어있다. 이 중에서 월명, 득수, 조선, 함창, 반곡 등의 토상(土狀)흑연광산이 상 12억 2,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오류동, 사흥 등의 인상(鱗狀)흑연광산이 토상흑연광산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7억 5,000만 원

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외의 광산도 직접, 간접의 전재(戰災)를 상당히 받았는데, 이를 열거해보면 수연광산이 14억 1,000만 원, 만암광산이 2억 5,000만 원, 철광산이 10억 4,000만 원, 형석광산이 23억 1,300만 원, 동광산이 23억 4,100만 원 등의 상태이며 장항계련소도 동란 중의 방치로 인하여 사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파괴가 심했고 작업장에 가설된 전선이 태반 절단된 동시에 제련에 필요한 발전기가 대부분 파손되어 즉시로 제련과정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피해액은 28억 8,500만 원이나 된다. 이렇게 각종 광산이 처참한 전화를 입게 되어서 생산능력은 극도로 저하되었다. 이제 전란 전후에 걸친 생산실적을 대비하여 볼 때 동란 직후인 4283년 후반기는 전무상태며 그 익년인 4284년의 제1, 4반기를 보아도 23종의 광물에 불과한 상태이었다. 이와 같은 후광상태는 전란 중에 있어서 광산노무자의 피난으로 인하여 그렇기도 하려니와 생산시설의 파괴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한국전란에서 초래된 광산부문의 피해는 실로 우심(尤甚)한 것이다. 그러나 전선이 안정됨에 따라서 한국광업을 전화(戰禍)에서 소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국내수요보다도 오히려 전략물자인 광산자원을 우방국가에 공급하여야 할 국제적인 긴급한 요청에 의하여 수출산업으로서 개발됨에 이른 것이며 이에 자극되어서 각 광산의 전재복구가 진척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국내의 경제부흥 기운이 점고(漸高)됨에 따라서 석탄공사 산하의 국영탄광도 점차로 활발한 개발을 보이게 된 것이다.

재건복구의 기본조건은 무엇보다도 자금문제에 있는 것 인바 4284년 6월 30일에 ECA 원조의 일부를 광산부문 복구에 충당하기로 하여 총액 6억 3,7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사용내용을 보면 상동중석광산개발에 1억 3,000원, 삼화제철복구에 1,000만 원, 마차리 및 함백탄광개발에 4억 8,700만 원, 여미산아연광개발에 1,000만 원을 각각 배당한 것이다. 상공부에서는 4284년 8월 1일에 광산부문의 부흥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석탄광시설 부흥자금으로 106억 5,800만 원, 중소탄광시설 부흥자금으로 9억 1,900만 원, 연탄공장시설 부흥자금으로 23억 6,600만 원, 토탄개발시설 복구자금으로 9억 8,000만 원, 금속광산 복구자금으로 110억 900만 원, 도합 259억 3,200만 원을 획책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부흥자금의 책정을 보아도 먼저 시급히 요청되는 연료 확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동력을 탄광개발에 경주하였다는 것을 규지(窺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금배당은 전재(戰災)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근소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이것이 흡수되어 탄광을 비롯한 각종 광산은 점차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산물이 수출대상물자의 대종을 형성하게 되자 당국의 광산개발시책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자본의 투입도 현저(顯著)화 하여 광산복구는 현저하게 촉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4286년4월 말 상공부에서 종합한 중요잡종별 광산부흥상태를 보면 증석광과 만업광(滿庵鑛)이 제1위로 80%의 복구를 보았으며 흑연광이 60%, 장항제련소가 50%, 석탄광이 40%, 형석광과 동광이 10%, 금, 철, 아연광이 2%의 순위로 복구상을 나타내고 있다.

석탄광의 복구상태를 말하면 상공부와 석탄공사에서는 국영탄광의 복구를 위하여 4284년도부터 4286년도에 이르는 3개년간의 국영탄광의 복구자금계획을 수립한바 있는데 이제 먼저 부문별 자금계획을 보면 갠도시설에 있어서는 4284년도에 49억 2,100만 원, 4285년도에 88억 7,400만 원, 4286년도에 125억 2,900만 원으로 합계 264억 1,400만 원을 계획하고 전기시설에 있어서는 4284년도에 32억 9,900만 원, 4285년도에 50억 2,500만 원, 4286년도에 118억 7,200만 원으로 합계 201억 9,600만 원을 책정하고 토건시설에 있어서는 4284년도에 30억 6,900만 원, 4285년도에 61억 900만 원, 4286년도에 123억 5,600만 원으로 합계 215억 3,400만 원을 책정하여 총계 3개년 간에 681억 4,500만 원을 예산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자금 투하면에 나타나는 복구실적을 보면 갠도시설에 있어서는 4284년도에 33억 3,000만 원, 4285년도에 23억 1,200만 원이 사용되어 41%가 투하되었으며 전기시설에 있어서는 4284년도에 18억 3,400만 원, 4285년도에 35억 6,600만 원이 투하되어 65%에 달하고 토건시설에 있어서는 4284년도에 25억 2,300만 원, 4285년도에 6억 2,700만 원으로 계획의 29%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4285년 말까지 동년 말 소요자금의 45%가 겨우 투입된 것에 불과하였으며 자금투하량이 곧 복구비율을 표시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복구상태가 상당히 부진하였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외에 탄광업소별로 보면 3개년 간에 장성탄광이 218억 3,900만 원, 도계탄광이 77억 2,500만 원, 영월탄광이 278억 8,500만 원, 화순탄광이 40억 9,900만 원, 은성탄광이 41억 9,000만 원, 문경탄광이 5억 6,300만 원, 단양탄광이 1억 4,900만 원, 함백탄광이 12억 900만 원, 경주탄광이 5억 6,500만 원으로 총계

681억 4,500만 원의 자금 배당이 예상되었던 것인데 실제로 방출 투입된 자금량을 4285년 말의 조사에 의하면 장성이 57억 5,600만 원이 투입되어 전 소요액의 26%에 해당하였으며 도계가 14억 1,200만 원이 투입되어 전 소요액의 19%, 영월이 57억 800만 원이 투입되어 전 소요액의 21%, 화순이 7억 9,800만 원이 투입되어 전 소요액의 19%, 은성이 8억 3,700만 원이 투입되어 전 소요액의 20%, 문경이 4,000만 원이 투입되어 전 소요액의 0.1%, 단양이 500만 원으로 3%, 함백이 1억 700만 원으로 8%, 경주가 7,900만 원으로 14%가 되어 결국 전체적으로 보아 총 계획액의 14%에 불과하였다.

그 후 탄광의 복구개발에 한한 것이 아니라 광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UNKRA의 원조와 정부의 시책이 보이기는 하나 6.25전란이 30억 불에 해당되는 막대한 피해를 한국경제계에 초래하였으며 특히 광업시설부문에 있어서는 전 산업부문에 가져오는 피해의 17%나 되는 5,942만 5,000불이라는 표현할 수 없는 황폐상을 노정하고 있는 한국경제계의 실정에 비추어서 적극적인 외원(外援)과 정부의 열의 있는 시책이 없으면 한국경제의 재건은 불가능할 것이다. 진실로 한국의 금일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외원이 수용되는 동시에 이 외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경제재건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자립수준에 도달이란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종전의 외원은 재정안정면에 치중하여 판매용소비재를 대폭적으로 도입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이런 소비재를 주로 한 외원은 산업재건을 지향하는 방면으로 시책이 있어야할 긴박한 현실에 비추어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감이 없지 않았다.

금일의 한국에 있어서는 제 시설재의 대폭증가가 요청되는 것이며 제 시설재에 치중하는 적극적인 외원이 있어야하겠고 특히 공업발달의 기본전제로서의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자재도입, 시추조사 제련소보수 등이 활발하게 진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자원의 개발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의 해외수출은 외화획득원천으로서 국제수지의 호전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조성하는 것이며 해외수출에서 가져오는 외화를 한국경제의 재건에 투하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가치를 가진 것이니 따라서 광업개발문제가 가장 중요시되어 있으며 지하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책을 촉구하는 것은 국가경제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에 관한 자료는 주로 산업은행조사 및 산업은행에서 발간한 기타의 서적에서 취하였음.)

<수필(隨筆)>

## 6.25를 맞으면서

태운기(太倫基)



(1)

어떤 하루 6.25라고 이름 붙은 날 겨레는 그 날을 맞았다.

야크가 날아오고 전차(戰車)가 미아리 고개를 넘고, 포성이 남산(南山)에 반향(反響)하던 그 날은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남(南)으로 남으로 피난하던 슬프고 뼈저리던 날에 틀림이 없다. 무덤속의 벌레처럼 무던히 채찍질하던 공산군의 총검 아래 부모, 처자, 형제 그리고 벗과 친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공포와 살상과 깊이 낙인찍힌 날을 6.25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기억은 무심하고 세월은 허무한 것이어서 생생하고 피 흘리던 상처는 과거라는 무덤위에 잡초가 우거지고 유인(油印)의 냄새나는 역사라는 종이장위에 간신히 면모(面貌)를 남기고 만 것이 또 하나의 오음<sup>9)</sup>의 6.25에 틀림이 없는 상 싶다.

그 후 9.28이라는 희열과 작약(雀躍)의 날이 있었고, 1.4 후퇴라는 고난과 연옥(煉獄)의 날이 있었고, 휴전이라는 숨 가쁜 운명의 날이 있었다. 우리들은 확실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냉랭한 현실로 한 바퀴 돌아온 사람 같기도 하고, 각자가 각자대로 6.25의 기념비와도 같은 인상에 깊이 사로잡힐 때가 많다.

나는 피 비린내 나는 폐허위에 가을이라는 냄새를 풍겨주며 가슴에 숨어드는 향수(鄉愁)의 순간을 위무(慰撫)하여 주던 기계(杞溪)에서 얻은 탕자열매 두 개와 10월 3일 38선을 넘던 황혼, 함흥(咸興)의 입성식, 청진(淸津)의 밤, 그리고 흥남(興南)의 철수작전…… 등등이 눈앞에서 선히 떠오르는 지난날의 동해전선이 안타깝게는 품안을 더듬어 본다. 원산형무소(元山刑務所),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의 참상, 아우성치는 흥남부두(興南埠頭), 갈망하던 하나밖에 없는 형과의 포옹, 쓰러진 전우, 헤어진 사람…… 이것이 무슨 곡절인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이 회상 속에 길이 간직할 수 있는 6.25의 발자국인 것이다.

내가 탄 트럭이 동진(東津)을 헤치고 북한으로 북한으로 진주할 때에 방방곡곡에서 동포들이 모여왔다. 그네들의 여원 얼굴에는 안도감이 흘렀고 만세소리 대지를 흔들며 주었다. 감격의 태풍은 눈물을 뿌려주었고 생명과 호흡과 사랑의

9) 원문의 오음은 변화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나타내는 다섯 가지를 말함.

눈은 터 오르기 시작하였다. 포옹과 감격에 넘친 인사를 그들은 교환하고 있었다. “아! 살았구나……”라는 짧고도 깊은 영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재생의 부르짖음인 동시에 환호와 비애의 구절이고 또 저주의 야속한 인생회화(人生會話)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동포의 대변(代辯)이요 공산주의에 대한 항거이며 인류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였다.

(2)

봄이 가고 여름, 가을, 겨울……

어김없이 세월은 흘러갔다. 아 참 4290년의 6.25는 눈앞에 다다라 오고 있다.

나는 피곤한 마음에 허덕이는 자아를 무척 아끼고 사랑한다. 그날이 가고 또 새 날이 밝아가도 가도 가도 가시 길에 틀림이 없다. 6.25는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주었던고……하고 감회에 젖은 침묵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 하는 설마의 운명이 알미 워질밖에.

신문을 손에 잡으면 믿을 수 없는 애국자의 부르짖음과, 지옥으로 지옥으로 안내하는 문인들의 성명서와도 같은 삼문소설(三文小說), 살인, 강도의 범죄 게시 판위에 도끼, 권총, 기관단총의 선전문과도 같은 기사(記事),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이 민주주의라고 요술을 부릴 줄 아는 위선자의 무리…….

(3)

창공에 흰 구름을 헤치고 태극기가 날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희망인 동시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방 상징 같기도 합니다.

나는 젊은 정열을 실은 태극기의 굉음이 고막을 울려줄 때마다 기체(機體)가 지평선 저편에 사라질 때까지 바리워 봅니다. 이것은 나의 한 개의 습성이기도 하겠지마는 고마운 마음, 아끼는 마음, 그리고 동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대한의 조인(鳥人)들은 조국의 운명을 등에 지고 북한을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을직합니까, 나는 과거에 군인이었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감과 남아의 정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엄숙한 그 시간은 순결과 충성의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늘을 나는 태극기를 바라보고 여인의 눈매처럼 잔웃음 치며 사라지는 매력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의 힘이요 대한의 방패요 인류에의 봉사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대

10) N. V. Gogol

한 공군의 앞날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X X X

그러나 6.25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과거의 러시아인은 각자가 고골<sup>11)</sup>이나 도스토옙스키<sup>11)</sup>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었지만은 현재 모스크바의 정치국은 눈물을 부정하는 종속(種屬)들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스탈린은 죽어서도 그 피는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껏 어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다. 38선 일대에 북한괴뢰의 병사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육안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현실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틀림이 없다.

그런 까닭에 또 하나의 6.25가 우리들을 노리고 있다는 가상을 부정도 단정도 못하는 것이 피아의 심정으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6.25는 살아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차(茶)나 마시면서 밤새도록 형이상학이나 정치나 원자력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춤과 여인을 말할 수 있다는 현실은 일견(一見) 행복한 보금자리 같기도 하지마는 게르만의 야만과 로마의 비극을 보다시피 하는 위협을 몸소 느끼게 하여준다. 현재는 현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는 장래를 마련하여주는 것이 역사의 철칙인 상 싫은 것이다.

실로 우리의 앞길에는 난관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상,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약소민족과 강대국가 간의 비중에서 오는 난관도 난관이러니와 우방국가 간의 발전과 편성에서 오는 난관, 그리고 국내적인 난관……. 이 모든 것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더욱 심각하고 고민에 쌓인 것으로 안다.

듣기에는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 이래 1954년 7월 인도지나(印度支那)전쟁의 휴전까지 23년간 지구상에는 전쟁이 계속하였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6.25 사변은 숙명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다. 허나 우리들은 또 하나의 6.25를 맞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마는 그런 의혹과 그런 불안이 전연 없어진 것은 아니다. 말할 테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예단할 수 없는 앞날을 맞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다.

전쟁 유가족, 미망인, 불구자 그리고 애기의 손에서 유방(乳房)을 빼앗는 참극……. 거듭 이런 비극을 맞아서는 아니 될 우리 겨레인 것이다.

오로지 현명한 정치와 지성(知性)과 총명과 힘, 그리고 땀과 피로서 이루어진

11)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인내와 노력 이외에는 이것을 극복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본령이요 군인의 사명이기도 하다.

X X X

어떤 하루 6.25라고 이름 붙은 날의 7주년을 맞으려고 한다. 김일성(金日成) 동무가 남침을 지령한 날 치욕의 그날에 부모, 형제, 처자 그리고 벗과 친

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이날을 맞이하게 되어 산천이 피 흘리고 태양이 빛을 가렸던 6.25는 한 개 악몽에 끝이기를 바라며, 조선(祖先)과 천지신명에 겨레의 앞날을 기원할 밖에……

5. 28 11시 어(於) 성북동(城北洞)

(필자(筆者) 변호사(辯護士))

<수필(隨筆)>

## 이날이 올 때마다

박성환(朴聖煥)



나는 그때도 신문기자였다.

나는 그날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이었어도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몇 십 년 후라고 해도 나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6월 25일의 바로 전날인 24일은 토요일이었다.

신문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동료들과 잡담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매일과 같이 계속되던 일과였다.

신문기자 생활에 토요일 일요일의 차별이 있을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토요일 오후면 즐거웠고 한가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날도 보통의 토요일과 같이 한가로운 기분에 잠겼었다.

이날 집으로 일찍 돌아간 것은 사집 간 여동생이 그의 남편과 같이 온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집은 마포로 향하는 아현동(阿峴洞) 마루턱 신개지(新開地)에 있었다. 이날 저녁 집에서는 어 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나와 나의 남동생과 시집간 여동생 부부들이 오래 간만에 한자리에 모였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종전에 없던 유쾌한 저녁이었다. 지나간 날의 이야기며 앞으로의 설계

며 포부들을 기염을 토하면서 주고받던 유쾌한 밤이었다.

당시 신생대한은 건설의 의욕에 불타고 있었다. 사실 내외로 건설 제1보를 씩씩하게 내디디고 있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우렁찬 함마의 소리는 들려오고 있었다. 일하는 자만이 생존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전력을 다하여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보람은 있을 것이다. 보람은 당장에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생의 긴 도상에 있어서는 보람은 어느 때인가는 오고야 말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이렇게 일치된 결론을 얻고 잠들기로 하였다. 날이 밝았다. 6월 25일.

어느 때나 다름없는 일요일 아침이었다. 6월 아침의 태양은 눈부시도록 찬란했으며 희망을 약속해 주는 것만 같았다.

모처럼의 일요일이니 늦게까지 놀다가 가라고 여동생 부부에게 말하고 나는 일찍 신문사로 나왔다.

일요일에는 별다른 기사가 없어 데스크에 앉아 계획통계 기사를 쓰고는 담배에 불을 대일려고 할 때였다.

이때 '북행열차 운행중지'라는 교통부 기자의 숨 가쁜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38선 전역에서 괴뢰군이 남침을 개시하여 국군은 격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38선이 생긴 직후부터 동부중부 서부 일대의 38선 충돌을 취재하고자 기자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38선에서 지낸 나는 육군 지프를 타고 서부 38선 문산(汶山) 방면으로 달렸던 것이다.

X X X

문산 전투 사령부에서 25일 밤을 지냈다.

송악산(松岳山) 38선을 넘어 이른 새벽 평화 속에 잠들고 있던 개성 시가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침입해 온 괴뢰들의 만행을 개성에 주둔하고 있던 연대장으로 부터 살살이 들었다.

연대장은 턱에 직격소총탄을 맞고 중태에 빠져 있었다. 아군은 임진강에서 적의 남침을 저지하려는 것이었으나 세(勢)불리 하였다.

사령부 무전은 웅진(甯津)에 주둔하고 있던 17연대의 북진(北進)을 캐치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실과 다른 무전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우울함에 잠겼었다.

국군은 불리하였다.

나는 26일 새벽 서울로 돌아와 이와 같은 현지보도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다시 문산으로 향하였다.

사령부는 후퇴하여 문산시가 어느 학교였다.

사령부 상공에는 석의 야크기가 날아오고 있었다.

이때 우리들은 당황하면서 사령부 마당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 속에 뛰어 들어 가던 것을 기억하고 나는 지금도 고소(苦笑)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선은 임진강이었다.

놈들의 도강(渡江)을 막으라는 사령관의 명령도 인해전술 앞에서는 어찌하는 도리가 없었다.

빗발같이 퍼붓는 피아의 총탄 속에 놈들은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임진강을 도하하는 것이었다. 나는 쌍안경을 통하여 놈들의 도하 광경을 푹푹히 보았다. 이때 "우리에게 중화기를 달라"는 사병들의 소리는 가슴을 갈가리 찢는 것이었다. 이날 저녁 해질 무렵! 나는 의정부 전방에 있었다. 육중한 탱크가 느릿느릿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 쏘아도 쏘아도 부서지지 않는 탱크! 언덕위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방울방울 눈물 흘리던 사령관과 사병들의 안타까워하는 모습!

"중화기를 달라! 탱크를 달라!" 그러나 우리들은 중화기도 탱크도 받지 못한 채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6.25의 이야기면 의례히 9.28의 이야기가 따라온다.

창황히 떠난 서울 3개월간의 후퇴생활 그대로 지금 회상하면 그리워지는 토막이 수없이 있다.

대구에서의 김신(金信) 장성환(張盛煥) 준장(당시 중령)들과의 생활은 공군에 대한 인식을 나에게 더욱 두렵게 해주었다. 가족적 분위기와 오늘날의 공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에 예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피난군인들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여동생 소희(小喜)의 남편 이원엽(李元燁) 대령(당시 소령)을 만났을 때의 기쁨! 사변의 전날 한집에서 자고 아침에 헤어진 후 생사 알 길이 없다가 대구 거리에서 만났던 것이다. 6.25의 아침 내가 사에 출근한 뒤 당시 육사 교관이었던 그는 비상소집을 받고 태릉(泰陵)에 갔다 육사 생도대를 인솔하고 의정부 전투에 참가 하였던 것이다.

자기의 처 소희가 만삭인 데 서울에서 후퇴하지 못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고 울상이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자고 피차에 위안하였다.

부산에 까지 밀려간 우리들 그리고 나는 부산 항구만을 바라다보며 서울로 돌아가는 날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한 자들은 배를 계약하였느니 또는 일본으로 간다느니 하고 허둥지둥 하고 있을 때 나는 해병대의 일원이 되어 부산항을 떠났다.

그리고 9.28 - 인천상륙 부평전투, 행주나루의 도하, 연희(延禧)고지의 전투,

마포시가지전, 서대문진격 -

이렇게 하여 그립던 서울로 돌아왔던 것이다.

3개월 전 6월 25일 아침에 나온 뒤 처음으로 보는 아현동 마루턱  
의 나의 집 - 어머니는 어찌되었을까? 만삭이 된 여동생은 어찌되었을까? 마포  
의 시가지전에 엮드려 남산 에서 쏘아오는 놈들의 총성이 멈출 때 쌍안경으로 바라  
다보는 나의 집은 굳게굳게 문이 닫히고 있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분명히 아니었다. 가까이 집을 바라다보며 어머니를 남겨놓  
고 온 집을 바라다보며 그곳을 지나쳐야 하는 심경을 지금도 나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머칠 후 서울이 완전히 우리들의 손에 돌아 왔을 때 나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  
르면서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렸다. 두드려도 두드려도, 소리가 없었다.

나는 소리를 쳤다.

“내가 돌아왔다”고 -

이윽고 간신히 열리는 대문!

아! 어머니가 아닌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다.

여동생 소희도 집에 있었다.

난중에 사내애기를 낳다. 나는 그 애기에 이름을 지어 승리(勝里)라고 했다.

슬픔과 초초다 불안과 흥분과 감격이 얽히고설킨 6.25 - 나는 이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필자(筆者) 동화통신(同和通信) 취재부장(取材部長))

<수필(隨筆)>

## 6.25에 겪은 일

유주현(柳周鉉)



왜 해마다 6.25를 회상하라는 것인가.

회상이 아름다울 경우에는 회상하라는 것 자체가 미덕일 수도 있겠지만 그 회  
상이 비참이나 암담인 경우에는 악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몰라.

그러나 미래의 지침을 삼기 위하여 과거를 회상하라 한다면 훌륭한 이유가 될지  
도 몰라.

## 불신(不信)의 씨

“우리는 바보올시다.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정오경에 우리 국군은 이러한 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뜻은 그러했지만 발표문은 다음과 같았다.

“외출 중의 국군 전 장병은 시급이 소속대로 귀환하라!”

방송으로 스피커로 외치며 다닐 때 괴뢰군은 물밀 듯 남침 해오고 있었으니  
‘불신(不信)’이라는 악덕은 군에서 그 씨를 뿌린 셈이다.

27일 의정부(議政府) 탈환을 선전하지 않았더라도 좀 더 많은 인명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거짓말의 효용성을 이용했으나 역효과의 책임은 지는 사람  
이 없었다.

## 시인(詩人)을 믿었다

쏟아지는 비, 요란한 포성, 난비(亂飛)하는 유언, 전율하는 민심, 위급한 시국,  
쇄도하는 난민(亂民)…….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책임 있는 말  
은 결정적인 정세(情勢)를 형성한다.

내 기억을 믿지 않을 수는 없다. 28일 자정……. 두 사람의 시인은 나에게 감명  
깊은 발언을 방송을 통하여 보내 주었다.

서울을 사수하자는 것이다. 사수한다는 것이다. 적구(赤狗)의 침입 결단코 물  
리친다는 것이다. 시적인 언어와 유창한 음률로 방송하는 두 시인의 절규를 의심  
한다는 것은 악덕이었다.

믿었다.

덕택에 도강(渡江) 남하할 기회를 잃고 적지에 남아 죽을 고비를 열두 번 겪었  
다. 두 시인도 속은 셈이다. 속인 사람은 누구인가. 지적할 사람은 없는가 싶다.  
그저 혼란이었다.

7월 2일 양주(楊州) 산촌으로 피신했다. 마을에서, 주거에서, 이목(耳目) 앞에  
서, 태연히 시간을 쥘 담력(膽力)은 없었다.

사면이 일별(一瞥)되는 별판 원두막에서 기거를 했다.

불안이 극도에 달하면 마음을 안정시킨다. 원두막에서 주야로 사색을 하고 창  
작을 하고 굶주렸다.

석 달 후에 「신기루(蜃氣樓)」라는 소설원고가 생겼다. 전쟁과는, 사상과는, 아  
무런 관련도 없는 나병(癩病)환자의 애육과 인정을 그린 작품으로서 후일 대구  
(大邱) 피난시(避亂時)에 발표했다.

## 박수(拍手)와 궤변(詭辯)

아이가 위증하다고 하기에 어느 날 마을로 들어왔다. 들어온 김에 가족과 몇 시간을 보냈다. 황혼 무렵 서울 상공에 UN군 폭격기가 나타나서 통쾌하게 부수기에 어느 담 토목이에 마을 청년과 나란히 앉아 구경하고 있었다.

북악산정봉(北岳山頂峰)이었다. 고사포진지가 있어 가깝게 나타난 UN군기에 도전하는 것이 보였다. 다음 순간이다. UN군기는 그 불을 뿜는 고사포진지를 한번 선회하더니 통렬(痛烈)한 일격을 가했다. 화염이 충전하고 고사포는 침묵해 버리고…… 실로 통쾌하기에 나는 부지중(不知中) 환성을 올려 박수를 쳤다. 마구 쳤다.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동무!”하는 소리가 나기에 돌아다보니 나이 어린 애송이 괴뢰병 하나가 등 뒤에 나타나서 총구를 나에게 겨누는 것이었다.

적기가 공습을 하는데 왜 박수를 치느냐는 것이다. 반동(反動)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등에서 진땀이 났다. 줄지에 앉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역습했다.

“동무, 말조심하시오! 아무에게나 반동이라구 하면 곤란하잖소. 저 고사포가 적기를 통쾌하게 부스는 걸 보고 어째 박수를 치지 않는단 말이오.”

괴뢰병은 더 말 않고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길로 원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하면 6.25는 결코 손실이 아니다. 공산주의를 한국민이 지금처럼 철저하게 저주하게 된 것은 6.25를 겪은 덕분이다. 덕택에 우리 국군도 지금의 위용(偉容)을 갖추게 되었다.

(필자(筆者) 소설가(6小說家))

<수필(隨筆)>

### 소위(所謂) 문화인(文化人)

오소백(吳蘇白)



문화주택에 서제가 없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인 것처럼 문화인이랍시고 머리에 든 것이 없이 덩벙대는 것처럼 싱거운 것도 없다.

흔히 우리사회에서는 문화인 하면 무슨 호숫가의 선녀처럼 잘못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문화인 하면 명동 거리를 배회하거나 다방 자연(紫煙) 깊숙한 속에서 명상(?)에 잠겨야만 문화인으로 생각하는 부류들을 볼 때 가엽기 짝이 없다.

금방 뱃속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요란해도 한 그릇의 밀국수를 잡아넣을 생각은 고사하고 그놈의 문화수(文化水) 다시 말하면 깍다(喫茶)를 해야 하는 게 일부

문화인의 소아병(小兒病) 같다. 저널리즘 사업에 몸을 두고 있는 관계로 나는 언제나 문화인들을 비교적 많이 상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화인들 중에서 다방에와 온종일 붙어 사는 사람치고 제대로 올바른 작품 하나 만들어 내는 사람을 아직 못 보았다. 어떠한 문화인이라도 작품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가짜 문화인이다. 문화인 중에도 그 부류는 여러 가지 있다.

첫째 카니발파라는 게 있다. 이들은 작품 활동보다 마시고 떠드는 것으로 한 몫 보는데 주로 출판기념회라던가 무슨 연회가 있으면 한약에 감초처럼 빠짐없이 나타나서 복덕방 역할을 한다. 소설가도 수필가도 화가도 음악인도 영화인도 잡문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회합에는 맨 먼저 앞장서서 문화인의 메모를 한다. 원고 청탁 및 소개를 잘 해주는가 하면 인물 소개를 잘해 주는 이른바 카니발 족속은 문화인 중에서도 가장 '미제라블'한 사람들이다.

둘째는 세기말파(世紀末派) 문화인이다. 항상 원고지와 책을 옆에 끼고 머리는 십팔 세기 미술가처럼 늘어트린 부류들이다.

날이면 날마다 주기적으로 얼큰히 취해 가지고는 다방한 구석에서 소나타를 부르는데 그들은 고희치는 영웅행동을 술에 의존해서만 이룬다.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책은 일 년 열두 달 똑 같은 책으로 때가 꼬조조 아주 장판처럼 절었다. 이들은 신만 나고 보면 곧잘 박치기와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콘닥터'가 되기도 하고 카루소와 같은 노래도 뽑는다. 어쨌든 이 세기말파들은 자기 편엔 '문화덩어리'로 알고 있는 부류들이다.

셋째는 명예파(名譽派) 문화인들이다.

이 명예파 문화인이란 어떻게 해서든 우선 됐던 않됐던 남이 인증하던 않하던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본다.

시집(詩集), 수필집(隨筆集), 장편소설 같은 단행본을 하나 내고 본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자비출판이 압도적인 것으로 책의 '싸어큐'에 대해서는 논의할 바 아니다.

요는 책을 냄으로서, 다시 말하면 증거물을 보임으로서 문화인이라는 명예를 차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 중에서도 아마 시집(詩集)을 냄으로서 일약 시인이 된 사람은 가장 많은 상 싶다. 작품을 내놓고 보겠다는 그 고충은 잘 알겠으나 작품 아닌 작품을 책으로 꾸며낸다는 것은 결국 중 겉작이다. 웬셈인지<sup>12)</sup> 이런 명예파 문화인들도 실은 곧잘 통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실정이고 보면 그것도 그럴듯한 전략(戰略)같다.

넷째는 문화인증(文化人證)을 얻기 위해 민간외교를 하며 싸다니는 사교파 문

12) 원문의 '웬셈인지'는 어쩐 된 셈인지의 의미를 가진 '웬셈인지'로 보임.

화인이다. 문화인이란 말이 그렇게도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인증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다. 어떤 신문에서는 문화인증을 받은 문화인 명단을 실었을 때 '나는 문화인이다'라는 제목 밑에 공개했던 것은 멋들어진 타이틀이라고 느껴진다. 이 문화인증을 무슨 유력한 증명서처럼 '파스'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건 애교치고는 너무도 걸작이다. 문화인이고 야만이고 누가 증명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얼마든지 낙착되는 것이다.

문화인이란 명칭으로 많은 시비가 벌어지고 있지만 뭐라고 변명해도 문화인란 말은 우스꽝스럽고 낮이 간지럽다.

필경 이런 친구들은 명함에다가도 '문화인 ○○○'라고 넌지시 박아가지고 다 넣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문화인들은 자기네들 자신이 이 사회에서 가장 배고프고 슬프고 불우한 족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화인들은 참말로 자기 자신이 피로써 글을 쓰고 온갖 힘을 기우려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작가적 태도를 모질게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까놓고 말해서 우리사회에는 문화인들보다도 더 혹심한 노력과 정신을 소비하면서도 배고픈 층(層)이 얼마든지 있다. 모든 문화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적해온 이른바 얼치기 문화인들의 생활태도란 티끌만한 동정도 보낼 수 없는 기생충적(寄生蟲的)인 존재들이다.

문화인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사회실정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쌀 한말이 얼마고, 구공탄 한 개가 얼마고 - 또 민생문제(民生問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악마구리 꿩똥한 치열한 사회현실 속에서 '나 혼자만이 호숫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비굴한 현실도피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들은 문화인이라는 것을 무슨 특권층으로 생각하는 못된 버릇을 갖고 있는 듯하다. 가장 평민적이어야 할 그 사람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출세에 궁극하는 건 다른 사회악(社會惡)에 못지않은 꼴불견이다.

나는 진정한 문화인을 미워하기는커녕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이다. 다만 가짜문화인을 정면적으로 증오하는 사람인 것도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문화인들은 먼저 불행에 시달려 있는 이 나라 겨레들과 항상 호흡을 같이하고 그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있어서만 진정한 문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을 떠난 문화인, 사회를 떠난 문화인 생활을 떠난 문화인은 이미 낡아 빠진 세대의 인간들이다. 구름을 타고 피리를 부는 노래는 이미 케케묵은 신화시대(神話時代)의 유물이다. 만일 내 말이 거짓말이고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한

다면 지금이라도 5십 환짜리 한 장을 들고 명동을 찾아가 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병든 문화인들의 건강은 언제나 회복될까.

(필자(筆者) 언론인(言論人))

<수필(隨筆)>

## 사랑의 세계(世界)

전영택(田榮澤)



1

사랑이 제일이다. 세상에 오직 사랑이 있을 뿐이다. 절대적 가치는 사랑이요 궁극적 실재는 사랑이다. 사랑은 우주의 큰 힘이요 세계의 큰 빛이다. 사랑은 인생의 참 빛이요 유방이요 생명이다. 이 사랑 없이는 우주와 세계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의 출생이 있을 수 없고 그 생장발전을 바랄 수 없다.

땅위의 모든 생물이 태양의 따뜻한 열과 빛과 땅에서 주는 물과 공기와 때를 따라 우로(雨露)를 내리는 우주적 사랑이 없이는 그 발생이나 생장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랴. 사람이 어머니 품에서 흐르는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또 가슴 속에서 흘러나는 한없는 사랑, 참된 사랑으로 살며 자라서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집이나 한 마을이나 한 사회, 한나라가 사랑으로 되어가며 인생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은 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강한 힘이 있고 완전한 법이 있어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해나갈 수 없다.

오직 사랑이 우주와 세계를 붙들어오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요 빛이니 사랑은 세계창조 이래에 일관해 내려오는 진리요 대도(大道)요 인생의 모든 생활과 역사를 통하여 꾸준히 흐르는 동력이요 대 생명이다.

그러므로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랑이요 가장 강한 것도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요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사랑은 강철도 녹이는 힘이 있나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한 것은 그 까닭이다. 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이루어진 사랑의 세계가 인생이 갈망하는 세계이다.

2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친구 간에 있고 동기간에 있다. 의좋은 형제간이나 사랑하

는 친구사이에는 서로 생각하고 서로 돕는다. 거기에는 아무 것도 아까운 것이 없고 어떤 고생도 달게 받고 아무리 위험한 자리에도 서슴지 않고 나간다. 이것은 과연 아름답고 귀한 것이니 이것을 참된 우정이라 우애라 하여 사랑의 본을 삼는다.

형은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은 형을 생각하며 서로 생각하고 서로 사양하고 서로 돕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아름다운 심정이다. 어떤 농부 형제가 서로 생각하여 아우의 집에, 아우는 형의 집에 밤새도록 벼집을 지고 날랐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이 형제의 우애를 말하는 것이다. 한집에서 형제간에 이런 사랑이 있으면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와서 천당을 이루고 이 사랑이 없으면 한숨소리가 높아 지옥을 이른다.

### 3

사랑가운데 가장 높고 귀한 것은 형제의 사랑보다 친구간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다.

자식에게 대한 부모의 사랑도 물론 다른 짐승에게도 있는 본능적인 애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짐승과 비슷하면서 놀랍고 아름답고 고마운 것이 있다. 그것은 보통 동기간이나 친구간이나 내외간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가장 너그럽고 변치 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것이다. 무조건으로 또 무한히 주려고 하는 것이다. 주어서 보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랑이 깊아 지거나 깊아지지 않거나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 아버지는 집에 있는 여러 아들딸이나 다른 식구보다도 나간 자식을 더 생각한다. 다른 식구는 집에 편안히 있건마는 집에 없고 나가서 고생하리라고 생각되는 아들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이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못할 때에 초달을 가지고 때린다. 그러나 때려서 아들의 몸에 상처가 날 때에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약을 발라주고 싸매준다.

### 4

인생이 세계에서 평화롭게 행복스럽게 살아갈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은 남남끼리의 사랑의 길이다. 곧 동포애요 인류애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형제간의 사랑이나 부모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해도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것이나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오 자랑할 것도 없지마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 인연도 관계도 없는 남을 사랑하는 동포의 사랑 인류의 사랑이다.

사람에게는 남에게 받기보다도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주기를 싫어하

고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가장 변변치 못하고 가장 천한 사람의 일이다. 예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 사랑은 한없이 주는 마음이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다.

제 몸과 제 식구를 위하고 제 식구를 입히고 먹이는 것은 의례히 하는 일이다. 한 집안 안에서는 네 것 내 것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자는 무지막지하고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한결을 더 나아가서 선한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 사람의 일을 걱정한다. 이것이 매우 귀한 이웃의 사랑이다. 좋은 음식을 하면 이웃 사람을 청해서 먹고 싶고 지나가는 거지라도 잘 먹여 보내고 싶은 마음은 사람에게 있는 가장 가룩한 마음이다. 늙은이가 애를 쓰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보소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운데<sup>13)</sup> 짐조차 지실가.”

이것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의 가룩한 동포애를 읊조린 것이다. 옛 사람들은 좁은 길에는 서로 길을 사양하고 좁은 방에 사람이 많을 때에는 서로 자리를 사양한다. 늙은이를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사람은 전차에서나 기차에서 남을 위하여 자리를 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늙은이를 위하여서 자리를 사양하는 것이 그리 흔치 않다. 내 부모를 생각하면 남의 부모도 생각할 것이다.

### 5

동정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가운데 하나이다. 남의 당한 일을 생각 하는 것이 동정이다.

6.25사변 때 일이다. 어떤 사람이 집을 태워버리고 주인은 행방불명이 되고 갈 곳이 없어서 애를 쓸 때에 웬만큼 알고 지내는 어떤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자기네도 식구가 많아 여유가 없는 것을 억지로 한 방을 내 주었다. 수복이 되어서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주인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다고 감사하였다.

이것도 사변 때 일이다. 어떤 사람이 여러 식구를 이끌고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좀 늦게 갔기 때문에 방을 얻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어떤 집에 가서 사정을 한 결과 겨우 한 방을 얻었다. 그 주인은 이 피난민을 처음 보고 이상스러운 눈으로 보고 또 피난민도 그 주인을 볼 때에 딱 낮이 익은 듯하였다. 이 피난민은 전에 서울서 자기 행랑방에 들었던 사람을 억지로 내 쫓은 일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집주인

13) 원문의 '설워라커든'은 '서러운데'로 봄

은 그때에 자기가 내쫓은 그 사람이었다. 주인은 그것을 알고도 너그러운 동포애로 방을 빌려 준 것이다.

이것은 1차 대전 때의 일이다. 영국의 공군이 독일의 비행기를 쏘아서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탔던 독일의 공군 한 사람은 전사하였다. 그 영국 군인은 그 뒤로 곧 착륙하여 죽은 사람의 몸을 살려본 결과 그 포켓 속에 고이 간직했던 늙은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하였다. 이 군인은(더구나 어머니가 없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시체를 장사하고 그 뒤에 중립국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그 애달픈 사유를 자세히 알렸다. 휴전 후 이 어머니는 이 젊은이를 아들을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류애라.

사랑은 밀지는 것이다. 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요 주는 것이다. 그런고로 참된 사랑은 밀지는 것이다. 참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보응을 바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자녀에게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요 보응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부의 사랑도 서로 주려고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여야 완전한 사랑이지 서로 무엇을 요구하고 서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내 행복을 바란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스럽지 못하고 오래 못가서 파탄이 생길 것이다. 무조건으로 주고 싶고 남을 주어서 기쁜 것이 인간의 심정이 라면 이런 '밀지는 사랑'이 결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무리한 일이 아니다. 어머니가 내가 굶어도 자식을 먹이고 내피를 뽑아서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하면서 그 사랑이 값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과연 가특한 사랑이다. 늙은이가 실과나무를 심는 것은 자기가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후대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원균(元均)에게 역적으로 몰려서 무진 곤욕을 당하였으나 후에 나라의 명을 받아 다시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것은 순전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의감에서요 자기 한 몸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다. 자기 한 몸을 생각한다면 이런 기막히고 이런 밀지는 노릇이 어 디 있랴.

지금 아프리카 적도 직하에서 80이 가까운 몸으로 그 땅의 토인을 위하여 병 치료를 해주고 전도를 하는 슈바이처 박사는 여러 가지 방면에 뛰어나고 높은 학술을 가져서 유명한 철학가요 음악가요 의학가로 일류 대가의 교수의 지위를 거절하고 자진해서 몸을 바쳐서 그 사업을 하여 생을 보내는 것이니 이것은 인류를 그 비참한 적악에서 건져 내기위하여 자신의 놀라운 천질(天質)과 무한한 역량으로 지상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대제국의 높은 자리에서 높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의(義)와 진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무참한 희생을 당한 예수 그

리스도의 사랑에 순(殉)하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나온 일이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는 사랑이 없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거나 와 너무 냉랭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쓸쓸하다. 길에 굶어서 쓰러진 것을 보고도 못 본체하고 지내가고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겠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꼴이 아니냐. 우리는 먼저 사랑을 찾고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사랑의 세계에 살자.

(필자(筆者) 수필가(隨筆家))

<수필(隨筆)>

## 겉모양과 속 차림

이혜복(李蕙馥)



외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우선 옷이 구지레하고 보면 은연중 사람에게 얄잡아 보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인정인 까닭에 의복이 날개란 말이 나오직도 하기는 하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말도 별 다를 바 없는 비유일 것이다.

남에게 청을 하러 가거나 관청에 가서 무슨 서류를 하나 제출하려 할 때에도 옷이 좀 구지레하고 보면 벌써 대우가 다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사람의 인정인 것이니 없는 옷 궁한 중에도 번듯한 외출복 하나쯤은……하고 생각하는 것이 못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임에 틀림없다.

외양이야 어떠한 간에 인격이 고매(高邁)하고 지식이 풍부하면 사람 대접받을 만한 인격자라고 외모에 불관(不關)하고 반겨 맞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익히 알고 있는 자에 한한 것이요 우선 외양으로부터 그 사람됨을 평가하려는 현실사회에 있어서는 벌써 통하지 않는 일이고 보니 불가불(不可不) 시속(時俗)에 따라 남과 같은 옷차림쯤은 해야 행세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도 자기를 도외시한 몸차림은 아예 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양복을 입되 5, 6만 환짜리 영국제(英國製)나, 미제품(美製品)이 아니면 아예 양복으로 치지도 않고 담배라면 의례히 양담배……그것도 필터가 달린 값비싼 것 이라야만 제격인 줄로 알고 있으며 그것도 피우다 말고 쓱쓱 뱉어버리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흔하게 우리 주위에 떠돌아다닌다.

자기 판에는 훌륭한 외모를 갖추기에 매우 고가의 지불을 하였으니 일반사람

들의 평가는 응당 “고급에 속하는 인간이라고 나를 쳐주겠지……”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심리에 젖고 있겠지만 사실상 평가안(評價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허식의 외모는 경멸의 대상으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차림을 평상한 차림……응당 그래야 할 것이라는 관점<sup>14</sup>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우선 경박한 무리와 동류로써 간주되어도 탓할 바 못되기 때문이다.

그건 또 왜 그런가? 훌륭히 국산품 천으로 양복도 지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는 마당에 도에 넘치고 분에 겨운 외국제만 쫓는다는 것은 치사(侈奢)에 속하기 때문이다.

“집에 얼마든지 재산이 있는데 무슨 까닭에 아꼐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취미를 누가 간섭하느냐?”고 항의할 수도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바는 평상 일반에 관한 이야기요 특수계층을 위한 변명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써 그 항의에 대답해 두기로 한다.

외모를 위하여 내용을 결(缺)하는 예가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많다.

흔히 결혼식에서 볼 수 있는 차량의 행렬, 분에 넘친 피로연 등등……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고 스타인 빛도 안지고 간소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걸차림에 바빠 빛을 걸머지고 몇 해씩 빛 값기에 고생하느라고 신선 기분을 잡쳐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허다 못해 어린애들 돌잔치까지 기가 막힐 정도로 늘어놓는 예가 많다.

월급쟁이들이 빛을 저가면서까지 과연 분에 넘치는 일들을 해야 옳을 것인지? 나는 가끔 그러한 외모에 관한…… 걸차림에 관한 사소한 일들에 관해 곰곰 생각해보는 때가 있다.

바단 걸차림이라면 옷이나 그러한 잔치에 끝일 것일까? 아니다. 말과 표정에도 걸차림은 얼마든지 있다.

마음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잘 하는 새로운 풍조가 있다.

“한 번 놀러오세요……”가로상(街路上)에 마주친 친구나 친지 또는 안면 있는 인사에게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 예가 많다.

주소도 날짜도 명시하지 않고 그러한 말을 몇 번 되풀이 하면서도 한 번도 정식 초대를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 말을 걸차림으로 한 것에 지나지 못 한 것이니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 볼 때 비위에 거슬리는 말이 되어 버릴 것이다.

14) 원문의 한자 歡點은 觀點의 오키로 보임.

말은 곧 마음의 표현이어야 할진대 그런 걸차림으로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 참된 마음이 있을까? 의심스런 노릇이다.

이렇게 말해 나가면 세상이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이 결여되어 사람들이 움치고 뿔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할 자도 있을 것이나 세상이 너무도 걸차림에 치중하고 내용은 없이 빈 강정 같은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융통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알맹이 있는 것을 바라고 싶다.

용어에 있어서도 걸차림은 많다. 일상회화에 있어 정도 이상으로 외래어를 섞어 쓰는 사람들, 필요 이상의 어려운 학술어를 꼬집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 수록 자신의 속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야릇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통 쉬운 말로 이야기해도 좋을 것을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말로 해야 마음이 상쾌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할 도무지 해석하기 곤란한 심리다.

그뿐이라. 글을 쓰는 데도 한 가지이다. 모르는 글자를 억지로 쓰려다가 잘못 쓰는 것보다는 아예 국문으로 쓰는 것이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서로 편리한 노릇이다.

글자 한 자를 모른다는 것이 결코 인격에 관여될 바 없다고 나는 믿는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다가 잘못 쓰는 것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조그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괴로울 것이리라.

옷차림, 말, 글, 마음가짐이 걸모양에만 치중되는 사람일수록 내용은 엉망인 경우가 많다.

웃은 번지레 하나 손톱이나 발톱 때가 드레드레하고 말은 번지레하나 내심은 검기가 석탄 이상이요. 설사 글을 근사하게 썼다 치더라도 그 글이 그 사람의 본심과 이반(離反)될 때 벌써 그 사람의 인격은 콤파 이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는지.

우리 생활에서 이러한 걸차림들이 깨끗이 없어지고 소박한 옷차림, 말투, 마음가짐이 이 세대의 풍조로 될 때 우리는 스스로 변영예의 길로 들어설 것이 아닐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에 잠기는 때가 많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벌써 고리타분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생각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느 때 나는 모(某) 인사가 한 말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의 위로로 삼곤 한다. “사람이란 안정해야 된다.

첫째, 마음이 안정해야 되고, 둘째, 생활이 안정해야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는 것…… 그 분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무엇이 행복이고 하니……

그것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권력을 쓰는 것도 아니요. 아름다운 여성을 독차지 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이 많아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권력이 많아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차지하여 그와 더불어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그릇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사람이란 마음이 안정하여 우선 불안한 감정에서 떠나야 되며 그러한 가운데 소박한 생활로 그 삶을 안정하는 것이 가장 행복된 일이라.”는 것이 그분의 말이다.

일제시대의 탄압에도 굽히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였고 또 현재 모 최고 요직에 계신 그 분은 지금도 국산담배를 그것도 한 개를 잘라서 두 번에 나눠서 피우는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분의 모든 생활은 검소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한 분이 양담배쯤 피우려면 못 피울 처지도 아니요. 권력을 부리려면 또 못 부릴 지위도 아니요. 편한 것을 택해 안온한 생활을 하기 위해 직위를 버리고 물러앉으려 해도 될 수 있는 노릇이지만 검박한 생활 속에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에서 꾸준히 공직에 봉사함을 볼진대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인격의 고귀한 점을 곧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구태여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혼탁이니 무어니 하고 우리 사회의 단점만을 들어 실망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능사인 줄로 알지만 파 들어가 보면 그러한 중에도 자기의 인격을 지키고 공(公)을 위해 봉사하려는 숨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비단 그런 분은 이상 말한 그분 한분뿐일까?

아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얼마든지 그런 귀한 분은 많이 숨어있는 것이다. 겉모양보다 속 차림을 우리는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결론이 여기 내려 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筆者) 언론인(言論人))

###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 ★ 빈자(貧者)의 원한은 독 없는 버려지가 쓰려고 노력하는 거와 같다. 그 원한은 자기 자신을 파괴할지언정 그 자신을 방위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영국 작가 골드 스미스)
- ★ 음울하게 맺혀진 비천한 원한의 서리, 시들어진 질투의 즙먹은 독약, 그들은 인간의 불멸의 부분을 스스로 삼켜버린다.…… 반역자 유다와 같이 그의 주(主), 그의 스승을 배반한다. (영국 시인 버언스)
- ★ 복수는 처음은 달 것이나 곧 쓴맛이 돌아온다. (영국 시인 밀튼)

<수필(隨筆)>

## 성하단상(盛夏斷想)

신태민



내 자신이 무척 미워지는 때가 있다. 이런 때 '나'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속상해져야만 된다.

“웃어른 앞에서 그런 소릴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 어찌다 한다는 소리가 어찌면 그런 엉뚱한 소릴 했을까?”

“……또 친구들 앞에서 경솔한 짓을 했군. ……”

마치 남의 언행 같기만 여겨지는 말과 짓을 한 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그저 미워지기만 하는 것이다.

신문사에서 얻은 하루 동안의 언행과 피곤이 집에까지 묻어온다.

자가용 삼아 새로 구입한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나의 피곤 속에 먼지와 땀이 곁는다. 나는 경쾌한 자전거 퇴근에서 휘파람을 잊어버려도 유쾌할 수 있는 잡념의 여유가 있다.

밧기만 했던 나를 조용히 꾸짖을 수도 있다.

속력을 내도 자기책무를 잊어버리고 있는 자동차의 고장 난 시속기(時速器) 바늘같이 답답하기만 한 '내 마음의 바늘'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동적으로 돌지 못하는 시속기 바늘의 둔한 감도에 대해 약간의 '생각'이 미치지 않아서는 안 된다.

XX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현관에 자전거와 모자를 내동댕이치고 라이라크 꽃향기에 젖어있는 황폐된 정원으로 간다. 독한 꽃향기에 땀이 오므라들고 하루와 피곤이 용해된다.

이렇게 나 혼자만의 시간이 됐을 때 매일같이 되풀이해서 후회해야 하는 나의 '한 일'이 또 걱정이 되고 누우쳐진다.

공자 말씀이 문득 머리에 얹힌다.

“군자를 모실 때에 세 가지 허물이 있기 쉽다. 첫째 말을 안 해야 될 때에 말을 하는 것은 조급(躁)이란 허물이고, 둘째 말해야 할 때에 말을 안 하는 것은 숨기는(隱) 허물이고, 셋째 말할만한 때에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경(聾)이란 허물이다.

시어군자 유삼견 언미급지이언 위지조 언급지이불언 위지은, 미견안색이언 위지고 (侍於君子有三愆 言未及之而言 謂之躁 言及之而不言 謂之隱 未見顏色而言 謂之瞽) 공자님은 천명을 두려워하고 덕이 높은 어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 성현의 말씀을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윤전기(輪轉機)의 웅잉 덜커덕 하는 소리로만 삼고 있으니 소인의 역을 벗어날 재간(才幹)이 있을 상 싶지도 않다.

증자(曾子)는 말하기를 오일삼성 오신(吾日三省 吾身)…… 이라 했겠다.

감히 소인에게도 이 같은 기회를 장만할 수 있도록 제시해준 것은 얼마나 고마운 나의 덕이라. ~

라일락 꽃 봉지 속에 노란 나비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담긴다.

나는 잠시 사색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도 좋다.

명명 개가 짖는다.

「내일(來日) 아침 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이 신문을 던지고 간다.

내일의 일거리가 닳쳐 온 듯한 착각 때문인지 학생이 놓고 간 신문의 잉크 냄새가 몹시 싫다.

그라도 신문속의 깨알 같은 활자가 애인의 편지처럼 반갑기도 하다.

한낮동안 아귀다툼을 하면서 만든 신문이 집에서 애인처럼 반갑기도 하면서 짜증이 나는 모순된 심사가 있다.

나는 노랑나비가 꽃 봉지 속에 입술을 담그듯이 윤전기의 소음과 혼탁한 사회를 찾아 경쾌한 내일 속에 파묻혀야 할까보다.

까쟁이 같으면서도 그리워지는 애인과 같은 나의 직장일지도 모른다.

(필자(筆者) 언론인(言論人))

<수필(隨筆)>

## 글 만들기

조풍연(趙豐衍)



‘글 만들기’란 일간신문 한국일보가 현상퀴즈에 쓰고 있는 말이다. 몇 마디로 된 글이 있는데 그 글은 군데군데 공란(空欄)이 있는 병신(病身)들이다. 그 공란에 말을 넣어서 완전한 글을 만들라는 것이다.

똑같은 형식의 퀴즈를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추리작문(推理作文)’이라고 일컫고 있다. 그러나 ‘작문’이라는 것보다는 ‘글 만들기’라 함이 정직할 것 같다. 작문이라 하면 작의(作意)가 있어야 하고 그 작사에 따라 글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퀴즈의 문제는 해답이 처음부터 정해있고 그 해답에 꼭 들어맞도록 말을 골라대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다. 작의가 발동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글을 해답과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출판물 간행자들이 라디오 방송의 퀴즈에 대하여 생각해낸 ‘보난자그람’을 일본과 한국의 신문이 각기 본떠서 옮겨온 것이다. 매주 하나씩 ‘글 만들기’문제에 응모하는 사람이 평균 만 여를 헤아리는데, 맞추면 내어주는 상금이 매력이 없진 않겠지만 그보다도 궁리궁리하여서 만들어 본 것이 얼마나 정해(正解)에 육박하느냐에 쾌감이 있는 듯이 여겨진다. 문제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내용에서 출제되는 까닭에 이에 응하자면 그만큼 출제와 대결할만한 머리를 쓰게 되는데 이런 이들이 상금, 그것에만 마음이 쏠리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것의 유행에 대하여 한 가지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응모자들은 매주 만 여에 달하는 해답을 만들 때에 출제자의 스타일을 찾아내기에 몰두하게 된다. 다시 분석하면 출제자의 글을 그대로 닮고자 노력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 얼마를 걸고서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단 한 사람의 글의 스타일을 닮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개성이 있을 리 없음은 물론 출제자가 옳지 않은 말을 생각해냈거나 꽤 까다로운 말을 골라잡고 있어서 도저히 글이 순조롭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해인 바에는 그 놈을 탐색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수많은 응모자가 한결같이 농락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견해이다.

이런 위기는 반드시 있다. 그렇지만은 위해 뿐은 아니다. 어느 사람에게든 유리한 경우도 된다. 아마 많은 사람이 득을 볼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글을 만드는 훈련을 받고 그것으로 벌어먹으며 또 만들어진 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과 글’의 연분이 되어 있는 때문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의 작문시간에서 배우기를 ‘글은 사람’이니 ‘생각한 것을 그대로’ 나타냄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의사(意思) 또는 사상을 말로 표현함이 언변이요, 문자로 표현함이 문장이다. 그런데 언변은 들어 주는 상대가 없으면 독백이 되고 말지만 글은 저 혼자만이 간직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유무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위대한 자연에 접하였다든지 깊은 명상에 잠기었을 때 저도 모르게 붓을 들게 된다. 그리운 친지에게 글월을 내게 된다. 이것이 발전하여 예술의 창작이 되는 수도 있다.

글은 만드는 것은 물론 아니며 짓는 것도 아니다. 오직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예술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대가 훨씬 달라지고 말았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개성의 발휘는 공공성을 띠었을 때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보다는 많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한 사람의 개성이 자꾸 변화한다. 이것을 '민주화'라고 부름에 이르렀다.

어느 사회에든 지도자는 반드시 있다. 이 지도자는 피지도자들의 생각하는 바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을 여론이라고 부른다. 여론에 쫓아서 지도자는 행위 하게 된다. 말도 여론에서 얻은 건더기를 정리한 끝에 발언한다. 이것이 '민주화'된 증좌이다.

교장이 학도 앞에서, 사령관이 장병 앞에서, 또는 대통령이 민중 앞에서 무엇인가 연설한다. 이 연설은 '몽테뉴'가 수상(隨想)했던 것과 같은 순수한 개인의 의사는 아니다. 무엇인가 다대수의 의사의 영향을 받았거나 정책의 시키는데 쫓아서 나오는 연설일 것이다.

외교관이 타국의 외교관과 접촉하면서 왕성하게 수작(酬酢)한다. 그 뒤에는 반드시 본국의 '훈령'이 줄을 대고 있다.

여론의 목탁(木鐸)이라 자처하는 근대 상업신문들은 '뉴스의 보도'에는 엄격하게 객관적일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오직 논평란에서만은 주관에 피력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이 논평조차도 그 논평에 직접 붓을 대는 어느 한 개인의 의사가 주동될 수는 없다. 대개의 신문사는 논평을 쓰기 전에 수인(數人)으로 구성된 논설회의를 열고서 이 자리에서 채택된 테마 주제를 가지고 논평의 초점을 삼는다. 어느 때는 디테일(세분)에까지 여러 의사가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문사 안에 제아무리 탁월한 문장가라 인정되는 논설위원이 있더라도 그는 한 번도 제 개인의 소감을 지면에 옮길 수는 없다. 개인의 소감은 기명(記名)한 글에서만 인용되고 있다.

지위 있는 자가 만인 앞에서 연설을 할 즈음에 마이크 앞에 서자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원고를 꺼내어 그것을 사뭇 낭독하고 또 어디다가 서한을 내는데 부하나 고문(顧問)이 초(草)잡은 데에 단지 서명만 하는 것을 보고 비웃을 자는 이미 없을 것 같다. 연애편지라면 몰라도. 공익 위선(爲先)의 사상이 팽배해짐과 더불어 예술을 생산하는 문필가들도 다대수의 독자의 공명(共鳴)을 받는 글을 써 내지 못하면 그 지위가 위태롭다. 대중에게 아부하는 글이 제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당장은 대중에게 고언(苦言)이 될 지라도 바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글

은 대중과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장 향유하고 있다는 미국에서 그 대표적인 예술생산품인 영화제작을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가를 살려봄은 흥미 있는 일이다. 즉 미국영화협회가 자율적인 심사규정을 세운 그 전문(前文)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 있다.

"영화제작자는 일반대중이 느끼는 높은 신뢰와 그 신뢰가 영화를 만인의 오락으로 할 것을 인식하고 있다. 업자는 그 신뢰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또 오락과 예술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관한 책임을 느낀다. 그러므로 영화를 근본적으로는 분명한 교화선전의 의도를 지니지 않는 오락이라고 간주하지마는 동시에 영화제작자는 오락의 범위 내에서 정신적, 도덕적, 진보, 사회생활의 향상, 바른 사고에 대한 직접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리하여 3개 조(條)의 원칙과 12항에 달하는 세칙을 두고 있어서 여기에 위배한 작품이나 장면은 사정없이 깎이게 된다. '검열'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상의 영화제작에 관한 윤리규정은 문학작품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해서만 창작된 아무런 모럴도 없는 작품을 예술이라기 어렵고 또 순전한 사생활의 기록 등이 공표될 시대도 아니다.

'글 만들기'는 한낱 상업신문의 인기유발을 목적으로 한 오락거리라면 그만이지만 '공식적인 글을 만드는 훈련'에는 미약하나마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나는 물론 사람의 개성을 무시하거나 개성을 지닌 글을 무시함은 아니다. 민주주의적인 사조는 각개 인생의 사상이 집대성하여 형성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어느 개성이 총체의 위에 설 수 없을 따름이다.

(언론인(言論人))

<수필(隨筆)>

## 하늘의 전장심리(戰場心理)

출격회고담(出擊回顧談)

권성근(權成根)



x월 x일 서울에서 악우(惡友)들과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음주, 방탕, 추격, (?) 같은 악행을 자행하며 한창 신바람이 나서 야단 중인데 흔들려 잠이 깨어보

니 이견 또 웬일?

영하 16도의 꽁꽁 얼어붙은 전진진지의 콘셀 속이 아닌가! 아직 제 정신은 서울에서 미처 도착을 못해서 어리둥절한데 또 한 번 일어나라는 독촉을 받아, 몇 시냐고 하니 새벽 5시라고……. 단 1분만이라도 더 잤으면 하는 미련에 못 이겨 다시 눈을 감았으나 안막(眼膜)에 비치는 거무스레한 당번의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거인 같은 중압감을 가져와 억지로 또 눈을 떠 본다. 역시 서울은 간 곳 없고 전진기지의 차가운 목침대 위였다.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브리핑에 쫓겨 얼음포대 같은 비행복을 주어 입으니 ‘전지(戰地)’라는 엄한 현실이 다시 살아난다.

지도, 필기판, 계산기, 색연필 하고 휴대품들을 주어들고 밖을 나가다 부닥쳐도 모를 캄캄한 어둠과 일시에 떨어지는 살을 찢는 듯한 한기가 나도 모르게 “어—엇”하고 전신(全身)을 뒤흔든다. 마치 어릴 적의 설날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던 그것과도 똑같은 기분이다. 그러나 명절의 흥이 기다리는 대신에 지나치게 엄한 현실에 부닥쳐야 할 차이라고나 할까……

브리핑실에는 벌써 선착자들이 제각기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정면에는 점 과 선으로 얼크리진 대(大)상황도가 밝은 전등불에 번쩍이며 조종사들의 뭇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늘은 어디야?”

“또 광산(光山)?”

“평양(平壤)?”

하고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에 이윽고 작전참모가 나타나 브리핑이 시작된다.

“금일의 목표는 ‘창도리’ 좌표 CT…….”

하고 무서운 수수께끼의 뚜껑이 열린다..

일순(一瞬)…… 모든 조종사들의 얼굴엔 긴장한 빛이 흐르고 “직통으로 걸렸구 나!”하는 표정이 누구의 얼굴에도 나타난다.

웬 일인지 그간 약간 잠잠하던 적의 대공포화가 요즘 와서는 갑자기 더 심해졌으며 특히 이 창도리 같은 곳은 어떻게 심하던지 적 탄막이 하늘색을 변하게 할 정도라고…….

어저께도 갔다 돌아온 조종사의 말에 의하면 ‘우박’이 땅에서 도루 솟아져 올라오듯 심해서 무슨 양산 같은 것을 비행기 풍무니에 달고 갔으면 싶드라나……. 그리고 보니 목표 주변의 적 대공화기의 분포도가 한두 개 소가 아니고 상황도를 붉게 물들인 것처럼 박혀져 있다.

한 번 더 모두들

“잘못 걸렸구나! 조심해야 된다!”

하는 눈짓이 오고간다. 브리핑을 끝마치고 인사 정도의 조반(朝飯)을 하고 나서 제각기 미래의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비하여 또 한 번 정리에 분주하다.

매일 아침마다 똑같이 되풀이 하는 것이지만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무슨 글이라도 하나 적어둘까? 하다가도 오히려 이 생각 자체가 나쁜 인연을 가져 올지도 모른다고 자문자답하다가 포기해 버린다.

시간이 다가와서 일어설 때는 나도 모르게 앉았던 자리를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된다. 정돈된 신발, 똑 바르게 걸린 옷가지, 단정하게 매달린 군모, 주름이 퍼진 침구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판에 찍은 듯한 강한 고별의 인상을 남기면서 방문을 나선다.

그러나 일단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지금까지의 그 초조함과 불안감은 일시에 사라지고 괴물의 눈동자 같은 계기판 속으로 나의 모든 것은 흡수되어 버린다. 결국 “올 곳까지 왔다”하는 오히려 반대적인 포근한 정신여유를 갖게 됨은 누구나 경험한 공통적인 심리인 것 같다. 그래야만 또 복잡하기 짝이 없는 비행기를 만질 수도 있고 그것을 구사(驅使)하여 싸움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

이 순간부터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공상이니 변민이니 하는 사색은 모두 제거되어버리고 오로지 기계화된 인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천만가지의 곡절도 욕망도 그저 한 개의 섯덩어리로 변하여 북으로 향할 뿐이다.

시간은 다가왔다. 모든 절차와 마지막 점검이 끝난 비행기들은 이제는 한 대 또 한 대 사진(砂塵)을 일으키며 이륙을 시작했다. 이것을 신호처럼 기지 내는 한 동안 적막이 흐르고 모든 길 가던 사람은 걸음을 멈추며 정비사는 작업 손을 멈추고 사무병은 펜을, 취사병은 부삽을 든 채 비행장은 온통 장도(壯途)에의 송별에 숨 가쁜 한 동안이 흐른다. 모든 시선은 오로지 한 곳에 집중되어 떠나가는 한 대 한 대의 기영(機影)을 뒤쫓으며 천상만상(千想萬想)의 감정이 뒤받친다.

삭풍(朔風)이 뼈를 깎고 풍진(風塵)이 앞을 가리건만 그들의 시선은 한결같이 뒤를 따르다가 마지막 한 대가 멀리 북령(北嶺)을 넘어 구름 속에 사라지면 그때야 비로소 자아에 돌아와 일시에 밀려오는 어떤 공허감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숨 가쁜 전진기지의 표정과 보내는 안타까움도 다 모르는 듯한 한 줄기의 여운만 남기고 북녘 하늘로 사라진 뒤면 잊어버린 지 오랜 이별의 허무감이 또 한 번 느껴진다.

이윽고 필요한 고도가 취해지고 요구되는 조종이 일단락되면 언제나 습성처럼 지나온 뒤가 뇌리에 떠오른다. 출발 전까지 그다지도 설레던 가슴이 한 번 이

룩만 하고나면 무슨 불안감이건 초조감이건 심지어는 해묵은 시름까지도 날아가 버리고 푸른 하늘의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는 안정된 자신(自身)을 느낄 수 있다. 마치 운동회 때 출발선에 선 설렘이 출발과 함께 사라지듯 그러나 운동회로서는 너무도 벅찬 운동회이며 경쟁으로서는 너무도 고가한 대상(代償)이 요구되는 경쟁이었다.

도달시간이 가까워지자 멀리 목표 상공인 듯싶은 전방 하늘엔 때 아닌 검은 파연(破煙)이 장막을 치고 있다.

여기저기를 가리지 않고 마구 터지는 고사포탄이 포연을 길게 끌며 점차 가까워져서 나중엔 날개 밑으로 흐르고 다시 머리위로 스쳐갈 때엔 불규칙적인 둔한 진동이 연달아 아랫배를 압축해 온다.

전투대형으로 넓게 전개한 요기(僚機)들의 뒤에도 Z기가 연기를 뿜듯 적의 포연이 총총 뒤따르고 있다.

목표가 확인되고 공격이 시작된다. 첫 페스는 폭격이고 둘째 페스부터는 기총사격이다. 기수(機首)를 대지의 한 점(點)에 고정하고 급강하를 하면 이제는 검은 포연(砲煙) 대신에 짧은 불꽃이 물결같이 흐르며 기체를 둘러싼다. 점차 근접함에 따라 조준경을 통한 검은 지표(地表)는 용접소의 불꽃같은 섬광으로 변해 진다.

1번 기, 2번 기, 3번 기…… 연달아 뒤를 이어 대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듯 살아졌다간 또 도루 솟아오르고 하며 하늘과 땅의 접촉점에서는 실 사이 없이 불꽃이 부딪친다. 마치 그림에서 보는 독수리와 짐승과의 싸움과도 같은 기이한 광경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입과 발톱을 자랑하는 독수리라 해도 한 번 땅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그만이었다. 조심 또 조심.

귀로(歸路)의 비행은 한잠 잔 후의 상쾌한 그 맛이다. 하늘은 유난히도 더 푸르고 구름은 눈이 아프도록 희게 비친다. 간밤의 꿈이 신나더니 오늘의 도박도 결국 이겼구나…… 내일은?

내일은 또 내일의 바람이 불겠지……

(공군대령(空軍大領) 공군대학교수부장(空軍大學教授部長))

###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 ★ 최귀(最貴)의 정신은 최량(最良)의 만족을 가졌다. (영국 시인 스펜서)
- ★ 한 찰나의 통찰(洞察)은 일생의 경험에 가치가 있을 경우가 있다. (미국 시인 수필가 호무스)
- ★ 몸을 살찌게 하는 것은 정신이다. (영국 극작가 셰익스피어)



## 일상생활(日常生活)과 치아(齒牙)

공군 대위 구철희(具喆會)



### 구강위생(口腔衛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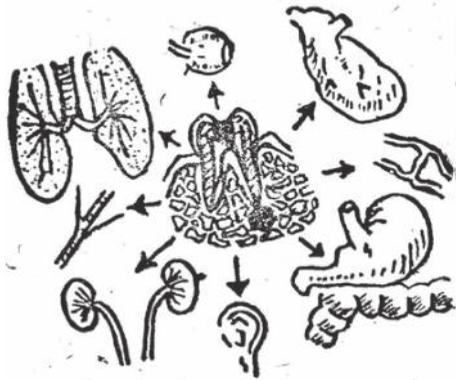
우리들의 일상생활 현상은 살기 위해서는 운동하여야하며 동작하기 위하여서는 영양물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양물을 많이 섭취하려고하면 건전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및 배설기를 필요로 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영양물 섭취구(攝取口)인 구강(치아 및 그 주위 조직)이 완전히 건전한 상태로 보존되어야만 그 말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소화기(消化器)로서의 중요성(重要性)

위장 등은 소화된 식물 중의 영양소를 혈액 중에 들어가게 하는 작용 즉 흡수를 담당하며 구강은 식물을 분해시켜 흡수하기 좋게 변화시키는 작용 즉 소화 저작(咀嚼)을 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구강 내의 제(諸)질환으로 인하여 저작을 완전히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건전한 위장을 보유한 사람도 무리한 소화운동을 담당하게 되므로 소화불량 및 위장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구강 내에 제질환은 조기의 완전한 치통(治痛)을 행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소화임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건전하게 잔존되어 있는 제기관이 2차적으로 침해를 막기 어려운 것이다.

### 구강내(口腔內)의 소화운동(消化運動)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중에 주의하여 보지 않았던 구강 내 소화운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음식이 입안으로 들어오면 여러 기관은 각각 맡은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식물을 발견하였을 때(눈)는 이것저것 살펴보기 되고 (혀)의 여기저기 붙어있는 돌기는 그 역할을 다하여 미각을 자아내며 기호물(嗜好物)을 선택하여 입안으로 떠 넣게 되는 것이다. 이때 건강한 치아들은 각기 저작을 개시하며 타액선에서는 (침)이나 오고 (혀)는 미각과 여기저기로 고루 운반하여 완전한 저작을 보조하게 하여 죽과 같은 상태가 되면 이후로 이송하여 주는 것이다. 아무튼 소화운동이 동시동휴(同始同休) 작용으로 행하여진다는 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기관 즉 치아 중 어느 한 개의 충치(蟲齒)라든지 과대한 피로로서 오는 구강 내 구내염이



라든지 하는 제질환이 있으면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 못하게 되므로 나가서는 위장에 과로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 구강질환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

외국에서 15재의 소녀가 원인불명으로 몹시 신경질이 되고 조급하여

져서 그 부모들이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앓은가 하는 정도로 정신병과에도 가보고 타 치료도 해보았으나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안면(顔面)의 삼차신경통(三叉神經痛)이 아닌가도 생각되어 최후에 구강검사를 세밀히 해본 결과 X광선 검사로서 하악골(下顎骨) 내에 매몰치(埋沒齒)가 있는 이상한 형태에 치아가 있음을 발견하고 매몰치를 발치해 버린 결과, 점점 재증상이 회복되고 정상화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치)가 나쁘기 때문에 위장을 해(害)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지만 근래 치아 중심 감염설이 제창되어 이 치아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장기에 그 병독이 감염된다는 설이다. 즉 1개 치아의 이환(罹患)으로써 악골(顎骨)이 화농(化膿)되고 더 나가서 패혈증(敗血症) 및 농독증(膿毒症)과 같은 생명의 종말을 고하는 중증(重症)을 모면하기 곤란하게 된다. 좋은 예로서 신경을 뺀 치아가 재감염되어 오래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치근단(齒根端)에 있는 농균(膿菌)이 혈액 중에 들어가 나가서는 농독증을 일으키어 사망하였다는 예가 무수이다.

이것은 오로지 치료시작만하여 크게만 확대되게 해놓고 연속적 치료를 게을리하여 종말로 완전한 끝을 내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실험상 보고에도 나타났지만 사실상 고양이내의 치아에 구멍을 뚫고(코카인)을 넣고 세멘트로 막은 다음 수일 후에 그 (코카인)이 고양이의 뇨(尿) 중에서 발견되었다하며 이러한

실험으로 인해서 치아에 있는 고름 혹은 그 밖에 병독이 혈관 혹은 임파(淋巴)를 통하여 용이하게 타 기관에 감염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치아질병으로서 재감염되는 질병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신장: 소화불량, 만성하리(慢性下痢), 충양돌기염

호흡기: 비비(肥鼻)성비염, 축농증, 기관지 가다르, 폐결핵

임파계(系): 악하(顎下) 입사선염, 임파관염

심장: 심장내막염, 신경성협심증, 심근염

이(耳): 중이염, 이통(耳痛)

안(眼): 안성(眼性)피로, 홍채염(虹彩炎), 안과화농양(眼竇化膿瘍)

혈액: 패혈증, 농독증

이상과 같이 입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중 차이를 건전히 보존치 않으면 영양물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가 없게 되니 자기 자신이 항상 유의하여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될 줄로 아는 바이다.

### 구강위생(口腔衛生) 10계(戒)

1. 튼튼한 치아를 만드는 데는 칼슘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 즉 우유 및 신선한 야채를 먹을 것.
2. 언제든지 구강 내를 청결히 할 것.
3. 충치는 아프기 전에 치료할 것.
4. 좌우치아를 충분히 사용할 것.
5. 칫솔의 선정이 긴요하다. 털이 항상 직선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6. 칫솔을 좌우상하전후로 골고루 사용할 것.
7. 잇몸의 빗깍에 주의할 것.
8. 늘 정상적인 호흡을 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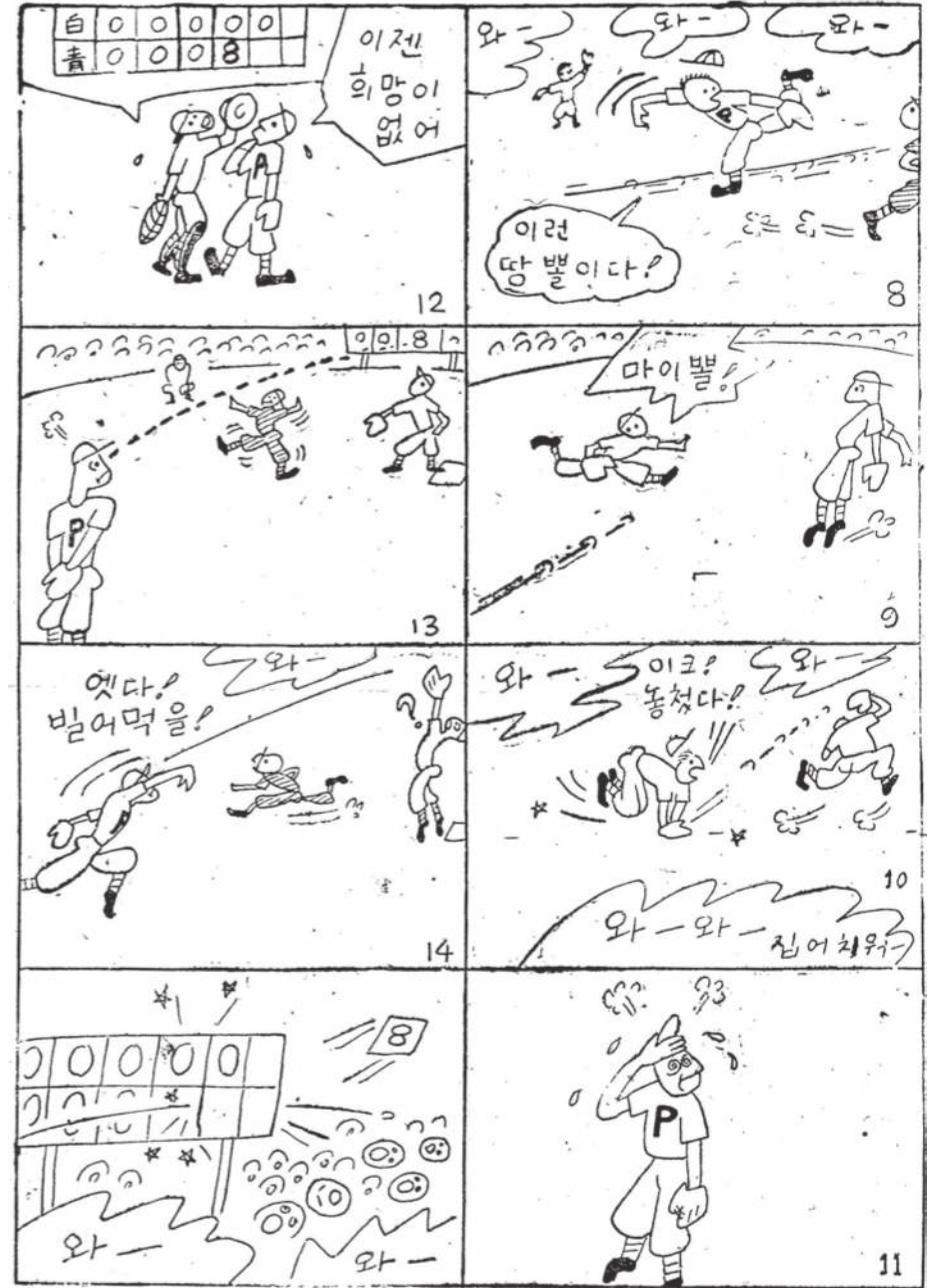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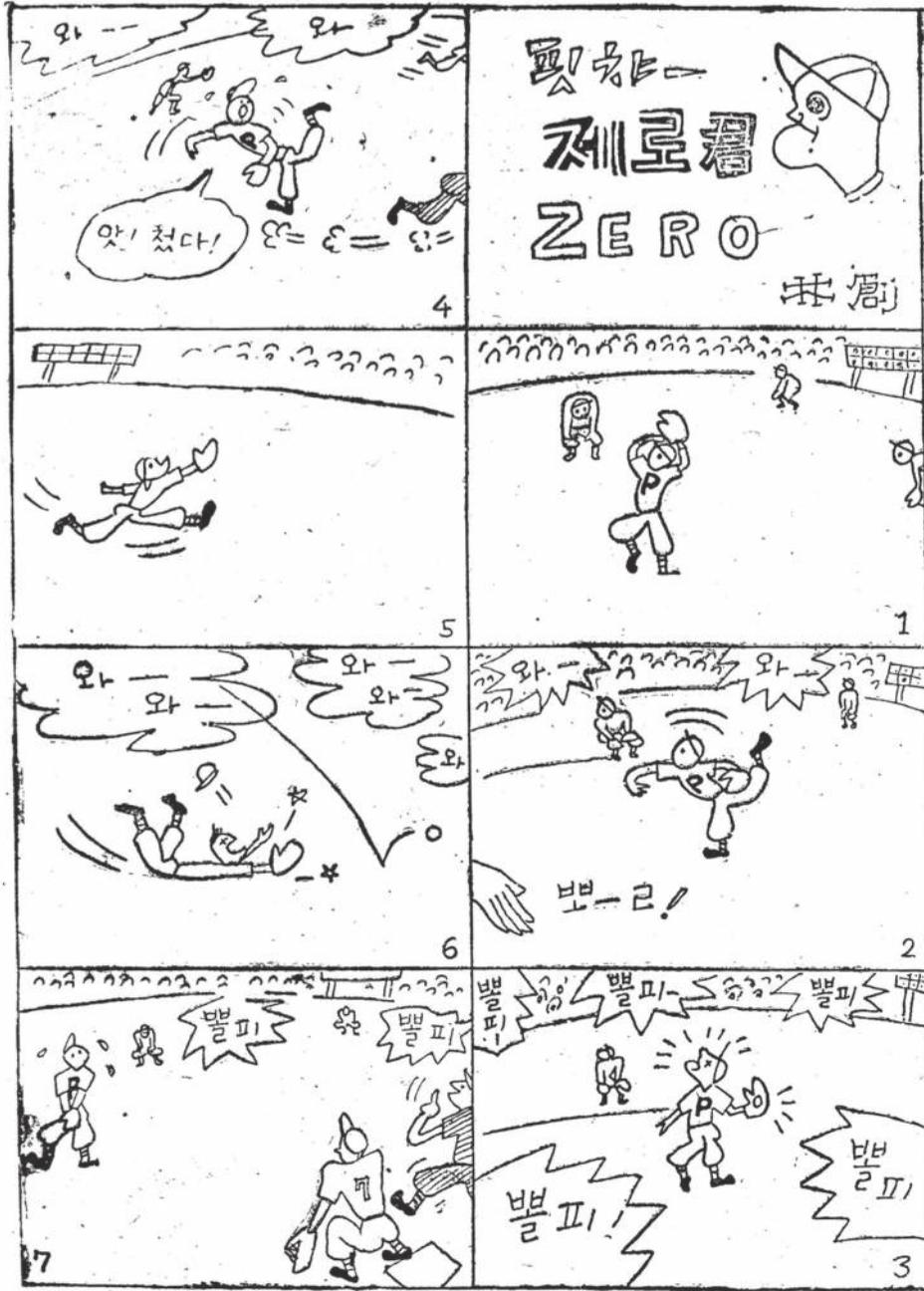
입으로만 하면 구강이 건조되어 치열(齒列)이 부정(不正)하게 되는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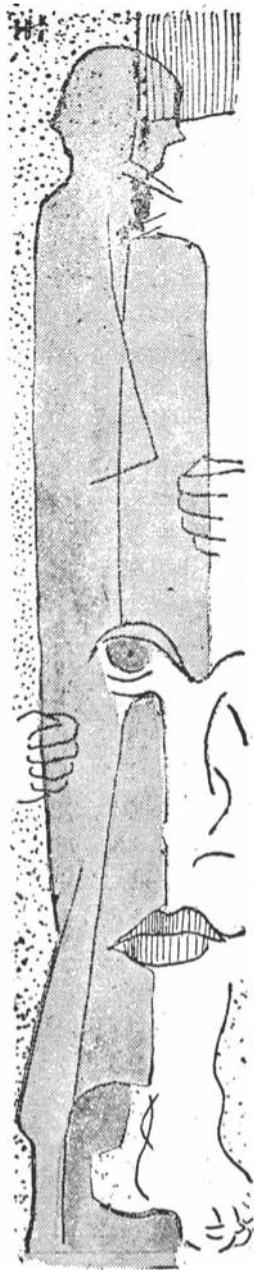
9. 치열교정은 10세 이내에 할 것

10. 정기적으로 구강건강진단을 받을 것.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강위생 습계를 항시 유의하여 내 몸의 건강이 구강위생의 철저한 실천으로부터 만병의 근원인 균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나가서는 선진국가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생적 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할 것이다.

(치아질환이 전신 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도(影響圖))





# 한국병제(韓國兵制)의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

이홍직(李弘植)

## (1)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병제(兵制)

### ① 고구려(高句麗)

삼국의 병제가운데에서도 특히 고구려병제에 대해서는 사료관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이 없으나, 대체로 초기에 있어서는 계루부(桂婁部), 소노부(消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등의 부족제(部族制)가 있어서 족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후기에 와서는 전국을 오부(五部)의 지방으로 나누워 각 부는 지방군대가 편성되어 있었고, 그 지방의 군사권은 부(部)의 행정책임관인 욱살(褥薩)(도독, 태수와 비슷함)이 장악하게 되었다. 부 밑에는 소(小)구역인 제성진(諸城鎭)이 있어서 그것을 성주(城主)가 통할하고 있었으니, 이 성주를 처러근지(處閭近支) 혹은 도사(道使)(자사(刺史)에 해당함)라 하여, 이들이 지방 제성진의 병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 대모달(大模達)(위(衛) 장군과 비슷함), 말객(末客)(중랑장(中郎將)과 같음) 등 고급군관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는 일찍부터 북위(北魏)의 군제를 모방하여 어느 정도나마 정비된 무관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더우기 수(隋), 당(唐)의 한(漢)민족 및 북방민족의 침구(侵寇)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고구려의 국방력은 더 한층 튼튼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대정복국가로서의 면목을 갖추어감에 따라, 비록 고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나 병제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았을 것이다. 고구려의 징집연령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일반부역과 축성작업에 15세 이상의 장정을 징발하였다는 기사(記事)로 미루어보아 대체로 15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 ② 백제

제8대 고이왕(古爾王) 이전에는 용감하고 사격술이 우수하고 지

모가 많으며 그리고 작전에 능한 자를 뽑아 우보(右輔) 또는 좌보(左輔)에 임명하여 군사권을 관장케 하였는데 고이왕 때부터는 차츰 고대국가로서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제반 제도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왕을 최고통치자로 한 군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왕의 병권통수 하에 국도(國道)에는 고구려와 비슷하게 5부구역제(상부, 전부, 중부, 하부, 후부)가 실시되어 도성 및 중앙관아를 수위하는 순찰병과 왕실을 보위하는 숙위병을 두어 왕족 및 6품 내솔(奈率) 이상의 관료귀족을 지키게 하였다. 중앙에 있어서는 위사(衛士) 좌평(佐平)을 두어, 왕경내의 제 부의 군사권을 장악하게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지방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도 꾀하고 또한 병관(兵官) 좌평을 두어 지방의 5방에 주둔한 상비군을 지휘 감독케 하였다. 왕도(王都)내의 각부에는 위병 500명을 배치시켰으니, 이들은 전군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모가 있는 자를 선발하여 편성한 최강의 부대인 것이다.

백제는 지방을 5방으로 나누어 각 방에는 방의 책임자인 방령(方領)(달(達) 2품)이 있어 지방군 사령관으로서 병관 좌평의 지휘 하에 제 군(郡)의 지방군대를 통솔하고 있었다. 그런데 각방에는 10개 군이 분속되어 있고, 각 군에는 군장(4품 덕솔(德率)) 3인이 있어 군(郡)내의 병마권을 잡고 있었으며, 군(郡)내에는 다수의 대성 및 소성이 있어 거기에는 상비병이 주둔하여 있고 성주(城主)와 진장(鎭將)이 이를 통할(統轄)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각 방은 1,200명 이하 700명 이상의 군대를 영유(領有)하고 있었다. 병제상으로 보아, 백제의 방(지방의)은 오늘날의 지방군관구와 같은 것으로, 소관지방의 병사행정을 맡아 보았을 것이니, 징병, 제대, 훈련, 방위시설(관방(關防), 봉수(烽燧), 역체(驛遞), 병참(兵站)의 관리감독, 승군의 지도, 그리고 논공행상 등의 제반 병사사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각 지방의 주둔병은 통수자의 지시에 따라, 평시에도 열병식을 거행하는 등 전투훈련의 강화에 힘썼으며, 그리고 각 부대의 구별은 기치의 색, 복색 내지 복장의 양식 등으로서 표시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백제의 군대편성제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징집연령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백제에서는 대략 남 15세 이상의 자를 징집 입대케 하였으며, 그밖에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축성과 제방수축 등의 제 노역에도 동원되었던 것이다. 퇴역 연령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마는 고려병제의 예로 보아 60세(노쇠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들 병사는 복무 시에는 조(租)를 불납(不納)하였으나 제대 귀농 시에는 세를 바쳤으며, 징집된 병정은 유사시(주로 전시)외에는 위병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대 귀농시키고, 소수의 상비병만 남기었으니 여기에 병농일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백제병제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 ③ 신라

신라의 병제편성은 촌, 현, 군, 중앙단위로 되어 있으며, 전국의 병사행정은 중앙정부의 병부가 이를 통할 감독하고 있었다. 군대의 배치를 본다면, 전국에 걸쳐서 6정(停)(6개 병단), 9서당(誓幢), 10정(停) 등 23종의 대소부대가 분치되어 있었다. 특히 국도(경주)주변에는 남기정(畿停), 중기정, 서기정, 북기정, 막야정(莫耶停) 등등의 군사적 구획이 설치되고, 여기에 3,000인의 군사가 주둔하여, 수도보위와 왕실수위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밖에 사자(獅子)부대라고 불리워졌던 최강의 특수부대도 배치되어 있었다. 무관제를 본다면, 시위(侍衛) 장군을 비롯하여 여러 계층의 무관이 있었던 것 같으며, 지방 각주의 장관에는 무관을 임명하여 이를 군주(軍主)뒤에 총관(總管), 도독(都督)이라고 칭함)라고 불렀으며, 주의 군사권은 모두 이 군주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던 것이, 신라가 차츰 정복국가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군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더우기 강대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반도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신라는, 확장된 고구려 및 백제의 고지(故地)를 통치하기 위하여, 군사조직제도 더 한층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9서당이라는 새로운 부대편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녹금서당(綠衿誓幢), 자금서당(紫衿誓幢), 백금서당(白衿誓幢), 비금서당(緋衿誓幢), 황금서당(黃衿誓幢), 흑금서당(黑衿誓幢), 벽금서당(碧衿誓幢), 적금서당(赤衿誓幢), 청금서당(靑衿誓幢) 등의 9개 부대로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명칭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색(衿色)의 다름에 의하여 부대의 이별(離別)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9서당중 통일 이전부터 신라에 존재하여 있었던 것은 녹금서당, 자금서당, 비금서당뿐이고 백금서당, 청금서당은 백제인, 황금서당은 고구려인, 흑금서당은 말갈인, 벽금서당, 적금서당은 일부의 고구려인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신라가 반도를 통일하여 행정구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군제도 상당히 발전되어 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신라에는 군제로서 10정의 조직체가 있었다. 즉 음리화정(音里火停), 고량부리(古良夫里), 계사물(屈斯勿), 참려화정(參戾火停), 소참정(召參停)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 남천정(南川停), 골내근정(骨乃斤停), 벌력천정(伐力川停), 이화혜정(伊火兮停) 등을 말함이니, 이것 역시 신라군호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이 정(停)으로 말한다면 전국 9주에 걸쳐서 각 주마다 정식 분치되어 있었는데, 특히 한주(漢州)에 받은 2개의 정을 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0정제는 지방주군의 편제가 아니었던가 생각되며, 제 군현(郡縣)의 소재지와 국방상 요지인 제 성진(城鎭)에

는 약간의 상비수비군을 두었던 것이다.

장정의 징집연령과 퇴역연령은 전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각 15세와 60세 전후로 정하였을 것이며, 또한 병사의 현역복무연한은 삼국사기 열전의 설씨여전(薛氏女專)의 한 기사(記事)로 미루어 보아 3년간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통일기를 전후하여 신라에는 일종의 소년의용군단체인 화랑제(花郎制)가 있어서 기간장교를 양성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으며, 그들 낭도(郎徒)의 의용심은 곧 그것이 신라군인의 상무정신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후일이 화랑 단원의 증가와 그 제도의 발전은 그대로 신라국방력의 강화에 따른 병제의 확립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런데 말기의 혼란기에 들어와서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어지고 반면 군제가 문란하여져서 지방의 군사책임자인 도독과 성주 등이 반란을 일으키어 주현의 군대를 사병으로 만드는 등 중앙정부와 대립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으니, 결국 이것이 신라멸망의 한 도인(導因)이 되었던 것이다.

## (2) 고려시대의 병제

태조는 통일을 완성한 후 당(唐)의 병제를 모방해서 부병제(府兵制)를 채용하여 6위(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금오위(金吾衛), 천우위(千牛衛), 감문위(監門衛))를 설치하고, 그 밑에 38령(부대)을 두었다. 그 후 제7대 목종 때에 와서 이 6위 위에 구양군(虜揚軍), 용호군(龍虎軍)의 2군을 가설하여 2군6위의 고려병제를 완성시키게 되었다.

군(軍)·위(衛)에는 상장군(上將軍), 대장군(大將軍), 장군(將軍), 산원(散員), 위(尉), 대정(隊正) 등의 무관직위가 있고, 이밖에 중방(重房)원수부(元帥府)와 비슷함)이라는 고급무관의 연합회의기관이 있었으니, 이것은 상장군, 대장군의 각 8인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령에는 부병(府兵) 1,000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부병은 농민가운데에서 선출되었으며 재역연한은 16세로부터 6세까지이고 3년에 한 번씩 장정을 징집하였다. 이들 부병에는 국도(개경)와 국경지방을 수비하는 상비군과, 귀농하여 둔전(屯田)을 경작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던 예비병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는 각 주현마다 주현군(州縣軍)을 두어 지방의 치안 및 외침에 대비케 하였는데, 특히 그들 지방가운데에서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 동서양계의 제 지방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여 변경의 요지를 지키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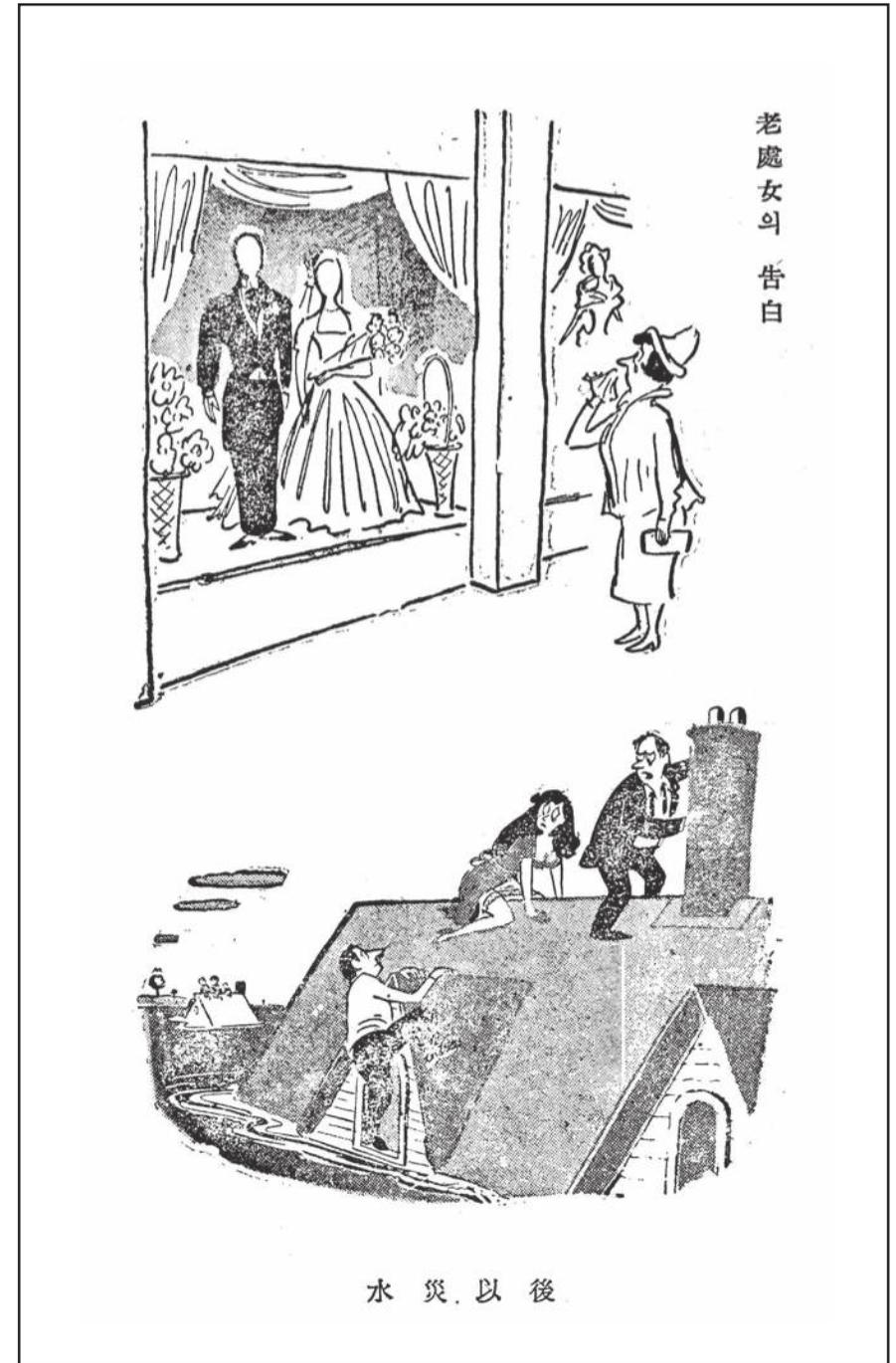
그런데 후일에 와서, 농민가운데에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병제는 차츰 무너지게 되었고, 더욱이 제115대 숙종 때만 하더라도 부병의

군세가 크게 약화되어, 북계수비군 중에는 무능한 병졸이 많았으므로, 동(東)여진(女眞)인의 침구(侵寇)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심한 전화(戰禍)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일 여진인 침구 시에 동북면행영 병마도통이었던 윤관(尹瓘)은 군비를 혁신하고 확장할 것을 건의하여 이에 별무반이라는 신군제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신기군(神騎軍)(문무(文武)산원(散員)이서(吏胥)로부터 상인천예민(商人賤隸民)에 이르기까지 마필을 소유한 자로써 기병을 조직케 한 것)과 신보군(神步軍)(신보(神步), 도탕(跳蕩), 경궁(梗弓), 정노(精弩), 발화(發火) 등 제반으로 나누어진 보병)을 분속하여 20세 이상의 장정으로서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을 제외하고는 전부 신기, 신보 양반(兩班)에 입속시켜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 후 제18대 의종대의 무신 정중부(鄭仲夫) 일파의 쿠데타를 거쳐 명종 때부터는 무신이 득세하여 도방(都房) 및 마별초(馬別抄) 등의 강력한 사병집단을 그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게 되어, 한 때에는 그 사병의 세력이 부병을 능가할 만치 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씨 집권시대에 삼별초라는 특수부대가 편성되었다. 즉 처음에는 야별초(도적을 진압하는 야간순찰대)만이 조직되었는데 후에 병수가 늘어 좌별초, 우별초의 2개 부대로 나누이고, 거기에 신의군(神義軍)(몽고로부터 탈출하여 온 국민포로로써 조직됨)을 합하여 삼별초 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삼별초는 처음에는 고려무인의 자주 독립적 정신으로써 몽구(蒙寇)방어에 다대한 공훈을 세웠으나, 후일 삼별초의 난이 격화되어감에 따라 차츰 항몽파(抗蒙派) 권신의 사병으로 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문란을 극(極)하였던 고려의 병제는 개경환도 이후 원(元)과의 외교관계가 맺어지고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감에 따라 차츰 공병제의 복구를 보게 되었다. 특히 몽고의 군제를 모방 수입하여 퇴폐한 고려의 군제를 재흥(再興)하게 되었으니, 이때에 와서 비로소 만호(萬戶), 천호(千戶), 백호(百戶) 등의 새로운 군대편제가 세워졌으며 또한 몽고군이 오랫동안 고려에 머물러있는 동안 고려의 병제는 거의 몽고풍으로 물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몽고명을 본떠서 숙위병을 물적(勿赤), 우달적(迂達赤), 속고적(速古赤), 아가적(阿加赤)이라 칭하였고, 만호 등 무관의 임명권을 전혀 원군 측에서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민왕(恭愍王) 때에 와서 나라 안에서 반원운동이 격심하여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종래의 몽고식의 군제를 일소하고, 따라서 국왕 자신이 원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무관을 임명하게 되었다. 더욱이 공민왕은 일종의 향병(鄉兵)조직체인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하게 되었다. 즉 만호부는 악군으로 조직되었는데, 이 제도는

(9면으로 계속)



# 국제경찰(國際警察)이란?

한태수(韓太壽)



## 1. 국제경찰(國際警察)의 목적(目的)과 그 필요성(必要性)

국가 내에서 시민이 폭력과 불법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법과 경찰기관을 통해서 행사되는 국가권력에 의한다. 이 원칙을 국제사회 내에서 각 주권국가 관계에 적용하고 하는 것이 국제경찰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경찰의 행위는 다음 두 가지 방면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국제법상의 범죄, 예를 들면 해적행위, 노예매매, 집단살해 등에 대한 국제적인 방위행위가 그것이다. 즉 범죄자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의해서도 방위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다. 둘째 국가의 침략행위, 예를 들면 침략전쟁 기타 침략적 무력행위에 대한 다른 제국가의 공동방위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국제경찰행위는 국제연맹 또는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함께 최근에 발달한 현상이다. 상술한 바 국제경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난관도 많지만은 4반세기동안에 두 차례나 세계전쟁이 발발한 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긴급지사(緊急之事)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행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조직이 촉진된다고 할 것이다.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전쟁을 회고하여 볼 때 모두 불가피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세계 각국의 이해대립이 충돌한 것이니 이 충돌을 조정할 권력이 성취되어 있지 않는 한, 어느 때나 그 충돌은 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세계 각국은 이미 자국만으로는 자급자족할 수 없는데서 서로 다투어 해외진출을 도모하게 되고 그 세력 충돌이 곧 전쟁으로 되는 것이니 요는 세계 각국이 모두 타와 관계없이 살 수 없게 되는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계 각국의 상호관계를 무정부상태에 방치하여 약육강식을 자행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국제조직을 구성하여 국제사회적인 권력행사를 함으로써 적절히 그 관계를 조정하느냐 하는데 귀착된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조직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 2.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시도(試圖)

국제연맹 규약 제11조에 의하면, 1.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은 연맹국의 하자에

직접 영향이 있고 없는 것을 막론하고 모두 연맹전체의 이해관계 사항인 것에 성명한다. 따라서 연맹은 국제의 평화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당하고 또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차종(此種) 사변이 발생했을 때는 사무총장은 연맹국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연맹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국제관계에 영향이 있는 일체의 사태로서 국제평화 또는 그 기초가 되는 각국 간의 양호한 양해(諒解)를 교란할 우려가 있을 때 연맹총회 또는 연맹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연맹 각국의 우의적 권리인 것을 겸하여 자에 성명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또 동 제16조에 의하면 1.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쟁에 호소한 연맹국은 당연히 타의 모든 연맹국에 대하여 전쟁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타의 모든 연맹국은 이에 대하여 즉시 일체의 통상상 또는 금융상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국민과 위약국 국민과의 일체의 교통을 금지하고 또 연맹국 여하를 막론하고 타의 모든 국가의 국민과 위약국 국민과의 사이에 일체의 금융상, 통상상 또는 개인적 교통을 방일(防遏)할 것을 약속한다. 2. 연맹이사회는 전항의 경우에 연맹의 약속옹호를 위하여 사용할 병력에 대한 연맹각국의 육해 또는 공군의 분담 정도를 관계 각국정부에 제안할 의무가 있다. 3. 연맹국은 본조에 의하여 금융상 및 경제상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이에 기인한 손실 및 불편을 최소한도에 그치게 하기 위하여 상호 지지해야 하고, 연맹의 일국에 대한 위약국의 특수조치를 항거하기 위하여 상호 지지해야 하고, 아울러 연맹의 약속옹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연맹국 군대의 판도 내 통과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 규정이 있지만은 요컨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경찰군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비로소 수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국제연맹에는 미국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데서 그 세계평화기구로서의 중량이 무겁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로 독일과 일본의 탈퇴를 보았고 종내(終乃) 세계 제2차 대전을 야기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연합에서는 그 조직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취중(就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을 확립시키는데 주력하였으니 그것은 국제연맹이사회가 무력적 보장을 가진 집행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본 까닭이다. 이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국에 대하여 그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연합헌장 제33조 1항 1항) 2.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또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한다. (국제연

합헌장 제39조)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에 이르지 않는 여하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고, 또 그 조치를 적용할 것을 국제연합 가맹국에 요구할 수가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와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라디오 및 기타 교통수단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아울러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가 있다. (동 헌장 제41조) 4.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를 부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부적당한 것이 판명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의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 이 행동은 국제연합 가맹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기타 행동을 포함할 수가 있다. (동 헌장 제41조) 5.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 가맹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에 기초하고 또 특별협정에 따라서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편익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케 하기를 약속한다. (동 헌장 제43조)

이와 같이 하여서 확실히 국제연합은 국제연맹보다 무력적 보장을 확고히 하려고 하였다. 특히 동 연합헌장 제43조 규정은 동 연합이 상설적인 국제경찰군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으나 불행히도 대국 간의 대립, 특히 미국과 소련과의 대립 때문에, 국제경찰군 창립에 관한 특별협정이 하나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국제연합의 국제경찰적 행동은 현실적으로 행사되지 못한다. 그러나 1950년 6월 한국전란의 발발과 함께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약간의 가맹국 군대가 공산군에 대항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부권작용 때문에 유효하게 활동할 수 없으므로 이 전란을 기회로 하여 1950년 11월 3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통합'을 결의하였다. 즉 소위 총회강화결의가 소련 및 그 위성국가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성립하여서, 안전보장이사회뿐만 아니라 거부권제도가 없는 총회에 의하여서도 침략에 대하여 가맹국에 무력행위의 발동을 권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인을 최고사령관으로 하여 통일적 군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국제연합가맹국 10수개국은 이 권고를 임의로 수락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군대는 광의로 국제연합군이라고 호칭되고 또 그 활동도 국제경찰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수에즈운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집트에 대한 영불의 침략이 있자 동 11월 5일에 UN총회에서는 국제경찰군조직을 가결하였다. 그리하여 동 9일에는 벌써 17개국의 군대로 조직된 국제경찰군의 선발대가 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컨대, 현재 동원되고 있는 경찰군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의

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된 것이다. 동 헌장의 규정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첫째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제도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니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양대 진영의 현실적인 대립관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헌장 제43조 규정에 의한 상설적인 국제경찰군설치는 물론, 동 제42조 규정에 의한 국제경찰군설치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동원되고 있는 국제경찰군은 광의로 취급될 성질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3. 국제경찰의 장래

그러나 현 국제사회가 단순한 이상적인 도의심(道義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필연적 현실적 요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그 존재가치를 방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국도 소련도 마찬가지로 불가피적으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국제경찰군의 장래에 서광을 발견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미소대립관계가 심하니까 국제연합헌장 제43조규정의 특별협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제도도 용이하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간 전쟁도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쉽게 대규모화시키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인간의 이상은 그것이 현실적 요구와 부합될 때 실현되는 것이니 이미 인류평화의 이상은 현실적 요구와 매우 접근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다. 타를 정복하려는 마음은 그 정복으로써 자기의 향상을 기대하는데서 일어나는 것이니 히틀러의 정복욕이 대독일의 건설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정복과 피정복을 생각할 수 없는 세계전쟁이라면 이것을 소련인들이 어찌 그다지 바랄 수 있겠는가. 결국 금일의 무력준비는 상호의 세력균형을 위함이고 극히 국부적인 이익을 노리는 것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경찰군의 장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수립되어 갈 것을 믿는 바이다. 요는 인간의 감정이 이상을 지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수자 지배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상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하루 빨리 세계 각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에로 환원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필자(筆者) 숙명여대(淑明女大) 교수(教授))



## 노래하는 시(詩)와 생각하는 시(詩)

사상(思想)·주제(主題)·낭독(朗讀)의 제문제(諸問題)를 중심(中心)으로

김규동(金奎東)

아직도 과거나 현재에 나무나 많이 노래 불러진 테마를 붙잡고 시작(詩作)을 영위하는 시인이 혼란 일이지 않지만 최근 발표되는 시의 절반 이상은 소재를 새로운 사물이나 사태에 구하고 있는 것이라 보겠다. 기계를 노래 부른다든지 혹은 도회의 혼란과 죄악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진 시를 비롯해서 한 시인의 사생활 속의 조그만 이야기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지독한 불면증 혹은 식욕부진 자살 고독을 소재로 찾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가 지금부터 바른 방향으로 갈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증거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새로운 사태나 사물에 소재를 구한 시는 생명감이 결여된 채로 한개 보고나 피력(披瀝)의 상태에 떨어지고 마는 경과가 많다. 이것은 우리들 새로운 시인들이 앞으로 다투어서 심화해가야 할 방법론상의 문제지만 여하튼 과거와 다른 새 현상(사회현실)에 시인이 차츰 시의 재료를 찾게끔 되었다는 사실만은 소홀히 볼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시인은 언어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가 소위 전통적 시어(詩語)라고 부르던 언어 군을 박차고, 일견 아무렇게나 언어를 쓰는 듯싶은 인상을 자아내게끔 된듯 하다. 현실에 부딪쳐서 시인이 느낀 생생한 상념을 아무런 형식과 압박에도 구애되지 않고 한 장의 백지장 위에 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한 개의 비약이요 전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완전무결한 언어를 쓰지는 못한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쓰는 언어는 결코 좁은 영야(領野)에서 주어진 것을 범한 낡고 퇴색한 말은 아닌 것이다. 일상회화의 대부분으로부터 군사용어(주로 전쟁에 관련된 것) 과학용어 또는 유행어(지어진 말)가 얼마든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는 오늘의 기상도에 얽힌 한 녹음의 상태에 근사한 감이 짙다.

기계를 악마라고 노래 부른 '볼레이크'는 한 겹쟁이 노인이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문명이 시를 우물케 하는 검은 마신(魔神)으로만 비치었던 것이다. (볼레이크)를 겹쟁이 영감쟁이로 비웃는 우리들이면서 아직 얼마나 많은 (볼레이크)의 자손들을 함께 데리고 살고 있는 현실인가?

이러한 모순 속에서나마 최근 대하는 많은 새 시인들의 작품과 몇몇 중견들의

시작(詩作)은 유난히 흥미를 돋구어준다.

(종문(宗文)), (주영(洙暎)), (장호(章湖)), (상화(相華)), (구용(丘庸)), (지훈(芝薰))의 어떤 시들은 새 심리주의적인 일면과 현실비판의 치열한 불꽃을 뿌리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시인들의 작품은 씩씩하다. 씩씩하다는 것은 일부러 꾸민 데가 없이 직관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아무리 음율이 틀에 짜이고 그럴 듯하고 점잖고 철학적이고 심각해 보인들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감격을 주지 못한다면 벌써 그는 시인이 아니라 문장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한 가련한 판매업자에 불과하다.

그럴 듯하고 틀에 짜인 문장은 흔히 무슨 의식의 주문이나 어느 귀족 집에 따님을 위한 장식용은 될지 몰라도 우리들의 가쁜 숨결과는 도시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느냐.

40대 이상의 지식인들은 흔히 위에 열거한 시인을 난해하다고 할 것이다. 낡은 시인(김소월(金素月), 한용운(韓龍雲), 이육사(李陸史) 등 일련의 신시 초기 혹은 중기의 시인)들의 시만을 읽어온 눈에는 새로운 시인들의 작품은 친밀감을 주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의 젊은 제너레이션은 새 시인들의 어떠한 어려운 시도 어렵다고는 하지 않는다. 낡은 운문(韻文) 대신 새로운 조형의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젊은 층을 상대로 시를 쓰는 시인은 그러므로 새 세대의 회화를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완고하기 짝이 없던 (저널리즘)도 차츰 관심을 가져주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 밑에서 새 세대의 시인은 저들의 창조욕을 기를 수 있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시인이 처음의 시발점에서 느끼던 고독감, 공허감은 차츰 해소되어가고 생각하는 시 - 직시하는 시, 투명한 시의 사고가 앞장을 서게끔 되어가는 오늘의 인상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적에 이는 필자 개인만의 소감은 아닌 줄 안다.

새로운 시인들은 좀 더 생활의 주변에서 얻는 가장 절실한 느낌을 시로 쓸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은 우리들의 메마른 정신 고갈되어 가는 신경을 위로해 줄 수 있겠기 때문이다.

'즉물주의(卽物主義)'는 바로 이러한 시적 분위기를 토대로 하고 싹터 올라야 할 것이다. '네오리얼리즘'의 예리한 시각도 이 속에서 배양될 것이다.

애매모호한 뉘드리를 쓰기에는 너무나 때가 늦었다. 달라진 세상, 달라진 현실에 대하여 카메라의 앵글을 적의(適宜) 돌려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단계에서 음악주의 혹은 시의 여러 형식문제를 다룰 때는 아니다. 흥미 있는 일은 전기(前記)한 시인들의 몇 개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주제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안 될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시를 썼는가? 형식의 문제는 선택된 무엇에 따라서 자연 낙착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너무나 '시를 위한 시'만을 쓰고 앉은 많은 풍류객들에 대하여 우리는 새삼스럽게 세상을 인생을 또는 오직 한 개의 물건일지라도 그것을 보는 각도와 태도를 제시해주어야 할 줄 안다.

현실에 대한 저항의 자세가 이제는 각자가 명확해져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여기에 편내용주의(偏內容主義)에의 지향을 고취(鼓吹)하려는 의사는 조금도 섞여있지 않다.

새로운 시학에 의하여 무장된 시인이 안은 세계상은 거의 서로 통할 수 있는 유형에 의하여 그 존재이유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새삼스럽게 내용의 문제 - 사상성의 제 문제를 문학 이전에서와 같이 논의할 하등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라 믿는다. 시는 사회와 시대의 씩 없는 변이를 감각하며 끊임없는 전진을 피해 나아가리라! 이런 징후는 작금에 발표된 얼마간의 사고하는 시에서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는 일이다.

인스피레이션이 오기를 기다려서 작품을 쓰는 사람들과는 달리 시작을 의식적인 행위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되어있다. 이 계열의 시인들은 인스피레이션을 극히 배격할 뿐만 아니라 시의 심리학을 신비로운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

우리 시단(詩壇)은 지금 이러한 두 흐름의 대립의 치열한 내부투쟁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영감을 주장하는 시학의 영아에 근거를 둔 군소시인들은 비교적 새로운 정신을 인계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서양주의(西洋主義)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성적'이며 '공간적'이며 '즉물적'인 것을 사색하는 시인들을 향하여 보통 이해가 없거나 설령 이해가 있다 할지라도 몹시 애매한 경지에 있는 까닭에 반감을 사는 상태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자연 발생적인(영감만을 얻는 태도 - 이것은 음악, 회화, 소설 특히 작곡의 경우에 있어서) 시인의 입장은 대개의 경우, 비평에 의하여 끝까지 그 작시술(作詩術)의 비밀을 지켜내지 못하는 까닭에 가장되었거나 혹은 없는 것을 있는

체했던 가치의 문제가 흔히 붕괴되고 마는 까닭에 권위를 잃기 쉽다.

그런데 대체로 '내추럴'한 생각을 가진 시인들은 시의 과학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비평적 의식이 희박한 것이 정말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시를 쓰는 사람들의 작품에 대해서 정당하고 정확하며 그러면서도 가치 있는 비평을 해내지 못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월평(月評) 혹은 1년평(一年評) 같은 짧은 문장에서 용감하게도 수십 명의 시인에 대하여 재단을 내리는 것을 보라. 이러한 비평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무의미하고 허장성세에 가까운 일인가를! 시를 써야 할 혹은 작곡을 해야 할 사회적 또는 과학적 혹은 심리학적 또는 역사적 하등의 자각이 없이 닳이 알을 낳듯이 작품을 제작하는 낡은 정신의 소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그 유일한 소리란 바로 이것은 서양의 모방이므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념을 주장하여왔다. 상징주의 혹은 낭만주의는 시 이전에 이미 졸업하고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데카당티즘을 우리들의 중학시절에 이미 졸업하고 난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 시간성 즉 음악의 상태만을 노리는 무자각한 방법이라든가 감정위주의 소박한 예술을 지향하는 낡은 태도는 지나간 시대의 것인즉, 이제 그만 지양하자는 것이 솔직한 심경인 동시에 주장이기도 하였다.

우리 신시 40년의 역사 자체가 서양의 모방이 아니고 또 무엇이랴?

전통적으로 우리 시를 옹호해 낼 길은 그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기왕에 서양시의 모방을 하는 바에는 좀 더 근대 혹은 현대에 속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쉬르리얼리즘은 말할 것도 없이 한 고비 지나간 서양시 사상(史上)의 한 운동에 지나지 않았다. '다다'도 그러하고 '즉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이미지즘(사상주의(寫像主義))' 역시 그러하다.

10년 혹은 20년 전에 이미 지나간 운동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중요한 요소로 비치고 있는 이유가 우리들의 의식수준이 적어도 40년쯤은 그 모든 장르에 걸쳐서 뒤떨어지고 있는 때문인 것이라.

'심블리즘'의 잔재에 역매여서 시를 애완하자는 태도에 비하여 '쉬르리얼리즘'의 집착이 구토를 느낄 정도로 짙은 시를 사랑하는 시인들은 실상에 있어서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코 낙제생은 아닌 것이다.

아직도 영감을 기다리고 앉아서 시작을 업으로 삼는 낡은 시인의 정신에 비하여 서양현대시의 자취를 더듬어서 그 좌표의 행로와 방향을 측량하려는 시인들

은 얼마나 현명한 시대의식의 소유자들인지 모른다.

모든 현대예술은 '초현실주의'를 거점으로 해서 비로소 시대의 각광을 받을 수가 있었다. '취리얼리즘'을 이해하고 나섰다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는 위대한 노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시대의 시인이긴 하지만 서로 그 가치체계가 다른 시인 이상(李箱)과 박용철(朴龍喆), 박두진(朴斗鎭)은 좋은 대상(對峙)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시가 해오라지 청각에 의해서 전달된 소는 인쇄술의 발달이 있기 전의 일이었다. 시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순전히 청각에 의지해서 시를 향수(享受)했던 것인데 이러한 시절의 시는 따라서 음악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시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래에 가까운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어야만 전달이 썩 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인쇄술의 발달은 구전에 의해서 향수되기 마련이던 시를 눈으로 보고 음미케 했으며 노래에 가까운 요소를 다분히 지녔던 시로 하여금 산문체의 스타일로 발전시켰다.

다시 말하면 음악성을 추방하고 회화성을 보다 더 많이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현대시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노래하는 시로부터 생각하는 시에로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음악성(외형을 혹은 내재율)을 버리고 내적 이미지의 형성을 목표로 해서 발전했다는 것은 시가 난해해졌다는 말로서도 바꿔 이야기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시는 벌써 시각을 통해서 향수되는 예술이지 음악의 경우처럼 청각을 빌어서 전달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현대시도 가끔 낭독이 되어있고, 장 콜토 같은 사람을 비롯하여 영국의 시인 달린트 오버(1914-1953) 혹은 랑게 낫츠와 같은 시인들에 의하여 비상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엄정한 한 개의 사실인 것이다.

이는 곧 청각에 의한 시 전달의 부활로서 원시적 전달방법의 새로운 활용이기도 하다. 현대시란 말할 것도 없이 운율(韻律)을 배격하고 나선 것인 이상에는 구태여 운율의 문제를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낭독시의 경우에 이르면 대부분의 시인이 울조와 격조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집중해서 다만 '소리'에 불과한 시를 읽고 만다는 인상이 농후한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의 인쇄된 시를 읽을 때 보통 시의 독자는 내적 이미지를 육체화시킨다. 그러므로 한 줄 한 줄의 시구는 독자의 의식위에 한 개의 아름다운 풍경을 형성

해 준다고 할 것인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시인 자신이 지어보인 상을 독자 스스로 지면에 배열된 활자를 거쳐서 상념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바로 시각을 통해서 하는 시의 이해요 체험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반대로 낭독에 의해서 한편의 시가 전달이 되는 경우란 곧 육체화가 된 것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다. 낭독자는 발성의 기태를 이용해서 시를 바로 육체화 시켜서 보내주게 된다고 해야 옳다.

그러므로 향수자는 낭독되는 시구와 시구들에서 이미 육체화되어서 나오는 상응한 쾌락을 맛보아야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작시의 낭독일수록 시의 연기가 도무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시를 썩 잘 읽자면 우선은 발성기능이 뛰어나야 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임도 정말일 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시의 낭독을 단순한 원시적 구전의 연속이나 그 방법에 규준(規準)하여 행하는데 큰 실패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말하자면 소박한 '리얼리즘'의 분류에 지배당하고 마는데 크나큰 실망이 숨어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청산유수처럼 흘러내리는 거리의 연설 끈의 이야기만치 내용이 없는 것이 없으며, 소박한 사람들이 가슴을 울리기에 무성영화 시대의 번사처럼 적당한 것이 없었다.

“슬프다” 또는 “아! 슬프다”라는 시구를 읽는 경우에는 반드시 슬픈 표정의 발성법을 가져야 하고, “기쁘다” 또는 “아 이 기쁨 어찌하랴!”라는 대사에서는 두 팔을 잔뜩 벌리며, 정말 기쁘다는 표정의 발성을 해야 한다고만 훈련받아온 것은 삼류극단의 남녀배우들이 아니고 무엇이라! 시의 낭독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러한 경향이 농후하다. 외치는 소리 우는 소리! 이런 것이야 말로 시의 낭독기술인 줄 알고 있는 시의 낭독자가 얼마든지 있는 형편이다.

이것이 바로 시에 대한 교양이 부족하다거나 현대시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데서 오는 비극이라면 우리는 현대시 낭독의 옳은 방법을 확립하는 데 얼마간의 노력을 바쳐도 좋을 줄로 믿는다. 시인 폴 발레리도 시의 낭독에 대하여 굉장한 예민성을 보이고 있었다. “시의 낭독에는 가지각색의 방법이 있다.”

“그 수(數)는 시의 양식이 각가지가 있는 것만치 많은 것이며 시형(詩型) 또는 율격(律格)이 존재하는 수만치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인데 시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가지로 다른 낭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각 해석자가 자기 자기의 재간 음색 반사작용 습관 생리적 장애 등을 고려하게 된다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발레리의 이 말은 우리 시인들에게는 해

당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이 발레리의 낭독 정의 이전을 해매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외국에 있어서는 현대시의 낭독이 하나의 종합예술로서 신경지를 개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무라노 시로(村野四郎)같은 사람은 현대시의 낭독에 대해서 흥미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인 무라노 시로는 낭독연기자의 태도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서

#### 1. 적극적인 경우

낭독시가 연극에 있어서의 원작자와 배우의 경우와 같이 한 개의 종합예술로서 취급되는 때는 낭독자가 새로운 창조의 분담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 2. 소극적인 경우

원작의 충실한 전달기관으로서의 책임밖에 지지 않았을 때의 낭독연기자는 다만 전달의 사명만을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도가 전자의 경우에 비하여 소극적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향은 말할 것도 없이 전자의 적극적인 태도 속에 있어야할 줄 안다.

소리의 메커니즘에 대한 바른 파악과 과학적인 계산을 거쳐 원시(原詩)가 가지는 상념의 보다 충실한 육체화를 향해서 우리의 노력은 바쳐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시각을 통해서 체험하는 포에지(poésiel)의 세계를 훨씬 능가하는 기쁨과 질량감을 청중의 가슴에 만일 일러 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의 낭독이야말로 시 전달의 보다 나은 새 방법이 아닐진대, 현대시 낭독의 연구는 바야흐로 우리들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있어서 한 개의 미더운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 ☆ 인간은 습관의 다발이다. (영국 철학자 흄)
- ☆ 습관은 제2의 천성(天性). (이언(俚諺))
- ☆ 노여움은 일시적인 광증이다. 그러므로 이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노여움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
- ☆ 노여움은 인간 속에서 최후에 늙는다. (불명(不明))

## 원자물리학(原子物理學)의 역사(歷史)와 방법(方法)

### 지창렬(池彰烈)

편집부에서 필자에게 부탁한 제목은 「현대과학의 동향」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려면 우선 현대과학에 대한 깊은 조예와 또 그에 대한 광범한 지식이 선요(先要) 조건으로 될 것이다. 현대과학의 그 범주를 좁혀 「현대자연과학」이라고 제목 바꾸어도 필자에게는 도저히 담당하기 어려운 문제요. 또 불가능한 제목이다. 여기서는 무척 그 분야를 좁혀 원자물리학의 역사와 그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편집부의 꾸준한 독촉에 응하려고 한다.

원자물리학도 현대과학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상 한 좁은 분야를 통하여 간단히 그 역사와 방법의 개관을 살피는 것도 한 의의 있는 일일 것이며 때로는 일부를 통하여 전체를 투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원자물리학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닥쳐오는 원자력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생각으로 필자는 무모하게 붓을 들었으나 워낙 천학비재(淺學非才)하므로 단지 독자의 양승(諒承)을 바랄뿐이다.



원자론은 기원전 400년경 데모크리터스(Democritus)가 최초로 제안한 것이었고 그 원자라는 말은 Atomos에서 나온 것이다. Atomos라는 말은 분할 불가능이라는 의미이다. 즉 이 이상 더 분할할 수 없는 입자를 원자(atom)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원자설은 수 없이 지금까지 제안되어 왔으나 그 원자설과 관측된 사실을 관계시키지는 못하였다. 한 원자설이 그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엄밀한 관측사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론적으로 또 의견상 아무리

훌륭하게 학설이 수립되어 있다하여도 이것을 실험한 결과 관측사실과 어긋나든지 또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었다면 그 학설은 포기된다. 이러한 여러 원자설 중에서도 달톤(Dalton)이 1803년 그 학설을 화학의 기본사실의 해석에 적용하여 성공을 거둔 후 달톤의 원자설은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 각 원자 하나 하나의 질량이라든지 그 크기에 관해서는 이 학설로써는 해명되지 않지만 그 상대적 중량과 그 화학적 성질을 기술(記述)하게 되고 화학으로 하여금 과학의 한 독립된 부문으로 발전시키었다. 기체론(氣體論) 즉 기체에 관한 이론에서는 주로 주울(Joule), 크라우지우스(Clausius) 및 맥스웰(Maxwell, 1848) 등이 개

척 발전시키었고 그들은 원자와 분자의 화학적 성질에는 관여하지 않고 원자의 질량, 크기, 속도 등으로 분자를 기술하였으며 기체의 압력과 점성(粘性)을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J J 탐슨(Thomson) 등에 의하여 발전된 전기의 전자적(電子的) 구조이다. 전류는 이 전자들이 운동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며 그 전자의 질량과 전하(電荷)가 측정되게 되었다. 아인슈타인(Einstein)은 1905년 광(光)의 양자론(量子論)을 제안하여 그 당시 곤란한 현상의 하나였던 광전효과(光電效果)를 설명하였다. 광은 양자로 되어있고 그 하나하나의 양자는 빛의 속력을 가졌으나 물체에 흡수 혹은 방사될 때는 한 입자(粒子)와 같이 행동한다. 여기서 입자라고 하였으나 질량은 전(電)이다. 즉 광을 파동으로 보지 않고 한 입자로 보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개의 학설 즉 물질이 원자로 되어있다는 것, 전기는 전자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또 광은 양자구조를 갖고 있다는 세 개의 학설은 원자구조에 대한 지식을 건설하는 기초를 이루고 있다.

원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연구한 것은 라더퍼드(Rutherford)였다. 그는 얇은 금박(金箔)에  $\alpha$ 입자(헬륨이온)를 충돌시켜 보았다.  $\alpha$ 입자도 무척 작고 금박도 대단히 얇았으나 마치 물이 그물눈을 통과하듯이  $\alpha$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여 갔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반발(反撥)되어 되돌아오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금박은 대부분 공허한 공간으로 되어있으나 그 일부는 한 핵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최초로 원자가 핵구조를 갖고 있다는 유명한 실험이다. 원자는 전자적 구조를 갖고 있고 핵이 또 원자를 이루고 있다면 핵과 전자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전자는 이미 그 질량뿐만 아니라 그 전하의 부호(符號)와 그 크기도 알려져 있었다. 전자는 음(陰)으로 대전(帶電)된 기본입자이다. 따라서 보통의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中性)이 되면 핵은 양으로 대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음의 전자와 양의 핵이 공존하면 쿨롱 인력 때문에 서로 끌리어 곧 결합되고 이 두 입자를 분리하려면 큰 힘이 든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고 원자에서 전자를 분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전자는 핵 주위를 회전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가 핵 주위를 회전하면 그 속도로 보아서 전자파를 방출하여야 된다. 실험에 의하면 이런 일은 없다. 여기서 저 유명한 보어(Bohr)의 이론(1913)이 나오게 된다. 보어에 의하면 전자는 핵 주위를 임의의 궤도에 따라 회전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궤도상을 돌고

있다. 이와 같은 궤도를 양자화한 궤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원자의 묘상(描像)을 그려보면 여러 관측사실 즉 원자가 내는 스펙트럼선을 설명할 뿐 아니라 복잡한 원자의 스펙트럼도 설명되고 더한층 원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의 문을 열어 주는 실험방법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후에 이르러(1925) 원자물리학의 진실한 기초가 파동역학의 발견으로 재건하게 되었다.

양자론에서 부리가 느끼는 곤란 점은 실제로 그 가정(假定)이 옳으나 그릇된 것이냐의 판단이 고전(古典)물리학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나 고전물리학에서는 현상을 이해하여 우리는 만족한다. 예를 들면 양(量)의 간섭을 설명하는데 수파(水波)와 같은 파동으로 설명한다. 수파는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즉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광의 간섭을 설명하고 만족한다. 그러나 원자나 분자의 미시적 세계는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분야이므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는 그 가설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알 길이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법칙이 즉 고전물리학이 원자의 세계에서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한 이론을 세워 이 이론이 관측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나 우리의 경험과는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상을 잘 설명만 할 수 있다면 그 이론에 가치를 준다. 원자와 같이 미소한 세계에서는 우리의 경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다. 보어가 제출한 가설은 우리의 경험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이론이 제시되고 그 이론의 가치판단은 관측 사실에 좌우된다. 관측 사실을 정당히 설명하고 있느냐에 그 가치가 달려있다. 그러면 관측사실은 어떻게 하여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실험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었다. 이론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한편 이 기술에서 얻은 관측사실이 다시 이론에 자극을 준다. 이와 같이 하여 이론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었다. 이론에 의하면 원자가 분열하든지 또는 융합할 때는 막대한 에너지가 얻어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것도 현대의 정밀한 기계, 기구로 확인된다. 핵반응연구소에서는 고전압(高電壓)장치, 전자관(電子管), 진공관, 거대한 자석, 화학분석기, 각 계수관(計數管), 질량분광기(質量分光器) 등 헤아릴 수 없는 장치가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실험 방법에 능통한 전문가들의 공동연구가 실험과 이론이 서로 협력하는 것과 같이 협력하고 있다. 협력은 현대 자연과학에서는 절대 필수한 것이며 각기 자기의 전문을 통하여 협력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대 모든 위대한 업적은 이러한 협력의 덕

택이다. 원자력의 이용도 단지 한 전문가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각 전문가가 합심 협력한 결과인 것이다.

물리사(物理史)를 살펴보면 어떤 점에서는 많은 오류를 나타내고 우리들을 회의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오류를 정정하면 더 큰 자신을 얻게 된다. 역사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나를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회의적으로 한다. 전(前) 19세기에서는 모든 물리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시기에서는 우리의 지식이 한 제한된 한계를 불가피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대부분의 기초적 원리는 이미 견고히 확립되어 있다……. 장래의 물리과학의 진리는 제6위의 소수점 이하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말한 마이켈슨(Michalson)은 그 고전적 태도의 일례(一例)이다(1894).

그러나 전세기(前世紀)의 말엽(1895)에 이르러 X선, 고사능(高射能) 자유전자 등이 연속으로 발견되고 원자물리학의 위대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때부터 새로운 지식재(知識財)가 부가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기본개념이 포기되고 또는 그 한계를 명백히 하였다. 마이켈슨의 유명한 실험(1881)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상대성원리(1905)는 뉴턴(Newton)역학의 한계를 명백히 하였다.

뉴턴역학은 그 당시 절대불가침의 일대 진리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 역학에 어긋나는 법칙이 나오면 도리어 포기 당하였었다. 그러나 상대론은 뉴턴역학은 한 일정한 범위 내(물건의 속도가 낮은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광과 복사(輻射)의 분야에서는 맥스웰의 전자이론에 배치되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1905)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당시 맥스웰의 전자이론은 전기와 광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기억학은 또 보아의 이론에서 부인되었다(1913). 불분할(不分割)이라는 이름인 아톰(Atom)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1897). 더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은 인공적으로(1934) 원소가 변경된다는 발견이며 우리의 물전관(物電觀)에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었다. 질량의 보존법은 일반 에너지보존법칙(1905)에 흡수되어 버렸다. 한편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물질의 파동성으로(1926) 일대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인과원리도 모든 과학 연구상 기초가 되지만 이것마저 논의되는 신(新)이론이 소입자의 운동에 들어오게 된다(1921). 이상과 같은 역사를 회고하면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믿었던 법칙이 얼마나 변천을 밟아 발전하여 왔나 또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좁은 범위 내에 제한되어 있나를 잘 알 수 있다.

또 장차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는 더욱 예측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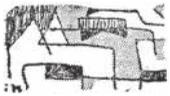
우리의 지식과 선견의 명(明)이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가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예는 위대한 발견이 누구나 그것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렌첸(Roentgen)의 X선, 베크렐(Becquesrel)의 방사능 등의 발견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 두 브로이(De Breglie)의 물질의 파동성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이론과 실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론에서 보면 마치 산봉우리에 서 경치를 보는 것과 같다. 이론을 거절하고 관측사실만을 기록하는 물리학자는 풍부한 재료를 조직화하지 못하고 기억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의 높은 견지에서 보면 관찰은 더 한층 간단히 보이며 또 그 현상 사이에 숨어있는 한 연결쇄(連鎖)가 명백히 되고 지금까지 미지(未知)였던 새 분야에 접근하는 길이 발견되며 무엇이 중요한가 또는 중요하지 않은가의 판단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서울대학(大學) 문리대(文理大) 교수(教授))

### 수업의 성장부족(成長不足)으로 정직(停職)에

수업의 성장이 부족한 이유로 정직 처분된 경찰이 런던에 있다. 영국의 경찰관 복무규정에 수업을 길을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단 이 수업은 위풍당당하고도 우아한 것에 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스튜와트 데인 순경의 수업은 이러한 조건을 구비치 못한 것으로 판정되어 “깎아 치우라.”고 상사가 명령했다. 데인 순경은 충분한 시일을 주지 않는 한 복무규정에 그러한 것은 안 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동(同) 순경은 일시 정직 처분되고 그 동안 수업이 잘 성장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업을 깎아버리지 않는 한 복귀되지 못할 것으로 되고 있다.



## 정비사(整備士)와 가정(家庭)

황옥자(黃玉子)

봄이 가까워 오는 어느 날 공군장병들의 가장 좋은 벗이 되고 있는 교양지「코메트」의 편집인으로부터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니다.

써야할 글이 하필 “정비사와 가정”이라는 제목이라 처음에는 입학 시험 때의 논문 제목을 받은 것처럼 언짢았으나 저희들 생활과 밀접한 제목이었고 또한 분에 넘치는 청이고 보니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히 붓을 듭니다. 그러나 보잘 것없는 저의 가정을 많은 독자들 앞에 공개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비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것은 지난날 제가 가졌던 제일 큰 의문의 하나였어요.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일입니다만 신혼생활이 얼마간 계속될 때까지도 궁금해 하다가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난 다음 저는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보 정비사란 뭐예요?”

그랬더니 주인도 아마 이것은 꼭 알려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든 것인진

“정비사란 말이야, 사람이 병이 났을 때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심한 때는 수술도 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고장이 난다든가 성능이 나빠지면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또 수술을 해야 하거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러하지만 특히 비행기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꼭꼭 받아야 해. 그런데 이 비행기의 건강을 진단하고 약을 주며 수술을 하는 사람을 바로 당신 남편과 같이 ‘정비사’라고 하는 거야……”하시면서 흡사 한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과 같이 조종사가 출격을 한다든가 장거리의 비행을 할 때 그 모든 주선을 정비사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야 비로소 저는 국민학교[초등학교] 학생이 한글을 해득 하듯이 정비사란 결코 비행기의 의사며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구나 하고 알게 되었지요.

이런 말을 길게 쓸 필요가 없다고들 흔히 하시겠지만 주인의 임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가정생활에 큰 힘이 되었고 또 그에 따라 제가 해야 할 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말이지만 아내의 남편의 직업과 그 고충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결혼 생활 10여년을 통해 이제야 겨우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이란 한이 없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남의 살림을 부러워하지요. 남들은 화려한 양단치마 저고리

에 금팔찌 목걸이로 멋있게 단장하고 부부간 극장도 잘 다니며 파티에도 자주 나가고 끈이 때마다 음식 아니면 식사를 못 한다는데 자기는 그와 같이 못하고 있다는 등 자기의 해야 할 일은 제쳐 놓고 남의 화려한 것만을 보는 것이 일수입니다.

자기가 할 일이란 첫째 아침에 주인 출근 시간까지 의복 식사 등에 지장이 없게끔 빠른 동작으로 준비를 갖추어 들여야 하고 아희들의 학교시간에 맞게끔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과 맞춰 갈 식구가 다 나간 다음엔 집 안청소에 임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몸차림도 해야 하고 우선 그날에 할일에 전부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다른 직을 갖은 사람들과는 달리 옷을 하루만 입어도 기름투성이가 되며 아이들은 흥장난으로 말미암아 옷이 하루를 건디지 못하니 그들의 옷 세탁을 하고 다려야하며 그날 메뉴를 위한 장을 보아야 하는 등 그야말로 자기의 할일을 다 하려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한가한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의 가정교육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기 자신도 사회와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주인이 출근하면 밥상은 그대로 덮어 뒷모에 밀어놓고 방안에 물을 떠다 훌쩍훌쩍 얼굴이나 닦고 체경 앞에 앉아서 화장하기에 한시간 몸단장을 하느라고 앞모습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한 시간 기껏 간다는 곳이 다방 극장 같은 똑같은 동료의 집을 방문하며 누구네는 어떻게 누구 남편은 어떻다는 등 잘났다 못났다 하루 종일 히히대며 자기만이 인테리이며 현대 여성이라고 자칭하는 주부도 없지 않지만 배움 없이 비단옷만을 휘휘감고 다니는 자신을 발견치 못하는 사람이 과연 현대 여성이며 인테리에 속하는 인물일까요? 만일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하는 일엔 틀림이 없는 것으로만 고집하고 과거를 반성치 못하며 몇번이고 동일한 일을 반복한다면 그는 가정주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그러한 가정엔 머지않아 불안과 암흑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남편의 활동은 가정주부가 복돋아 줄 수도 있으며 좌절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매일같이 자기의 그날그날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며 이상적인 가정설계를 세워 그 목표 앞에서 계획성 있는 살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이 많은 군인가족으로서 양복장 대신 트렁크를 더 장만한 다든가 셋방살이 좁은 방에서라도 가구를 어떻게 진열하고 배열 한다든가 또한 방이 둘이라면 한방은 응접실로 사용하고 하나는 내실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정비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소파나 함마를 방에 진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갖은 사람들의 살림과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가정 설계라 해서 반드시 양식 건물에 정원이 있어야하고 Air conditioner, 목욕탕, 자동차, 부엌에 가스 등이 들어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

겠지요? 우리네 각 가정의 실정에 비추어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는 이상을 가져야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부로서 금전출납부 등을 사용하여 새 달의 비용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주인의 수입으로선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든가 그 이상의 금전이 필요하다해서 주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도 해서 또한 가정에 암흑을 초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넘치게 이상적인 것만을 의론하고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사소한 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함으로써 큰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만일 우리집안이 먼지투성이였으며 아희들 기저귀라든가 기타 물건이 난잡하게 산재되어 있을 때 남편친구인 한 손님이 방문해 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는 주인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이렇다하는 말은 없겠지만 자연 기분이 불쾌할 것이며 혹시나 자기의복에 먼지가 묻을까하여 두려워할 것입니다. 모처럼 놀러왔다 갈려는 손님 양복바지에 먼지가 허영게 묻어있었다면 그 얼마나 미안할 것이며 내 자신 그러한 집에 갔었다면 얼마나 불쾌할 것입니까? 아니 그것보담도 다른 가정에서 상을 받았을 때 수저에 행주 실밥이 묻어 있었다든가 찬이 반쯤 먹든 찬이었으며 그 음식의 맛조차 없고 깨름직하다면 그 얼마나 손님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마음에 없는 음식을 자꾸 들으라곤하고 먹기 싫은 것을 들자니 체할 것만 같고 그렇다고 체면이 있는데 전혀 안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모처럼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도 대접은 둘째치고 오히려 손님에게 실례를 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주부에 몸차림이 단정치 못하였거나 때가 묻은 옷을 입고 너주례하게 하고 있는 것은 남편과의 정을 뽐내려 더러 주인으로 하여금 그의 친구들로부터 욕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갓 난 어린아희가 있는데 그의 얼굴은 코를 흘려 지저분하고 옷은 더럽고 젖어졌으며 지린내가 물씬물씬 날 때 한 손님이 방문해 왔다고 합시다. 아희들의 얼굴이야 썩 잘났던 못났던 건에 손님으로서 “어 그놈 참 잘났군.”하곤 한번 씩 안아주는 것이 상례인데 아희가 것처럼 더럽고 냄새를 피어서야 될 말입니까? 아희는 철없이 엉킴엉킴 기어 손님 옷에다 코를 문지르고 오줌에 젖은 옷을 갖다 문질 때 손님은 그 아희를 밀어 던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희가 더럽건 말건 자기의 귀여운 자식이라고 해서 남에게도 귀여운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그러한 곤란을 주는 것 보담은 아희들의 옷을 자주 빨아 입고 깨끗이 단장시켜 손님으로 하여금 서슴지 않고 스스로가 일부러 안아주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소한 일 그러나 하나에 대해서라도 주부로선 항상 주의심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 것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

사소한 일이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친우의 주인복장이 꼬기 꼬기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닐 때 “아무게 아무게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너무해”하곤 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복장을 살피는 동시 자기에게 그러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자기는 무엇이건 다 알고 있고 자기가 현재하고 있는 모든 일은 틀림없다고 단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 낙오자입니다. 사람의 배움이란 한이 없는 것이니 우리는 일생을 통해 배움을 계속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배움이란 반드시 선생을 모시고 책을 보고 누가 일일이 대어 주어야 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남이 하는 것 말하는 것 어떠한 상태 들을 보고 들었을 때 정당한 입장에서 가부의 판단만을 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좋은 점을 따고 남의 나쁜 점을 버리어 자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군인가정의 주부되시는 여러분은 비단으로 자기 몸이나 칭칭 감고 단장하기에 바쁘며 자기가 해야만 할 일을 제쳐 놓고 봄바람에 갈대 휘날리는 듯 이리저리 헤매어 허영에 날뛰는 여성이 되지 말고 자기 주인의 의사를 받들어 그날그날에 행한 일을 반성하고 자기 할 바를 하나하나 실행함으로써만이 안락한 그리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설계란 문구자체도 해석치 못하는 저에게 「코메트」지로부터 뜻하지 않은 청탁을 받아 저의 기쁨은 금치 못하나 저의 주변껏 썼다는 것이 제목과는 달리 당치고 앓은 말을 주어 넘쳤으며 두서없는 말로써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군의 주부되시는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옵고 독자제위의 건투를 빌며 이만 필을 놓겠습니다.

시(詩)

6.25

병장(兵長) 손효준(孫孝俊)

무성(茂盛)한 의욕(意慾)  
 물결 푸르려  
 태양(太陽)과  
 대지(大地)  
 목구멍이 터지도록 6월의 부름  
 가슴으로부터  
 솟구치는  
 흐르는  
 흐르는 역사(歷史)  
 동서(東西)  
 대양(大洋)은 숨이 가쁘고  
 기구한  
 통례(通例)  
 하필(何必) 왜  
 왜 나는  
 가슴이 메도록  
 솟구치는가.



## 군인(軍人)들의 연애(戀愛)

군인이라고 해서 굳이 독특한 연애편이 있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특수한 환경과 엄격한 군율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과 지난 날 거친 전장에서 얻은바 이 또한 특수한 성격적 변모의 가능성과 오랜 군대생활이라는 메커니즘적 테두리 안에서 생활한 기질 등에서 보통 사회인들과 범주를 달리한 사색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연애편에도 사회인의 통념과 형태와 차이가 있을 법도한 일입니다.

흔히 “의무는 국가사회적인 법칙”이고 사랑은 “인간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제일 먼저 수립하여야 할 신조는 이 “인간의 법칙”과 “국가사회적 법칙”을 어떠한 점에서 타협시키느냐 하는 문제일 것 입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할까. 인간의 법칙과 국가사회적 법칙은 흔히 서로 우열을 다투고 승패를 겨룰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법칙을 어길 때는 쓰라린 사랑의 고통이나 실연의 고배를 마시게 되고 국가사회적 법칙을 어길 때는 일대(一大) 불명예와 함께 두려운 국가적제재가 수반될 것입니다.

군대군데 문학작품의 내용을 인용하느니 보다 좀 더 넓고 많은 접촉면 있는 이미 공개된 영화의 예를 들어 군인의 연애편을 살펴 보겠습니다.

미국영화 「애욕(愛慾)과 전장(戰場)」은 사랑과 의무(義務)의 양자 중에서 택일을 해야 되는 군인의 위치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 작품입니다.

“태평양전쟁이 나날이 격렬(激烈)의 도를 더해가던 1942년에 소집된 안디라는 청년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전통적인 맹혼련을 받은 후 용명(勇名)을 떨치던 학스레이 대대(大隊)에 배속되었는데 대대가 뉴질랜드에 출정했을 때 그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팻트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팻트는 젊은 전쟁미망인이며 사랑이 깊어감에 따라 안디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학스레이 대대는 가다루카날 도(島)의 일본군 소탕작전에 참가하여 격렬한 전투 끝에 임무를 완수하였고 안디는 많은 전우를 잃기는 하였으나 무사히 돌아왔다.

전장에서 돌아온 안디는 팻트에게 결혼을 신청하였고 팻트는 이미 그의 아들을 배고 있음을 고백하여 순조롭게 결혼식을 거행한다. 달콤한 신혼의 꿈에 잠겨있는 안디는 다시 전장에 나서면 불귀의 객이 될 것만 같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날 수 없어 고민은 컸으나 의무를 버리고 탈영하고 만다.

안디는 죄를 범했으나 대대장은 관대하게 팻트를 통해서 안디를 용서해 줄 것

을 약속하고 죽음보다도 더 쓰라릴 사내대장부로서 불명예를 평생토록 받지 말라고 충고한다. 팻트도 남편을 타일렀고 안디도 자신의 경거망동을 뉘우치고 전장으로 출동하는 직전에 귀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부상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제대 후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은 예는 군인이면 대개 보고 듣고 또 실지로 경험도 있는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의무냐 사랑이냐.” 이런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엄숙한 순간에는 참된 인간이라면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에 사는 것이 떳떳한 군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것으로 영국의 마가렛공주가 타우젠트 대령과의 사랑에 빠져 “『의무냐 사랑이냐』”의 기로에서 방황한 끝에 영 왕실의 전통과 왕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의무를 택했고 ‘타’ 대령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숙명적 비련에 일언반구도 불평이나 불만을 입 밖에 내지 않고 홀로 세계일주 여행을 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로 인간이란 그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되어있는 국가사회로부터 저버림을 받을 때는 바로 파멸을 의미하는 비극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국가민족의 간성(干城)으로서의 군인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의무에 앞서 국가, 민족, 사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랑과 모럴

「지상(至上)에서 영원(永遠)으로」라는 미국영화에서는 와든 상사와 그의 중대장의 처(妻)인 카렌이 불의의 사랑에 빠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밀회를 거듭한 끝에 카렌은 와든에게 마음이 쏠리어 남편과의 이혼을 결행(決行)하였으나 그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이혼이 꼭 자유롭고 용이한 미국이지만 여기 화면에 등장한 사련(邪戀)의 주인공들은 무척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나 지켜야 할 모럴을 무시한 사랑이란 일본(一分)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의 범죄가 아니면 도덕적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법률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련은 이런 유(類)의 불륜의 사이비(似而非) 연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버젓이 본체가 있으면서 다른 여성과 불의의 관계를 맺는다든가 미혼이라고 기만하여 사기결혼을 한다든가 연애를 한날 육욕(肉慾)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든가 하는 일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군인이라는 신분은 이

와 유사한 사련을 사전에 막아주는 천혜(天惠)의 계시(啓示)가 되지 않고 반대로 이를 조장하는데 좋은 방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자칫하면 범하기 쉬운 과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결혼(結婚)과 연애(戀愛)

위대한 시성(詩聖) 단테는 아홉 살 때에 두어 번 만나본 베아트리체<sup>17)</sup>에 대한 뜨거운 사모의 정을 품게 되어 평생을 두고 그를 그리워했으며 저 불후한 거작 「신곡(神曲)」은 베아트리체를 위하여 쓰인 것이라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손 한 번 만져보지 못했고 말 한 마디 옳게 건너보지 못하였으나 단테는 60 평생을 하루같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은 희랍(希臘)의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아폴론을 노파가 되어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짝 사랑하다가 죽은 다음 그 녀이 해바라기가 되었다는 처녀의 이야기와 함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연애의 이상적 형태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이해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단테의 사랑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육체를 떠난 정신적인 사랑은 정신을 떠난 육체의 사랑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현대인은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환언하면 참된 사랑의 형태란 한 남녀가 영신(靈身) 일치하여 완전히 결합될 것을 최종의 목적으로 지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연애와 결혼은 별개문제다.” 혹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오직 탕아(蕩兒)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능청맞은 구실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다.”는 말은 “나는 네 육체를 임시 차용할 뿐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 전시(戰時)와 연애(戀愛)

치열한 전투가 매일같이 계속되고 내일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군인들은 어느 정도 자포자기적인 결혼을 한다거나 연애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피차의 큰 비극이나 불행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기 쉽습니다. 영화 「우수(憂愁)」, 「애수(哀愁)」, 「비 내리는 밤의 기적(奇蹟)」 등은 이와 같은 비극을 잘 묘사한 영화들입니다.

『우수』에서는 외국 땅에서 밤의 여인과 결혼할 것을 결심하고 모든 수속을 취하려던 차에 상사의 반대에 부딪치고 부득이한 전속명령을 받아 진실한 마음의

17) Beatrice

애인에게 알리지 못하고 떠나자 여인은 배반당한 줄만 알고 실망과 주위의 멸시와 압박을 받아 자살을 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애수」는 출동직전에 거리에서 만난 여인과 사랑에 빠져 굳게 장래를 맹세했으나 여인은 소식이 두절된 애인을 기다리기에 지칠 뿐 아니라 생활에 궁한 나머지 「밤의 여인」이 되었다가 천만뜻밖에도 전사한 줄만 알았던 애인이 돌아오자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다는 스토리입니다. 「비 내리는 밤의 기적」은 출동하기에 앞서 한 병사가 순정적인 처녀와 사랑에 빠져 굳게 결혼할 것을 약속했으나 병사는 전사하고 여인은 실의(失意)의 날을 보내다가 병을 얻어 비참한 나날을 보낸다는 스토리입니다. 이상 네 편의 영화는 전시에 있어서의 군인들의 연애가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를 터에 더 생각해봐서 뭘하라?”

군인이고 아니고 간에 만약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만의 불행과 비극에 그치지 않고 죄 없는 상대에게도 치명적 타격을 주는 결과를 자아내게 하기 쉬운 것입니다.

### 사랑의 순수성(純粹性)

강철같이 단련된 신체와 실전을 통하여 형성된 솔직담백하고 일면(一面) 단순하고 야성적인 성격을 지니기 쉬운 군인은 때로 순조롭지 못한 사랑의 진행을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강요에 의한 길을 사용하려는 폐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보위하고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방위하기 위하여 맡겨진 총탄으로 저질러진 죄악적 사련(邪戀)도 전무(全無)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로 엄숙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사 어떤 이성으로부터 배반을 받았거나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를 구적시(仇敵視)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스럽게 맞아들이는 것에 못지않게 아름답게 보내 줄 아량과 금도(襟度)가 절실히 요망되는 것입니다.

### 연애(戀愛)와 감상(感傷)

불란서영화 「외인부대(外人部隊)」는 군인과 연애에 관한 많은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장크로드 파스칼과 지나 로로브리지가 주연한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변호사 피일은 허영심이 많고 향락을 즐기는 여인 실비아를 열렬히 사랑하

게 되었으며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급기야는 부정사건에 얽히어 멀리 알제리아로 도피해 버린다. 이곳에서 실비아를 만나기로 했으나 그는 오지 않고 절망의 구렁에 빠진 피일은 가지가지 추억과 과거를 지닌 각국 인종이 뒤섞인 외인부대에 입대하여 치열한 전투의 순간에만 모든 번민을 잊는다. 이때 우연히도 실비아를 만나 미칠 듯 기뻐했으나 그는 얼굴만이 닳았을 뿐 헤레나라는 밤거리의 여인이었다. 마침내 둘은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되었으며 제대를 하여 아늑한 가정을 꾸미려고 본국으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다가 이미 남의 처가 되어버린 실비아를 꿈과도 같이 만나게 되어 허무와 절망에 찬 감상에 젖은 피일은 헤레나마저 돌려보내고 다시 외인부대로 돌아가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격전의 마당으로 떠난다.”

이 인상 깊은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군대는 추억의 망각장(忘却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 잊어야 할 사람일랑 잊어버리고 명일(明日)에의 희망에 사는 것이 건전한 생활관인 동시에 연애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일의 지나친 감상적 니히리즘은 자신의 불행은 물론 헤레나라는 새 애인을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넣게 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성을 몰각한 자학(自虐)이며 비정상적 경거망동이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여인이 남의 아내가 되어 자기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깨끗이 단념하고 새 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외인부대』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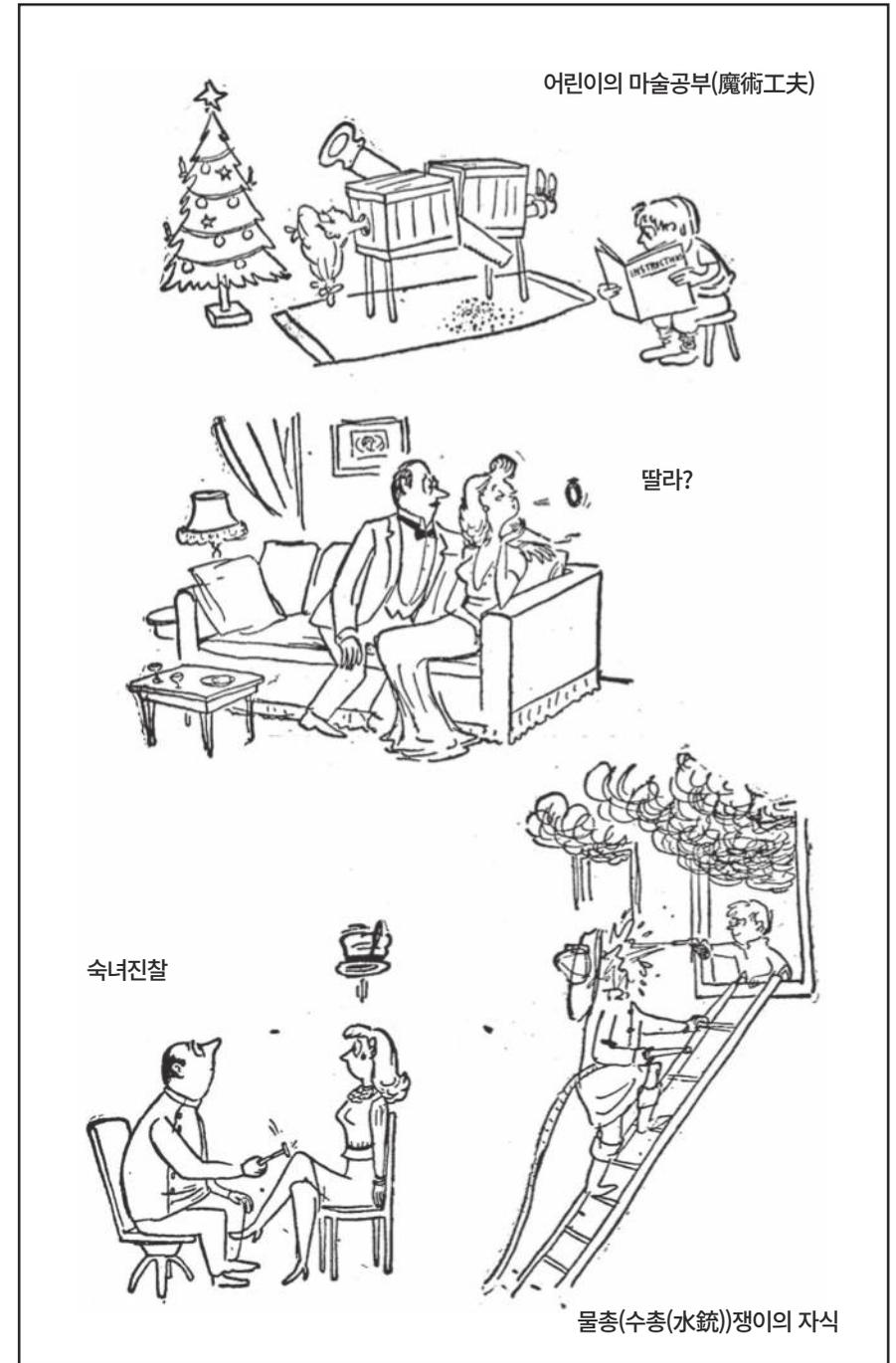
언제나 삶의 의욕에 타고 생명의 창조의식에 끓는 건전한 연애관. 이것은 누구에게보다 먼저 군인들에게 요청되는 사랑의 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完))

### 텔레비전·사진(寫眞) 잡지(雜誌)를 앞서다

1938년에 창간되어 영국의 일류 사진잡지로 인기 있던 빅쳐 뽀스로 지(誌)가 오는 6월 1일부터 폐간되었다.

출판자인 홀돈 브레스가 발표한 폐간사(廢刊辭)에 의하면 동지(同誌)는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의 요구관점은 달라졌으며 동지가 개척해 온 분야에서 현재로는 대부분 텔레비전에 뒤떨어지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현재 떠돌고 있는 말에 의하면 영국의 조간지(朝刊誌) 뉴스 크로니클과 테일 헤랄트 지도 합판(合版)할 것이라 한다.

**가위의 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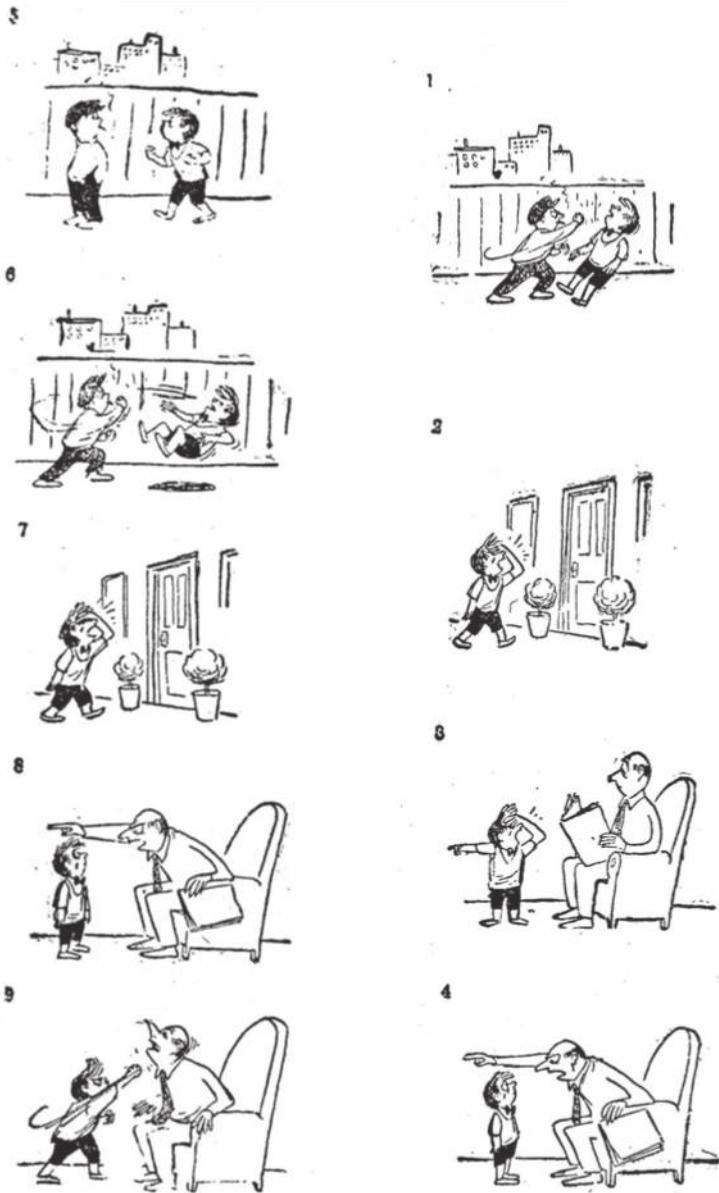
어린이의 미술공부(魔術工夫)

딸라?

숙녀진찰

물총(水銃)쟁이의 자식

## 애비와 자식(가정교육(家庭教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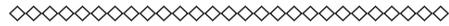


## 현명(賢明)한 친절(親切)





“어느 날 밤의 일”에서 게이블과 클로우엣트 콜벨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았다.



<불멸(不滅)의 명우(名優)>

## 클라크 게이블

그는 어떻게 할리우드의 킹이 되었는가

박병화(朴秉和) 역(譯)

클라크 게이블이 전 세계를 풍미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하기 위해서 애틀랜타로 갔을 때 일어났다.

점잖게 생긴 중년부인 하나가 게이블이 들어 있는 호텔을 찾아와서 사무원에게 게이블이 나가거든 그가 들었던 방을 자기에게 줄 수 없겠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가 나가는 대로 곧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은 치우지 말고 그가 쓰던 그대로 두어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여자는 말하는 것이었다, 사무원은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듯이 그 여자를 위로 쳐다보고 무어라고 말하려 하였다.

“묻지 말아요.”

하고 그 여자는 조용히 말하였다.

“침대도 내가 준비할 테니까요. 이것은 1939년의 일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만국박람회(萬國博覽會)에서 게이블이 그를 숭배하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이는 일 없이 안심하고 전시회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약 한 시간동안 그 문을 닫아 주겠다고 제의한 것도 바로 이때의 일이다.

“프랑스가 행복하기 전이고 영

본토 공략전도 있기 전이며 우리가 선발 징병제 같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던 이 시대에 많은 남편들에게는 미국의 ‘꿈의 애인(愛人)’으로서의 게이블 전성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되었다.

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레트 버틀러의 역을 맡은 게이블의 호연기(好演技)에 황홀해졌던 많은 부인들은 그들이 10대의 여학생이었던 그 6년 전에도 게이블이 노마 시어러나 그레타 가르보와 함께 영화에서 연애를 하는 것을 보고 졸도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1939년에 남편들은 이 게이블의 선풍적 인기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지 궁금히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세상에 나온 지 18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게이블은 여전히 여성 영화 팬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라고 많은 영화제작자들은 말하고 있다.

“게이블은 지금 55세이지만 아직도 그의 얼굴은 젊어 보인다. 그의 머리칼은 관자놀이 근처에서 희끗희끗하지만 최근의 20세기 폭스작 「홍콩의 밤(Soldier of Fortune)」과 「거인(巨人) (The Tall Men)」에서처럼 검게 염색하면 레트 버틀러의 역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젊어 보인다. 게이블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여성들 마음속에 일으켜온 폭풍은 일찍이 무성영화(無聲映畫)의 명배우 루돌프 발렌티노와 존 길버트가 받은 숭배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격 상 그것은 전연 다른 것이다. 발렌티노와 길버트는 손에 키스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쁜 숨을 쉬면서 애걸하듯이 정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게이블의 연애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다. 여자를 휘두르는 것이다. 애걸하는 대신에 언제나 그는 멋있게 생긴 얼굴에 심술궂고 애태우는 미소를 띠우면서 여자를 거칠게 대우해왔다.

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여자가 그것을 좋아하게 하는 게이블의 수법은 감상적인 발렌티노와 길버트의 클로즈업에서 불쾌감에 전될 수 없었던 미국 남성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남성들은 여기에 마침내 영화의 한 우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였다.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뒤 흔들지 못하게 하는 남자가 나타났다고……그는 남자들이 본받을 사나이였다.

애틀랜타에서 이름이 나기 훨씬 전인 1922년의 어느 추운 날, 몬태나 주(州) 뷰트에서 호주머니에는 단 26 센트밖에 없이 곤궁(困窮)에 빠졌을 때 게이블은 올바른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인생의 기로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단 한번만 결정해야 할 때 사람에게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 올 수 있는 것 같다. 게이블의 운명은 그날 뷰트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게이블은 배우 되기를 희망하여 오클라호마의 유전에서 찬공청부업(鑽孔講負業)을 하고 있던 그의 아버지 결을 떠나왔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들어갔던 지방 순회극단은 몬태나에서 찌그러지고 말았다. 게이블은 전신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갈 여비를 보내달라는 전보를 썼다. 그는 만약 그 전보를 보낸다면

아버지와 함께 유전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가 원하는 연극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이블은 몇 분 동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전보를 찢어버려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클라크 게이블은 1901년 2월 1일에 오하이오 주 캐디즈라는 마을에서 윌리엄 H. 게이블과 아델린 허 셸만 게이블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최근에 한 잡지가 게이블의 나이는 55세가 아니라 62세라고 주장한 일이 있지만, 작고한 그의 부인이 모으기 시작한 게이블의 생애에 관한 클럽핑과 문서로 가득 찬 스크랩북을 보면 그 안에 게이블이 출생한 곳의 사진과 출생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1901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게이블의 양친은 독일계의 펜실베이니아 사람이었으며 외가에 약간 아일랜드의 피(血)가 섞여 있었다.

게이블은 이렇게 그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나의 친할머니는 펜실베이니아 주 메드바일에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호텔 일은 좋아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 일대가 석유로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는 아직 소년이었는 데 오일 시티에서 석유를 파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며 그밖에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그 후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부인과 재혼을 하였는데 그는 교양이 많은 분이었으며 나를 굉장히 귀여워 해주었고 나도 그를 따랐다. 당시 우리는 오하이오 주 호프데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석유를 파내기 위해서 타관(他關)에 나가 있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한 번도 석유를 파낸 일은 없었다. 내가 일곱살 때 나의 계모는 병으로 눕게 되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계모는 농장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유전 일을 그만두고 오하이오 주 북부에 있는 라베나 근처의 농장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석유 파내는 일을 단념할 수 없었다.

라베나는 애크론에서 1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클라크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애크론에 있는 화이어스톤 타이어 제조공장에 직공으로 취직을 하였다. 어느 날 밤 그는 생전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연극을 구경하였다. 에드 클라야크 릴리 극단이 「낙원과 새(The Bird of Paradise)」라고 하는 리차드 윌튼 툴리의 작품을 공연하고 있었다. 이 연극은 한 미국인이 하와이의 섬(島)에서 공주와 사

랑을 하는 로맨스를 그린 것이다. 게이블은 이 연극에 완전히 도취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매일 밤 연극이 끝난 후 배우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배우들과 사귀게 되었다. 그들은 게이블을 공연 중에 무대뒤로 초대하였으며 얼마 안가서 그는 보수 없이 심부름을 해주고 무대위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순경이나 하인의 역도 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오일 시티에서 석유파내기에 미쳤던 것처럼 그는 애크론에서 연극에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계모가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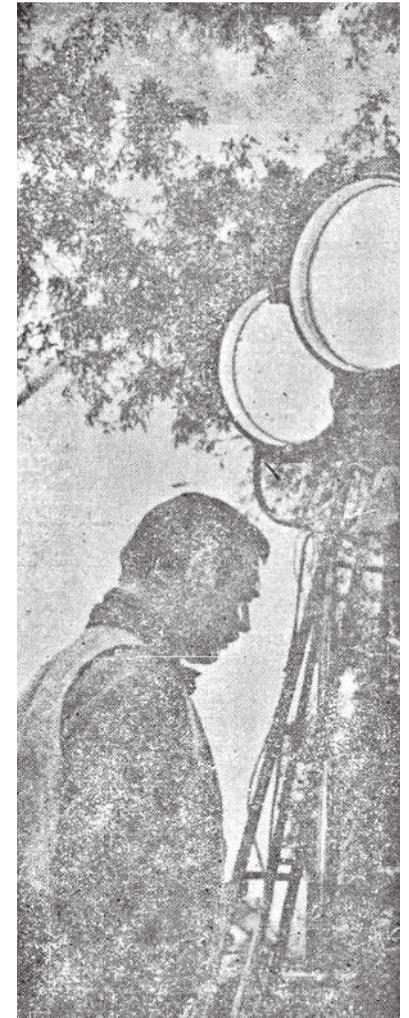
이렇게 게이블은 말하고 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농장에 머물렀을 것인가는 추측에 맡긴다. 그는 보따리를 싸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유전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나도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애크론에 있는 그 극장을 떠나기가 싫었으나 하는 수 없었다. 그때 나의 나이 18세였으니 아직도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했다.”

“내가 21세 되던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그 이상 나를 붙잡아 놓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자기와 함께 유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였다. 아버지와 나는 약간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한 후 나는 나와 버렸다.

게이블은 캔사스 시티로 가서 주얼 극단에 들어갔다. 이 극단은 허술한 극단 이기는 하였으나 지방을 순회하는 배우들이 모인 다채로운 극단이었다.

“나는 무대 뒤의 음성으로 흑인노파의 역을 하였다.”



26년 동안 배우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55세 되는 그는 여전히 여성영화 팬들에게 매력 있는 존재이다.

게이블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나는 소년의 주역을 맡기에는 몸집이 너무 컸다. 옛날에는 주연의 사나이는 키가 작고 몸이 날씬해야만 했다. 나는 급료를 얼마나 받게 될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어느 주일에는 10달러를 받고 어느 주일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주엘 극단이 뷰트에서 해산되어 게이블이 아버지에게 돈을 부쳐달라고 전보를 치려다 중지한 후에 얼마동안 그는 극처에 있는 탄광에서 일을 하였다. 그는 슈트 케이스를 전당포에 잡히고 작업복을 샀다. 단 한 벌밖에 없는 신사복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그는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에 올라탔다. 그는 오리건 주 벤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뛰어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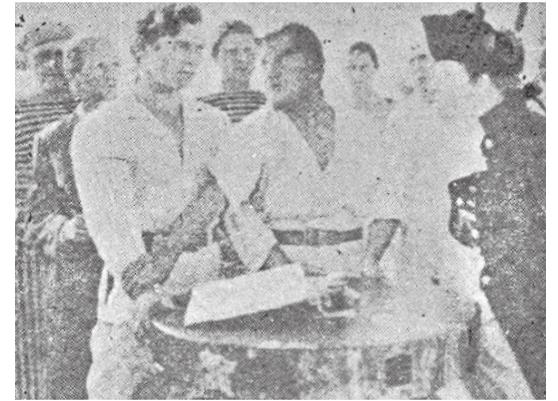
“그 후 나는 그곳에 있는 제재소에서 통나무 쌓아올리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게이블은 말한다

게이블은 그곳에서 100달러를 저금할 때까지 일을 하고 그 후에는 포틀랜드에서 극단에 일자리를 구 하였다. 그가 할리우드의 연극선생이고 전 브로드웨이 여배우인 조세핀 딜론 양을 만난 것은 바로 이 곳에서였다. 그때 딜론 양은 포틀랜드에서 한 극단을 지도하고 있었다. 게이블은 그를 따라 할리우드로 가서 그와 결혼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배우생활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게이블은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그의 최초의 기회를 망쳐버리고 말았다. 언스트 루비쉬 감독, 플라 네그리, 로드 라 로큐 출연의 영화에서 그는 엑스트라로 나오게 되었다. 게이블은 카페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러 육군 장교 중의 하나를 맡게 되었고 네그리 양이 걸어오면 그를 쳐다보고 옆에 있는 장교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게이블은 그것을 오버 플레이 하였다. 마치 미친 사람 양으로 눈을 둥글게 뜨고 팔꿈치에 너무 힘을 주어서 찼다. 그리하여 게이블은 그 역을 다른 엑스트라에 빼앗기고 실망에 빠지고 말았다 그 후에 그는 낸시 캐롤과 함께 연극에 출연하였다. 그 결과 영화계에서는 곧 캐롤 양은 끌어갔지만 게이블은 전연 무시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라이오넬 베리모어와 함께 「코퍼헤드(The Copperhead)」에 출연하였으나 역시 그 영화에서도 실패하였다.

게이블이 할리우드의 스타가 된 것은 1931년의 일이다 그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 1931년 봄의 어느 날 아침 라이오넬 베리모어는 노마 시어러와 함께 「자유의 혼(A Free Soul)」에 출연하기 위해서 MGM 구내의 세트 안



「바운티 호의 반란」(1935년도 작품)에 그는 좋은 경험을 하였다.

으로 걸어 들어갔다. 베리모어는 카메라 앞에서 시어러 양을 팔에 힘차게 끼고 있는 게이블을 보았을 때 입을 딱 벌리고 놀랐다. 베리모어는 불과 6개월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연극 「마지막 길(The last mile)」에 출연한 게이블을 보았고 MGM에서

스크린 테스트를 받도록 그를 추천해 주었다. 그러나 그 테스트는 형편없는 실패였다. 그리하여 베리모어는 영화에 관한 한 게이블은 전연 쓸모가 없는 것으로 생각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노마 시어러를 팔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이블은 마치 유명한 여배우들과 몇 해 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베리모어를 보고 태연스럽게 목례를 하는 것이었다. 게이블이 무어라고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하니 시어러 양은 게이블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베리모어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베리모어가 그전에 게이블을 만난 후 6개월 동안에 게이블의 생애에는 연달아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베리모어가 추천해준 그 스크린 테스트 이외에 게이블은 두 번이나 스크린 테스트에 실패를 하였다. 한 경우에는 어빙 탈버어가 “저런 아냐! 그게 아냐! 저 작자를 끌어내라!”하고 외쳤다고 게이블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게이블은 워너 작품 「아롱진 사막(The Painted Desert)」에 17주일 동안 주급 750달러로 악한의 역을 맡아 빌 보이와 헬렌 트웰츨리츠와 함께 출연하였다 그 다음에 그의 최대의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MGM의 제작자이며 후에 진 할로우와 결혼한 후 비극적인 자살을 하고만 풀 버언이 「아롱진 사막」에 나오는 게이블을 보고 그를 콘스탄스 베네트가 출연하는 「가장 쉬운 길(The Easiest Way)」에 우유배달의 역으로 쓰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다 이 「가장 쉬운 길」이 상영되자 할리우드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우유배달의 이름을 알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탈버어그는 즉시 게이블로 하여금 계약을 맺게 하였다.

게이블 「자유의 혼」에서 시어러 양과 레슬리 하워드와 베리모어를 완전히 매혹하였다. 당시 시어러 양은 MGM 의 제작부장이었던 탈버어그와 결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혼」에서 게이블이 시어러 양을 압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계획을 꾸민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만일 시나리오에 게이블이 시어러 양을 때리는 신이 나오면 관객은 게이블을 싫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게이블은 시어러 양을 냉대하는 악한의 역이므로 그 신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이 영화가 시사되자 관객은 게이블이 그 여주인공을 때리는 신에서 찬의(贊意)의 환성을 올렸던 것이다. 그 후부터 게이블의 감독들은 거의 모든 영화에서 여자의 얼굴을 때리도록 꾸민다. 그는 영화 「매혹(Possessed)」에서 존 크로포드의 뺨을 갈겼고 「모두 다 버리고(Forsaking All Others)」에서는 그를 헤어 브러쉬로 때렸다.

그리고 「밤의 천사(Night Nurse)」에서는 바바라 스탠윅을 갈겼고 수잔 레녹스(Susan Lenox)와 「그 여자의 운명(Her Fall and Rise)」에서는 그테타 가르보를 거의 갈 길변 하였다. 게이블뿐만 아니라 아무도 결국 가르보를 때릴 수는 없었다.

게이블은 얼마 안가 주급 5,000달러의 스타가 되어 영화사상(史上) 가장 빛나는 존재의 한 사람이 되었다. MGM의 스타로서 23년 동안에 게이블은 도합 54편의 영화에 출연하였다. 그가 가장 훌륭한 연기를 보여 준 영화는 「어느 날 밤의 일(It Happened One Night)」, 「바운티 호의 반란(Mutiny on the Botony)」 및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이 세 가지의 영화는 모두 게이블이 출연하기를 원치 않았으나 하는 수 없이 출연하게 된 영화이다 그는 「어느 날 밤의 일」에 출연하기를 싫어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가벼운 희극에서는 실패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이블은 이 영화에서 아카데미 상(賞)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바운티 호의 반란」에 출연하기를 주저한 이유는 그 영화에 출연하는 영국 배우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며 게이블은 이 영화에서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을 얻었다.)

또한 그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하기를 원치 않은 이유는 레트 버틀러라는 인물을 제각기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는 많은 대중을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의 대부분은 클라크 게이블의 모습과 연기 속에 버틀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이블이 무수히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동안에, 전 세계가 다 아는 그의 별명을 얻게 된 것은 몇 해 전 일이다. 그를 킹(王)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자람은

스펜서 트레시이다. 이 별명은 곧 유행되어 오늘날 할리우드에 서는 누구나 게이블을 이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이 별명은 비단 그가 인기배우라는 데서만 온 것이 아니다 그의 당당한 풍채와 그가 유명해진 이후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존경의 분위기에서 온 것이다.

클라크 게이블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거리에서나 역에서 군중이 그를 둘러싼 때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MGM의 선전부장인 하워드 스트릭클링은 말하고 있다.

로버트 테일러나 믹키 투우니와 같은 다른 배우들은 사람들이 떠밀고 잡아당기고 하지만 게이블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게이블에게 말을 걸고 사인을 부탁하거나 혹은 다만 그를 쳐다 볼 뿐이지 그의 몸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게이블의 팬들과 마찬가지로 게이블의 상사(上司)들도 그와 허물없는 사이가 되려들지 않는다. 루이스 B. 메이어도 절대로 그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일이 없었다. 그에게 용두가 있을 때에는 할 말이 있으니 틈이 있거든 들려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작년 봄에 멕시코에서 「거인」을 촬영할 때 게이블은 제인 릿셀과 한 달 동안이나 함께 일을 하고 점심 때

에는 의례히 릿셀과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밥을 먹곤 했는데 그때 어느 사람이 게이블에게 릿셀 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보았다. 이에 게이블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를 잘 모릅니다.”

게이블은 쓸데없이 남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그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던 것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레트 버틀러의 역을 맡은 것이다.

대해준다. 그가 멕시코에 가있던 어느 날 브르클린에서 온 한 여행인이 '거인'의 로케이션을 습격하고 곧장 게이블을 찾아 갔다. 게이블은 그때 홀로 앉아서 다음 신의 대사를 외우고 있었는데 설혹 그가 그 침입자를 만나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도 게이블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게이블은 읽고 있던 시나리오를 옆에 밀어젓히고 그 사람과 다정하게 악수를 하고 앉으라고 권하였던 것이다.

영화배우들은 대부분이 세트에서 촬영을 할 때 신과 신 사이에는 조용한 그들의 이동화장실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게이블은 전공(電工), 녹음기술자, 대역, 의상계원들과 어슬렁거리며 농담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전투 지구에 있는 마을에서 사단사령부가 숙소를 정하는데 군대예절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케 중인 영화인 일행의 조직도 할리우드의 계급제도에 따라서 형성된다. '거인'의 로케 반이 그 본부를 설치하고 있던 멕시코의 두랑고에서 게이블은 세를 주고 들어있는 집에서 일요일 이외의 평일 저녁에는 홀로 대사를 연구하고 일찍 자리에 누었다. 그러나 일행의 휴일인 일요일이 되면 게이블은 자기의 출입금지 주택에서 뛰어나와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호텔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 호텔에는 오랜 경험을 쌓은 그의 대역 류 스미스, 다년 간 그의 메이크업을 맡아오고 있는 단 로버어슨, 제인 릿셀의 메이크업 담당자이고 호위인 제인 브리톤 등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게이블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유쾌하게 술을 마시며 담소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급자들과 사귄다는 것은 영화 로케이션에서 보기 드문 광경인 것이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에 게이블은 그의 승용차를 신형으로 개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링컨을 싼값으로 브리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만일 장사꾼에게 팔았더라면 훨씬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중고품 자동차 판매소에서 장사꾼이 나의 차를 가리키며 클라크 게이블의 차라고 선전하는 것이 싫었다.”

이렇게 게이블은 말하였다.

그리고 '두랑고'에서 어느 일요일 오후에는 류 스미스가 영화 「파아넬(Parnell)」에서의 죽음의 신 촬영에 대해서 회고하고 게이블을 즐겁게 하였는데 이 영화는 게이블의 일생에서 가장 서투른 작품이었다.

게이블은 아일랜드의 애국자인 찰스 스튜어트 파아넬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

하였다. 이 영화의 제작에 착수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파아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게이블에게 물었는데 이에 게이블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실은 나도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후에 MGM의 한 직원은 아일랜드 사람들까지도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게이블은 또한 영화 「모험」도 몹시 싫어하는데 이 영화는 그가 공군에서 소령으로 제대한 후에 그리어 가아슨과 함께 출연한 그의 전후 최초의 작품이다. 그는 MGM이 게이블은 다시 돌아왔고 가아슨은 그를 찾았다고 전국적으로 선전한 이 영화의 광고문을 건딜 수 없이 싫어하였다. 게이블은 광고판과 신문지상에서 이것을 보고 몹시 당황하였다. 전후 몇 해 동안에 그가 MGM 영화에 출연한 작품들은 거의 '모험'만큼 신통치 않은 것으로 게이블은 생각하였다. 이상하게도 이상할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 게이블이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불만은 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심각한 불안정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캐롤 톰바야드의 죽음의 비극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많은 여성과의 로맨스, 복잡한 사교생활, 레이디 실비아 애실리와의 짧은 결혼생활, 이 모든 것이 게이블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정신병학자가 할 말이겠지만, 게이블은 밤에 불행하였기 때문에 낮에 스튜디오에서 하는 일이 서툴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영화배우로서의 게이블의 생애가 새롭고 더욱 유망한 전도(前途)를 향해서 전환하고 있음과 더불어 그의 연애생활에도 또한 희망이 보이기 시



젊은이들과 10대의 소녀들은 일찍이 그들의 어머니들이 게이블을 좋아한 것에 조금도 못지않게 오늘날 그를 좋아하고 있다.

작하였다. 주급 7,500달러의 스타로서 MGM과의 오랜 계약을 해소하고 이제 그는 무소속의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이제 그는 그가 출연할 모든 영화의 스토리 감독, 배역 등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봉급이 아니라 총 영화제작비의 몇 퍼센트를 받고 일하는 그는 MGM에서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의 출연에 대한 요구도 많다. 한편 그의 사생활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케이 윌리엄스 스프랙클스와 의 결혼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고 있다. 게이블은 재정관리인을 두지 않고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할리우드 최고의 축재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오직 비서 한 사람만을 두고 혼자서 돈을 취급하고 있다. 게이블은 현재의 막대한 수입 영화 한 작품에 약 50만 달러와 함께 MGM사의 퇴직수당에 축적되어 있는 30만 달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고생은 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부족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블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배우생활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의 현재의 큰 문제는 앞으로 1년 동안에 세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어떻게 그의 아내 케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새사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사냥꾼들은 라이언(사자)을 잡으러 아프리카로 가지만 게이블은 영화 ‘모감보’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곳에 갔을 때 아프리카는 새 사냥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새 사냥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 영화에 출연하지 않는 때에는 그곳에 가서 마음껏 새 사냥을 하고 싶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다.

앞으로 몇 해 동안은 계속해서 영화 스타로서 자신을 빛내기로 결심한 게이블의 결정을 최소한도 인디아나 주 뉴 고센에 사는 17세의 어느 소녀는 열광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그 소녀는 최근 다시 개봉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게이블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내왔던 것이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당신이 26년 동안이나 영화 배우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겨우 당신을 발견해 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너무 일찍 영화계에서 은퇴하지는 말아주세요……” (끝)



## 평화(平和)를 위한 미군사력(美軍事力)

외지(外誌)에서



### 오늘날

미국의 군사기지는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 산재되어 있다. 미국군대는 공산주의자의 침투에 항거하여 자국을 방위하는 자유세계제국(諸國)의 국경선에 연(沿)하여 철통같은 경비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정세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군사배치는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유지하려는 자유세계의 온갖 노력 중에서도 으뜸가는 요구조건인 것이다. 존 포스터 텔레스 미 국무장관은 한 때 “비양심적인 인간이 보유하는 방대한 군사력에 비교하여 우리 힘이 미약하다면 우리는 우리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갈파(喝破)한바 있다.

요컨대 우리들이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려면 먼저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련 지도자에 의하여 조종되는 국제공산주의자들은 다만 ‘힘’ 만을 숭배한다. 소련과 성공적으로 타협하려면 첫째 우리의 군사력을 그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만 우리가 스스로 기타 세계문제를 협상하게 될 위치에 서게 되고 그들의 음흉한 사상과 행동을 궁극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군대의 사명은 분규 중에 있는 세계 제(諸)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향하여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 요구조건이란 바로 군사력의 강화인 것이다. 미국과 그 밖의 자유세계제국은 그 어떠한 가상 침략국이라 할지라도 평화파괴의 음모를 획책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승리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욱 큰 오산(誤算)으로 인하여 무모하게 자행될 지도 모르는 그들의 침략의 모험을 피하여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구 조건은 응징적 전투능력의 강화이다. 우리가 피격당할 때 전(全) 전선(戰線)에서 즉각적으로 적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미국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과학자, 전문가 및 기술자들의 사명은 바로 이 응징적 전투능력의 구성요소인 것이다.

미국 군대는 오늘날 침략에 대한 하나의 믿음직한 방패이다. 공산진영의 공군력과 원자무기의 보유량이 최근 괄목할 정도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미

국에게 직접공격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2개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첫째, 미국에 대한 불의의 공격을 방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1) 효과적으로 분산 배치된 미 육, 해, 공군력의 기동성, (2) 원자전쟁 발단 시 여하한 침략자에게도 즉각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전투능력의 보유, (3) 자유세계제국과 제휴하고 있는 집단<sup>18)</sup> 안전보장체제의 강화, (4) 미군의 군사적 활동이 평화적이며 미군의 군사력과 방위태도는 '평화를 위한 군사력'이라는 세계적인 인식 등등이다.

둘째, 미국의 풍부한 산업자원과 과학적 지식은 이 나라의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만일 여사(如斯)한 자원이 없었던들 제1,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하여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산업적 기술적 발전은 장래에 있어 야기될지도 모르는 여하한 형태의 전쟁에 대하여서도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다. 미 군사력의 장족적(長足的)인 강화 및 발전상을 육, 해, 공, 해병대 및 해양경비대별로 관찰해 보기로 한다.

## 육군

오늘날 미국 육군은 평화 시에 있어서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대규모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3개의 대륙 내의 73개 국가에 주둔하고 있으며 철의 장막, 죽(竹)의 장막을 둘러싸고 촌토(寸土)의 양보도 없는 미국 군대의 존재는 자유세계의 많은 동맹국들에 대하여 유사시에는 그들과 운명을 같이하여 싸움으로써 전쟁의 방패가 될 것이라는 미국의 결의를 실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제(議) 동맹국들은 전쟁이 발발되는 경우에 신속하고 충분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침략을 봉쇄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명백한 행동을 보여 줄 것이다. 미 군사력의 과반수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다. 미 제7군 휘하의 5개 사단은 구라파에, 제8군 휘하의 2개 사단은 한국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미국 내에는 고도로 기동화하고 신무기의 훈련을 완료한 육군과 예비역들이 해외주둔 육군을 보충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원자유도무기의 발전은 육군의 화력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코프랄과 어네스트 존 대대는 필요한 훈련을 이미 마쳤으며 해외에 파견되었다. 지상 대(對) 공중 유도무기로 장비한 나이크 대대는 적의 공중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본토 요지에 배치되었으며, 해외 제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까운 장래에 해외 각지로 파견될 것이다. 미 육군은 원자전쟁의 경우 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를 사

18) 일본의 集團은 集團의 오기임.

용하고, 유기적인 조직과 전술을 실행하기 위한 과학전에서 부단히 진진하고 있다. 닥트, 리틀 존, 라크로세 및 레드스톤 등과 같은 고성능 장거리유도탄 및 로켓의 발전은 지상부대의 전투능력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개선된 나이크 하쿨즈는 나이크 1호와 대체 되었다. 제2차 대전 당시의 3제대형(梯隊形) 사단조직을 버리고 원자무기사용에 편리한 5제대형의 새로운 팬톰 사단을 소개하였다. 신형 사단조직에 의하여 재편성된 제101공수사단은 공수작전에 관한 한 완전무결한 작전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보병과 기동부대는 팬톰 체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동안에 새로이 발전시킨 신무기로서는 M-56 자동 추진식 90밀리 포, 소형무전기 메가니칼 물(일명 기계당나귀)등이 있다.

## 해군

해군의 계획, 조직 및 무기 역시 원자시대식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초의 원자잠수함 노티러스 호에 대한 실험은 범선이 증기선으로 발전한 극적인 시대변화와 마찬가지로 선박 추진방식에 새로운 변혁을 이루었다. 현재도 새로운 원자잠수함은 건조되고 있다. 유도탄과 유도어뢰로 무장된 이 군함은 수중에서 고속도로 연료보급을 받지 않고 거의 무기한으로 항속할 수 있다.

보스턴 및 캔버라 등 유도탄을 장비한 2척의 순양함이 이미 함대에 참가하였다. 공중 대(對) 공중과 공중 대 지상 공격에 관한 해군 당국의 유도무기 제작계획은 강력한 적기 공습에 대하여 함대를 방위하며, 해군소속 항공대와 해상 및 잠수함 대에게 적의 진지를 포함한 공격목표를 지적하며 강타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해군 항공대가 전투에 있어 필요한 방위부대가 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공격부대로 등장한 이래 해군의 공격부대의 중심지는 근대식 항공모함으로 되었다. 포리 스탈 항공모함의 자매함인 사라토가 호는 작년에 함대에 참가하고, 또 하나의 렌저 항공모함이 진수(進水)하였으며, 다른 2척은 건조 중에 있다. 항공모함은 구형(舊形) 비행기가 초음속전투기와 원자탄두의 수송능력이 있는 고성능 장거리중형폭격기로 대체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일일 강화되고 있다.

게리슨 노론 미 해군항공 차관보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1척의 항공모함은 1만 피트 길이의 활주로를 가진 전진기지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바 있다. 광대한 해역에 산재하여 고도의 기동력을 가지고 유도탄과 은폐물으로써 잘 보호되는 이러한 종류의 항공모함은 적이 추적하기 힘들고 공격하기 힘든 난공불락(難攻不落)의 해역인 것이다. 오늘날 미 제6 및 7함대는 세계의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뜻하지 않는 사태에 대비하여 바다를 지킴으로써 평화를 위한 미국 군대의 비중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 공군

미국 공군의 전투능력은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핵무기의 실험을 주관하는 전략공군사령부(SAC)는 적의 심장부를 보복적으로 강타하는 전투력으로서의 방위선을 형성한다. 전투기와 경폭격기로서 구성된 전술공군사령부(TAC)는 국부적인 전투에 참가하며 육군지상부대에 대한 공중지원작전을 한다. 전술공군사령부는 현재 원자무기를 보유하며, 공중연료보급을 담당하고 각 기지로부터 여하한 해외 제지역에까지라도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대륙공중방위력도 현저히 강화되었다. 대륙공중방위사령부(CONAD)는 여하한 적기(敵機)도 지극히 손쉽게 격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중 대 공중 유도탄으로 무장한 초음속유도탄인 보마크와 항공기에 대한 경보 및 관제를 위한 사계는 현재보다도 가일층 효과 있는 방위도구로서 장래를 약속하고 있다.

미국의 중공업과 어깨를 겨누어 발전하는 미국 공군은 레이더 정보장치와 요격 및 공격목표 선정장치, 그리고 전기통신기구 등에 있어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고 있다.

메타돌 유도탄으로 무장한 전술작전대대는 해외 제기지로 파견되고 있다.

현재 발전 중에 있는 중간거리 탄도유도탄(IRBM)과 대륙간탄도유도탄(ICBM)은 고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원자탄두를 장거리 밖에 착탄(着彈)시킬 수 있는 유도탄이다. 이 밖에도 비행기를 원자력으로 추진시키려는— 연구가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음속의 20배를 초과하는 속력과 성층권(成層圈) 비행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머지않아 과학적 장벽을 뚫고 인간이 일찍이 상상도 못한 이상(理想)과 기적이 실현될 것이다.

### 해병대

언제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해병대는 미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절대적인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강력한 미 제3해병사단과 제1해병항공단은 필요시에는 지체 없이 출동할 수 있는 극동지역의 전략적 요지에 주둔하고 있다. 지중해에는 함상근무를 하는 1개 해병대대가 제6함대와 합세하고 있다. 해병사단항공단이 역시 긴급한 출동명령으로 세계의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미국의 동서해

안에 주둔하고 있다.

해병대는 신무기와 이에 따르는 기술의 사용과 채택에 있어 점점 진보함으로써 자체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안지대 기습작전의 성격은 상륙 후 최초의 분산을 용이케 하고, 다음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재집결하는 등 작전을 급속히 진행시킬 수 있는 헬리콥터의 출현으로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버지니아 주 판티코에 있는 해병대발전연구소에서는 지금도 신전술 장비 및 기술에 관한 연구가 거듭되고 있으며, 이 모든 연구는 속도와 융통성에 치중되고 있는바 이는 재래식 또는 원자무기를 사용하는 해병대의 공지(空地)작전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 해안경비대

미국 군대의 일부분으로서의 해안경비대는 미국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경비대의 해빙선(解氷船)은 그린란드의 룰 공군기지와 북극해지역의 기상대(氣象臺)에 대한 보급선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항만보안과 항해보조 상선의 안전보호활동 등의 광범위한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는 해안경비대는 선박과 수로에 대한 태업(怠業) 및 방해 등의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 부단한 경비를 계속하고 있다.

해양경비대의 가장 중요한 항해보조기구의 하나인 로란기지(基地)의 연쇄(連鎖)는 그린란드와 도쿄 간에 뻗치고 있다. 앞으로 이 로란기지는 더욱 연장될 것이다. 로란기지의 존재는 도양(渡洋)선박과 항공기에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인 것이다.

(이인호(李仁虎) 초역(抄譯))

###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 ★ 노동에 열심한 사람을 보라, 그 근육의 견고한 것, 신은(神恩)에 강한 것은 어찌 그 직분에 갈력(竭力)한 명증(明證)이 아니라! (영국 전기작가(傳記作家) 스말일스)
- ★ 신고(辛苦)는 탁월한 천재의 가는 길이다, 영예의 지위는 신고한 사람의 얻을 은상(恩賞)이다. (독일 고전문학자(古典文學者) 랫싱그)
- ★ 노동은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나 행복을 위하여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영국 비평가(批評家) 사미엘 존슨)

## 자유세계(自由世界)의 방위(防衛)와 미국(美國)의 부담(負擔)

영국(英國)의 군축계획(軍縮計劃)이 미국(美國)에  
대(對)하여 미치는 영향(影響)을 중심(中心)으로

외지(外誌)에서



영국이 그 군대를 반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미국민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명백해지고 있다.

그와 같은 영국의 결정은 미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앞으로 2, 3년 내에 미군을 감소시킨다는 문제는 미국의 부담이 가중해졌기 때문에 대규모로 실현될 가망 없을 것 같다.
2. 영국이 다량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값비싼 미국의 유도탄 생산은 예정보다 대규모로 실행될 것이다.
3. 미 해군의 대(對)잠수함부대와 미 공군의 중폭격기대(重爆擊機隊)에 새로운 책임이 부과될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경비가 증가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차의 경비 삭감을 보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현재 부득이 초과(超加)방위임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은 국방예산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계획은 요컨대 그 병력을 690,000명에서 375,000명으로 삭감하고 징집을 중지하고 대부분의 영국 제트기를 미국의 유도탄으로 대체시키고 영국 해군을 축소시키고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영국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축계획이 어떠한 지역에서 미국에 대하여 영향을 줄 것인가는 비공산 세계에서의 미영(美英)의 활동을 살펴보면 대략 알 수 있다.

### 서구(西歐)에서

미국이 그 최대의 해외병력을 공동방위를 위하여 파견하고 있는 서구라파에서 영국은 1년 내에 13,000명의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삭감과 또한 불원간(不遠間) 있을 그 밖의 삭감 등은 그 4개 라인 강(江) 사단을 2개 사단에 해당할 정도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술공군의 절반은 거의 즉시 철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있는 동(同) 지역에서 크게 전투력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만일 불란서와 이태리가 영국의 뒤를 따라 그들이 북대서양 동맹군에 제공하고 있는 병력을 삭감한다면 전투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독일은 현재 미국에 대하여 원자무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병력이 더욱 삭감될 가능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영국의 뒤를 따르진 따르지 않건 간에 영국의 철수만으로도 미 육군은 부득이 구라파대륙에 얽게 널리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월버 M 브룩커 미 육군 장관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구라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소시켰으면 하는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극동에서

미국은 극동에서도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1,000명에 달하는 그 전(全)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동 지역에서 그 주요연합군의 하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공산침략이 있을 경우에 이제는 영국군이 자동적으로 참전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지역에 있어서의 미군 감축에 대한 가능성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의 기타 위험한 지역 특히 중동과 동남아세아에서 소규모의 전쟁이 돌발할지라도 영국은 군대를 파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도 미국이 비상시에 명목만의 군대가 아닌 실질적인 군대를 가지고 소규모의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유세계의 유일한 국가로서 그 해병대와 육군낙하산사단을 가지고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와 같은 미 지상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속적인 증가를 약속하는 것이다.

해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국 해군은 소련의 잠수함대(潛水艦隊)가 급속도로 증강되고 있는 이때에 약간의 항공모함과 '현대식' 소형함선을 중심으로 하는 더욱 소규모의 함대로 감축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주로 미국이 그 함대를 가지고 잠수함과 싸우고 대서양에 연합국의 생명선을 확보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또한 영국 함선들이 공산군의 잠수함에 대하여 기뢰(機雷)를 부설하고 초계(哨戒)하고 방위하는 일에 뚜렷한 임무를 담당하여온 지중해에서도 미 제6함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영국의 결정은 미국의 폭격기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군의 삭감은 그 본토의 방위보다도 보복조치에 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복조치는 사실상 유도탄은 물론 미 전략공군(SAC)의 중폭격기대에 의하여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이 앞으로 5년 동안에 그 군사력을 삭감함에 따라서 더욱 큰 부담이 미국의 육, 해, 공군에 가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증가시키지 않기로 시험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감축한다는 것은 더욱 곤란할 것이며 책임의 가중으로

인하여 미 정규군의 군사비는 계속 막대한 액수에 달할 것이다.

특히 유도탄분야에 대한 경비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방위계획의 주요한 변화를 발표한 영국의 백서는 이렇게 언명하고 있다. “미국 로켓의 공급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영국에게 시간과 경비의 절약을 가져올 것이고 더욱 발달한 로켓의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미국의 유도탄이 대규모로 영국에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유도탄계획에는 수십억 불이 경주되고 있다. 영국과 서구의 방위를 위하여 가장 많이 필요로 하게 될 미국의 유도탄은 현재 3개 형(型)으로 발전되고 있는 중거리탄도유도탄인 1,500리(哩) 급(級) 로켓일 것이다. 이 3개 형 중 미 공군의 토어(뇌신(雷神)의 뜻)는 현재 시험발사의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대량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유도탄 한 개의 가격은 초기에는 약 백만 불에 달할 것이지만 앞으로 2년 내지 4년 후에 대량생산되면 훨씬 싸질 것이다.

만약 소련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영국이나 서구로부터 모스크바와 소련의 공업 중심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유도탄에 의한 수폭(水爆) 보복이 행해질 것이다. 방위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이와 같은 유도탄기지의 건설은 앞으로 수년간에 미국의 군사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 소련의 우려(憂慮)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하여 소련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소련이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화란(和蘭), 서독 및 중동(中東)제국(諸國)에 대하여 만약 유도탄기지를 건설하고 사용하면 조속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미국의 유도탄에 대한 요구는 토어 이외의 다른 형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현재 영국 본토를 방위하고 있는 전투기를 대치(代置)시키기 위하여 대공유도탄(對空誘導彈)을 요구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라파의 감축된 영국 지상군을 강화하는 한 방법으로서 원자탄두를 가진 전장(戰場)유도탄도 언급되고 있다. 심지어는 적당한 시기에 영국의 장거리 폭격기를 대치시키기 위하여 ICBM 즉 대륙횡단탄도유도탄까지도 미국에 의하여 공급될지도 모른다.

모든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이 유도탄을 위하여 소비할 예산을 직접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유도탄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미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新)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이 20억 불 증가된 원인도 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중된 미국의 방위부담의 전반적 영향은 앞으로 1년간의 국방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58년 중기에 시작되는 기간의 계획에는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때까지 유도탄에 소요되는 경비는 증가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건설이……? 굉장히 값비싼 유도탄기지도 또한 그때까지 해외에 건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서양연합해군사령관 제라올드 라이트 제독의 견해에 의하면 영국의 부담이 현저히 경감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대서양에 있어서의 미 해군의 초계 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요컨대 미국은 영국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유세계를 방위함에 있어서 더욱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미국민은 수년 안으로 이 가중된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인 것이다.

### 미국(美國)의 유도탄총람(誘導彈總攬)

#### 장거리유도탄(長距離誘導彈)

애틀라스 5,000리 급 탄도유도탄.

엔진은 이미 생산 중이고 협도탄 제조공장이 현재 건설되고 있다.

타이탄, 로켓 추진의 5,000리 급 탄도유도탄.

현재발전도상에 있다.

내바호, 애틀라스보다 속도가 느린 5,000리 급 제트유도탄

원형(原型)이 건조되어 현재 비행시험 중에 있다.

스나이크 5,000리 급 유도탄.

현재 캐리빈에서 미 공군에 하여 시험되고 있다.

토어 미 공군의 1,500리 급 탄도유도탄.

시험발사의 단계에 있다.

쥬피터 미 육군의 1,500리 급 탄도유도탄.

내(來) 7월까지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플래리스 미 해군의 1,500리 급 탄도유도탄.

발전단계에 있다.

#### 초포탄용(超砲彈用)

레드스톤

현재 발전 중에 있는 미 육군의 장거리 로켓. 사거리 200리.

매타도어

미 공군의 제트추진 무인폭격기 현재 실용 중. 항속거리 약 200리.

싸아전트: 미 육군의 장거리유도탄포. 초기의 발전단계에 있다.

고오포탈: 미 육군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로켓포탄. 사거리 100리.

레굴러스: 미 해군의 제트 동력유도탄. 함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원자탄두 장치 가능.

레굴러스 2형(型): 레굴러스 1형을 장리형으로 개조한 것. 현재 생산 중에 있다.

어네스트 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미 육군의 표준 로켓포탄. 사거리 15리. 원자탄두

장치가능.

리틀 존: 어네스트 존을 소형으로 개조한 것으로서 전장 5척(呎). 현재 생산 중에 있다.

다아트: 전장 5척(呎)의 단거리 미 육군유도포탄. 현재 생산 중에 있다.

라크로스: 미 육군의 신형 로켓. 전장 19척(呎), 사거리 8리. 발전도상에 있다.

트라이톤: 미 해군의 함상 대 해안용 유도탄. 현재 상당한 발전단계에 있다.

### 초대공포탄용(超對空砲彈用)

나이크: 에이잭스 현재 미 육군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도시방위용 유도탄. 사거리 25리.

나이크: 허큐리즈 나이크 에이잭스를 장거리용으로 개조한 것. 현재 생산 중에 있다. 사거리 50리.

나이크 제우스: 비밀대유도탄유도탄.

보마야크: 미 공군의 공중방위용 대공유도탄. 사거리 200리.

베리어 1형(型):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 해군의 대공유도탄. 사거리 10리.

테리어 2형(型): 대형 함상 대공유도탄. 현재 생산 중. 사거리 20리.

테일라스: 미 해군의 장거리 대공유도탄. 현재 생산 중.

타아타야: 미 해군의 신형 대공유도탄. 발전 도상에 있다

팰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중대 공중유도탄. 자동적으로 발사된다.

사이드 와인더: 불원(不遠)간 실용화할 미 해군의 공중대공중유도탄.

딩 둥: 원자탄두를 장치한 공중대공중유도탄 미 공군을 위하여 현재 발전 중에 있다.

스페로우 1형(型): 자동발사장치를 가진 미 해군의 공중대공중유도탄. 현재 사용되고 있다.

스페로우 2형(型): 스페로우 1형의 개량형. 소규모로 생산 중.

스페로우 3형(型): 더욱 발달한 형. 초기의 발전단계에 있다.

### 공중 대 지상용

라스 쿨: 항공기로부터 지상으로 발사되는 미 공군의 유도탄. 사거리 100리.

불뿔: 항공기로부터 지상의 목표물에 대하여 발사되는 미 해군의 유도탄. 발전 중에 있다.

패로랄: 항공기로부터 잠수함에 대하여 발사되는 미 해군의 유도탄. 현재 사용 중. (끝)

## 명작소개(名作紹介)

# 백주(白晝)의 암흑(暗黒)<sup>19)</sup>

아서 케스틀러 작(作)

### ☆ 소련서의 경험 ☆

작자 아더 케스틀러<sup>20)</sup>(1905년생)는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탄생하여 각지에서 저널리스트로서 활약하였는데 그는 그의 사상(思想)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치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이 작품은 그가 소련주재 중의 경험에서 취재하여 쓴 작품인데 소위 모스크바 재판을 창작화한 것이다.

주인공 투바쇼프<sup>21)</sup>는 가공의 인물이었지만 당시 이러한 운명의 길을 걸은 사람이 무수하였고 또 현재는 물론 그리고 미래에도 허다할 것이다.

케스틀러는 그가 지지해오던 공산당을 탈당하고 현재까지 자유주의 국가의 투사로서의 눈부신 작가활동을 하고 있다.

### ☆ 스토리 ☆

주인공 투바쇼프는 내전 시에는 공훈을 세워 인민위원까지도 지내던 인물로서 현재에는 최고지도자를 제외하고는 단 한사람밖에 없는 혁명당시의 유력자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돌연 3명의 비밀경찰이 아직도 취침중인 그를 체포하러 왔다. 반혁명이라는 이유였다. 그는 30분간이나 미제의 호사스러운 자동차를 탄 다음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를 조사하는 담당자는 친구인 이바노프<sup>22)</sup>였다. 사종(斯種)이런 종류의 재판이 어떻게 정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투바쇼프는 이제 무슨 말을 한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실(知悉)하고 있다.

“아마 나는 나이를 먹어 늙어서 당신들에게겐 용도 없는 낡은 사람이니 어떻게 든 마음대로 하게”하고 그는 말하였다.

이바노프도 웃으며 말한다.

“그럼 이쪽에 편하고 좋은 대로 간단한 자백서를 날조하겠네.”

19) Darkness at Noon.

20) Arthur Koestler

21) 월문의 투바쇼프는 투바쇼프로 보임. Nicholas Salmanovitch Rubashov

22) Ivanov

그러나 이바노프는 혁명 이전의 기분이 다소 남아있어서 투바쇼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나 사상적으로도 일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의 방식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레토키<sup>23)</sup>이란 젊은 조서관이 담당하는데 그의 방식은 지극히 준엄하여 주야로 극심한 고문이 투바쇼프에게 강행된다.

투바쇼프는 그 격심한 고문을 인내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일찍이 그는 당에 충성을 다하고 당을 위하여 동지나 애인을 몇 번이고 희생시킨 것을 상기한다.

그러나 그것도 역사의 필연이며 유일한 지도원리는 혁명의 논리뿐이오 윤리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믿어왔었는데 지금 그러한 사상이 인과응보로서 자기에게 보답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 만으로서는 살 수 없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윤리가 필요하다고 그는 일기에 적는 것이었다.

그레토키가 낭독하는 기소장에 의하면 그는 '최고지도자 암살계획자'라고 되어 있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활계사(猾稽事)[교활한 일이었으므로 그는 기막힌 웃음을 지었다.

그 증인으로서 끌려온 자는 감옥의 뜰에서 본 일이 있는 언쟁이었다.

“너는 이 사람과 몇 번 만났나?” 또는 “최후에 만난 것은 언제나?” 이렇게 그레토키로부터 신문을 받으나 그에게는 대답할 도리가 없다.

그레토키는 이번에는 그 언쟁이에게 묻는다. 그러면 언쟁이는 청산유수처럼 줄줄 이어댄다.

“저는 당의 지도자를 독살할 것을 투바쇼프 씨로부터 교사(敎唆) 당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자는 일찍이 투바쇼프의 구우(舊友)이며 동지였던 키파의 아들이었다. 키파는 지도자의 전기를 쓰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새로운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투바쇼프가 협조해 준 것이었다.

후일에 그는 반혁명운동에 들어가고 그 아들도 그것을 도왔다. 따라서 투바쇼프의 입장은 이미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으로 쫓긴 것이다.

투바쇼프를 전등에 강제로 향하게 한 다음 협박적으로 죄상을 인정시켰다. 그는 자백서에 서명하였다. 그 자백서에는 ‘투바쇼프가 키파 청년을 선동하여 당의 지도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이것으로서 만사가 끝난 줄 알았더니 실은 이것이 서곡에 불과하고 그의

23) Gletkin

죄상은 그가 전연 알지 못하는 7조 조항으로 되어있었다.

그 결과 검사는 그를 총살에 처한다고 구형하였다.

최후로 피고 투바쇼프는 진술하였다.

“검사가 나에게 사형을 구형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죽고 있다. 정치의 가장무도회도 의론도 음모의 몸짓과 광언(狂言)도 드디어 끝났다.”

감방의 도어가 두들겨진다. 수인(囚人) 동지의 암호다. 그것으로 그 언쟁이도 끌려갔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윽고 투바쇼프의 차례가 왔다.

“무슨 소망이라도 있나?”

“없소”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둔한 일격이 그의 후두부를 쳤다.

오랫동안 예기하고 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생각지 못했다. 그는 이상히 여기면 서도 무릎이 허물어지고 신체가 반원을 그리며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느꼈다.

어찌면 이렇게도 연극 같을까 하고 쓰러지며 그는 생각하였다.

뒤이어 제2의 심한 일격이 그의 귀를 울렸다. 그제야 만사가 소리 없이 고요해졌다.

## 기타 작품

1930년대는 서구의 지식인이 공산주의로 좌경한 불행한 시대였는데 스페인의 내란에서 정부군의 의용군으로서 참가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격심한 정치주의에 조롱(嘲弄)되어 점차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데 제2차 대전 중의 독소동맹은 수많은 지식인을 반공산주의자로 하였다.

이 ‘백주의 암흑’은 1940년에 그 전년의 독소동맹의 영향 하에 쓰여진 것이다.

정치목적을 위해서는 여하한 잔학비인도적 수단도 가리지 않는 정치의식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전편을 관통하고 있다. 소련에는 새로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간의 모델이 없다고 작자는 비난하고 있다. 이 작품 이외의 많은 작품이 있는데 참고서의 불비(不備)로 생략한다. (끝)

### 합창단(合唱團)의 대성(大聲)

#### 지붕을 추락(墜落)

영국의 첼스후오트에서 350명의 부인합창단이 연1회의 음악제를 열고 있을 때에 생긴 일……

지휘자는 “이때까지 부른 일이 없는 더 큰 소리로 불러 보시오. 될 수 있다면 지붕이라도 날러갈 수 있는 정도도 좋으니.”하고 말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지붕이 날라버리는 대신 허물어 떨어졌다.

4명의 부인은 절상(折傷)을 입어 첼스후오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현재 지붕추락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는데 당시 반대편 쪽 지붕에서 직공이 햄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기인한 노래 소리로 이었던가?

## 강(江)의 여인(女人)

La Donna Del Fiume<sup>24)</sup>



불(佛)·이(伊) 합작영화(合作映畫)

‘로마의 여인’으로 일약 유명해진 이태리의 전후파 작가 알벨토 모라비아와 그리고 인기작가인 엔니오 후라이야노가 쓴 스토리를 기초로 바지리오 후랑키나<sup>25)</sup>, 줄지오 바트사니<sup>26)</sup>, 피엘 파오로 파쑈리니<sup>27)</sup>, 후로레스타노 받치니<sup>28)</sup>, 안토니오 알토뷔리<sup>29)</sup>, 마라오 쏘투다리<sup>30)</sup>의 6인이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집필 마라오 쏘투다리가 감독을 담당한 멜로드라마.

촬영은 오델로 말테리<sup>31)</sup>, 음악은 안제로 라부아니노<sup>32)</sup>와 알만도 트로바이오리<sup>33)</sup>, 제작은 바지리오 후랑키나의 담당.

주연은 ‘나폴리의 향연’의 소피아 로렌<sup>34)</sup>인데 상대역은 순전히 신인에서 뽑은 릭크 바타리아<sup>35)</sup> 그밖에 제라알 오우리<sup>36)</sup>, 리즈 부을당<sup>37)</sup>, 엔리코 오리뷔에리<sup>38)</sup> 등이 조연하는 천연색.

### <스토리>

지노(릭크 바타리아)는 트로울 선을 가지고 그 배로 고기잡이도 하고 밀수도 하는 신식 미남자였다.

24) 원문의 Fume는 Fiume의 오기임. 영어 제목은 The River Girl임.

25) Basilio Franchina

26) Giorgio Bassani

27) Pier Paolo Pasolini

28) Florestano Vancini

29) Antonio Altoviti

30) Mario Soldati

31) Otello Martelli

32) Angelo Francesco Lavagnino

33) Armando Trovajoli

34) Sophia Loren

35) Rik Battaglia

36) Gérard Oury

37) Lise Bourdin

38) Enrico Olivieri



콘나치오 촌의 생선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은 누구든지 한 번씩은 그 남자와 사랑을 속삭일 정도였는데 단 한 여자인 니웨스(소피아 로렌)만은 그를 경원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무도회가 있던 날, 지노는 싸움이 벌어진 틈을 타서 그 여자를 오토바이로 약탈해서 삼림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는 그 여자의 집에서 3일간을 지냈는데 호색가인 그에게는 결혼할 의사도 없이 고리노라는 마을로 간다는 구실로 떠난 채 그 여자의 집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을이 되었다. 니웨스는 임신하고 있었다.

이전부터 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경관 찬티(제탈 오우리)는 지노의 밀수증거를 잡으려고 야단 이다. 니웨스는 이것을 고리노에 있는 지노에게 알리러 갔다. 지노는 감사하게 생각하였으나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자 그 여자가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여자를 몹시 모욕했다.

절망과 분노에 이성을 잃은 니웨스는 경찰에게 지노의 범행을 밀고하였다.

지노는 체포될 때 경관에게 부상을 입히고 5년의 형을 받았다.

2년 후 니웨스는 포 강의 하구인 피라 촌에서 갈대를 베면서 어린애를 키우고 있었다. 거기에 그 여자의 행방을 찾아다니던 경관 찬티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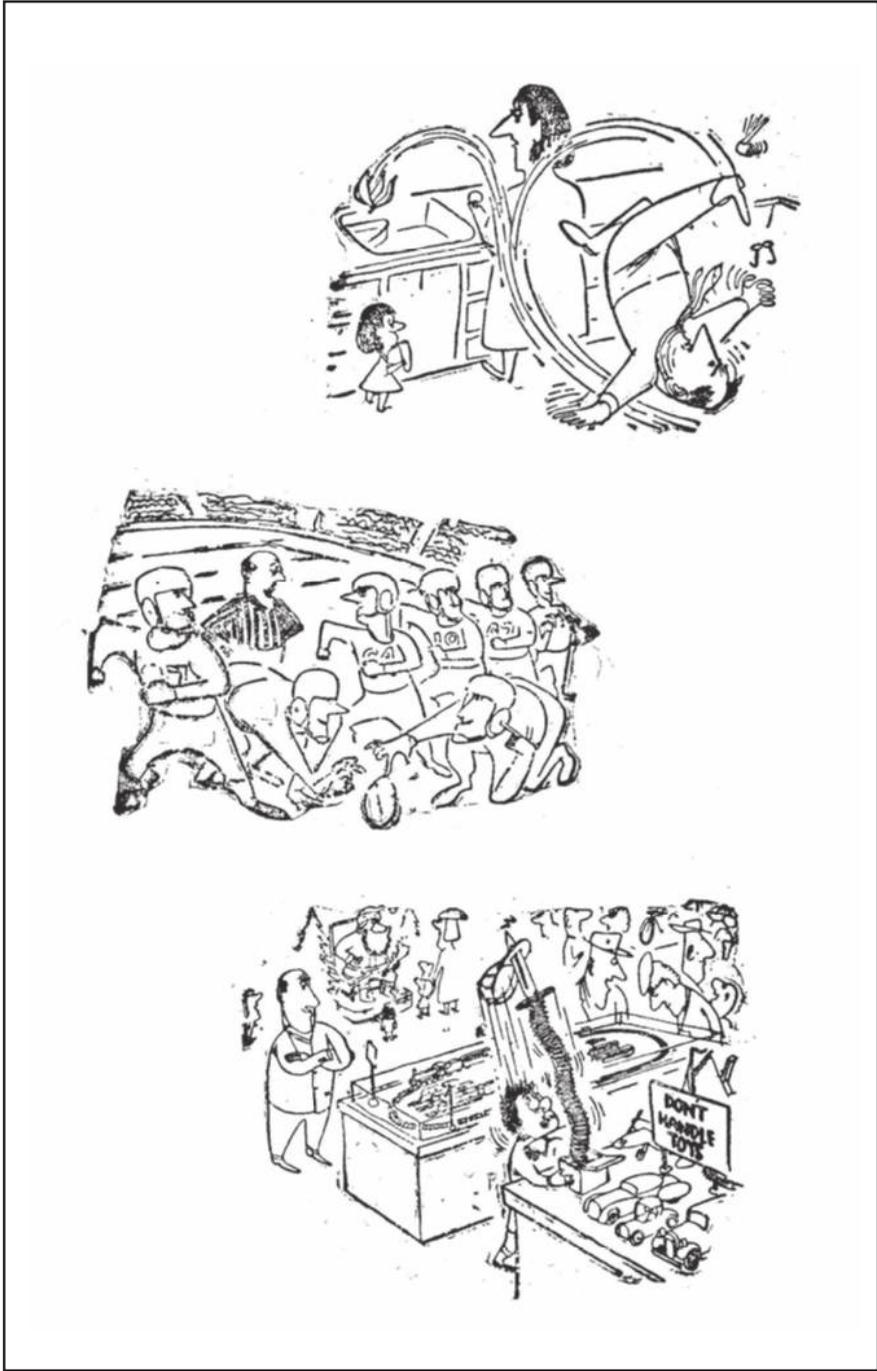
그는 변함없는 애정을 호소하며 지노가 탈옥해서 복수를 기도하고 있으니 행방을 감추도록 충고하였다. 니웨스는 굳이 거절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여자의 어린애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며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그 여자는 강물에 빠져서 익사한 어린애를 발견하였다.

어린애는 숨바꼭질을 하던 중 어머니를 찾다가 잘못해서 강에 빠진 것이었다. 니웨스가 슬픔에 잠겨 밤샘을 하던 밤에 홀연히 지노가 나타났다.

복수심에 불타서 달려온 그도 어린애의 시체를 눈앞에 놓고서는 자기도 슬픔에 잠겨 이미 준비를 완료한 국외로의 탈주를 단념하고 자수하였다.

다음날 아침 어린애의 매장이 슬픔 속에서 행해졌다. 지노는 경찰의 허가를 얻어 장사에 참렬(參列)하여 슬픔에 젖어있는 니웨스의 어깨를 껴안았다. 그 여자는 이제 비로소 그의 진실한 애정을 얻은 것이었다. (끝)



<역사소설(歷史小說)>

##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

박종화(朴鍾和)

의녕(宜寧) 선비에 곽재우(郭再祐)라는 이가 있었다. 남명 조식(南冥曹植)의 제자로 나이 사십 여세가 되도록 벼슬에 뜻이 없어 일부러 과거를 보지 않고 산수간으로 방랑해 노닐면서 낚싯대를 드리워 고기 낚기로 세월을 흘려보냈다. 남명 조식은 곽재우를 사랑해서 외손녀로 아내를 삼아 주었다. 그러니 곽재우는 조남명 선생의 외손녀가 된다.

그가 세상을 등지고 한일월을 보내고 있을 때 임진(壬辰) 사월에 왜란이 일어났다.

곽재우는 분연히 의병 일으킬 것을 결심한 뒤에 돌아간 아버지 무덤에 사배(四拜)를 드려 통곡하여 성결을 고한 뒤에 집안 재물을 풀어 헤쳐서 의병(義兵)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동리의 청년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왜적은 불의를 일으켜 우리들의 땅을 방약무인하게 침범해 들어온바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장차 우리들의 늙은 부모와 젊은 아내는 모두다 왜적의 포로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 동리의 장정들이 함박 일어난다면 적어도 수백 명은 넉넉히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땅을 자위하기 위해서 한맘 한뜻이 되어 적을 막아 싸워야한다.”

곽재우는 동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언한 뒤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청년들에게 입히고 아내의 옷으로는 청년들의 처자들을 입히게 하니 그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머금고 용감하게 모여들었다.

곽재우는 동리사람 심대승(沈大升) 등 십여 장사와 함께 죽고 삶을 같이 할 것

을 맹세한 뒤에 청년 수백 명을 모집하여 스스로 의병대장이 되어 붉은 비단으로 천익(天翼) 만들어 입고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란 큰 기를 내세운 뒤에 마상에 올라 앉아 일군을 지휘하니 풍채가 능름하고 기상이 현출했다.

곽재우는 군사를 일으킨 뒤에 의녕 초계(草溪)에 가득히 쌓여 있는 곡식과 기강(岐江) 뱃사공에게 세미(稅米) 받은, 잡곡으로 군량미(軍糧米)를 삼긴 고을로 넘어 들어오는 해적들을 좌충우돌하여 막아대기 시작했다. 그가 거느린 군사들은 모두 다 시골 군사라 처음 왜적을 만나 대진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곽재우는 언제든 붉은 홍의를 입고 언월도(偃月刀)를 휘두르며 적 토마(赤兔馬)를 몰아 앞잡이로 치달린다.

쏘는 화살은 백발백중이요 두루는 언월도는 번쩍하기만 하면 적의 목이 떨어져버리고야 말았다.

장수가 언제든 앞을 서서, 싸우니 군사들은 감동이 되어 죽을힘을 다하여 싸우게 된다.

그는 날 새고 발이 빠른 군사 수십여 명을 뽑아서 각처로 흠트려 적의 정세를 자세히 살피고 고하게 하니 백리 밖에 있는 적병들의 동정을 손 살피같이 짐작할 수 있었다.

적이 움직이기만 하면 이편에서는 먼저 산골 속에 복병을 매복했다가 천강홍의 장군이 대갈일성에 큰 소리로 내달리니 적병들은 싸우기 전에 벌써, 간이 떨어져서 만나는 족족 쫓겨 달아나버린다.

이때 경상도에는 경상감사 김수(金睟)의 군사가 몽그러져 버렸다. 곽재우는 김수의 못난 것을 통박하고 분연히 의로운 군사로 사방에서 물려드는 적을 막아낸다.

경상도 초토사(招討使) 김성일(金誠一)이 홍의장군 곽재우의 용맹스런데 감동되어 삼가(三嘉) 고을의 군마를 넘겨주었다. 홍의장군 곽재우는 의녕 사가 두 고을의 군마를 거느려 용명이 더욱 자자했다

곽재우는 연전연승 왜적을 물리쳐 의녕 삼개 합천(陝川)을 수복하니 인민들은 모두 다 고향으로 찾아 들어서 평일과 같이 농사를 짓고 태평한 살림을 누리게 되었다.

백성들은 곽재우의 군사가 자리를 옮겨 멀리 갔다 겁이 났다. 넉넉한 백성들은 서로들 의논하고 돌려가면서 밥을 짓고 소를 잡아서 곽재우 장군을 찾았다.

“천강홍의 장군께 아리오. 소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평안히 농사를 지어 늙은 부모와 처자식들을 굶어 죽이지 않게 된 것은 모두 다 장군의 덕이옵시다. 밥을 지어 왔으니 의병들을 먹여 줍시오.”하는 백성도 있고

“곽 장군께 아리오. 의병들을 먹일 양으로 소를 한 필 잡아 국을 끓였소이다. 군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줍시오.”

하는 사람도 있었다.

백성들의 후원이 이만큼 높아지니 홍의장군이 거느린 의병들의 기운은 더 한층 왕성하고 떨쳐진다.

곽재우는 세 고을을 수복한 뒤에 의녕 정진(鼎津) 산 꼭두에 진을 치고 낙동강(洛東江) 연안으로 내리 달리면서 강을 건너 들어오는 왜적의 떼를 쫓아 내린다.

유월 무더운 날이었다. 강을 지키고 있던 보발 군사들이 급히 말을 치 달려 보고를 올린다.

“지금 왜적의 배 열여덟 척이 쌍산(雙山) 역말 앞에서 솟나루로 향하여 상륙을 하러 올라오는 중이옵니다. 이름은 안국사(安國寺)라 하옵니다.”

홍의장군은 이 소리를 듣자 잠자코 고개를 끄떡인 뒤에 아장을 불러 영을 내린다.

“호각 잘 부는 군사 십여 명을 뽑아 붉은 홍의를 입히고 호각을 주어 적이 올라오는 산 꼭두에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정병 백여 명을 뽑아서 적이 강변에서 거의 오르는 돌 숲속에 매복해 있다가 적병이 계곡으로 다 기어오르거든 등 뒤에서 일제히 활을 쏘아 사살하라.”

아장은 청명하고 물러간다.

이윽고 청강 홍의장군 곽재우는 붉은 천익 입고 전립(戰笠)쓰고 화살 꺾인 동개 차고 활 끼고 언월도를 흔들며 적토마상에 높이 앉아 일제히 정병을 거느리고 적이 장차 상륙해 올라갈 반대방향의 고갯길로 치달린다.

산 꼭두에서 대기하고 있던 붉은 옷 입은 군사들이 산마루 위에서 일제히 호각을 부니 호각소리는 사면을 진동하면서 일어난다.

왜적들은 붉은 옷 입고 호각 부는 사람들을 치어다보면서 괴상하고 의아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마음이 불안한 찰나였다. 호각소리를 군호로 하여 별안간 좌우편 수풀속에서 화살이 썹썹하며 날아들었다.

마음 놓고 가다가 별안간 당하는 봉변이었다. 적병들은 수를 헤일 수 없이 죽어 자빠져 버린다.

적의 떼는 낭패해서 달아날수록 화살과 돌은 십리 길에 뻗쳐 비 오듯 쏟아진다.

적병들은 총자루를 바로잡고 목표물을 찾아 쓰라하나 숲속에 엎드려 매복한 군사를 발견할 길이 없었다.

적장 안국사는 당황하여 얼른 말머리를 돌이키는 판인 데 일성 포향은 천지를

진동하면서 일원(一員) 대장이 흥천익에 언월도를 휘둘러 산골 속에서 지쳐 나오면서 호통이 놀라웁다.

“찌놈 안국사야 달아나지 말고 목을 늘어 내 칼을 받으라.”

적장 안국사가 고개를 돌이켜보니 천강흥의장군 곽재우가 분명하다. 왜장 안국사는 천강 흥의장군의 선성을 귀에 익도록 들었는지라 급급 말을 채질하여 황황히 달아난다.

길을 되돌아서 달아나는 왜적의 앞에는 북병들의 살과 돌이 여전히 비 쏟아지듯 하고 뒤에는 천강 흥의장군 곽재우의 추격이 정히 급했다.

적병들은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었다. 진퇴유곡(進退維谷)이 되어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다.

적장 안국사는 다급했다. 마상에서 장수의 모양을 차린 금투구를 벗어 내동댕이치고 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병졸 틈에 섞여 달아난다. 가황금투구가 유난히 번쩍거리 눈에 띄기 때문이다.

흥의 장군 곽재우의 적토마는 어흥 소리를 치면서 방향을 끊어 뒤를 쫓는다. 적장 안국사는 얼이 빠지고 났을 잃었다. 달아나면서 갑옷까지 활활 벗어 버린다. 적장 안국사는 쓰러진 저희편 군사의 시체를 짓밟고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뛰어 달아난다.

일투의 목숨을 부지한 안국사는 겨우 낙동강으로 내려가 패잔병을 거느리고 급급히 배를 저어 물길로 영산(靈山) 창녕(昌寧)을 돌아 기강(岐江)으로 건너려 했다.

곽재우는 벌써 적의 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보았다. 거 기병을 거느리고 기강 갈대 숲속에 대기하고 숨어있었다.

적의 패잔병들은 흥의장군이 기강 어구에 또다시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다. 배에서 내리자 무심하고 강 언덕으로 처벽 처벽 기어올랐다.

강변 갈대밭 속에서는 돌연히 방포일성이 터지면서 또 다시 적의 가슴을 선뜻하게 떨어뜨리면서 일원대장이 적토마를 몰아 앞길을 막아 지쳐 나온다.

“찌놈 안국사야 네가 이놈 승천입지(昇天入地)를 하려느냐. 어디로 달아나려 하느냐 이제는 네 목을 나에게 바쳐야만 한다.”

안국사는 났을 잃고 바라보니 바로 솟나루에서 만났던 천강흥의 장군이 분명하다. 왜장과 왜적들은 기가 질려서 눈망울이 굳어지고 입술이 뻗뻗했다. 왜적들은 황망히 발길을 돌려서 기강가 배댄 곳으로 일제히 달아나 소란하게 배로 뛰어 오른다.

곽재우는 일제 기병을 휘동하여 배에 오르는 왜적들을 추격하니 적들은 수각이 황난 해서 화살을 맞고 물에 떨어지는 군사가 부지기수였다. 이 통에 우리편 군사는 적의 배 한척을 빼앗았다. 흥의장군은 친히 배에 올라 점검해보니 배안에는 우리나라 왕궁 안에 있던 금은보화며 태조(太祖) 대왕이 신으셨던 어화(御靴)까지 있었다. 왜적 안국사는 처음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왕궁 안의 보배를 노략질한 뒤에 다시 남해바다 싸움에 참여하려 내려왔다가 이순신 장군에게 쫓기어 경상우도로 상륙을 하려 다가 곽재우한테 두 번 씩이나 혼뜨김을 당하고 실낱같은 잔명을 구하여 다시 부산포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곽재우는 두 번이나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전리품으로 얻은 태조황제의 어화와 보물들을 경상 감사 김성일한테로 보냈다.

이때 현풍(玄風) 창녕(昌寧) 영산(靈山)에는 왜적의 육전대가 강성하게 결진을 해서 성주까지 연달아 있었다.

영산 현풍 창녕은 바로 의녕의 이웃이었다. 적병들은 곽재우가 거느린 의병들의 무서운 소문을 듣자 진을 거두어 달아나 버린다.

그러나 영산에 있는 강성한 것을 믿고 군사를 거느려 노략질이 심했다. 흥의장군 곽재우는 결연히 삼가 의녕 합천 세 고을 군사를 거느리고 영산 왜적을 치니 적병들은 곽재우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이렇게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적병뿐 아니라 철모르는 우리나라 어린애들도 “곽쥐”가 온다 하면 울음을 딱 그치게 되었다. 곽재우는 “곽쥐”로 완전히 되어 불린 것이다.

강성하게 기강을 부리던 영산 적병까지 쫓겨 가니 합천 삼가, 고령(高靈), 거창(居昌), 의녕은 말할 것 없고 현풍, 창영, 함안(咸安) 영산엔 적병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경상 우도의 인민들은 곽재우를 천강흥의 장군이라 해서 신같이 우러러보고 적병들은 이 뒤로부터 영영 침범을 하지 못하니 경상우도는 곽재우의 힘으로 완전히 수복 되었다. 서울과 연락하는 적병의 떼는 하는 수 없이 가운데 길을 취하여 밀양, 대구, 인동(仁洞), 선산(善山)으로만 치달리게 되었다.

곽재우가 타고 다니던 적토마는 그가 의병을 처음 일으켰을 때 저절로 뛰어 들어온 좋은 말이었다. 말 성미가 사나워서 보통 사람들은 어거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곽재우가 이 말을 다루면 거세던 말은 별안간 유순해지고 한번 뛰면 비호같이 내달아서 적진을 꿰뚫어 횡행하니 모든 사람들은 신이 그에게 보내준 것이라 감탄하고 곽재우는 이 말을 얻은 뒤에 더 한층 신념이 생겨서 수많은 왜적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이 적진을 돌격해 버렸다.

그의 정의감은 불같이 뜨거웠다. 영산 백성에 공가라는 자가 있었다. 처음에 왜란이 일어나니 이자는 왜적에게 붙어서 행도자가 되어 적병을 인도하러 서울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공가는 적을 도와 서울에 유하면서 제집에 편지를 했는데

“나는 경주부윤(慶州府尹)이 아니면 적어도 밀양(密陽) 부사(府使) 짚은 확실히 될 것이다.”

공가는 의기가 양양해서 전인을 띄워 편지를 내려 보냈던 것이다.

감투 써볼 욕심이 배때기 속에 팽중한 공가는, 허욕이 앞을 가려서 자기의 행동이 옳고 그른 비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소문은 영산 고을에 짜아하게 퍼져서 홍의장군 곽재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곽재우는 이 소리를 듣자 공가를 잔뜩 버리고 있었다. 왜적의 발자취가 다시는 경상우도를 범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공가의 운이 다 하느라고 공가는 서울 적진에서 고향인 영산으로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었다.

홍의 장군은 공가를 결박 지어 당문 안으로 붙들어들고 엄하게 수죄를 한다.

“동포들은 고향과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걸고 재물을 털어서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우고 있는데 너는 똑같은 조선 사람의 종자로 왜적의 향도자가 되어 서울까지 올라갔으니 네 죄를 내가 알겠느냐.” 공가는 벌써 형세가 그른 것을 알자 벌벌 떨면서

“그저 미옥한 놈이 죽을 때라 잘못 했습니다.”

손이 닳도록 싹싹 빈다.

“이놈, 벼슬! 그래 이번에 네가 무슨 벼슬을 했느냐? 경주부윤이나 밀양부사냐?”

공가는 곱 장군이 어떻게 제 처자에게 편지한 사연까지 아나 하고 얼굴이 화끈하고 무안에 취하여 시 빨게졌다.

“이놈아 감투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냐? 왜놈에게 붙어서 나라를 팔아먹어가며 감투를 소원한단 말이나, 너 어

디 이놈 감투 맛 좀 보아라!”

곽재우는 눈을 흘겨 부르르 떠다. 치가 떨리는 모양이다. 눈에 불이 번쩍 번쩍 일어난다.

다시 좌우를 돌아보아 영을 내린다.

“이놈의 목을 베여 삼군에 효수시켜라!”

결안한 명령이 떨어진다.

공가는 얼굴이 새 파랗게 질려서 군사들에게 등치를 몰아 행형장으로 끌려간다. 공가의 목이 떨어진 뒤에 곽재우는 좌우를 돌으며

“버러지 같은 것을 죽인 대야 무엇이 시원하랴 마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질서 없는 어지러운 이 틈을 타서 별의별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 아니 죽이고 어찌 하겠냐.”

결결 웃으며 탄식한다.

이때 적병의 말굽이 삼천리에 가득하니 하대를 받던 종의 결지와 무식하고 요량 없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아주 거꾸로 뒤집힌 줄 알고 왜적에게 붙어 날뛰던 자도 적지 않게 많았던 때문이다.

정유년에 왜적이 다시 쳐들어오니 홍의장군 곽재우는 창녕 화왕산성(火旺山城)에 진을 치고 적을 다시 막아 대었다.

이때 곽재우의 사촌형 곽재겸(郭再謙)과 그의 삼촌도 의병을 일으켜서 화왕산성에서 적병을 함께 막고 있었다. 곱 씨의 일문이 모두다 의병을 거느려 국난에 몸을 바치려는 것이다. 곽재겸은 한강 정구(寒岡鄭述)의 제자로 세상 공명의 뜻이 없어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경전을 연구하는 것을 낙을 삼아 제자를 가르치고 있다가 동강 김우옹(東岡 金宇顛)의 천거로 나라에서는 참봉벼슬을 제수했으나 그는 벼슬을 받지 않고 부임하지 아니했던 깨끗한 선비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니 초토사 김성일을 찾아서 왜적을 막을 계획을 지시해주고 다시 의병을 일으켜 아우를 도와주려 삼촌 곽준과 함께 창녕 화왕산성을 찾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창녕을 제일선으로 곱 씨네 이름이 쇄상우도의 방파제(防波堤)가 되어 왜적을 사수(死守)하여 막아 낸다.

물밀듯하는 적병들이 화왕산성으로 육박해 들어오기 시작하니 산성 안에서는 벌벌 떠는 군사가 많았다.

곽재우는 낮에는 기치, 창검을 성에 가득히 꽂아 바람에 펄럭거리게 하고 밤에는 횃불로 불야성을 일으키게 한 뒤에 풍악을 잡혀서 산성 안이 화기 속에 휩쓸리게 한 뒤에 장대위에 앉아 여러 장수들과 함께 웃으면서 태연히 이야기한다.

“왜적들도 만일 병법을 아는 놈이라면 감히 화왕 산성을 범하지 못하리라.”

든든하고 태연스러운 홍의장군의 한마디 말이 군사들의 귀로 들어가니 흔들리던 군사들의 마음은 장수를 믿어 반석 같이 갈아앉아버렸다.

왜적들서 창녕으로 물러들어 화왕 산성의 진용을 바라보니 군기가 엄숙하고 질서가 짜였는데 진중에서는 풍악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고 있었다.

왜장은 보발을 띄워 누가 의병대장인 것을 사실해보니

“천강홍의장군이라고 칭하는 의병 대장 곽재우라는 것이다. 왜장들은 곽재우 소리를 듣자 슬며시 군사를 돌려서 강을 건너 남원(南原)으로 넘어가버린다.

곽재우의 무서운 선성은 적장들의 귀에 젖도록 들려져서 화왕 산성은 마침내 싸우지 않고 적의 예봉을 돌리게 했던 것이다.

남원이 적의 손에 함락되자 경상우도 여러 진이 바람에 쓸리듯 몽그러져 버리고 오직 창녕 의령 삼갑천 등 곽재우가 의병을 거느리고 있는 곳만이 성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임금의 몸을 대신해 내려온 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곽재우의 의병들이 의롭게 있는 것을 염려하여 “군사가 외로우니 의병을 해산 시키게 하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홍의장군은 분명히 하발 말을 달려 체찰사에게 항의를 제출하고 화광산성을 더욱더 사수할 것을 주장한다.

“당나라 군사 백만명이 고구려 우리 겨레를 무찌르려 들어 왔을 때 안시성(安市城)의 양만춘(楊萬春)이 봉황성(鳳凰城)에 있어서 적의 대군을 막아냈고 제(齊)나라 칠십 여성이 다 몽그러졌어도 즉묵(卽墨)이란 골만이 우뚝이 남아있었던 것이 되고 모든 고을이 비록 몽그러졌다하오나 곽재우의 의병만이 의연히 남아서 성을 지키지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홍의장군은 꺾끗이 항의를 한 뒤에 의병을 해치지 않고 완강히 화광산성을 최후까지 지키었다.

임진왜란 피비린 내나는 칠년 큰 난리가 바람같이 지나간 뒤에 곽재우는 의병들을 해쳐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아들과 조카들과 함께 손수 패랑이(平陽子)를 만들어 이것을 장에 팔아 살아가는 생계를 삼았다.

이 소문은 조정으로 들어갔다. 조정에서는 곽재우가 기록한 공훈을 생각해서 통정대부 성주목사를 시켰다. 그러나 그는 벼슬을 받지 아니했다.

자질과 친구들은 그의 뜻을 모르고 “벼슬들을 좋아 하는 세상에 나라에서 벼슬을 주어도 받지 아니하시니 웬 일이시오니까.”

곽재우는 빙그레 웃었다.

“자네들이 세상일을 모르는 말일세. 이제 대적이 다 평정되었으니 나는 소용없는 사람이란 말야. 이제 부터 나는 경치 좋은 산수 간으로 방랑이나 하면서 한 평생을 평안히 보내려네.”

이렇게 해서 곽재우는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이십여 년을 살다가 신선과 같이 와석종신(臥席終身)을 하였다. (끝)



<소설(小說)>

## 이식(李植)과 도승(道僧)

고(故) 윤백남(尹白南)

### 1

놀라운 실정과 횡포로 민심(民心)을 잃고 있던 광해조(光海朝)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 할것 없이 기가 죽고 풀서 삭아 이르는 곳마다 침체한 기운이 음산하게 떠도는데 저평(低平)읍 백아곡(白鵝谷)에 있는 이식(李植)의 집 넓은 바깥마당에는 여덟 살로부터 열아 문살쯤 되어 보이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의 한 떼가 싸움 장난에 열중하고 있다.

돌을 모아다 성을 쌓고 홍백군에 갈리안 두 패가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나무 막대기로 된 칼들을 휘두르며 와야 몰려갔다가 또 다시 우우 몰려오고 어린 목이 찢어져라고 고함을 지르며 놀이하는 모양은 비록 어린 아이들의 장난이지만 입에 침을 삼키게 해주었다. 이때 얼굴이 맑고 눈이 영특한 한 소년이 옆에 책을 끼고 들어오다가 아이들이 왁자하고 떠드는 것을 보자 약간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그냥 안으로 들어가라 한다.

그럼이 소년은 누구인가. 곧 이집의 어린 주인 이식(李植) 그 사람이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남의 집 마당에다 돌을 쌓고 금을 긋고 한 것이 어린 마음에도 미안하였던지 장난 하던 아이들은 민망한 듯한 표정을 짓고 흠금

홀금 식이를 쳐다보며 흥이 깨어진 모양인데 그 중에도 똑똑해 보이는 한 아이가 앞으로 나서며,

“이에 너도 용문산(龍門山) 스님에게 글 배우러 갔었나 보구나.”하고 아침하듯 웃었다. 식이는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며 긍정하는 뜻을 표하니 그 아이는 역시 웃으며

“너도 책 두고 나아온 우리하고 놀자”한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참 재미있단다.”

“그래 여간 기쁘지 않아 애.”

“얼른 나옴!”

하며 충동하니 식이는 낯을 붉히며 고개를 흔들니 그것은 그가 비겁하거나 그 같은 놀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몸이 약질이라 아이들 틈에 섞이어 놀지 못하는 까닭이었다. 과연 그의 얼굴은 맑고 준수하기는 하나 소년다운 혈색이 없이 오직 창백할 뿐이오 손 팔 역시 피부 속을 달리는 정맥(靜脈)이 드러다 보일 만큼 투명할 지경이다.

고개를 내젓는 식의 모양을 훑어보던 아이들도 그가 그같이 격심한 장난을 감당할 수 없음을 느꼈던지

“그럼 우리끼리 놀자.”

“그래 막 재미있는 판에 깨여졌구나.”

하고 다시 장난할 차비를 하고 혹 어떤 아이는 그래도 미안한 듯이

“너의 집안을 더럽혀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따 말장 하게 해 놓을게 응”하며 저편으로 달려간다.

이식은 다시 한 번 그들의 모양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는 바깥대문을 지나 내실 중문을 들어서니 안방에서 문을 열고 앉아 비종들에게 무슨 분부를 나리고 있던 그 모친이 반겨 마루로 나오며

“글 다 배웠니?”하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는 피곤한 듯이

“네.” 대답하고 안방에 들어와 꿇어앉으니 그 모친은 매일 하는 대로 그날 배운 대목을 외우게 하였다.

단정히 꿇어앉아 한마디의 그침도 없이 내려 읽는 것을 보고 아들의 총명스러운 태도에 깊이 흠족하였던 모친 흥 씨는 식이 그날 배운 바를 다 외우고 피곤한 듯이 물러앉았을 때 저도 모르게 비감한 생각이 바람같이 스며들었다.

“저같은 외모 저 같은 총명을 가진 아이가 어찌하여 그렇게 몸이 약할 고.”

흥 부인은 외로이 탄식한 후 비종 한사람에게 명하여 정성스럽게 다려 두었던 보약을 저으라고 명령하였다.

비록 토반이라고 하나 원래 가세도 부유하고 사람들이 착하고 어질어 마을의 존경을 일신에 모으고 있는 이집 안에는 아무 근심 걱정이 있을 리 없었으나 늦게 얻은 아이요 더욱이 외아들인 식이가 항상 몸이 약한 것만이 걱정거리였다.

그러므로 흥 씨 부인은 어떻게 하면 식이의 몸을 건강하게 해줄까 하고 주야로 뇌심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약한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당연한 걱정이라 식이도 자기의 허약함이 그렇듯 어머니의 걱정거리가 되는가 생각하니 죄송하고 민망하여 약사발을 놓자 목소리를 가다듬어

“어머니!”

하고 공손히 불렀다.

“왜 그러느냐.”

근심스러운 모양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모친이 대답하자

“어머니께서 항상 저의 허약한 것을 근심하셔서 불안하신 중에 계시니 뉘기도 송구하거니와 저 역시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약질을 면할까하여 항상 유념하고 있었는데 오늘 용문사에서 글을 배우다가 문득 생각하니 여러 중들이 목탁을 두드리고 진령송경(振鈴誦經)을 하고 있는 것이 펍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하더니 잠깐 말을 끊고 주저한다.

부인은 갑자기 불편한 생각이 나서

“그러나 네가 중이 되겠단 말이야 아니겠지.”

하고 안색이 변하니 식은 웃으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단 말이나. 네 나이 아직 십여 세에 그 처럼 중들의 하는 모양이 좋아 보인다니 아마 네 몸이 약함으로써 생기는 자격지심인가 보다.”

모친의 말은 비감하였다. 식은 송구하여

“어머니 저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올시다. 오늘 문득 생각나기를 용문사같이 경치로나 지리로나 훌륭한 절에서 여러분 고승(高僧)을 모시고 몇 달이나 몇 해를 지나고 보면 필시 몸도 많이 건강해지고 학업도 심히 진취할 것 같은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그러하니. 어머니께서는 잘 생각해 보셔서 그 절에 가 조양(調養)케 하도록 해주십시오.”하였다.

부인은 듣고 보니 아들의 말이 과연 그럴듯하기도 하나 로래에 있는 외아들을 슬하에서 떠나보내기가 언짢아서

“오냐 너의 아버님께서 들어오시거든 의논을 하여 작정하자.”

하고 말머리를 꺾은 후

“밖에서 동리 아이들이 또 장난하나 보더라. 너도 나가 즐거이 놀기나 하렴.”

하는 음성에도 자애가 뚝뚝 뒹고 있었다.

식은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여 온건한 태도로 그 앞을 물러나오는데 아들의 실버들처럼 연약하고 창백한 뒷모양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흥 씨는 홀로 탄식한다. “경사에서 호화롭게 지냈던 우리 집안이 벌써 하향한지 사대나 되어 그 동안 국록을 먹지 못하였다고 어른들께서는 항상 서운해 하시었다. 그러나 저 아이가 다행히 영리 총명하여 온 마을의 칭찬을 한 몸에 모으고 있었으니 저의 어른께서도 어떻게 하던지 우리 식이로 하여 다시 우리 문호(門戶)를 크게 일으키고저 바라시는 모양이나 저렇듯 몸이 약하니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비종의 한사람을 불러서

“도련님께서 즐거이 노시는지 동정을 엿보고 오라.” 명령 하였다.

그러나 사환은 다시 들어와 아뢰기를

“도련님께서도 한편 구석에 비켜서서 구경만 하시는데 꼭 무슨 걱정이 계신 것 같이 잔뜩 찌푸리고 있사옵니다.”

하니 부인은 그만 가슴이 답답하여

“참 어떻게 하던지 도리를 채려야겠구나.”

하고 그날 밤 부친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일로 의논하였다.

“영감 식이가 낮에 말하기를 용문산에 들어가서 조섭했으면 좋겠다는데요.”

아버지의 미간에는 의아해가는 주름살이 가늘게 잡혀 있었다.

흥 씨는 낮에 아들에게서 들은 바 이야기를 되풀이 한 후

“나의 생각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마는 글썸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씻는다.

“올 것이야 무엇 있소. 식이의 건강에 대하여는 나도 익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부친도 그 어머니와 못지않게 아들의 약질을 염려하였던 터이라 늙은 두 양주는 저녁 먹을 것도 잊고 주머니 받거나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그러기로 합시다. 다행히 그 절에는 고승도 계시고 하니 학업까지 자연 진취할 줄 아오.

하고 단정하였다.

부인은 자기가 먼저 제안한 바이지만 막상 이렇게 결정을 짓고 보니 자연 마음이 창연하지 않을 수 없어

“참 신명도 야속하시지. 그것을 슬하에서 기르지 못하고 떠나보낸 후 우리 두

늙은이가 또다시 앙상하게 남겠구려.”하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세상에는 죽어 떠나보내는 수도 있는데.”

꾸깃듯이 말하는 영감의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다.

## 2

이렇게 하여 이삭은 소망하였던바 용문사에 기식하여 몸을 조양하는 한편 학문을 닦게 되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용문사의 수림 중을 거닐다가 근처 맑은 시냇가에서 정히 세수하고 나면 곧 아직 재(齋)에 쇠북 소리가 땅땅 울려온다.

글 읽는 중들의 경근한 태도며 가슴을 파고드는 뜻 깊은 설법은 식의 마음에 한 가지씩 수양을 더하여 주었고 규칙적인 생활과 맑은 공기는 그의 약하던 몸을 점점 건강하게 해갔다.

더욱이 스승 되는 유념(惟念) 노승은 학식 깊고 덕 높아 식에게 많은 감화를 주니 식은 또한 그를 부모같이 공경하고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하여 어언간 육년이 흘러가자 식의 나이 열여섯 살이 되어 건장한 흥안소년의 풍이 나며 학문도 모든 기초 지식을 펴하고 주역(周易)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뜻이 깊고 오묘하여 침잠연구(沉潛研究)하나 오히려 깨닫기 어려운 중 설상가상으로 스승 되는 유념이 노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식은 몹시 비통해하나 역시 밤마다 촛불을 돋우고 늦게까지 열심히 독서하는데 그 스승이 차마 보자 못하여

“그만 자라.”

하고 간절히 이르나 듣지 않고

“내가 오늘날 근 십년을 대사에게 글을 배우고도 아직 의심되는 점을 다 못 깨달았거든 이제 대사 중병에 처해 있으니 욕심내어 한자라도 더 알려 하지 않고 어이하겠소.”

하고 굳이 고집하며 어떤 때는 밤을 새우는 일조차 있었다.

유념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만물이 모두 스승이오. 비록 금수 잡목에까지도 배울 것이 있거든 어찌 이 몸에 가고

몸을 근심하리오. 그러하니 이 몸이 왕생극락한 후에도 결코 낙망하지 말고 만물 만사에서 배움을 받으라.”

하고 훈계하였다.

식은 존경하는 스승의 부탁이라  
“그리 하오리다.”

대답하여 유념을 안심시키고 자기도 정말 그 같은 생각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뜻을 머금었으니 몇 날 더 지난 후

“다시 한 번 부탁하는 것은 세상 어떤 사람에게든지 배울 생각을 하고 남을 업  
신여기지 말라”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유념은 숨이 끊어졌다.

이식이의 비통이 오죽하였을까. 여러 중들의 슬픔과 인근 동네사람들의 애석  
해 하는 가운데서 그의 장례는 굉장하게 마쳤다.

용문산록 좋은 땅을 가리어 안장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평정상태로 돌아  
왔건만 한창 향학열(向學熱)이 불타고 있던 지도자를 잃은 식은 문득문득 스승  
의 그리움을 참지 못하였다.

연구하여도 연구하여도 깨달을 수 없는 심오한 학리 - 그는 여러 중들이 깊이  
잠든 숨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등불을 돌우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날도 그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못 중들  
은 모두 노곤하여 정신없이 잠에 취하여 있고 사방은 적막하여 들리니 개울물  
의 졸졸 하는 음향뿐인데 벽에 기대어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었던  
그는 문득 어떤 승의 깔깔하고 혀 차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히 생각하여 그 편으로 고개를 돌리니 이때까지 눈에도 띄이지 않았던 한  
남루한 부목승(負木僧)이 식의 등불에서 흐르는 여광(餘光)에 비추어가며 자기의  
남루한 누더기 옷을 기우며 그같이 혀를 차고 탄성을 발하는 것이었다.

이식은 처음 업신여기는 생각이 나서

“아마 제 신세타령을 하고 혀를 채이는 것이겠지”하고 자기의 사색(思索)에 방  
해되는 그 행동을 분개하였으나 곧 다시 측은한 생각이 들며

“신세타령도 날만하지. 저 늙은이가 종일 그 많은 나무를 다 해대이고도 여태  
까지 누더기를 기워야하니 다른 사람이 보아도 가없구나.”

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부목승의 탄식은 그가 생각한바와 같이 간단한 의미가 아니었다.

승은 힐끗 식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모양에 아마 잠들은 줄 알았  
던지 혼잣소리같이 중얼거린다.

“연소한 서생(書生)이 끊임없는 생각으로 연구하고 애

쓰나 깨닫는 바가 지극히 적은 모양이니 참 가없다. 저 젊은 심력을 헛되이 허  
비하는 것이 보기 딱하지만 바로 알려주지 못하니 더욱 딱하구나.”

이식은 그 소리를 듣자 그만 급한 성미에 빨끈 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곧 그 머리에 떠오르는 환영이 있었으니 곧 스승 유념의 모  
양이었다.

“아무리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배움을 청하라.”

하던 그 인자한 목소리였다.

식은 불쑥 내미는 성미를 꼭 눌러 참았다.

“내가 본래 남을 업신여기는 성질이 있거든 그러므로 스승께서도 특히 이일로  
경계하셨거든.”

하고 그는 여전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부목승은 아직도 그를 자는 줄로만  
알고 있는지

“저 같은 성력에 좋은 스승만 만났더라면 더욱 진취할 것을 가엾은 일이다.”

하고 연해 탄식하는 것이었다.

### 3

다음 날도 이식은 새벽 일찍 수풀 속을 한 바퀴 돌고나와 근처 개울에서 얼굴  
을 씻었다. 손에 묻은 물을 배수건으로 훔치며 막 발길을 돌리려니 저편 비탈진  
언덕길로 어떤 노승이 등에 한 짐 가득 나무를 지고 비실거리며 내려간다.

아침 잤전에 한 짐 해두려는 생각이리라 약한 몸이 너무 많은 짐을 올렸기 때  
문에 그 조그만 체구는 나뭇짐 밑에 깔려버린 것 같다.

식은 가엾은 생각이 나서 얼른 달려가 메인 짐 뒤를 약간 받쳐주었다.

중은 잠시 앞으로 고꾸라질 듯이 끄덕이더니 겨우 몸을 거두고

“누구신지 고맙소.”

하고 중얼거리는데 그 말이 몹시 식이 귀에 익숙하였다.

이제는 건장하고 힘센 소년이 된 그는 두 손으로 아름 넘는 나뭇단을 번쩍 들  
어 길 위에 내려놓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노승의 손목을 탁 잡았다.

“대사 대사께서 오늘 새벽에 하신 말씀을 이 몸이 분명히 들었소이다. 대사는  
아마 내가 자는 줄 알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결코 잔 것이 아니라 사색심고(思索  
甚苦)하여 고통하고 있었던 것이오.”

하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

“유념 대사 가신 후 사방으로 스승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새벽 대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 대사가말로 필시 깊이 역리  
(易理)를 아시는 일시 분명하니 미심한 저를 일으켜주시기 원하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중은 허허 웃고

“가난하고 더러운 이 몸 같은 용승(庸僧)이 무엇을 알겠소. 새벽일은 들으셨다니 민망하오 마는 그저 서생의 몸으로 공부가 하두 각심(刻深)한 것을 보니 정신을 소모하겠기 그것을 염려하여 한 말이오.”한다.

이식은 그 말이야 들은 척도 않고 더욱 앞으로 다가서며

“그렇지 않습니다. 가뭇에 비를 기다리듯 학리에 주린 몸이니 사양마시고 해설해 주십시오.”

하나 중은 여전히 고개를 흔들고

“천만의 말이오. 이 몸은 문자(文字)라고는 본래부터 몽매하기 짝이 없는 터인데 학자 주역이라니 참말이 될 말이오.”한 후 급한 듯이 나무를 메고 가려한다. 이식은 딱하였으나 다시 한 번 유념의 훈계를 생각하고 그의 나뭇짐을 내려놓게 하였다.

“그럼 오늘 새벽에 말씀하기를 바로 일러주지 못하니, 딱하다 하셨으니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오니까.”

그가 태도를 공손히 하여 정색하고 힐난하니 그제야 중도 숨길 수 없었던지 마지못하여

“그처럼 말씀하시는 데는 더 거절할 수 없구려. 참. 이 같은 천승을 업신여기지 않고 끝까지 대접해 주시는 태도야말로 감탄할 만 하오. 그래야지 암 그래야 뜻한 바 큰 일을 성취하지.”

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만약 의심이 나는 난처가 있거든 일일이 부첨(附籤)해 두었다가 조용한 곳에서 물어주오.”하며 승낙하였다. 이식은 크게 기뻐하여

“고맙습니다. 그럼 그리하지요.”하고 몸소 나뭇단을 절간까지 져다주었다. 그 후로는 풀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표를 해두었다가 나무하는 승의 자취를 찾아 무성한 숲속이나 고요한 천변가 같은 곳에서 조용히 질문하니 노승의 대답은 참으로 미묘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 가위 사람들의 의표(意表)에 뛰어나다 할 만하였다.

이식은 마음이 여름날 냉수마신 것 같이 시원하고 하늘에 구름 벗겨진 것 같이 상쾌하여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드디어 승의 앞에 절하며

“스승으로 모시게 해주소서.”

하고 청원하였다.

노승은 몇 번이나 사양하였으나 드디어 그 열심에 탄복하여 이것을 허락하니

식의 기쁨이야 말할 것도 없을 지경이라 일개 부목하는 용승과 토반집 귀동자와 은밀한 가운데 사제의 정이 돈독하게 상통하며 그의 학문도 일취월장 놀랍게 진보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다시 일 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다음해 봄날 두 사람은 잔디 돋은 들가에 마주 앉아 한가히 종달이 소리를 들으며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야기하다가 도승은 문득 생각난 듯이 식을 돌이켜 보며

“이제 학문도 그만큼 진취하였으니 경사에 나가 과거를 봄이 어떠뇨.”하고 권하였다.

식도 진작부터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 한번 스승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던 터이라 반겨하였으나 또한 민망한 생각이 나서

“아직 현미(玄微)한 몸이 어찌 감당하오리까.”하고 사양하나 노승은 한번 웃고

“그렇지 않으니 빨리 상경하여 부모를 안심시키고 오랫동안 쌓인 불효의 죄를 풀라.”

하여 굳이 권하였다.

식도 마지못하여 행장을 수습한 후 오랫동안 같이 거하던 여러 승들에게 하직하고 스승 되는 노승에게는 절하며 하산할 새

“이렇듯 몸을 보살펴주신 은혜 차마 잊을 수 없으며 후일 입신하더라도 참으로 잊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나 스승도 그의 손을 잡은 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몸조심하라.”

하며 산문까지 따라 나와 이별을 아끼었다. 식이도 차마 떠나지 못하여 주춤거리는 데 집에서 마중 나온 비종의 한사람은

“아까부터 마님께서는 문 밖에서 도령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어서 가서 뵈옵서압지요.”

하고 무거운 듯이 집을 추스른다.

그제야 이식도 발을 떼어놓으려니 노승은 따라오며 긴한 듯이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자네에게 꼭 일러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잠깐 말을 끊는다. 식은 의아하여 다시 돌아서며

“무슨 말씀이오니까.” 물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네마는 내년 정월에는 경사로 자네를 찾아갈 터이니 그때 이야기하지.”

노승이 눈을 감고 지팡이에 의지하니 식이도 돌아보며 용문산을 떠나왔다.

이때는 곧 경오(庚午)년이라 사방에서 물러들은 늙고 젊은 선비들이 제각기 장원 급제를 목표로 삼고 온 서울은 법석통인 가운데 뜻을 세우고 과거를 보러온 식의 모양도 섞이었는데.

그는 용문산에서 스승을 하직하고 본가에 돌아와 기뻐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뵈오니 따뜻한 가정을 떠날 뜻은 없었으나 과거 보는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격조하였던 정화나 대강 풀자 곧 서울로 떠나온 것이었다.

“그때는 약한 너를 절에 보내고 방잠도 달게 자지 못하였더니 이제 네 몸이 저렇듯 건장해진 것을 보니 어디를 보내어도 마음을 놓겠구나.”

그동안 몰라보게 곱슬은 모친은 대문 밖까지 배웅하며 아들의 등을 쓸었다.

문밖 넓은 광장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모여 있어 싸움 장난을 하는데 식이는 철년 전 어느 날 어머니의 명을 받아 나왔으나 차마 그 속에 끼지 못하고 한편 구석에 쪼그리고 서서 손가락만 깨물던 자기 모양을 생각하고 감개무량하였다.

그러나 자신 있는 그는 용기가 충만하여 서울에 닿았더니, 과연 그해 문과(文科)에 장원하여 영광이 미칠 데 없었다.

곧 시골의 부모를 모셔 올리고 다시 경사의 거족과 통혼하여 일가일문이 융용하였으나 항상 잊지 못하는 것은 용문사의 스승이던 그 부목승이라

“이 영화가 모두 스님의 덕외다.”하고 용문사로 몇 번이나 찾아갔었고 사람을 보내어 수소문하였다. 그렇지만 용문사의 대답은

“그 사람은 지난봄부터 이 절에서 없어졌다.”

하는 것이 그까지 용승의 한두 사람이야 있건 없건 탓할 것이 없다는 어조이었다.

그 전갈을 듣자 식도 할 수 없이 생각을 멈추고 어서 약속한 정월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더니 과연 이듬해 정월 어느 날 표현히 그는 찾아왔다.

이식은 크게 기뻐하여 부모님을 상면케 하고 몸소 상하를 통촉하여 대접이 융숭하며 지난 일을 서로 이야기하여 정의의 끝일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삼일을 유한 후 노승은 작별을 고하니 이식이 매우 섭섭해 하며

“이 몸이 현미한 것을 오늘 날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모두 대사의 은공이라 그 고마운 정을 가실 길 없던 차이니 부디 이냥 내 집에 머무르면 평생을 의식범절 부족 없이 모시오리다.”하였다.

그러나 노승은 웃으며

“부족 없는 생활보다는 한운야학(閑雲野鶴)을 짝하여 폐갈건려(幣褐蹇驢)로

방랑하는 것이 도리어 편하오.”

하고 고개를 흔든다.

식어도 하는 수 없이

“그럼 작년 봄 이 몸에게 이르려고 하시던 것은 무슨 말씀이오.”

하니 그는 자세히 이식의 평생을 추론(推論)하고 또 말하기를

“병자년(丙子年)에는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니 공은 필시 일가를 이끌고 영춘(永春) 땅에 피하여 있으면 가히 면할 것이오.”

하며 그곳의 지리와 형태를 일러주었다. 이식은 고맙게 받들어 듣고

“그럼 또 언제나 뵈올 수 잇사옵니까.”하니 노승은 태연히

“아무 날 아무 시에 관서(關西)에서 만날 것이오.”

하고 대답한 후 또다시 표현히 가버리었다.

이식은 즉시 승의 일은 바와 같이 병자년에 피란할 준비로 영춘 땅에 집을 짓고 전장을 장만하고 하였다.

급기야 병자호란이 일어남에 일가를 인솔하고 그곳으로 피해 들어가 무사히 난리를 피하였다.

그제야 집안 식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상히 생각하여

“참 그 중이야말로 심상한 사람이 아니다.”하고들 야단이다.

그리하여 이 소문이 급기야 천문(天聞)에 까지 달하니 당시 임군이시던 인조(仁祖)께서는 어지러운 천하를 수습코자 발정까지 일으키시던 크신 어른이라 한편 호협한 기질도 계시었으므로

“그 중을 찾아내어라.”하는 명을 내리시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을 놓아 보내어도 찾을 길이 없으므로 이식은 꺾하에 이르러

“그 사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관서에서 만나기로 하였사오니 그때 신을 관서로 보내어 주시면 만나볼가 하옵니다.”

하였다.

이때 이식의 벼슬은 이조판서(吏曹判書)라 왕께서도 심히 신임하시던 까닭에 드디어 약속한바 그 날이 가까워 오자 왕은 식으로 하여금 관서로 봉사(奉使)하셨다.

그러나 다정한 공은 은사 맞기를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던 터이라 상약한 날자 안이라도 혹 만날 길이 있을까 하여 각 사찰로 두루 다니며 알아 보았으나 스승의 자취는 묘연하였다. 기어코 약속한 날이 왔다.

이날 공은 묘향산에 와 있었다.

하루해도 떨어져 저녁 기운이 묘향산의 봉우리를 휩싸을 때 이공은 두 승도(僧

徒)가 메는 담여(擔輿)에 올라 앉아 묘향사를 향해 올라가는 중이었다.

“허 믿었던 스님께서도 언약을 어기시나? 약속한 시간이 되었건만 뵙지 못하니 이런 딱한 데가 어데 있을 고.” 이식은 이렇게 탄식하며 흔들흔들 담여 위에서 줄고 있었다.

생각하니 벌써 수십여 년 전이다. 십여 세에 용문산에 들어가 유념을 받들어 섬기고 그의 최후 유언을 명심 하였던 까닭에 또한 일개 부목승을 받들어 그 은혜를 입음이 허다함을 과연 측량치 못할 것은 세상일이다. 경사로 자기를 찾았을 때에는 아직 건강 했으나 그 동안 혹 병이나 나지 않았나. 또한 죽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자연 마음이 비감해졌다.

“혹 그런지도 몰라. 아니 정령 그런 모양이지. 그렇지 않으면 만나자는 시각에 지체할 어른이 아닌 걸.” 비록 짧은 동안이나마 스승으로 진심을 다하여 받들어 본 일이 있는 그는 이렇게 노승을 믿으려 하였다.

“어느 절간 외로운 한구석에서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이로 말하면 나의 평생 은인인데……”

이렇게 거듭 생각하자 공의 눈앞에는 어떤 쓸쓸한 산사(山寺) 한 모퉁이에 쓰러져 기진해 있는 스승의 모양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며 그만 초조한 마음에 눈을 번쩍 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일가.

공은 오악 소리를 지를 변한 것을 꼭 놀루고 다시 한 번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다. 방금 자기가 타고 가는 담여에 앞잡이를 메인 늙은 노승 - 그 사람이야말로 공이 여태까지 기다리고 두루 찾던 그리운 스승이 아니었던가.

이식은 급히 담여를 멈추게 한 후 굴러 내리듯 뛰어내려와 노승의 앞에 넘죽 었다. 무엇이랴 말은 나오지 않고 반가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내려와 양협을 적신다.

“스님 웬일이오니까.”

이윽고 공의 목에서 째여 나온 소리는 이것뿐이었다. 그러나 노승은 태연하였다.

“웬일이라니, 이날 이시가 바로 공과 야속한 그 시각이 아니오. 언약한 시각에 언약한 장소에서 상봉하는 것임에 무슨 놀람이 있을 리 있겠소.”

그는 침착히 이식을 안아 일으킨 후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용문사의 부목승이 묘향사의 담여승 됴에 의아된 점이 있을 리 없거든.”하고 허허 웃었다.

돌아보니 뒷잡이를 메고 오던 동무 중은 이 의외의 정경에 놀랐음이라 녀 빠진 사람처럼 담여 뒷다리를 움켜잡고 멀거니 이편을 바라보고 섰다.

이공은 위선 스승의 아래위를 훑어 보더니 준일(俊逸)한 품이 용문사에 있을 때와 별로 다름이 없으므로 여태까지 하던 못쓸 공상을 돌이켜 생각하고 우선 안심한 후 몸소 그를 부축하여 가며 묘향사에 들었다.

그리하여 리판이 오셨다고 상하가 들끓는 속에 조용히 따로 방 하나를 깨끗하게 치우게 하고 함께 사흘을 유하며 온갖 말로 자기와 같이 상경하여 영화를 나누기를 빌었다.

“이렇게 다니시다가는 나중 외로이 임종하실지니 부디 동행하기 바라오.”

그러나 노승은 현연히 고개를 젓고

“다 천명이니 나는 천명을 봉숭할 뿐이오.”

하며 사흘 동안에 여러 가지로 도(道)에 대한 설법을 들려주었다. 공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스승의 이 가르치심을 널리 달(達)케 하오리다.”하니 노승은 다시 위로는 나라의 일로부터 아래로는 가사(家私)에 대한 것까지 여러 가지로 미리 말하여 준 후

“이 말대로 행하면 길이 평안히 있을 것이오.”하고 공의 손을 어루만지었다. 이렇게 하여 사흘째 나던 날 그는 또다시 훌훌히 떠나려 하는 고로 이식은 “그림이 다음에는 어데서 만나 주시겠습니까.”하고 물으니 노승은 슬픈 듯이

“이게 마지막이오.”하며 고개를 숙이었다.

X X X

묘향사에서 최후로 스승을 이별한 이식 공은 다시 상경하여 그 뜻을 왕께 사뢰고 노승의 일러준 바를 전갈한 후 배운 도를 퍼뜨리니 깨닫는 자가 많았다.

이 이식 공은 자를 여고(汝固)라 하고 호를 택당(澤堂)이라 하였으니 곧 문정공(文靖公)이란 시호(諡號)를 가지신 어른이다. (끝)



<소설(小說)>

## 정복(征服)되지 않는 인민(人民)들 (완(完))

W 서머싯 몸

이기석(李基錫) 역(譯)

쁘리에 마나님은 격분을 참지 못했다.

“그럼 뱃속의 자식은 어떻게 썩이나? 물론 강제로 당했다고는 하지만 더구나 그땐 그가 취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여자가 처음 당하는 일도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 당하는 일도 아닐 것이니라. 그자가 너의 아버지를 때려눕혀 도야지 처럼 피를 흘리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는 어디 그자에게 악의를 품더냐?”

“그건 참 불쾌한 사건이었지만 이제 난 다 잊어버렸다.”하고 뿌리에 영감은 말했다.

아네트는 거친 웃음소리를 터뜨리었다.

“아버진 목사가 되실걸 그랬군요. 상해자를 진짜 기독교 정신으로 용서해주시니.”

“그래 그게 뭣이 나쁘단 말이나? 그자는 속죄를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하지 않더냐? 그가 없었던들 너의 아버지가 여태 어디서 담배 한 꼬치 얻어 피웠겠느냐 말이다? 우리가 굶주리지 않았다면 그게 다 뉘덕인 줄 아니?”하고 뿌리에 마나님은 화를 냈다.

“어머니가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다면 그놈의 선물을 그놈의 상관대기에 던져버려야 해요.

“넌 그 물건 혜택을 안 받은 줄 아니 응?”

“절대 안 받았어요. 절대 -.”

“거짓말 마라 뻘히 알면서. 넌 그가 가져온 치즈, 버터, 정어리 통조림은 먹기를 거부해 왔지만 너 아다시피 네가 여태껏 마신 스프는 그자가 가져온 고기를 넣고 끓인 게 아니었더냐. 또 네가 오늘 밤에 사라다를 날로 먹지 않은 것도 그가 가져다준 기름 덕분이 아니냐 말이다.”

아네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한손으로 눈물을 훔치었다.

“알고 있었어요. 난 먹지 않으려 애썼으나 너무 배가 고파서 하는 수 없었어요. 그래요 그자가 가져온 고기가 국속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난 그것을 먹었어요! 그 사라다가 그놈이 가져온 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안 먹으려 했으나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 그것을 먹은 건 내가 아니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기결증이 걸린 짐승이었어요.”

“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넌 그걸 먹었으니까.”

“창피하고 실망할 뿐예요. 그자들은 먼저 탱크와 비행기로 우리의 군대를 격파 해놓고 우리가 무력해진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굶주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때려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극에 나오는 말은 해서 무슨 소득이 있단 말이나 애야. 교육받은 여자치고는 넌 정말로 지각이 없구나.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 일꾼 둘 묶은 단단히 할 사람이니 아무 말 말고, 공연히 네 자식 애비 없는 자식 만들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각이니라.”

아네트는 성가시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 치켜 올리더니 다시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이튿날 한스가 왔다. 아네트는 실쭙한 낯으로 대할 뿐, 함구불언하고 꼼짝도 안 했으나 한스는 생글생글 웃어보였다.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소.”하고 그는 말했다.

“부모님들은 당신을 청해 놓고 동리로 나가버리셨으니 당신과 명백한 얘기를 하고 싶던 차 잘 됐어요. 앉어요.”

그는 코트와 헬멧을 벗고 테이블 앞에 걸터앉았다.

“부모들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신은 약은 짓을 해왔습시다. 선물과 갖은 감언이설로써 두 늙은이를 녹여버렸어요. 늙은이들은 당신이 가져다 준 그 잡지에서 읽은 것을 모두 다 믿고 있어요. 난 당신과는 결혼할 의

사가 없다는 것을 당신께 일러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듯이 인간을 미워한 적은 없었어요.”

“독일어로 말하겠습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물론이죠. 전 독일어 교사를 했으니까요. 이년간 슈타트가르트에서두 여학생의 가정교사 노릇을 했었으니까.”

그자는 독일어로 시작했으나 처녀는 불어로 계속했다.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숭배하고 있어요. 난 당신의 높은 품격과 송죽 같은 절개를 숭배합니다. 당신은 내가 알아 맞출 수 없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는 것 입니다. 난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오, 그것이 가능한 지금에 와서 까지도 당신이 나와 의 결혼을 원치 않으리라는 것도 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이 이야긴 말아요. 정말 못 참겠으니.”하고 처녀는 격렬한 어조로 외쳤다.

“그가 돌아가서 안됐다고 당신을 위하여 산 말할 따름 입니다.”

“독일놈 감시원 손에 무참히도 사살 당했지.”

“조만간에 그의 죽음을 과히 슬퍼하지 않을 때가 아마 올 겁니다. 알겠어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는 못살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슬픔을 이겨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뱃속의 아이에게 아버지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보다 좋지 않을까요?”

“당신이 독일인이고 내가 불란서 여자라는 것을 아무려면 내가 잇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인의 부속물인 우지(愚知)를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내게 대한 비난의 씨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게는 동무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독일병정과 만든 아이를 다리고 내 어찌 그들 동무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당신께 단 한 가지 청하고 싶은 것은 더럽혀진 이 몸을 그냥 내버려 뒤 달라는 거예요. 가 줘요 가요 - 제발 좀 가 줘요. 그리고 당신 오지 말아 줘요.

“그래두 그 애는 내 자식이 아뇨? 난 그 애가 귀여워.”

“뭐라고? 미친 개 모양 술 취해가지고 만든 사생아를

당신이 참 그리 대단히 여길 게 있느냐 말야?”하고 처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심정을 몰라. 난 자랑스럽고 행복해. 난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안 그때부터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어서 처음에는 난 믿을 수가 없었어. 내 심정을 알겠어? 세상에 나올 아이는 내 전 세계와도 같애. 오오, 이 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른지? 나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내 가슴

속에 싹터 나온 거야.”

처녀는 한결같이 그자를 바라보았다. 두 눈에는 이상야릇한 빛이 감돌았다. 승리의 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야릇한 빛이었다. 처녀는 짙막한 웃음을 던지고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네들 독일군의 야만성을 이 이상 더 미워하기도 싫고 썬치멘탈을 경멸하기도 싫어요.”

그자는 처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난 늘 아들 생각을 하고 있어.”

“별서 아들로 정해 났군요.”

“아들 일 짓을 난 알고 있어. 난 그놈을 안아주고 그 놈에게 걸음마를 가르켜 주고 싶어. 그리고 그 놈이 자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싶어. 승마 사격도 가르치고. 이곳 강에 고기가 있는지(?) 낚시질도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보겠어.”

처녀는 무섭고 무서운 눈으로 그자를 쏘아보았다. 딱딱하고 엄준한 표정이었다. 어떤 생각, 몸서리치는 어떤 생각이 여자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었다. 그자는 처녀에게 흉금을 터놓은 미소를 보였다.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눈으로 본다면 아마 당신도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당신의 훌륭한 남편이 되어보고 싶다는 거야 알겠소. 여보오.”

처녀는 말없이 음울한 표정으로 그자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게 한마디의 상냥한 말도 안했지?”하고 그자는 말했다.

처녀는 낮이 빨개지며 두 손을 짝 움켜쥐었다.

“남들이 날 멸시할 거야. 난 내 스스로를 멸시하는 것은 못해. 당신은 내 원수야. 영원히 원수일거야. 난 불란서의 해방을 꼭 보고 죽을 테야. 해방은 반드시 올 테니까. 내년, 내후년 아니 내내 후년에는 아마 해방이 올꺼야. 남이야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상관없지만 난 우리 나를 침략한 자들과 타협할 수 없어. 난 당신을 미워하며 당신이 내게 배계 한 자식을 미워해. 그래, 우린 전쟁에 패했지만 끝장이 나기 전엔, 우린 정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아 어서가요. 내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 이 거룩한 땅위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변경시킬 건 없어.”

그자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병원에 가서 날 준비를 했는지? 비용은 내가 다 부담 할 테야.”

“우리가 이 수치를 동내방내 퍼트리고 다니고 싶어 하는 줄 알어? 모든 필요한 해산 처리는 어머니가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지?”

“당신 일이나 걱정해요!”

그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그자가 문을 닫고 나가자 처녀는, 그자가 오솔 길을 걸어 행길로 내려가는 모양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라면 그자에게 여태껏 느껴진 일이 없는 이상한 감정이 가슴에 떠오르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분통한 일이었다.

“오오 하느님,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하고 처녀는 외쳤다.

잠시 후, 그자가 걸어 나가는 것을 보자 개( - 몇해씩 집에서 기르고 있는 늙은 개 -)가 그자에게 달려가 노기 뒹뒹한 목청으로 짖어댔다. 그자는 몇 달을 두고 그 개를 달래 왔으나 개는 도무지 그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자가 어루만져 주려 하니 개는 으르렁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치면서 잇발을 내밀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자에게로 달려들었다. 한스의 머리에는, 이놈의 개를 분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만적이고 무참하게도 그자가 발길로 개를 질러버리니 개는 수풀 속으로 나가떨어지며 다리를 절룩절룩 하구 캱캱거리며 저리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개 같은 것.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거짓말 - 그자에게 동정이 간 건 내 마음이 약해진 탓이야”하고 처녀는 외쳤다.

문 앞에 걸려있는 거울 속에 자기 꼴이 비치었다. 몸을 곳곳이 펴고 거울 속을 드러다 보며 미소를 던졌다. 아니 미소라기보다는 귀신 같이 얼굴을 찌푸려 봤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때는 삼월. 쏘와송의 주둔병 간에는 한바탕 활기가 떠올랐다. 매일같이 사열을 받고 맹훈련이 벌어졌다. 갖은 소문이 자자했다. 병졸들은 제멋대로 이동지(移動地)를 추축할 뿐이었다. 결국 영국을 침범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발칸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떠드는 자도 있었다. 또 우크라이나라고 외치는 자도 있었다. 또 한스는 내내 바빴다. 둘째 공일 오후에야 비로소 이 농가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진눈깨비 나리는 춥고 어두운 날씨였다. 한바탕 바람이 일면 금방 눈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었다. 불란서란 나라 그 자체까지도 음울하고 무시무시한 표정이었다. “당신이구려! 우린 당신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하고 브리에 마나님은 막 집안에 들어선 그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전변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곧 이동할 겁니다. 확실한 시긴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순산했다우. 아들이야.”

한스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크게 뛰놀았다. 두 손으로 마나님을 크게 얼싸안고 두 뺨에 마구 키스 했다.

“주일날 난 아이니까 다복할 겁니다. 삼페인으로 축배 올리시죠. 근데 아네트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상과 같이 양호해요. 아주 순산이었어. 어제 밤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 다섯 시에 해산했어요.”

브리예 영감은 난로에 될 수 있는 한 바짝 붙어 앉아서 곰방대를 피어 물고, 아들이라고 떠들어 대는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더니,

“첫 아이란 가문에 영향이 큰 법이라네.”하고 말했다.

“애기는 꼭 당신 닮아 솟이 많은 금발이에요. 그리고 눈도 당신 말씀 마따나 푸르고. 그렇게 귀여운 애긴 보다 처음이에요. 꼭 아버지 닮았어.”하고 브리에 마나님은 말했다.

“오호 하느님, 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얼마나 예쁜 놈일까요! 아네트가 보구 싶다”하고 한스는 외쳤다.

“그 애가 당신을 만나려 할른지? 흥분시켜주고 싶지 않아요. 젖이 안 나면 큰 일이나까.”

“아니 아니, 나 때문에 산모를 흥분시켜서는 안 되죠. 날 만나기 싫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애기만 은 잠깐 보여주십쇼.”

“어떻게 해 보리다. 애를 이리 내려오도록 하지요.”

브리예 마나님은 방밖으로 나갔다. 무거운 절음거리로 층계를 쿵쿵하고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쿵쿵하고 되내려오는 소리가 났다. 부엌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아무도 없어. 산모가 방에 없어요. 갓난애도 없구.”

브리예 영감과 한스는 놀랜 목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 셋은 어느 겨를에 이층으로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갔다. 겨울과 거친 오후 빛이, 방안의 낡은 살림살이와 쇠 침대와 값싼 장롱과 껌껌하고 천박한 서랍장을 비칠 뿐 방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애가 어디로 갔을까?”하고 브리에 마나님은 얼뎠 목소리를 질렀다. 마나님은 좁은 복도로 뛰어가 문을 열고 딸의 이름을 불렀다.

“아네르야 아네토야. 에그 무슨 미친 짓이나!”

“응접실에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비어둔 응접실로 뛰어 내려갔다. 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부닥쳤다. 광문도 열어봤다.

“그 애는 밖으로 나갔나봐. 끔찍한 일이 났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하고 근심에 죽을상이 된 한스가 반문했다.  
 “앞문으로 나갔어. 모두들 정신 빠졌군.” 브리에 영감은 앞문으로 가 봤다.  
 “맞았어. 빗장이 베껴졌어.”  
 “오호, 하느님 하느님. 무슨 끔찍한 짓이람!” 그 애는 죽어요 죽어.”하고 브리에  
 마나님은 외쳤다.

“따님을 찾아내야지요.” 하고 한스는 말했다. 그자는 늘 드나들던 부엌으로 본  
 능적으로 뛰어 들어갔다. 모두 그자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어느 쪽으로 갔을까?”  
 “개울로.”하고 마나님이 허덕이었다.

그자는 공포에 쌓여 화석이 된 것처럼 가만히 서서, 뉘 잃은 마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요망스런 생각이 들어. 요망스런 생각이.”하고 마나님은 외쳤다.

한스가 문을 짝 열어 젖혔다. 이때 아네트가 들어왔다. 아네트는 잠옷에 얇은  
 레이온 가운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누르스레한 바탕에 시퍼런 꽃무늬가 놓인  
 가운이었다. 몸은 흠뻑 젖어 있고, 머리칼은 흩어진 채로 젖어서 머리에 찰싹 붙  
 은 것이 구지레하게 가닥 가닥으로 어깨 위에 떨어져 있었다. 얼굴은 죽은 사람  
 처럼 창백했다. 브리에 마나님이 딸에게로 뛰어가 두 팔로 껴안았다.

“어디 갔었니? 오호, 가엾은 자식. 몸이 흠뻑 젖었구나.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그러나 아네트는 어머니를 밀어 제쳤다. 한스가 눈에 떠었다.

“응, 너 참 잘 왔구나, 너-”

“얘기는 어디 있니?”하고 브리에 마나님이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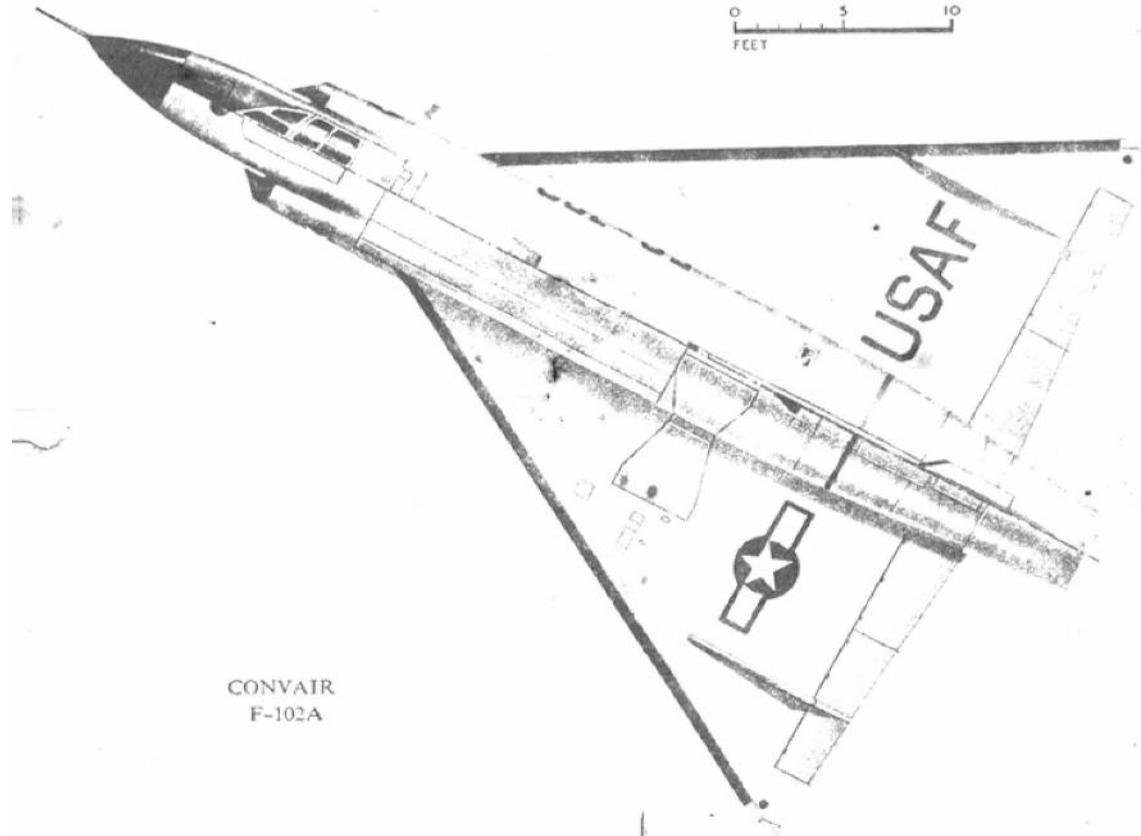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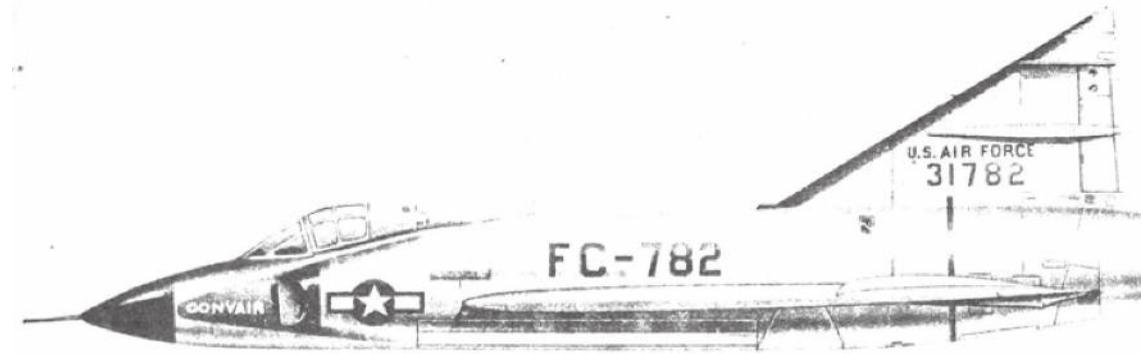
“즉시 해치우는 수밖에 없었어. 시간이 지나면 용기가 안 날까 두려웠어.”

“아네트야, 어떻게 했던 말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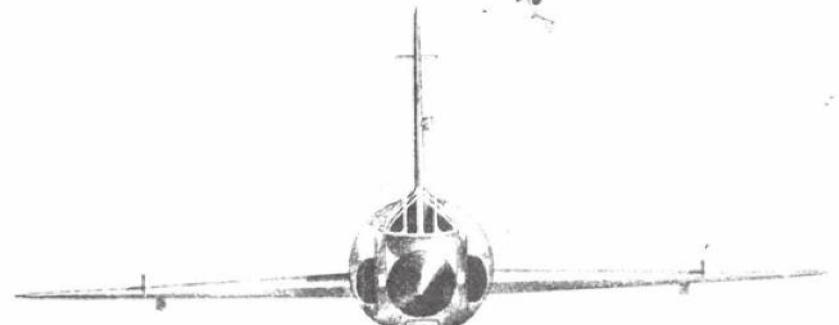
“마땅히 해버려야 할 짓을 난 했어요. 그 자식 개울물에 담겨 죽여 버렸어 -”

한스는 큰 소리를 질렀다. 치명상을 입은 동물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얼굴  
 을 두 손으로 가리고 술 취한 사람 모양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어 나가버렸다. 아  
 네트는 의자에 주저앉아 이마에 두 주먹을 대고 미칠 듯이 울음을 터뜨리었다.

(끝)



CONVAIRE  
F-102A



# 코메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發行) 겸(兼) 편집인(編輯人) 공군대령(空軍大領) 이종승(李鍾勝)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중령(空軍中領) 이계환(李繼煥)

祝 發 展

教 養 誌 육 군  
教 養 誌 해 군

THE COMET

#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